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7권 제4호 (통권 93호) / 2022. 12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4호 (통권 93호), 2022년 12월호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기독교청소년의 학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해석적 교리교육연구 | 강미랑
A Study of Interpretive Catechesis for the Integration of Schoolwork and Faith of Christian Youth | Mi Rang Kang
- 033 현대미술과 종교 다원주의- 빌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를 중심으로 | 심상용
Contemporary Art and Religious Pluralism- Through Bill Viola's Video Art | Sang-Yong Sim
- 055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 | 김철수
The Image of Christ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 Cheol-soo Kim
- 083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 전윤조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Life and Ministry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 Youn-Joe. Jeon
- 121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한 기독교 청년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 조성봉 / 이수민 / 강병덕
Latent Profile Analysis of Perceptions of Sexual Behavior among Unmarried Young Christians | Sung-Bong Cho / Soo-Min Lee / Byung-Deok Kang
- 155 소진(Burn-out)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과 회복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방은영
A Narrative Inquiry on the Ministry Difficulty and the Recovery Process in Infant Preachers with the Experience of Burn-out in the COVID-19 Situation | Eun Young- Bang
- 177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 홍구화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Christians: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Support | Gu Hwa Hong
- 199 삶의 목적과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 유방암 환자에서의 단면 연구 | 한형욱 / 김두영 / 김다함 / 이일균 / 박시운
Association between purpose in lif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cross-sectional study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 Hyeong-Wook Han / Doo Young Kim / Daham Kim / Ilkyun Lee / Si-Woon Park
- 221 찰스 피니의 부흥론과 법학 | 이동준
The Revivalism of Charles Finney and Law | Don John Lee

기독교청소년의 학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해석적 교리교육연구*

A Study of Interpretive Catechesis for the Integration of Schoolwork and Faith of Christian Youth

강미랑 (Mi Rang Kang)**

ABSTRACT

This article studies the education of the church that instills a new worldview and a story of hope through catechesis in the reality that school is distorted due to the prevailing worldview, and students suffer from academic stress and move away from faith. This study supports students to discover God's calling by interpreting the story of the Bible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ir studies anew according to that calling to form a holistic faith in adolescence.

This study accepts the realm of study as the realm of God's reign and uses the Christian worldview to reconstruct students' world of schoolwork. In additio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aith helps Christian youth develop their identity by integrating all relationships in their studies and life within the system of faith.

Adolescent catechesis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doctrines constructed from the Bible in connection with the daily interests of the students. In this respect, today's catechesis requires a worldview and lifeworld interpretation, and can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important life tasks in adolescence in a new biblical-doctrinal structure. I hope that the Korean church can prepare today's catechesis for youth by denomination or in a united effort so that they can build pillars of faith for their present and future. I propose that the catechesis in the church should be based on the historical-religious creed of the Reformed faith (Belgic Confession of Faith,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Canons of Dordt) and in

* 2022년 8월 12일 접수, 9월 21일 최종수정, 10월 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822)

** 로데나무교회, 개혁주의신앙정체성 교육센터장 (Rodem Namu Church, Director of the Catechism Center),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로 51, mirang_kang@hanmail.net

the language and context applicable to today's youth.

First of all,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Our World Belongs to God: A Contemporary Testimony, which contains biblical insights on modern issues of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religious education books of the historical Reformed Church(Belgic Confession of Faith, Hidelberg Catechesim, and the Cannons of Dordt), by the American CRC denomination, a descendant of the Dutch Reformed Church. This paper provides a model of catechesis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by using this Contemporary Testimony.

Key words: youth, schoolwork, faith, calling, interpretive catechesis, Christian

I. 들어가는 말

교회교육은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고, 일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하고, 그를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과 관계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일웅, 2011:서문). 특히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21세기 상황에서 교회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교육함이 없이는 교회와 교회 밖 일상의 삶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기독교 신앙전통을 오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해석하여 신자들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순간 순간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다.

본고는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겪는 고통과 좌절을 생각하며, 교회의 교육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적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시기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문제들과 연결되는 교리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한다. 그리하여 학습 대상인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 즉 학교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매일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을 좌절시키는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깊이 심겨지도록 전통적 교수법인 교리교육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교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확고한 신앙을 중심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논지이다.

청소년 신앙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회교육(강문규 2021 등), 청소년 영성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미아 2014, 변영인 2013 등), 인성교육(이은아 2015, 한상진 2014 등), 신앙발달(강문규 2008, 등), 청소년 신앙형성을 위한 입교교육(강미랑 2021, 양승준 2013 등)과 청소년의 학업, 세계관(전병재 2019, 하희승 2009, 박상진 2008, 김희권 2008 등), 청소년 소명교육(전병재 2019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앙교육(최진성, 2022)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신앙과 학업의 문제를 교리교육의 방법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최근 교리교육 교재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으나 개신교회의 교리교육은 다시 역사적 신앙 교육서(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등)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자는 재발견의 차원에서 부흥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신교회의 청소년 교리교육을 위한 연구 논문은 극히 드물다.

교리문답 교육은 초대교회로부터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의 교육 방법이었다. 칼빈도 초대

교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오던 이 교육 방법을 다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하였다. 이 단어는 가르침을 뜻하는 신약성경 헬라어 ‘카테케오(κατεκεω)’에서 파생되어 교리교수학(catechetics), 교리교육(catechesis)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문답형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그들의 지식의 깊이를 측정하며 그들의 마음을 탐사하며 인격적인 신앙교육을 수행한다. 이 문고 답하는 방법으로 교회는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전수하여 온 것이다. 이 때 사용된 책들이 교리문답서(catechism)이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앙교육 방법을 회복하여 루터도 소요리, 대요리문답을 써서 목회자, 평신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였고, 칼빈과 후대의 여러 종교개혁자들도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교육방식은 듣기와 말하기가 중심이 되는 교육인 교리문답 교육이었다(Van Dyken, 김희정 역 2012: 19-27).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신앙교육서들을 가장 사랑하며 잘 가르쳐져 온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현대로 오면서 교육학의 발달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며 학생들의 세계에서 교회의 신앙의 핵심들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서들이 출간되어 왔다. 그럼에도 교회의 신앙교육으로서 교리교육의 기준은 교사와 학생들이 아니라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K.A. Schippers, 1982: 12). 교리교육은 항상 세례와 연결되고, 세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교육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어린이 세례와 어린이 성찬 참여가 허용되면서 세례교육으로서의 교리교육은 약속과 초대 관계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며 계속적으로 배우고 깨달아 가야함을 인식하게 한다. 현대의 교리교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로 입문하는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중요한 특징과 교회가 학습공동체로서 평생 신앙을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신앙교육으로 의미를 확장시켜가고 있다(K.A. Schippers, 1982: 25-27).

패커와 패럿(Packer & Parrett, 조계광 역, 2010:40)은 교리교육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에 뿌리를 둔 믿음과 실천을 가르쳐 교리와 헌신과 규범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일깨워주는 교회의 사역(Packer & Parrett, 조계광 역, 2010:40)”으로 정의하고, 교리사역의 범주를 예비교리교육(초신자 교육), 정식교리교육(세례,입교자 교육), 지속적인 교리교육(계속적 성장 교육)으로 나눌 때(Packer & Parrett, 39) 본 연구는 지속적인 교리교육의 한 모범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 전통적 교리교육법이 오늘에도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오늘의 학업과 신앙의 고민도 성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교리교육에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북미주개혁교회(CRC 교단)의『현대신앙문서』를 청소년 교리교육 교재로 사용하며 학생으로서의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통찰을 얻는 교리교육 모델을 구성하는 이론 형성과정을 논술하고자 한다.『현대신앙문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역

사적 신앙교육서인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신조의 내용을 토대로 현대적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현대의 일상적 언어로 정리하고 있는 교육문서이다.

먼저 청소년들의 학업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들의 학업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점검하였다. 그리고 나서 실천신학적 접근으로 학업과 신앙의 통합 이론을 통하여 신앙의 장소적 영역과 전인적, 포괄적 이해로 확장시킴으로 학업을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상의 성공주의 거대담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회심하기 위한 훈련, 즉 교리교육의 대안을 제시한다. 교리교육을 통하여 학업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영향력을 갖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학창 시절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창조적 시간으로 해석하는 성경적 통찰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청소년들의 학업현장 이해

본고는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신앙교육에 있어 위기들을 파악함으로 교회의 신학적 응답을 찾아 나가는 실천신학의 행동이론 연구이다(Heitink, 1999: 65).

1. 청소년들의 고통: 학업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

한국의 청소년들의 일반적 정체성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주 업무는 학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마저도 60% 이상이 시험 준비를 하는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0/01/202001221610558592f67c3fc824_1. (2022. 8. 5.)).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하희승, 2009: 371-405)는 OECD 국가 중 1위, 행복지수는 꼴찌(<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0>. (2022. 8. 5.))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개인적 상황으로 치부하며, 또는 치부 당하며 해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1>. (2022. 8. 5.)).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지난 2년간의 비정상적 학교 운영은 학교의 기능, 역할, 학업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다. 가정들의 경제적 차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 교사들의 매체사용 역량의 차이 등 학교가 원거리교육으로 채워줄 수 없는 다양성들이 드러나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각각 자신들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학교도 못 가고, 교회 예배조차 모여서 드리지 못하던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학생들은 끝까지 학원수업을 사수하며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공교육과 교회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 입시경쟁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해 형성된 부모들과 학생들 자신의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김병재는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능력주의 문화”로 파악하고 이러한 능력주의적 사회공통의 인식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더욱 강화되어 교육에서도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입시경쟁구조의 교육과정을 형성해왔다고 지적한다(김병재, 2022:90).

김희권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입시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근원적 원인은 국가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정책에 있다고 본다. 이 인적자원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주의가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목적을 흔들며 비정상적인 입시경쟁을 조장하게 되고, 그것이 사교육시장의 거대화를 낳았다. 학교는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적 선진국을 이루어줄 인재 양성소가 되어 입시경쟁이데올로기라는 지배적 담론을 사회에, 가정에 퍼뜨렸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현실적’ 교육목표는 대학입시를 향하고, 대학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교양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곧바로 대기업 취업,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직장을 얻기 위한 스펙으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고용한 대기업들을 통해 생산한 소비재들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세계 속에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경제선진국 진출의 꿈이 국가의 교육목적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의 교육목적과 방향을 왜곡시켜왔다.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관이 학교교육을 대기업 취업, 더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일자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월성 경쟁, 서열화로 변질시켰다(김희권, 2008:1-6).

점점 더 과열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경쟁은 ‘국가 경쟁력 신장’에 집중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람이 곧 자본’이라는 ‘인적 자본’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1980년대 ‘수월성(excellence)’교육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국가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8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서 “인적자원”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교육과 인적자본/인재양성, 그리고 국가발전 담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구적 지식 습득을 둘러싼 경쟁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 되었다(이은아, 2015:235-255).

인간의 교육목적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에 초점 맞춰지면서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의 전인적 성품과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장, 우정과 사회적 관계성을 배우는 공동체성 훈련의 장이라기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처럼, 판매를 위해 특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수농가처럼 상품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 매기고, 경쟁하게 하는 경제지상주의 시장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온 많은 한국교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둔감해져 버렸다. 그들을 위한 학력스펙과 직장, 부동산을 준비하느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전수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묻게 된다. 이제 한국교회는 문화적, 물질적 축복만이 아닌, 다시 교육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경의 이야기로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학업현장에 필요한 소망의 이야기

교회는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학업경쟁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양들을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다.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Goheen & Bartholomew)는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그 포괄적 메타내러티브를 자유시장경제 내러티브라고 하며 현대 세계가 실행한 가장 뿌리 깊은 세속화의 하나가 소비주의 문화라고 지적했다. 어떤 전통이나 보편적 가치가 아닌 기업이 정한 가치관에 의해 각자의 소비 능력에 따라 사람의 위상이 정해지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 이 범세계적 자본주의 극단의 소비지상주의 세계관은 인간을 경제적 재화의 생산성으로 평가하며, 인간 소외를 가져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Goheen & Bartholomew, 윤종석 역, 2011: 246-252).

그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섞여있겠지만, 이제 그 세상의 광풍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이 제시하는 본래적 세상과 인간과 역사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주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규범(New Normal)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20세기 이래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 정치 구조를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때 교회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에 발맞춰 기술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숨통을 열어주는 ‘살리는’ 교육, 생명의 이야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기독교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지배적 세계관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 교리교육의 자리가 있다고 본다. 예수의 복음도 로마제국의 강력한 세계관 속에서 작은 무리들에 의해 전파되고, 자라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야기에 전인적 삶을 드렸다.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해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와 제국과 세계를 향해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 쉽지 않은 세계관의 전환 사역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표면적 교육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과 손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인적 교리교육이 필요하다. 교리교육은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기둥을 마음 깊이 세우는 말씀에의 순종훈련이다. 교리교육은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관계적이고 공동체의 사역이다. 나와 신앙의 공동체가 가진 세계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사이의 충돌에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신앙정체성 훈련이자, 세상의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리해내는 비판적 작업이다. 또한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세상의 가치관을 들춰내는 정직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생각과 가치관의 거듭남의 사역이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회개와 거듭남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세계관의 재구조화에 이르도록 성경적 교리체계가 세워져야 하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고, 오늘의 학생들의 세계로 신앙의 전통을 풀어 해석해주어야 하는 해석적 작업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이 없이는 결코 보존될 수 없다고 했다(Packer & Parrett, 조계광 역, 2010: 30). 오늘의 학생들의 상황에 성경의 핵심 진리를 해석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주는 교리교육을 필자는 ‘이야기 해석적 교리교육’이라 하며 성경공부를 통해 청소년의 신앙적 정체성 형성을 돕고자 한다(강미랑, 2011:311-34).

III. 학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교회의 신앙교육

1. 학업도 신앙의 영역으로 통합시킨 개혁신앙

교회의 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생활을 신앙의 측면에서 다뤄주지 못해온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된 영역의 구분인 것 같다. 김희권(2008: 6)은 “우리 교회는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만 너무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벌써 죽은 자처럼, 곧 음부에 떨어진 귀신처럼 참다운 삶을 박탈당한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여야 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신앙교육을 촉구한

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어떠한 개혁의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한국의 초대교회들은 근대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사회개혁, 인간 평등가치, 민중교육을 위해 힘썼으나, 오늘의 현대교회는 교육의 가치회복을 위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학교도 현 사회의 무한경쟁주의적 국가주의 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편 신앙의 영역에 대한 이원론에 스스로 빠져있는 지도 모르겠다.

포스트모더니즘 세계를 살아가며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개념이 작은 행복을 일구어내는 좋은 측면이 있다. 여성주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작은 일상의 소중함 등이 발견되고, 신학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교회의 예전적 삶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 워런(Tish H. Warren, 2018)의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신자들은 주일 한 시간만 예배하는 신자로 자신의 신앙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성숙해져서 매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신앙의 영역을 확장하며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

청소년부에서 경험하는 오늘의 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주로 ‘시험 잘 보는 것, 공부에 집중하기’ 등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남과 북의 통일, 지구 생태계 보존 등의 거시적인 기도 제목과는 거리가 먼 눈앞에 놓인 시험이 가장 큰 산이고, 실존적 문제이다. 이것이 그들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그렇다면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성경적 통찰은 어떻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등 그들의 실존적 필요와 신앙교육을 연결시켜 줄 때 교육은 효과적일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가 교회 밖의 생활을 세속으로 생각하도록 이원화해온 것을 개혁하여,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직업들, 은사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칼빈주의적 신앙이 학문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눌렀던 중세적 세계관으로부터 학문을 해방하여, 죄가 학문에 작용하여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낳지 않도록 억제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원래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한다(최용준, 2021: 314-315).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신학과 세계관에 의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

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자였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정치의 구조, 교육의 구조까지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집단들이 교육의 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인본주의 세계관 아래서 모든 학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카이퍼는 입법투쟁과 정치적으로 맞서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반세기 동안의 정치활동과 교육투쟁의 결과로 열매로 네덜란드 정부는 1917년 헌법을 개정하고 교육정책을 확립했다(정성구, 2010: 101-2).

카이퍼는 교육에 있어서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자고 건의했다. 부모의 신앙과 세계관에 따라 학교교육을 선택하고, 국가는 가난한 부모들이 재정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세금이 공교육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가난한 부모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도 쓰여야 함을 주장했다(정성구, 2010: 104-106).

카이퍼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칼빈주의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주의 교육사상은 이원론을 거부한다. 우주적이며 삶의 전체성을 강조한다. 둘째, 청지기로서의 인간소명을 강조한다. 셋째,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넷째,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대답이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인간의 내부에 ‘종교적 자아’와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전제가 된다(정성구, 2010: 110-111).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꾸준히 기독교 대안교육 운동들이 있어왔다.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전인적 신앙과 학업의 통합을 위해 학교 퇴사를 결정하시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시는 기독교 교사들이 있었고, 자신이 속한 학교에 계시면서 좋은 교사운동을 벌여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 교회들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 기독교학부모들이 모여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대안학교 설립, 한국의 선교 초기부터 있었던 미션스쿨들의 예배와 인격적 교육으로 인한 기독교적 영향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을 향한 기독교교육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교육에서의 기독교사들의 영향력 등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 대안교육법을 상정하고, 교육부나 지자체에 기독교적 학업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들도 있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과 같은 제도적 개혁이 한국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러한 기독교 교육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어 성경의 스토리로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과 소망을 공급하는 오아시스이다. 교회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영역도 하나님의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2. 의미를 추구하는 포괄적 신앙이해와 교회교육

현대의 다원화된 세계에서 교회가 청소년에게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 신앙을 교육하고, 그 성장과 발달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제임스 파울러 (James Fowler 1940-2015)의 포괄적인 신앙이해는 요긴하다. 그의 신앙발달이론은 기독교교육 연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 되도록 하며 동시에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신앙의 의미를 전인적인 신앙개념으로 확장시켜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원론적 신앙이해를 극복하고 전인적 관점에서 개개인의 일평생 동안 일어나는 믿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을 도전한다(강문규, 2008:49-70).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에서 그는 신앙이 일평생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 성장의 의미는 삶의 의미와 직결된다. 교육자와 목회자들이 청소년의 신앙이 일평생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에게 신앙의 성장이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그 내용에 대한 방식과 태도도 강화되는 질적인 변화를 함께 말한다(박원호, 1996: 8-9).

파울러는 신앙을 우리 삶의 상황들에 의미를 배우고, 찾고 제공하는 역동적이고, 존재론적 자세(dynamic existential stance), 방법이라고 말한다(Fowler, 1981:92). 이러한 삶과 직결된 역동적 배움으로써의 신앙의 의미는 청소년들의 학업을 신앙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 있는 개념이다.

교회교육의 중심은 신앙교육에 있다. 신앙을 지식차원에서 전달하는데 급급했던, 또는 감성 차원에서 자극해왔던 교회의 청소년 신앙교육은 파울러의 이론에 의해 전인에 관계하며 일평생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신앙 성숙을 향한 교육으로 준비될 수 있다.

파울러는 신앙의 구조를 7가지의 작은 요소들로 설명하는데, 이 요소들은 교회의 청소년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유의미하다. 첫째로 논리의 형태는 신앙이 갖고 있는 사고와 판단의 형태에 초점을 둔다. 신앙의 단계가 충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도 이에 상응하여 발달되어야 한다.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로서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에 크게 의지한다. 더구나 신앙에는 지식, 신조, 교리와 같은 면들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논리적 면들이 충분히 발달하여 신앙의 균형을 돕는다(박원호, 1996: 53). 청소년기의 신앙형성에 있어서 성경적 논리, 사고, 판단력, 분별력은 교리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두 번째는 관점 채택의 요소이다. 세 번째 요소는 도덕적 판단의 형태, 즉 신앙이 갖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다. 넷째 요소는 사회의식의 테두리이다. 다섯 번째 요소는 권위의 장소이다. 이것은 신앙이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의 근거를 말한다. 여섯 번째 요소는 세계관의 형태이다. 우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일된 전체, 즉 세계관으로 묶으려 한다. 각 개인이 처해있는

가장 포괄적인 삶의 테두리, 또는 의미의 영역을 말한다. 이 세계관을 성경적 이야기로 재구조화하는 일이 기독교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교회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일곱 번째 요소로 상징적 기능은 신앙의 상징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해를 말한다. 신앙은 상징들을 통해서 경험이나 논리가 수용할 수 없는 영역들을 표현한다. 신앙은 이상의 7가지 요소들이 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로 묶여 있다. 이 여러 요소들이 함께 성장하며 발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구조 이해는 교회의 신앙교육이 균형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박원호, 1996: 51-59).

파울리의 신앙 발달단계 이론은 우리의 신앙이 자신과 타자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앞에서 다른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선형으로 진행함을 말한다. 이러한 신앙의 발달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교회의 교육적 역할의 자리가 있고, 교리교육도 건강한 신앙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파울리가 생각하는 교육모델은 고대 희랍에서 포괄적 교육과 종합적 훈련을 통해 도시국가의 민주시민을 형성했던 ‘파이데이아’이다. 청소년의 전인적 신앙 성장과 건강한 신앙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교리교육과 함께 말씀 선포와 예식과 교제와 섬김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암시한다(사미자, 2017: 232-240).

청소년기 신앙발달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확장된다. 가정을 넘어서서 학교, 일터, 또래 집단, 거리, 대중매체 등의 환경이 포함된다. 다양한 집단을 경험함으로써 신앙은 정리되며 종합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논리적 사고가 성숙하게 되고, 관점 채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점차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느낌, 생각, 관점, 기대에 민감해지며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 정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의 신앙을 동조의 신앙단계(a stage of conformity)라고 한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정체로서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다. 어린이와 어른 간의 전이적인 단계에서 오는 자기 혼란,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기 역할의 정체(identity)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이나 반성 없이 자기가 속한 신앙집단에 의존하는 인습적 신앙이라고 한다(박원호, 1996:70-91).

교회의 청소년들도 일반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리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성경적 세계관을 학습해 나가게 되면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의 신앙에 의존하는 인습적 신앙의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개혁교회는 교리교육을 해왔던 것이다. 그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체계화하고, 중요한 이야기의 기둥을 세워주었던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단계의 5단계인 자아 정체 대 정체의 혼동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정신적, 성적, 심리적 변화와 급속한 신체적 변화로 청소년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아를 찾기 위해 자신의 자질과 동시에 사회의 기대와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받으며 정체성 발달과 반면 고통, 정체성 혼동을 겪게 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사회적 환경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확고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미래의 역할 모델들을 찾을 수 있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조건에서 그들이 미래의 성인으로서의 일과 사랑과 사회정치적 모든 상태들을 찾기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고조될 수 있다. 이 단계의 위험성은 역할 혼동이다(Fowler, 1981: 76-77).

청소년기에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교나 학원 동료 또는 교회 등의 또래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그들은 신체적, 정서적 큰 상처를 입고 정체성의 혼동을 겪게 되며,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한다. 반면,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지지해줄 때 그들은 다른 곳에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신앙과 정체성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언어사용, 태도부터 교육활동과 내용구성에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실천신학자로서 파울러는 1991년도에 출판된 『새로운 창조 세계의 형성』(Weaving the New Creation: Stages of Faith and the Public Church)에서 21세기 교회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전망하면서 기독교의 중심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하며 제시한다. 7가지 중심 이야기는 1)태초에, 2) 창조, 3) 타락, 4) 해방과 계약, 그리고 유수, 5) 성육신, 6) 교회, 7) 사랑과 정의의 공익(Commonwealth of Love and Justice) 으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파울러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기독교적 이야기와 비전의 소개, 형성, 그리고 구체화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파울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기초로 놓아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기초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의 삶의 상황으로 해석해주어 그들의 정체성, 세계관을 형성하게 돕고, 그들이 이 성경이야기들을 신뢰하고, 그에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교회교육은 역할 할 수 있다. 신앙교육은 바로 신앙 중심이야기의 소개와 형성, 그리고 구체화, 생활화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원호, 1996: 223-227).

3. 학업과 신앙을 연결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소명교육

청소년 교리교육에 앞서 학생들이 학업과 신앙을 연결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학업에 대한 성경적 의미, 기독교적 의미를 교회가 다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들이 사회 환경적 요소와 발달 단계상의 자아실현 욕구에서 자신들의 일로서의 학업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업은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배움의 시기의 학생들의 일이다. 꼭 필요한 배움이라서 즐겁고, 유익한 과정을 따라 이루어져 배우고, 깨닫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입시가 전쟁으로 과열되고 학업의 방향이 성공지상주의로 치우치면서 그 목적의 방향성을 잃게 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만 아니라 교회교육, 가정교육까지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다.

박상진은 한국교회의 협소한 신앙이해가 학생들의 학업과 입시를 세속의 영역으로 분리해옴으로 입시 문제를 기독교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학생들의 전인적 삶이 신앙과 관련되므로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가 모두 기독교교육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상진 외 3, 2008: 15). 그는 입시 이데올로기를 기독교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소명의 관점에서, 은사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탁월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을 제공하며, 기독교사와 학부모들이 먼저 준비되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섬길 것을 촉구한다(박상진, 2008: 99-129).

전병재는 학업을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며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찾아간다. 그는 중·고등학생의 학업은 직업은 아니나 학업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한 청소년의 일이고, 학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청소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청지기직(stewardship)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교회 내 청소년은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정리한다(전병재, 2019: 422).

기독교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신앙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개념은 “소명”이다. 교회의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소명교육을 제공했다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소명의 의미는 미래의 직업과 연관된 개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연관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소명의 의미에 대해 교회로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처지로의 부르심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개한다. 즉 소명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직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관계된 말이다. 칼빈 또한 소명을 신자들의 모든 삶과 연결시켰다. 칼빈에게 있어서 소명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존재 자체와 그 일 자체를 하도록 부름 받음을 뜻한다(전병재, 2019: 431).

본래적 학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일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학업의 목적, 방향 그리고 문화가 왜곡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지역 교회 내 청소년의 학업은 소명자의 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된 학업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를 포괄하는 삶의 방식 안에서 이해되어지며 소명자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즉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조에서 학업을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청소년 교육은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한 소명의식, 소명자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해야함을 제안한다(전병재, 2019: 515-447).

미국 도르트 대학의 심재승 교수는 미국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기독교철학 교수로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셔서 청소년 캠프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다. 그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넓은 이야기 안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구성해가도록 인도한다(고신뉴스KNC (<http://www.kosinnews.com>)).

또한 심재승은 [기독교 교육 선언: 어린이들로 내게 오게 하라]와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들이 실제 활용한 내용을 포함한 [교사 가이드북](심재승/이대부속초등학교 공저, 2012)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로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했다. 그 책에서는 어린이들의 실제 삶의 환경인 학교, 공부, 일, 놀이, 친구, 가족 등의 주제에 관련해 설명한다. 전체의 내용은 도르트 대학교에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해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체제(Educational Framework)를 응용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영성의 배양 →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세계의 구조 → 창조 세계의 관리와 발전 → 봉사하는 삶의 양식’이라는 순서로 구성된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공부하고, 노는 학생들의 삶을 설명한다.

그는 한국 사회의 환경이 기독교적이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뿐 아니라 기독교 커뮤니티도 무한경쟁과 물질적인 성공으로 정의되는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앙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제한되고, 교육은 세상의 영역으로 거기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됨을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삶과 교육에 관련되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자녀의 신앙의 삶을 교육하기를 명령하신다면 교회는 공교육, 즉 학교교육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세상과 인간 삶을 조망하는 시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한다(에베소서 5:15~20). “구속된 삶이 삶 전체에 살아져야하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에서 공공성을 가지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공공적인 책임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것이 기독교 교육), 그 아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 정당성을 역설한다.”(심재승, 2021)

교회의 전통적 교리교육 방식이 요리문답서의 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도에서만 머물고, 학생들의 학교와 활동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며 해석하는 작업이 없이 통과의례로만 사용된다면, 그리고 경건훈련이 매일의 삶을 위한 해석적 전망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교육은 물질만능, 입시경쟁,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공교육 세상에서 기독교청소년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잃고 말 것이다.

심재승(2021)은 기독교인의 공교육에서의 학업도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여 신앙의 영역으로 세워야 할 것임을 말한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에 세우는 것이다. 우선은 사람의 형성이고, 둘째는 진리와 지식을 갖추어 하나님의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다.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죄로 인해 망가졌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사람, 거듭나서 새로워진 인간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에 근거해 한 어린이의 소중함, 인간다운 올바른 인성, 인품, 개성, 그리고 소망과 꿈에 관해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배우는 진리와 지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살게 하는 방편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섬기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아는 것, 교육과 공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고, 지식은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직업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현장이기에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른다.”(심재승, 월드뷰 2021).

교회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학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로서보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자신들의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명 이해는 성경교육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성경을 오늘날 청소년의 학업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성경의 세계와 현대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며 성경의 참된 이야기로부터 인생의 의미와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소명을 제시받을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세계관의 관점에서 정리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청소년의 학업의 의미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Goheen & Bartholomew, 2011: 338).

또한 공교육이 가진 세계관적 이야기를 잘 분석하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배우는 성경적 세계관의 통찰로 학업의 목적, 내용, 과정들을 재정리하여, 학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주변 문화, 한국 사회가 주입하는 메타 이야기가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 이야기와 다름을 깨닫고, 개혁하고자 하는 저항적 헌신과, 삶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증명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전하는 증언적 나의 삶을 구성하며, 소명으로서 학업을 구성하기에 이르길 준비하자(Goheen & Bartholomew, 2011: 41).

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성경이야기를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도록, 그들의 정체성의 원천이 되고, 그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삶의 이상들을 성경으로부터 발견하도록 자주, 정확히 들려주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성경 읽는 독자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의 삶에도, 학업의 목적, 방향, 그들의 진로에도 성경의 통찰들이 영향력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접하는 다른 이야기들과 부딪칠 때 자신의 신앙공동체의 이야기에 강한 헌신과 신뢰가 있어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이야기들에 도전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흔들림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리교육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신앙고백이 되도록, 성경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IV. 신앙과 학업을 통합하는 해석적 교리교육 제안

1. 오늘의 교리교육 내용 선택 - 개혁신학을 현대에 적용한 [현대 신앙 문서]

본고에서는 개혁주의 신앙교육 전통에서 역사적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교리교육의 내용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학업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는 성경적 체계, 세계관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대적 신앙표현 문서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 모델로서 선택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현대 신앙 문서]는 CRC교단(북미주개혁교회)의 신앙문서로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인 벨직신앙고백, 도르트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초해서 교회의 신앙을 오늘날의 언어로 재작성한 문서이다. 이것은 시대에 적합하게 표현된 문서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는 성격으로 신앙고백이 아닌 ‘신앙문서’로 명한다(미국 CRC교단, 심재승역, 2008: 머리말).¹ 한국교회의 교단들도 개혁교회의 역사적 신앙고백서들을 기초로 하여 각 교단의 신앙을 반영하고, 전문적 위원회를 조직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시대의 문제들을 성경적 통찰로 답해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리문답 문서들이 제작되길 기대해보면서 우선 이 미국개혁교단의 신앙문서를 학생들의 교리교육 교재로 사용해 보고자 한다.

이 [현대 신앙 문서]와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미국 도르트대학의 심재승 교수가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여 작성한 [기독교 교육선언: 교사 가이드북]을 청소년을 위한 학업 소명을 중심으로 한 교리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의 참고 자료로 제안한다.

이 정제된 문서의 신앙의 표현들 또한 각 교회의 청소년들의 상황, 그들의 세계에서 시작하여, 본문내용 연구로 들어가고, 다시 학생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해석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함께 묻고, 답하며 삶의 문제들로 깊이 들어가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응답하는 교리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교육의 실체에 있어서 이러한 교리교육을 실행하기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1) 이 신앙문서(Our World Belongs to God: Contemporary Testimony)는 1986년에 작성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후 총회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간의 다수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의 위원회,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들의 피드백을 거쳐 2008년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contemporary-testimony/our-world-belongs-god?language=ko> (내용전문 참조)

시간의 문제이다. 교회의 한 시간 주일예배 후 각각 다른 일정들로 흩어지기 쉬운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새롭게 사용하게 된 온택트 교육방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학생들이 가능한 평일이나 주말 저녁시간, 또는 어떤 시간대라도 실시간 쌍방향 소통인 줌(Zoom)으로 편리하게 교리교육 할 수 있다. 양금희는 코로나19시대의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온택트 방법들이 대면교육이 대신할 수 없는 독자적 경험의 영역 및 교육적 힘을 가진 기독교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양금희, 2021: 41-76).

2. [현대 신앙 문서] 1-58문의 개혁주의 세계관적 구성

이 문서의 서문은 “1.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쁨과 믿음으로 선언한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한다.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 교리교육을 시작할 때 암담한 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신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과 그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리가 현재 모든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환경 속에서 창조주, 구속주, 새창조의 주님으로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이 현대적 신앙교육서의 교리적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이도록 요약한 것이다.

Table 1. Outline of *Our World Belongs to God: Contemporary Testimony*

현대신앙문서	기독교교육선언 (어린이대상)
서문: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언약	성경
창조(7-12): 세상은 우리의 집, 예배처, 일과 놀이, 교제의 공간, 하나님 형상, 세상의 청지기 소명 인류의 다양성-모두 하나님의 대리인, 생명보호	선한창조
타락(13-17): 불순종, 세상이 고통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인간관계들 깨어짐	죄로 망가진 세상
구속(18-22): 구속의 역사, 언약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23-27):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심, 순종하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이루심, 중보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28-30): 그리스도와 연합,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도록.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31-33):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속된 삶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34-40):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생명, 성례를 통해 은혜를 누림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41-54)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웃과 세상의 삶에서 가난한 자, 약자 돌봄 부패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개혁의 소명 생명존중, 남녀평등, 쾌락을 따르지 않음 사람들과의 약속에도 충실 47.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학교와 교육,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가도록,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은사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학교와 교육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공정한 임금, 상호존중 재물과 시간을 드린 봉사	일
휴식과 여가, 과학기술 -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존중 생태계보호, 환경보호 -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 정부-인권과 자유보장, 공의 실천, 언론, 노동, 종교의 자유보장 국제사회 평화위한 노력	놀이
새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 몸의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 소망	소망

3. 교회 청소년 교리교육 교수계획

1) 교리교육 대상 선정

- ① 입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리교육(12주)(강미랑, 2020: 269-309.)
- ② 입교 후 계속적 신앙 성장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15주)
- ③ 임원이나 제자훈련반의 집중교육(10주)

2) 커리큘럼 작성

현대신앙문서로 진행되는 교리교육은 다양한 주제로 준비될 수 있다. 각 교회의 청소년의 상황, 필요, 구성원들의 신앙발달 단계, 학습인지 능력에 따라 12주에서 20주까지 교육시간과 대상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하자.

3) 교리교육 시간구성

예배 후 50분 정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자. 또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50분 정도의 특별교육

시간을 마련하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는 집에서 줌으로 소그룹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복습게임을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기억시키고, 스토리 구조를 형성해주자.

(수업 진행의 예)

- ① 학생들의 세계이해를 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눔
- ② 신앙문서의 본문을 함께 정확히 읽고, 새롭게 발견된 것들, 낯선 단어 등을 질문하기
- ③ 관련된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 읽어보기
- ④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언약적 관계에서 정리해보기
- ⑤ 청소년으로서 나의 학업과 오늘의 본문이 제시한 통찰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토론하기
- ⑥ 기독교 세계관적 이야기 틀에서 오늘의 본문을 정리해보기

* 58문은 신앙 고백적 선언들이므로 매주 수업한 내용을 자신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녹음해보고, 자주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격려.

4. 모범교안

Table 2. Outline of this lesson

○교육대상 : 교회 고등부 학생 소그룹 (시리즈 교육 중 1시간 교육내용)
○교육목표 :
1) 이 세상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본다.
2)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파악하고, 성경의 통찰로 재구성하기
3)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음을 배운다.
○교육주제: 하나님 형상과 소명
○교육범위: 창조 (현대신앙문서 7-12문)

1) 청소년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기

- ①. 우리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 ② 우리 학교의 상황은 안전한가요?
- ③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나요?
- ④ 우리 학교에서 느껴지는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세요.
- ⑤ 남은 학교생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0년은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2) 성경과 현대 신앙문서에서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읽어보세요.

Table 3. Statements 7 to 12

창조 (Creation)	
<p>7.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도, 지구상의 어떤 권력의 것도 아니다. 사단이나, 운명이나 우연의 것도 아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 (시24:1)</p> <p>8. 태초에 성부, 말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형상과 질서를 세우셨다. (창1, 요1:1-14)</p> <p>9.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 하늘 위에 별과 해와 달을 두시고 빛깔과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함으로 세상을 만드시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기 적합한 집으로 삼으셨다. 그 세상은 일과 놀이 예배와 경이로움, 사랑과 웃음의 공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다. 태초에 만물은 매우 좋았다. (창1-2, 시19, 33, 104)</p> <p>10.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되었으며 창조세계를 돌보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돌보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세상이 발전하고 행복함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 (창1:26-27,9:6, 엡4:24, 골3:10, 약3:9)</p>	<p>11. 남성과 여성이나, 미혼자나 기혼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피부색깔과 인종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를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촉진하도록, 태어나지 않은 태어나 약한 이들을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갈3:26-28, 행2:5-11, 사1:5-17, 약1:27)</p> <p>12. 역사가 현재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비록 제한적으로 밖에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안에 계셔서 만물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모든 것을 자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주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확신은 우리 삶에 의미와 소망을 부여한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 (사45:6-7, 마6:25-34, 눅12:4-7)</p>

3)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언약적 관계이해)

①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보세요.

(예: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 창조자, 우리들을 위해 살 곳을 준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세상을 돌보는 자로 세우신 분,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자신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②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돌보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우리

의 노력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돌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

3) 이 내용을 읽고 ‘나는 누구인가’ 정리해보세요.

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이므로 안전하다.

→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 창조 세계와 이웃을 돌보는 자

→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하다.

→ 모두가 하나님 형상이고, 세상의 청지기

4) 우리의 학업에 주는 통찰은? 학업의 내용과 방향에 적용해보세요.

예) 학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학업의 내용과 방법,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반영되도록.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을 돌보는 방향에서 공부를 진행해야겠다.

5) 결론: 창조에 대한 교리의 내용에 나타나는 기독교 세계관적 구조를 정리해봅시다.

Table 4. Applying the structure of a Christian worldview to School Work

<p>창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세상 돌봄의 사명</p> <p>- 우리의 학업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방향에서 진행해야.</p>
<p>타락: 세상에 들어온 인간 차별, 생명 경시, 심 없음, 거처 없음, 빈부의 차이, 질병의 문제 등</p> <p>- 우리의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한 모든 부정과 부족과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소명 찾기</p>
<p>구속(회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세상을 돌보시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p> <p>- 우리의 학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세상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창의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p>

V. 나가는 말

본고는 교회 청소년교육의 대상인 기독교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적 학업으로 인해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신앙으로 학업을 통합하여, 그들의 일상의 학교생활과 공부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는 해석적 교리교육의 시도이다. 청소년기 교리교

육은 세계관 충돌 상황에서 세계관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의 교체, 재구성으로 학생들의 신앙이 확장되고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의 소명을 성경적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 상황은 입시 이데올로기를 통한 치열한 경쟁적 상황이지만,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교리교육을 실시함으로 세상의 성공 이야기가 주는 억압과 허영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구성하고, 학업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소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주일 교회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배움의 과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신 은사대로 소명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보다 포괄적인 전인교육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상황에서 실존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며 교리교육 내용을 형성하고, 그것을 청소년의 삶의 세계에서 성경적 세계관 구조로 형성해주는 해석적 교리교육 수업을 구성해보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교리교육 연구의 한 시도일 뿐이고, 계속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현장에 응답하는 삶과 연관된 생기 있는 교리교육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교리교육은 세계관적 이야기를 형성시켜 청소년기 학업의 동기를 발견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시도를 넘어, 계속적으로 의지적 훈련과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르는 교육을 위하여 후속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08). James Fowler의 신앙 발달단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 49-70.
- [Kang, M. K. (2008). Die Betrachtung uber "Stufen des Glaubens" von James Fowler und der Stre-
itpunk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49-70.]
- 강문규 (2021). 현대 한국교회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자아정체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책임. **신학과 실
천**. 74. 665-701.
- [Kang, M. K. (2021).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aith-Based
Self-Identity in Today's Korean Christian Youth. *Theology and Praxis*. 74. 665-701.]
- 강미랑 (2011). 리쾨르의 Narrative identity 이론의 소그룹 성경공부으로의 적용. **한국개혁신학**. 29. 311-
34.
- [Kang, M. R. (2011). An Application of Ricoeur's Narrative Identity Theory to Bible Study in a
Small Group. *Korea Reformed Theology Society*. 29. 311-34.]
- 강미랑 (2020). 한국교회의 입교교육을 위한 이론적 성찰과 프로그램 개발. **한국개혁신학**. 68. 269-309.
- [Kang, M. R. (2020). A study on the theory and practices for the education of the public profes-
sion of faith. *Korea Reformed Theology Society*. 68. 269-309.]
- 김병재 (2022).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1). 90.
- [Kim, B. J. (2022).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Culture -Focused on the
Humanity of Christ. *Faith & Scholarship*. 27(1). 90.
- 김희권 (2008). 입시 경쟁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이해(1) 무한경쟁주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어떻
게 할 것인가?. **신학사상**. Vol 140. 1-21.
- [Kim, H. K. (2008).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Competition for College Admission.
Theological Thought. Vol 140. 1-21.]
- 박상진 (2008).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18. 99-129.
- [Park, S. J. (2008).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99-129.]
- 박상진·김희권·김창환·강영택 (2008).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Park, S. J., Kim, H. K., Kim, C. H. & Kang, Y. T. (2008). *Christian understanding of entrance
examination*. Seoul: Yeoyeong Communication.]
- 박원호 (1996).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 [Park, W. H. (1996). *Development of Faith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

- 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ublishing House.]
- 변영인 (2013). 청소년의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0. 154-186.
- [Byun Y. I. (2013). Impact of Spirituality on Self-Directed Learning for the Adolesc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0. 154-186.]
- 사미자 (2017). **인간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Sa, M. J. (2017). *Human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 심재승·이대부속초등학교 (2012). **기독교교육선언: 교사가이드북**. 파주: 교육과학사.
- [Shim, J. S. & Ewha Womans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2012). *Christian Education Declaration: Teacher Guide Book*. Paju: Kyoyookbook.]
- 심재승 (2018).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2). **Worldview**. Vol. 31. 5.
- [Shim, J. S. (2018). Our World Belongs to God(2). *Worldview*. Vol. 31. 5.
- 심재승 (2021).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1) **Worldview**. MAY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16435>, 2022년 4월26일 접속)
- [Shim, J. S. (2021). A Christian Worldview for Children(1) *Worldview*. MAY.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16435>, Approched in April, 2022.)
- 양승준 (2013). 청소년 신앙형성을 위한 입교교육과정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9. 161-189.
- [Yang, S. J. (2013). A study on confirmation process for faith formation in adolescenc.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9. 161-189.]
- 양금희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ontact)”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68. 41-76.
- [Yang, G. H. (2021). A Study on “Ontact”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8. 41-76.]
- 이은아 (2015).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경제적 인간’에서 ‘호혜적 인간’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235-255.
- [Lee, U. A. (2015). Criticisms of and Alternatives to Character Education: From Homo-Economicus To Homo-Reciprocan.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4. 235-255.]
- 전병재 (2019).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바라본 학업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 논총**. 59. 415-447.
- [Jeon, B. J. (2019). Academic Performance in View of the Reformed Worldview and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415-447.]
- 전병재 (2019). 청소년의 소명정체성 개념화와 청소년 사역: 청소년과 회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52. 135-169.

- [Jeon, B. J. (2019). Conceptualizing Youth Calling Identity for Youth Ministr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People and the Congregation. *The gospel and praxis*. 52. 135-169.]
- 정성구 (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 [Jeong, S. G. (2010). *The Thoughts and Life of Abraham Kuyper*. Yongin: Kingdombooks.]
- 정일웅 (2011). **교회교육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Jung, I. W. (2011). *Church Pedagogy*. Seoul: Chongshin University Press.]
- 최용준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6. 309-326.
- [Choi, Y. J. (2021).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Faith focusing on the Thought of Abraham Kuyper. *Faith & Scholarship*. 26. 309-326.]
- 최진성 (2022).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 연구: 신앙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ACTS신학저널**. 51. 145-177.
- [Choi, J. S. (2022). A Study on Faith Education for Youth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the Faith Community Theory. *ACTS Theological Journal*. 51. 145-177.]
- 하희승 (2009). 한국청소년의 학업 중압감 사례와 성경적 상담을 통한 신앙지도. **신학과 실천**. 18. 371-405.
- [Ha, H. S. (2009). A Religious Guidance through Pastoral Counselling of Teenager's Stresses Caused by Academic Pressure. *Theology and praxis*. 18. 371-405.]
- 한상진 (2014) 교회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기독교교육논총**. 40. 167-197.
- [Han, S. J. (2014).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for Church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167-197.]
- 김희정 역 (2012).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 교리문답교육**. Donald. Van D. (2000). *Rediscovering Catechism: The Art of Equipping Covenant Children*.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im, H. J. (2012). *Rediscovering Catechism: The Art of Equipping Covenant Children*. Seoul: Booheunggwa Kaehyeogsa. Trans. Donald. Van D. (2000). *Rediscovering Catechism: The Art of Equipping Covenant Children*. Phillipsburg, New Jersey: P & R Publishing.
- 백지윤 역 (2018). **오늘이라는 예배**. Warren. T. H. (2016). *Liturgy of the Ordinary: Sacred Practices in Everyday Life*. 서울: IVP.
- [Baek, J. Y. (2018). *Liturgy of the Ordinary: Sacred Practices in Everyday Life*. Seoul: IVP. Trans. Warren, T. H. (2016). *Liturgy of the Ordinary: Sacred Practices in Everyday Life*. Downers Grove, Illinois: IVP Books.]
- 심재승 역 (2008). **현대신앙문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 Grand

- Rapids, Michigan: FAITH ALIVE.
- [Shim, J. S. (2008). *Our World Belongs to God*. Grand Rapids, Michigan: FAITH ALIVE Christian Recources. Trans. Synod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08). *Our World Belongs to God*. Grand Rapids, Michigan: FAITH ALIVE Christian Recources.]
-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이다**. Goheen, M. W. & Bartholomew, C. G. (2004).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Finding Your Place in the Biblical Drama*. 서울: IVP.
- [Yun, J. S. (2011).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Finding Your Place in the Biblical Drama*. Seoul: IVP. Trans. Goheen, M. W. & Bartholomew, C. G. (2004).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Finding Your Place in the Biblical Drama*.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조계광 역 (2010). **복음에 뿌리를 내려라**. Packer, J. I. & Parrett, G. A. (2010). *Grounded in the Gospel: Building Believers the Old-Fashioned Way*. 서울: 생명의 말씀사.
- [Choi, G. G. (2010). *Grounded in the Gospel: Building Believers the Old-Fashioned Way*.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Packer, J. I. & Parrett, G. A. (2010). *Grounded in the Gospel: Building Believers the Old-Fashioned Wa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 Heitink, G. (1999). *Practical Theology: History · Theory · Action Domai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 Schippers, K. A. (1982). *Werklpaats catechese : doelbepaling en organisatie jongerencatechese*. Kampen: Kok.
- “학업 스트레스에 죽고 싶다는 청소년들…행복도 OECD ‘꼴찌’”, Newsquest, 김동호기자 (2019.12.24) Retrieved from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0> (2022.8.5)
- “학교 밖 청소년 46% “학교 의미 없어” 퇴학 결정” Global Economy,유명현 기자(2020.1.20)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0/01/202001221610558592f67c3fc824_1. (2022.8.5)
- “[에듀인 현장] 매년 학생 5만명 학교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Eduinnews, 최우성 경기 대부분 교사 (2020.6.16) Retrieved from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

기독교청소년의 학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해석적 교리교육연구

A Study of Interpretive Catechesis for the Integration of Schoolwork and Faith of Christian Youth

강 미 랑 (로템나무교회, 개혁주의신앙정체성 교육센터장)

논문초록

본 논문은 세상에 만연한 세계관으로 인해 학업이 왜곡되고, 그로부터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로 고통하며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실에서, 교리교육으로 새로운 세계관, 소망의 이야기를 심어주는 교회의 교육을 연구한다. 성경의 이야기 해석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따라 자신들의 학업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신앙으로 공부하며 청소년기의 전인적 신앙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해석적 교리교육방법을 시도한다.

신앙과 학업의 이분법적 이해에서 학업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세계관 이해로 학생들의 학업의 세계를 신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신앙의 포괄적 이해로 기독교청소년들의 학업과 삶의 모든 관계들을 신앙의 체계 안에서 전인적으로 통합하며 정체성이 발달해 나가도록 돕는다.

청소년기 교리교육은 성경으로부터 구성된 교리들을 학생들의 일상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의 교리교육은 세계관적, 인생관적 해석이 필요하고,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삶의 과제인 학업을 성경적 교리구조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국교회가 교단별로, 또는 연합하여 청소년을 위한 오늘의 교리교육서를 준비하여 그들이 학업 하는 현재와 꿈꾸는 미래를 위한 신앙의 기둥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의 교리교육에 있어서 개혁신앙의 역사적 신앙교육서들(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도르트 신조 등)을 토대로 하되, 오늘의 언어와 청소년의 상황으로 적용된 교리교육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우선 그 한 모범으로 화란 개혁교회의 후예인 미국 CRC교단이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들을 기초하여 21세기 현대적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담아낸 [현대 신앙 문서]를 오늘의 신앙교육서로 채택하여 활용하는 한 수업계획서를 제시해보았다.

주제어: 청소년, 학업, 신앙, 소망, 해석적 교리교육, 기독교세계관

현대미술과 종교 다원주의- 빌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를 중심으로*

Contemporary Art and Religious Pluralism- Through Bill Viola's Video Art

심 상 용 (Sang-Yong Sim)**

ABSTRACT

Bill Viola is the most active writer in the field of video art. Viola's art crosses the line between religion and philosophy. This world is very spiritual, and based on spiritual and physical enlightenment from personal experience, it enters deep into themes such as birth and death, afterlife and resurrect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s world has a mystical and pantheistic spiritual orientation. The Christian apocalyptic doctrine and the reincarnation of Zen Buddhism are called side by side and mixed without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look at the tendency of spiritual hybridism to be evident in viola's video art, and, regardless of the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secular society, carefully reflect the issue on the Christian horizon. This is because the Christian belief in salvation based on the revelation of God and the reincarnation theory of Buddhism are not true by making either of them true. This discussion converges on a larger and ultimate purpose. It is to invite "Christ's cross is the only door to knowing" back to the center of the disorganized intellectual awakening of this era.

Key words: Bill Viola, video art, contemporary art, religious Pluralism, Christian apocalyptic doctrine, reincarnation of Zen Buddhism

* 2022년 8월 16일 접수, 10월 7일 최종수정, 10월 7일 게재확정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syshim61@snu.ac.kr

“우리들을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 못하는 학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지만, 어떤 학문이 우리를 신에 가까이, 하지만 잘못 다가가게 한다면, 즉 상상의 신에게 다가가게 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라...” - 시몬느 베이유, 『중력과 은총』, (시몬느 베이유, p. 93)-

서론: 가장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야망

도널드 쿠스핏(Donald Kuspit)은 지난 30년간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비디오 아트를 들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는데, 이 시대의 새롭고,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기술인 텔레비전을 사용한 것이 하나고, 그 기술을 예술의 “가장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야망”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예술의 “가장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야망”은 쿠스핏의 정의에 의하면,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존재의 내부를 횡단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Donald Kuspit, 1993) 감각과 감정을 사용해 존재성의 심오한 구현에 나서는, 이 야망을 비디오라는, 새로운데다 지극히 상업적이기까지 한 매체로 성취해낸 작가가 바로 비올라라는 것이다.

비올라는 비디오 아트 역사의 가장 괄목할만하게 활동해 온 작가들 가운데 한 명이다. 비디오 아트가 전자기술 기반의 매체기에, 비올라의 예술은 대체로 매체론의 맥락에서 조명되었다. 예를 들어 비디오의 사용으로 야기된 변화, 매체로서 T.V. 모니터와 캔버스의 차이, 예술과 기술의 협력 가능성과 한계 등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비올라가 비디오에 담고자 했고 실제로 담았던, 인간의 삶과 죽음, 정신과 신체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온 영적, 신체적 깨달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비올라의 세계는 출생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 사후 세계, 부활 같은 종교적인 주제까지 폭넓게 섭렵하면서, 종교와 철학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계가 신비주의적이고 범신론적 성향을 띠는 것은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의 모티브는 기독교의 전통 성화(聖畵)에서 자주 차용되지만, 표명되는 견해는 선불교의 윤회론에 바짝 다가서는 식이다. 금욕과 명상을 중시하는 선불교, 절대자와의 직접적 합일을 지향하는 이슬람 신비주의의 종파 수피즘(Sufism), 중국의 노장(老莊) 철학이 격의 없이 호출되고 화학적으로 뒤섞인다. 그 각각의 것들은 더는 어떤 갈등도 야기하지 않는다.

기독교 교의(敎義)와 비기독교 사상 간의 혼합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자 플루타르코스(Plutarchos, A.D.46-120) 까지 올라가야 할 만큼 오래된 주제다. 19세기 이후로는 그러한 전통과는 결이 다른 강력한 종교 혼합주의 물결이 휘몰아쳤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교의와 문화, 신앙과 철

학의 다각적인 혼합 양상으로, 이로 인해 기독교회가 문화적 소비상품화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위르겐 몰트만, pp.78-79) 포스트모던적 감성, 삶의 스타일에 걸 맞는 변질된 복음 현상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및 서구화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미국의 철학자 에릭 뢰겔린(Eric Voegelin)이 ‘영지적 추론(Gnostic Speculation)’ 개념을 통해 지적한 ‘현대화된 영지(gnosis)’의 현상으로, 이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한편, 그것을 인간의 지적 각성을 통한 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마이클 호든에 의하면 이러한 흐름이 현대 과학과 정치, 예술 등 지식계와 문화계 전반을 휩쓸다시피하고 있다.(마이클 호든, p.101.) 이 시대의 오류와 혼돈, 폭력과 전쟁, 생태계 위기 등, 이 문명의 총체적 난맥상이 인간의 각성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언이 어느 때보다 더 매력적인 환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 영지주의적 성향이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는 컨템포러리 아트 장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현대화된 영지’의 흐름을 포착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논의는 존재의 궁극적인 해방과 구원을 둘러싼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세계관을 경유하게 될 것이다.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를 관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관된 영적 지향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유성이 그것이다. 이는 양자의 극명한 차이가 인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정치함으로써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 베이유의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앞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는 고백에 이르도록 하는 작은 표지자로 소용되기 위함이다.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에 대한 컨템포러리 아트 장의 일반화된 인식이나 평가는 본 논의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의 작품들의 예술적 질이나 수준에 대한 통상적인 논평 또한 이 논의의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도 논의에 앞서 밝혀두는 바다.

1. 숭고미(崇高美), 하지만 포스트모던한

바실리 칸딘스키는 그림을 그릴 때, 고전음악에 몰입하여 어떤 초월적 교감에 몸을 맡겼다. 음악 감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나아감을 크게 돕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악을 들을 때의 비물질적 교감이 뇌리에 잔상으로 남았다가 시각 이미지의 바탕으로 유입되면서, 이미지를 영혼의 울림을 간직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대상의 내면을 투시하도록 하는 감각이 시각보다는 오히려 청각 쪽이라고 믿었는데, 물질적 기반이 없는 소리가 영혼으로 나아가는데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 때

문이었다.

서구 현대미술에서 비물질적 차원에 대한 추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1970년대에 이르러 나타난 개념주의 미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예술의 본질은 개념이며, 물질로서 예술품은 개념의 운반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의 요지다.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상한 정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변의 기원은 “물질은 악하고 영(靈)은 선하다”를 신조로 삼는 영지주의(gnosticism)에 닿아 있다. 영지(gnosis)는 물질이나 신체 노동을 ‘더러운 속박’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에서 탈출해 숭고한 비물질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영적 지혜를 의미한다. 그 지혜는 고대 그리스의 어떤 선지자가 꾸었던 ‘거짓된 꿈’ 곧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더 고귀하다는 환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영혼은 신의 피조물인 반면, 물질(육체)은 악마의 창조물로 정죄된다. 영지의 맥락에서 실존은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에 의해 신의 창조물인 영혼이 고통당하는 과정이고, 참된 해방은 이에 대한 그노시스, 곧 영적인 삶의 도움으로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오는 이야기다.(플라톤, pp.196-199)

2004년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은 1971년부터 소장해온 바넷 뉴먼(Barnett Newman)의 <부러진 오벨리스크(Broken Obelisk)>(1963-69)를 새로 단장한 아트리움의 중앙에 설치했다. 오벨리스크는 전승을 기념하거나 왕의 위업을 과시하는 문장이나 모양을 새겨넣은 형태로, 상층부로 갈수록 가늘어져 끝이 뾰족한 방첨탑으로, 태양 숭배 곧 태양신 호루스 숭배의 일환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뉴먼은 오벨리스크의 중간 부분을 부러트리고, 부러진 상단부를 뒤집어 세움으로써 숭고미(崇高美)의 도상학적 상징으로 삼고자 했다. 높이 7.7m가 넘는 이 조형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아랫부분은 피라미드 형태, 윗부분은 부러진 오벨리스크가 거꾸로 세워진 모습으로, 예술을 통해 역사의 비극성을 숭고의 섬광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 한다. 미(美) 자체보다 숭고미를 더 높은 가치로 여겼던 뉴먼에게 유럽의 현대미술은 그리스적 미(美) 개념에 함몰된 나머지 숭고미의 가치와 구현에 실패한 미술이었다. 따라서 유럽의 유산에서 자유로운 미국 미술이 예술의 새 역사를 이끌 주인공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했다.(박은영, p.107)

뉴먼의 정의에 의하면 숭고미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대하고 강력한 어떤 것”의 존재와 관련이 있으며, 이성을 초월하는 속성으로 인해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은 것 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식별 가능한 형태나 색채도 그것의 표현을 방해할 뿐이다. 뉴먼의 회화 <Vir heroicus sublimus>(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1950-51)처럼, 지극히 비재현적인 빨간 바탕에 한, 두 개의 수직선을 긋는 정도가 그나마 숭고미에 다가서는 최선의 형식이었다. 그렇기에 그 수직선조차 최대한 중립적이고 탈주관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극적인 부재에서 탄생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례 없이 기계적이고 차가운 색면추상이었다.(박은영, p.108)

표현의 절대 부재가 곧 숭고미의 표현이라는 뉴먼의 주장은 이내 비판에 직면했다. 우선, 이성을 넘어서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사실 뉴먼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원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밝힌 바 없다. 비단 뉴먼으로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리라. 특히 근대 이후 철학이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같은 포스트모던 담론가들은 그것을 ‘미지의 것’ 등으로 에둘러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못 미친다.(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pp.162~163) 예컨대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1987-1962) 같은 사상가는 뜻밖으로 태양신과 관련된 신화를 다시 들고 나온다. 그는 태양신을 힘과 생명을 통제하는 두려운 존재로 믿었던 고대 로마의 플리니우스(Plinius)를 뒤따라, 오벨리스크를 ‘석화된 태양광선’으로 해석한 바 있다.(박은영, p.110)

무엇보다,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숭고의 최적화된 표현이라는 주장은 그 취약한 근거에 더해 그것이 영지주의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뉴먼의 색면추상 회화는 표현의 부재에서 오는 중립성으로 인해 최소한의 의미에서도 예컨대 에드문트 버크(Edmund Burke)가 숭고미에 동반되는 경험적 차원이라고 한 것, 즉 다른 세속적 미(美)로는 허용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버크에 의하면 숭고미의 경험은 초월성에서 오는 공포나 고통을 주는 위협적인 요소가 통제되면서, ‘큰 열락(delight)의 감정’이 물려오는 것으로 경험된다.(Edmund Burke, pp.33~34) 버크의 ‘큰 열락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건, 일체의 표현적 요인을 배제해버린 뉴먼적 의미의 숭고 회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뉴먼의 <부러진 오벨리스크>가 개신교 침례교의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며 기독교 평화주의자이기도 한 마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를 기념하는 상징조형물로 채택되고, 특정 종교와 무관하게 명상과 정의를 위한 기도 공간으로 세워진 로스코 채플(rothko chapel)에 설치되는 일련의 과정은 실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태양신 숭배의 잔흔인 오벨리스크와 기독교 복음, 탈종교적 명상이 동등한 반열에 오르고, 즐거이 뒤섞이면서 마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념하는 것 같다. 교회 용어사전에 의하면 종교 다원주의에 내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에는 단순히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종교다원화 상황을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는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포함된다. … 구원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것, … 즉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이다.”(교회용어사전)

2. 빌 비올라의 예술과 정신세계

2-1. 포스트모던 인식론과 ‘궁극적 깨달음’

비올라는 이 시대의 예술이 “우리의 내적 삶들과 연결된 매우 많은 것들... 사랑 그리고 미움, 공포, 삶과 죽음”과 같은 인류의 오래된 주제를 더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신비도 생기도 없는 진부하고 찢기 없는 것으로 퇴락되고 말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칭 신비주의자(mystics)로서 비올라는 자신의 ‘매우 사적인 신비주의적 감각’(mystical personal sensation)과 영적 깨달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예술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Donald Kuspit, 1993) 그리고 자신의 비디오에 자신의 정신적 비약을 허락했던 그 깨달음의 내용을 담고자 했다. 비올라에게는 종교를 급진적으로 부정하는 세속화 시대의 한 가운데 깨달음의 종교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 예술의 시대적 소명이었다.

비올라의 이러한 초이성적인 인식은 그의 독특한 정신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성과 합리주의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흐름에의 편승이기도 하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비올라 자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적 경향과 그로 인한 무의미와 혼돈의 탐닉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같은 인식론자의 사변과 견줄 때 이러한 구분이 확연해진다. 들뢰즈에겐 의미 자체가 모순(paradox)의 상태이자 합의의 이름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억압, 즉 해방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의미-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그에게 의미는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 아니라 해방시켜야 하는 억압이므로, ‘의미의 해방’이니 ‘동일성의 파괴’니 ‘역설의 정신’이니 하는 것이 지적 궁극이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역설의 정신(spirit of contra-sens)은 “합의된 한 방향의 원리에서 이탈해 두 방향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고정된 동일성을 지정하는 논리를 깨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윤희경, 2011) 하지만 의미와 무의미를,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선(善)과 악(惡)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두 방향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 해방된 상태라는 이러한 인식론으로부터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회색의 인간’이 대거 양산되었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일관되게 선(善)을 추구하고 옳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비올라는 포스트모던 인식론의 허구성을 일찍이 간파했다. 현상계의 미몽을 떨쳐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떨쳐냄은 그가 경험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하는 ‘궁극적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었다. 해체는 사람들을 ‘존재의 토대’, ‘존재의 뿌리’로 안내하는 인식

적 수단일 뿐 정신이 도달해야 할 궁극이 아니다. 비올라의 인식은 후기구조주의나 해체주의 같은, 1960년대 이후 현대미술에 깊이 난입한 인식론이나 언어학 같은 유행하는 비평이론이 아니라, 그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선불교에 그 뿌리를 둔 것이다. 그 자신이 고백하듯 그의 시선은 이미 동시대의 담론 지형을 떠나 오래전에 잊혀진 ‘거대한 주제들’로 향했던 것이다.(John Walsh, p.57) 존 케이지의 노선, 스스로 미술관의 영매를 자처했던 요셉 보이스와 망자의 혼을 불러내는 백남준의 진혼곡에 의해 어렴풋하게 제시되어왔던 궤적을 따라 나섰던 것이다.

2-2. 신비주의적 인식

1980년 ‘일본, 미국 간 예술창작 지원금’으로 18개월 동안 일본에 체류했던 경험이 비올라의 의식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일본 체류 시절 친분을 맺은 선불교의 승려이자 화가이기도 했던 다이엔 타나카의 영향이 특히 컸다. 1981년에 소니사와 기술제휴를 맺은 ‘아츠키 연구소’에서 그의 영상작업을 대표하는 기법인 영상 느림 효과(탈랑티, ralenti)를 만드는 것도 타나카로부터의 영향으로 가능했다. 타나카의 도움으로 비올라는 일본의 선(禪) 사상에 심취했다. 비올라에게 그것은 “선의 충만한 삶에 그의 주체적 인식이 추월당하는” 경험, 즉 자신의 근대적 이성이 전복되는 경험이었다. 비올라 자신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사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선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산들은 산들이었다. 내가 선을 이해했다고 믿었을 때 그 산들은 더 이상 산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선의 충만한 삶에 추월당하게 되자 그 산들은 다시 산들이 되었다.”(Paul Schrader, p.38) 특권적 주체를 강조해온 서구 철학의 전망을 벗어났을 때,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주체와 대상에 대한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정신적 비약의 계기가 다가왔다는 것이다.(Bill Viola, 2003, p.235) 비올라는 말한다. “정신으로서의 육체/ 육서의 풍경/ 풍경으로서의 육체 … 안과 겉의 구분을 파기함으로써 오는 자기 해체….”(Bill Viola, 2002, p.151)

구겐하임 미술관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Going Forth By Day)전에 나왔던 다섯 개의 고화질 영상 가운데 하나인 〈The Passing〉(1991)에 그러한 그의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영상은 밤하늘의 이미지로 시작되지만, 이내 물에 빠져 익사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결국 그는 익사를 면하고 구원받는다. 비올라에게 구원은 기독교의 신의 은총이 아니라, 불교의 윤회 메커니즘에 더 가깝다. 비올라 자신은 (마치 자살의 의도로?) 물속으로 뛰어들지만, 이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마치 익사한 것처럼,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물에 잠긴 채다. 여기서 죽음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양분

될 수 없는 하나로, 서로 맞닿아 있다. “... 수면 위의 세상이 화염으로 얼룩진 파괴와 죽음의 도가니라면, 수면 아래의 세계는 혼돈 속에서도 삶의 모호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이지은, p.132) 여기서 물은 단순한 물질 이상으로, 죽음에서 다시 탄생으로 이어지는 연결 기체다. 물은 죽음의 경험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생명과도 결부된 것으로 생명의 매체이자 자궁과도 같은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 비올라에게 풍경과 인간, 물과 생명의 차이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 것만큼, 현상계와 현상계 밖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2015년 국내 개인전 개최와 관련한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딘가, 어디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더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정성갑, 2015)

비올라의 인식 형성과정에 일본의 선불교 사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다. 1982년 히말라야의 라다크(Ladakh) 지역을 여행하면서 티벳 불교와 그 의식에서 획득했던 깨달음, 1984년 힌두교의 제례 의식과 ‘불 위를 걷는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던 피시지 섬에서의 경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985년의 다섯 달은 미국 남부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의 무덤과 벽화 연구에 몰입하기도 했다. 사실 일본을 여행하기 오래전인 1977년에 이미 자바와 발리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토속음악과 전통 예술품들에 매료되기도 했다. 이러한 복수의 아시아 종교들에 깃들여 있는 신비주의적 성향이 그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유사 종교적 체험으로 통합되면서 그의 예술론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그의 모친이 사망하고 둘째 아들 안드레가 태어나는, 죽음과 생명의 동시적인 체험은 그의 예술이 신비주의적 경향에 더 깊이 빠져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 잠, 죽음, 출생 등의 주제가 더 자주 등장한다. 마이클 러쉬(Michael Ruch)에 의하면, 비올라의 정신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동양의 신비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들”이다.(Michael Ruch, p.109) 비올라 자신의 고백에 이러한 사실이 잘 담겨있다.

“이른바 삶의 영적인 면은 우리 존재의 기본적인 본질 속에 짜여 있다. 당신은 이것을 감추거나 파문기 위해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숨결이나 심장박동 같은 것이어서 항상 그곳에 있다. ... 거기에는 자각, 계시, 혹은 깨달음의 계기가 항상 있다. 이 긍정적 잠재력은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의 기본바탕이다.”(Bill Viola, 2003, p.139)

비올라의 신비주의적 성향에는 노장사상의 일면도 있는데, 그가 세계를 “음과 양의 상보적인 두 극 간의 대립”으로 본다거나 세계의 제 현상들을 그 지류로 설명할 때 그렇다.(Anne-Marie Duguet, p.44.) 이렇듯, 아시아의 여러 종교와 사상들에서 수용된 혼재적 인식은 개념미술이 주류로

부상했던 1970년대 공간에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술의 본질이 보이지 않은 개념의 추구인 반면, 물질은 정보 전달의 매체일 뿐이라는 개념미술의 전언에 비올라의 비디오 영상이야말로 찰떡궁합처럼 보였던 것이다. 1970년대의 개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 그 젖줄을 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지녔다. 개념주의 미학이야말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상한 정신을 추구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20세기 버전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오래전 영지주의자들(Gnosticists)의 주장에 그 맥락이 닿아 있다. 비올라가 자신의 미학적 근거를 영계와의 관련성에서, 즉 오래전 영지(gnosis)에서 구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2-3. 랄랑티(ralenti)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는 일본의 선 불교만큼이나 소니(Sony) 사의 디지털 영상기술에서도 영감을 취했다. 그의 예술에 영혼을 불어넣은 것이 일본의 선불교였다면, 몸은 소니(sony)사의 영상기술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올라는 그것들이 인류에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는 두 개의 기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비올라의 많은 영상들은 극 저속촬영기법인 랄랑티(ralenti)에 의해 제작되었다. 랄랑티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낮은 속도의 동작(Mouvement à vitesse plus basse)’이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비올라의 비디오 안에서 시간은 본격적으로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지만,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출품작이었던 <방문(The Greeting)>에서 랄랑티는 기법으로서 이미 충분히 진화한 상태였다. 동정녀 마리아가 사촌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르네상스 화가 자코포 다 폰토르모(Jacopo Carrucci detto Pontormo)의 1528년 작 <성모의 방문(Visitation)>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이다. 비올라는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별도의 해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경쟁적으로 속도를 추구하는 현대적 시간개념에 대한 반동을 반영한 자신의 비디오의 시간에만 오롯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 예외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시간으로 인해, 매우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비디오의 흐름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바람에 의해 미세하게 휘날리는 여인의 옷자락, 불빛, 세 여인의 표정 변화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다.

2000년 작 <놀라움의 5중주(The Quintet of Astonished)>를 사례로 들어보자. 검은 화면에 등장한 중년의 남녀 5명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떤 대상과 마주한 듯, 두 눈을 감거나 고통에 찬 시선으로 익명의 대상을 응시한다. 견디기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미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화면 속 인물들의 움직임은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지켜보아야만 미세한 동작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동작과 정지 사이의 간극은

극히 미미하거나 부재하다시피 하다. 몸짓과 표정을 45초간 촬영한 후, 15분 길이로 확장해, 시간은 20배나 느리게 흐르기 때문이다. 소리와 배경은 일체 배제되어 느낌은 더욱 강조되어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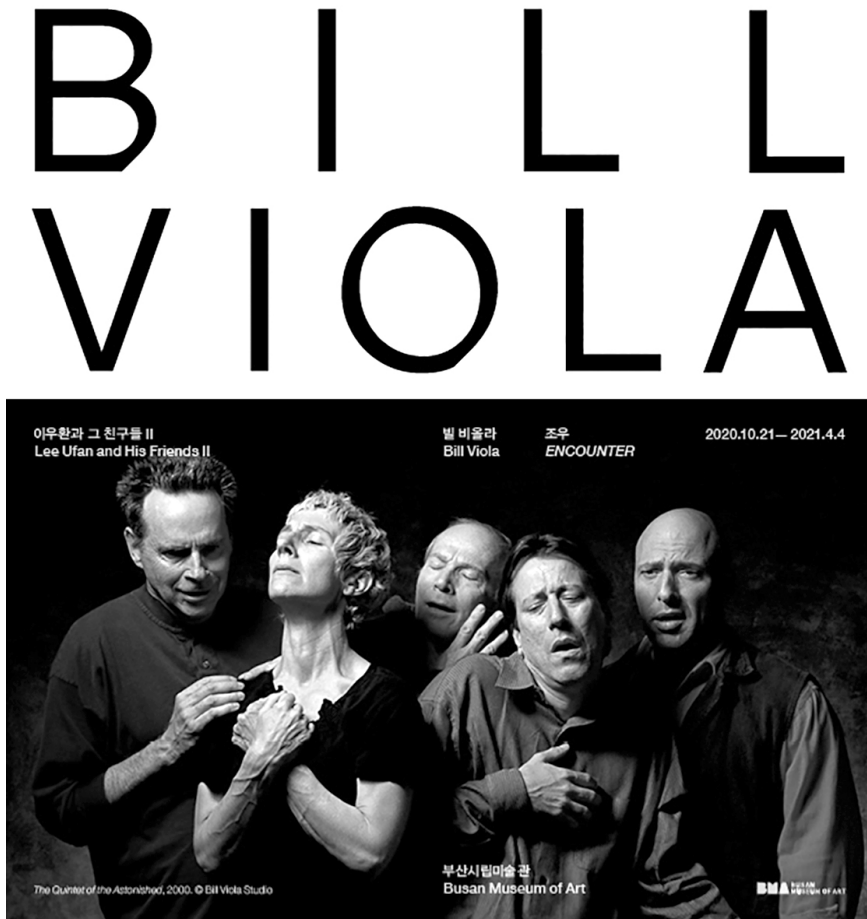


Figure 1. 《빌 비올라, 조우》전 포스터. 2020. 10. - 2021. 4. 부산시립미술관 제공
Bill Viola, The Quintet of the Astonished놀라움의 5중주, 2000(포스터 하단 이미지)

수평으로 배열된 세 개의 LED 스크린으로 구성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는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세 명의 인물을 보여준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걷는다. 이 느낌은 단지 기계적으로 조정되는 영상의 속도, 그러니까 기법이나 스타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 부재의 행보 이상으로 선언적이다. 그것은 대상을 오랫동안 주시하

도록 해 대상과 주체의 이분법을 느슨하게 하고, 이를 통해 주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불교의 명상에 기반하는 지각이다. 그 명상을 통해 문제투성이인 근대적 주체로부터 구원이 성취된다는-될 수 있다는-, 적어도 응시의 순간만큼은 주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경험되도록 한다는, 즉 영지적 맥락과의 교호인 것이다. 비올라가 풍경에 대해 말할 때 이 점이 분명해진다. “풍경을 오래도록 응시해보라. 그것은 점차적으로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고 당신의 사상이 된다. 내 작품에서 지속(duration)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Bill Viola, pp.150~151)

탈랑티 효과의 개념적인 근간인 지속성은 비올라의 미학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역사적 시간 너머의 것, 곧 영속성의 추구와 결부되어 있다.(Bill Viola, p.234) 일상이라는 시간의 외부, 물질들의 리듬을 벗어나 영원히 그 물질들에 속박되지 않는 정신세계로의 나아감이다. 이 세계는 비올라가 경험한 선(禪) 사상의 깨달음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다.

3. 종교 다원주의: 구원과 윤회의 혼재 또는 혼합

앞서 언급했듯, 물은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 전체를 가로지르는 요소이자 주제이기도 하다. 그의 초기작에서부터 물은 변함 없이 죽음과 삶, 탄생과 소멸과 회생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등장하는데, 이는 선불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윤회 사상에 기댄 의미 부여다. 하지만, 대형 설치작품 <새천년을 위한 다섯 천사들>(Five Angles for the Millenium, 2001)에서 보듯, 비올라의 세계는 불교와 진리 개념과 기독교적 모티브를 뒤섞으며 양자의 경계를 넘나든다. 더 안으로는 부활 신앙과 윤회 사상의 혼용이 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인 <방문>은 앞서 언급되었듯 피렌체 마니에리즘의 대표작가인 폰토르모의 1528년 작 <성모의 방문(Visitation)>에서 영감을 취했음이 분명하다.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제작된 두 점의 <격정> 연작 가운데 <의식>은 르네상스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의 제단 측면화인 <네 명의 사도(Four Apostles)>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격앙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작들 가운데 하나인 <고요한 산>의 남녀 한 쌍도 나무에 묶인 채 화살에 맞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 세바스찬(Saint Sebastian)의 현현이다.(John Walsh, pp. 42~44)

게티 센터 전시에 출품되었던 <출현>(Emergence.2002)이나 소규모 LED 모니터를 이용한 초상화의 형태와 흡사한 작품들도 과거 교회 제단화나 성인의 초상을 담은 패널화의 형태로부터 온 것이다. 이 작품-<출현>-의 구성과 구도는 초기 르네상스 화가 마솔리노 다 파니칼레(Masolino da

Panicali, 1383-1447)의 <피에타(Pietà)>(1424)를 차용한 것으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예수의 시신 양옆에서 오열하는 구성을 차용했다. 비올라의 비디오에서 아마도 예수를 연상케 하는 익명의 청년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청년이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심지어 실제 하는 인물인지조차 불확실하다. 청년은 마솔리니의 <피에타>에 나오는 우물을 떠올리게 하는 대리석 우물에서 수면 위로 솟아오르고, 물 밖으로 나와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그러자 늙은 여인은 누운 채인 청년을 무릎 위에 누이고, 젊은 여인은 청년의 몸을 흰 천으로 덮어준다. 이러한 전개는 예수의 십자가 수난에 대한 비유에서는 멀어지는 반면,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선불교의 윤회 사상에 크게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 차용된 원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지만, 비올라의 차용 안에서는 전생-또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정화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픈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는 <대홍수(The Deluge)>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 비디오에서 절정은 건물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큰 물에 몇 명의 사람들이 휩쓸려 나오는 장면이다. 이 역시 서사의 틀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인용된 것이다. 특히 대홍수는 많은 작가들이 특히나 애용했던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에서 자주 차용되었는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나 라파엘로의 <대홍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도 비올라의 사건 전개는 성서와는 그 의미 계보가 전혀 다른 영적 계몽을 위한 텍스트로 전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궁극적 해방자와 피 해방자 간의 관계에서 그렇다. 비올라의 세계에서는 해방자와 피 해방자가 동일자로 일치한다. 이는 비올라의 <대홍수>에서 사람들을 거칠게 끌어버렸던 홍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줄어들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건물과 거리는 마치 스스로 정화된 것처럼, 깨끗이 씻긴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햇살에 빛난다. 즉 이것은 성서가 말하는 심판으로서의 홍수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즉 현상적으로는 사망 이전으로의 윤회에, 내용적으로는 어떤 영지의 작동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이지은, p.133)

비올라의 <대홍수>에서는 누락된 두 질문, 홍수는 왜 왔으며, 어떻게 홍수로부터 회복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에 있어서 두 세계의 해방관은 극명하게 갈린다. 복음은 인간의 지식과 깨달음만으로는 존재성에 각인된 근원적인 결핍과 왜곡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존재의 근원에 드리워진 죄성(罪性)을 인식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무상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다. 하지만, 비올라의 <대홍수>에서 이에 대한 답은 해방은 이와 전혀 상이한 의미로 귀착된다. '하나님의 심판-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새 하늘'의 전개가 '명상-깨달음-자기정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깨달음으로, 구원에서 정화로, 즉 은총에서 영지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86년 작 <I do not know what it is I am like>(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부터 이미 모호하지 않았다. 이 비디오에서 들소의 시체는 파리 떼에게 먹히면서 부패하지만, 그것을 먹은 파리의 신체로 되살아난다. 이는 존재는 실체가 없고,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하며 끝내 소멸하고 말지만, 생명은 다시 순환하고 윤회하는 존재라는 믿음, 곧 ‘제행무상(諸行無常)’을 기본원리로 표방하는 초기 불교 세계관의 긴밀한 반영임이 분명하다. 비올라가 물과 불을 즐겨 사용했다는 것도 같은 지점을 가르킨다. 물과 불은 세계가 음과 양이라는 대립적 성질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 유지된다는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 도가 사상에서 온 것이다.(이진오, pp455-456.)



Figure 2. Andrea di Bartolo, Saint Catherine of Siena altarpiece,
시에나의 성 캐서린. 제단화, 14th century.

또 하나의 사례로, 5개의 소형 LCD 모니터로 구성된 <캐서린의 방>(Catherine's Room. 2001)을 들 수 있다. 이 비디오는 전통적인 제단화의 프레델라(Predella)형태를 차용한 것을 포함해, 안드레아 디 바르톨로(Andrea di Bartolo)의<시에나의 기도하는 성녀 캐서린>(St. Cartherina of Siena Praying)를 함께 차용했다. 1347년 시에나의 염색업자의 딸로 태어난 성녀 카타리나는 어릴때부터 환상을 보는 등 유난히 신앙심이 깊어 7세 때에 동정(童貞)을 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행과

금욕, 봉사 등 엄격한 수행 생활 중 1375년에는 예수의 오상성흔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비올라에 의하면, <캐서린의 방>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Santa Caterina da Siena, 1347-1380)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일상의 신성한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 한다. 실시간으로 촬영된 5편의 영상에는 체조, 묵상과 기도, 독서와 글쓰기, 바느질, 잠자기 등 카타리나의 활동이 담겨있다. 각각의 것들은 계절들이 바뀌는 동안 단칸방에서 보낸 그녀의 삶의 과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관장하는 영성과 자기성찰이 어떻게 사물의 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비올라는 기독교의 구원과 심판,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화를 차용하지만, 그의 비디오 안에서 그 내용은 그의 신비주의적 경향과 혼용되면서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난다. 성서의 메시지는 “전혀 새롭게, 모든 문화와 종교가 수궁할 수 있는 폭넓은 차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으로 변형된다. 물론 이를 “종교로서 크리스천 신앙을 더 폭넓은 영성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는, 본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으로 범용화(汎用化)된 인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교의 선, 모슬렘의 신비주의인 수피즘, 기독교 신비주의를 통합해서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여러 종교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 주님의 부활이라는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을 ‘재생’이라는 인류 공통의 희원으로 확대 표현함으로써 ... 보다 나은 삶, 영원한 삶에의 갈망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근감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비올라의 세계를 시대착오적인 이론으로 퇴락한 기독교의 신조를 “현대인의 감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한”, 예술의 순기능의 좋은 사례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은 2020년 10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비올라의 초대전 《빌 비올라, 조우》전의 서문도 목격된다.

“그-비올라-는 ... 동시대 미술에 대한 시각을 넓혀 주기 위해 작품 속에 선불교, 이슬람 수피교, 기독교 신비주의 등 많은 학문과 철학을 통합시켰다.” (《빌 비올라, 조우》전, 2019)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의 신앙은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지거나, 선불교나 이슬람 같은 타 종교의 교리나 철학적 사변과 통합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는 리 호이나키(Lee Hoinacki)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말들 가운데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Lee Hoinacki, p.120)

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으로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는 것으로, 성 토마스가 ‘영혼의 특별한 빛’으로 묘사했던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하나님의 신성한 선량함에 동참할 수 있는 본성의 상태’로 영혼을 끌어 올려주는 것으로서, 이 은총 없이 존재에 각인된 죄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신성한 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올라의 비디오들에 담긴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2014년 작<순교자들>에 대해 알렉산더 맨덴(Alexander Menden)이 평했듯 “정화된 뉴에이지-키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정한 평가가 평단에도 존재한다.(Alexander Menden)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2014년 작<순교자들>이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St. Paul 's Cathedral)에 영구 설치되기도 했다.(김민지, p.64) 세인트 폴 대성당이야말로 명상적 공간으로서, 자신의 비디오를 상영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비올라는 말한다. 그 엄숙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관객들-가톨릭 신도들을 포함해서-은 범신론적으로 번역된 4개의 영상이 방출하는 “명상적 관조”를 경험하도록 안내되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순교의 의미도 기독교 복음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에서 순교의 의미는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신앙의 순교가 압박과 박해를 무릎쓰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비올라의 <순교자들>에서 그것은 관조자들이 “자신의 원초적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도록 스스로를 영지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민지, p.69)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이 영지적 인도 또는 극복은 자연의 힘 앞에서, 또는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 두려움이라는 존재 내적 결함을 ‘스스로 치유하는’ 영지적 장치로서의 순교인 것이다. 이것은 2000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숭고함을 기억하고 기념해온 해운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론: “기독교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이후, 미신적인 것에서 초월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합리적인 것들을 몰아낸 세속화 시대가 도래했다. 세속화 이론에 의하면, 진화된 이성에 의해 합리화가 진행된 결과, 성인(聖人)이 된 인간은 신(神) 존재 가설을 폐기하고, 그 대체물로 정의와 연대, 평등, 인간 존엄이라는 비종교적 가치를 확산시켰다.(자크 엘룰, p.23)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삶에서 비롯되는 소외와 상실, 절망이 오히려 깊어지고, 더 견디기 힘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면서, 그러한 개념들-정의, 연대, 평등, 인간 존엄-의 임의성과 무기력함, 허구성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세속화 이론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왜 점성술이나 주술 같은 비교(秘敎)의 잔재들

이 오히려 더 성행하고, 세속적 형태의 우상숭배가 더 만연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엘웰에 의하면 인간은 신화를 부수고 다시 불러내기를 반복하는 존재다. 인간 자체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자제할 수 없는 호모 릴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매우 무의식적으로 종교적 영역의 경험을 따르고, 그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세상과 자신의 고유한 삶에 의미와 목적과 한계를 부여하는 존재”다.(자크 엘웰, p.22) 종교적 인간은 새로운 가설이 아니다. 칼 귀스타브 융(Carl Gustav Jung)도 인간의 근원에 대해 밝히면서, 존재의 의식의 어딘가에 ‘신화를 창조하는 기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베이유는 문제의 더 깊은 단층을 본다. “인간의 사고는 정념이나 환상, 피로에 종속되어 가변적이다. 그런데 활동은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와 관련되지 않은, 즉 여러 관계들과 연결되지 않는 동인이 필요하다(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시몬느 베이유, p.99)

호모 릴리기오수스의 맥락에서 보면, 삶에 대한 비세속적 인식이 테크놀로지 시대 예술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앞서 쿠스핏의 인용에서 보았듯, 세속사회에서 폐기되고 실종된 종교의 대리물로서 예술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존 케이지의 <4분 44초>, 마크 로스코의 휴스턴 채플, 요셉 보이스의 영매-퍼포먼스<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1965), 그리고 망자의 혼을 불러내는 백남준의 굿(1990) 퍼포먼스도 있다. 백남준은 잣과 두루마기를 걸치고, 심장병으로 사망한 보이스의 혼을 부르는 진혼굿을 재현했다. 당시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굿판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쳐 일대가 정전사태가 있었는데, 일부 관객은 정말로 보이스의 영이 내려왔다고 수군거렸다고 한다. 첨단 기술 시대의 한복판에서, 예술이 망자의 혼을 달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복을 비는 무속신앙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다.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는 기독교의 부활과 불교의 윤회의 경계를 넘나든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이슬람의 수피즘까지 폭넓게 섭렵한다. 영상미의 근간을 이루는 명상적 시간은 일본의 선불교에 뿌리를 둔다. 이는 성서의 사건을 모티브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The Passions>을 구성하는 소형 LCD 모니터들은 15세기의 순례자들이 몸에 지녔던 성인(聖人)들의 초상을 보여주지만, 그 쓰임새는 영적 깨어있음을 독려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이지은, p.144) 새로운 탄생이 강조되지만, 의미는 불교적 윤회의 그것에 가깝거나 함께 아우른다.<The Passions>에서 아들의 탄생과 노모(老母)의 죽음이 서로 결부되듯, 삶과 죽음은 끝없는 순환의 한 과정일 뿐이다. “비올라의 많은 작품은 희미한 빛의 너울거림으로 시작하여 완전한 어둠으로 끝난다. … 또 어두운 공간에서 비디오의 빛을 발견하고, 다시 일상의 빛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사자의 서』에 나오는 죽음의 체

험과도 같다. ... 이것은 불교의 윤회며 기독교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최지원, pp.77-78)

하지만 윤회설과 부활 신앙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그 차이로 인해, 양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상상적 차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 차이는 신의 위치, 또는 절대와 자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을 한없이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신이라 부르는지의 차이다. 한없이 높은 곳에 신을 위치시키는 경우,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했던 일, 지금 하는 일,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선(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몬느 베이유, p.81) 기독교는 자신의 신성함에 대한 ‘진정한 증거’에 그 기반을 두는데,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증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은” 한 사람, 곧 예수가 바로 그 증거이다. 십자가상의 예수라는, 처절하고 절박한 사건은 그 자체 외에 어떤 상상적인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웃도 걸치지 않고 죽음을 겪어야 한다. 상상적인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오직 십자가만이 상상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시몬느 베이유, p.138) 복음은 예수의 대속 사건 외에 다른 영지를 상상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루터가 기독교의 신학은 사변의 신학이 아니라 계시의 신학이라고 한 이유다.(마이클 호튼, p.149) 호모 릴리기오수스의 종교성이 허위의 신을 찾는 미혹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야만 했던 것이다.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를 관류하는 정신적 추구의 방향은 호모 릴리기오수스의 종교적 상상력과 감성으로 충전되어 있으며, 해서 그의 작품들은 현대미술의 영역을 확장한 21세기의 종교화로 찬사받는다. 하지만 이 세계를 관류하는 영적 깨달음의 의미는 ‘정화된 뉴에이지-키치’라는, 동시대 미술의 트렌드에서 그리 멀지 않다. 이 세계가 제시하는 궁극적 해방은 어떤 영지적 득도(得道)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관련된 호모 릴리기오수스의 상상과 물질 만능시대의 부조리를 보상하는 심리적 위안을 모호하게 오간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곽혜원 역 (2012). **희망의 윤리**. Moltmann, J. (2010). *Ethik der Hoffnung*.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wak, H. Y. (2012). *Ethik der Hoffnung*. Seoul: Korea Christian Books. Trans. Moltmann, J. (2010). *Ethik der Hoffnung*. Guetersloh & Munich: Guetersloh Verlagshaus]
- 김재영 역 (2005).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 Horton, M. (1996), *In the Face of God*. 서울: 규장.
- [Kim, J. Y. (2005). *In the Face of God*. Seoul: Kyujang. Trans. Horton, M. (1996), *In the Face of God: The Dangers and Delights of Spiritual Intimacy*. California: W Pub Group]
- 박동열 역 (2021). **새로운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 Ellul, J. (2003), *Les Nouveaux Possédés*. 논산: 대장간.
- [Park, D. Y. (2021). *Les Nouveaux Possédés*. Nonsan: Daijangan. Trans. Ellul, J. (2003), *Les Nouveaux Possédés*. Paris: Fayard]
- 부회령 역 (2016). **아미쿠스 모르티스**. Hoinacki, L. (2006), *Amicus Mortis*. 서울: 삶창.
- [Boo, H. R. (2016). *Amicus Mortis*. Seoul: Samchang. Trans. Hoinacki, L. (2006), *Dying is Not Death*. Searcy: Resource Publications]
- 심철웅 역 (2003). **뉴미디어 아트**. Rush, M. (1999), *New Media in Art*. 서울: 시공사,
- [Shim, C. Y. (2003). *New Media Art*. Seoul: Sigongsa. Trans. Rush, M. (1999), *New Media in Late 20th Art*. London: Thames & Hudson]
- 윤진 역 (1999). **불꽃의 여자 시몬느 베이유의 사색 1 - 중력과 은총**. Weil, S. (1947), *La Pesanteur et la Grâce*. 서울: 사회평론.
- [Youn, J. (1947). *A Woman of Flame, Simone Weil's Thinking 1 - Gravity and Grace*, Seoul: Sahoepoungron. Trans. Weil, S.(1947), *La Pesanteur et la Grâce*. Paris: Plon]
- 이현복 역 (1994). **지식인의 종언**. Lyotard, J.-F. (1984),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서울: 문예출판사.
- [Lee, H. B. (1994), *La fin des intellectuels*. Seoul: Moonye Publishing. Trans. Lyotard, J.-F. (1984),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Paris: Éditions Galilée]
- 김민지 (2019). 미디어아트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빌 비올라의 <순교자들-대지, 공기, 불과 물>(2014)을 중심으로 -, **예술과 미디어**, vol. 18. no. 2. 57-78.
- [Kim, M. J. (2019). The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at media art - a study on Bill Viola's <Martyre-Earth, Air, Fire and Water>(2014) -, *The Korean Journal of Art and Media*, vol. 18. no. 2. 57-78.]

- 박은영 (2007). 바넷 뉴먼의 <부러진 오벨리스크>- 기념비적 성격을 중심으로 -, **미술사학보**, no. 28. 93-119.
- [Park, E. Y. (2007) Barnett Newman's Broken Obelisk: On Its Monumentality,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no. 28. 93-119.]
- 윤희경 (2011). 이미지와 텍스트의 해체적 실행으로서의 게리 힐의 비디오 아트: 80년대까지의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vol. 12. 35-60.
- [Yoon, H. K. (2011). Gary Hill's Video Art as a Deconstructive Practice of Image and Text: On Single-Channel Video Art Work by the 1980s, *The Journal of Art Theory and Practice*, vol. 12. 35-60.]
- 이지은 (2005). 21세기의 종교화?: 빌 비올라(Bill Viola)의 근작들, **인문과학연구논총**, vol. 27. 129-149.
- [Lee, J. E. (2005). Religious Paintings of the 21st Century?: The Recent Works by Bill Viola,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27. 129-149.]
- 이진오 (2010). 불교미학적 관점에서 본 빌 비올라(Bill Viola)의 비디오와 김아타의 사진, **비교한국학**, vol. 18. no. 3. 437-466.
- [Lee, J. O. (2010). A Study of Atta Kim's Photography and Bill Viola's Videos from a Buddhist Aesthetic Point of View,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8. no. 3. 437-466.]
- 최지원 (2008). **빌 비올라의 1990년대 이후 작품 속에 표현된 죽음**.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Choi, J. W. (2008). *The Expression of Death in Bill Viola's Works after the 1990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taille, G. & Stoekl, A. (1985). *Vision of Express: Selected Writings, 1927~39*. Trans. Allan. Stoekl, Carl. R. Lovitt & Donald. M. Leslie. Jr.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urke, E. (1998).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guet, A.M. (2002). *Dejouer l'image: Création électroniques et numériques*, Nime: Jacqueline Chambon.
- Lee, P. J. (1987). *Against the Protestant Gno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man, B. O'Neill, John P.(1992). *Barnett Newman: Selected Writings and Interview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ch, M. (2000). *Les Nouveaux Média dans l'Art*, Trans. Christian-Martin Debold, Paris:

Thames and Hudson.

Schrader, P. (1972). *Transcendental style in film*. New York: Da Capo Press.

Viola, B. (2002). *Reason for knocking at an Empty House writing 1973~1994*. London: The Mit Press Anthony d'Offay Gallery London.

Walsh, J. (2002). 'Emotions in extreme time: Bill Viola's Passions Project', In Bill Viola THE PASSIONS. Los Angeles: Getty Publications.

*인터넷 자료

Art Forum (September, 1993). "Bill Viola's THE PASSING", Retrieved from <https://www.artforum.com/print/199307/bill-viola-s-the-passing-33861> (2021. 10.01)

“빌 비올라(Bill Viola): 상승(Emergence)”. (2013. 04.10)

http://www.ofmkorea.org/index.php?document_srl=52689&listStyle=viewer&mid=ofmsacredpicture (2021. 10.01)

“빌 비올라, 조우”, (2020-21). 부산시립미술관.

https://art.busan.go.kr/02_display/display01_1.jsp?amode=view&id=202009281450331996 (2021.11.29.)

LUXURY. (2015년 4월호). “빌 비올라의 인생 성찰”. Retrieved from <https://www.sueddeutsche.de/kultur/installation-martyrs-in-london-polierter-new-age-kitsch-1.1972302>

http://luxury.designhouse.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69967. (2021.11.29.)

“교회용어사전 : 교리 및 신앙”, (2013. 9. 16). 가스펠서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77795&cid=50762&categoryId=51366> (2022.5.23)

현대미술과 종교 다원주의- 빌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를 중심으로

Contemporary Art and Religious Pluralism- Through Bill Viola's Video Art

심상용 (서울대학교)

논문초록

빌 비올라는 비디오 아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 온 작가다. 비올라의 예술은 종교와 철학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 세계는 매우 정신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영적, 신체적 깨달음에 기반하여, 출생과 죽음, 사후 세계와 부활 같은 주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는 신비주의적이고 범신론적인 영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적 종말론적 교리와 선불교의 윤회론이 나란히 호출되고 충돌 없이 뒤섞인다.

비올라의 비디오 아트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영적 혼합주의 성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세속 사회의 이해와 평가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지평에서 신중하게 되짚어보는 것이 이 논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하는 기독교의 구원 신앙과 불교의 윤회설은 그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진리로 만드는 것에 의해 다른 하나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에 수렴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앞에 이르는 유일한 문”임을 이 시대의 흐트러진 지적 각성의 중심으로 다시 초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제어 : 빌 비올라, 비디오 아트, 현대미술, 종교적 다원주의, 기독교 종말론, 선불교의 윤회론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

The Image of Christ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김철수 (Cheol-soo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read *Never Let Me Go* by Kazuo Ishiguro in light of Martin Buber's philosophy of dialogue, and try a new interpretation of the novel. According to Buber, the true life of this world is an encounter enabled by "grace," and that encounter leads to a meeting with God, who is "eternal You." For Buber, art is not merely the result of an artist's own thinking and experience, but of the meeting between an artist and the object, "with his or her whole existence." The interpretation of a literary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Buber's philosophy requires a new and different approach. That is, instead of the positivist, formal, or socio-historical critiques of the work, which are based on the "I-It" attitude toward the text, Buber's interpretation requires the "I-You" attitude to listen to the text and hear the voice of "eternal You" through the reading process. In an era when human-centered science, technology, literary trends, and philosophy seem to prevail over the truth of the Bible, Ishiguro's novel *Never Let Me Go*, which opens up various reflections through the story of "a clone," might be an appropriate target for text interpretation as "thou." It is because the dialogue with the narratives of a clone speaker, who remembers and mourns the lives of her clone friends growing up to experience human joys and sorrows and completing their lives after their organ donation, reminds a reader of the image of Christ Jesus, who endured deadly sufferings to redeem the sin of human, and further, enables the reader to heed the silent outcry of the implied other in the world.

Key words: Kazuo Ishiguro, *Never Let Me Go*, Martin Buber, *The Text as Thou*, the Image of Christ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1월 30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9일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실시한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Division of General Studies, Chosun University) 부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남쪽 현관 7180-1호, charles@chosun.ac.kr

1.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는 바벨탑처럼 높아져 가는 인간의 지능과 지성, 그리고 갈수록 광대하고 담대해져 가는 인간의 실험과 경험으로 폭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b)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인간의 삶은 예측 불가의 속도로 발전해 가는 교통과 유무선 통신의 수단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과 무한한 발전과 진보의 가능성을 현전하고 있다. 또한 염기서열 발견과 DNA의 제작과 복제 및 다차원 프린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유전자 변형을 통한 품종의 개량이 이미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서 손상된 장기나 신체의 조직까지도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삶에 엄청난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다.¹

이와 같은 과학적 개가는 결국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계속되는 동물 복제에 대한 시도로 이어지고, 그에 뒤이은 인간의 장기 복제의 가능성이 가져다준 생명 연장에 대한 꿈과 소망은 영생불사를 향한 야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인간의 야망은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명 창조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와 병행하여 과학과 기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소비주의 또는 뉴에이지(New Age)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이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기독교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된 “새로운 교단”(Tsao 2012: 219)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줄 것 같은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화려하고 강력한 연료를 바탕으로 꾸준히 타고르고 있는 인간의 산업기술과 문화와 문명이라는 불꽃의 이면에는 현재도 그러한 발달의 가속화와 발을 맞추어 가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바이러스의 위력,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생되는 무력한 타자들의 소리 없는 몸짓과 아우성이 그 불꽃과 함께 피어오르는 그늘음처럼, 또는 그 화려함이 강할수록 그 이면에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 속에 상존하며 우려와 공포를 자아내기도 하고, 통렬한 반성과 회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현대문명과 문화의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국적이나 인종, 또는 시공간과 문명,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한계나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 1954~)의 여섯 번째 소설인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2005)를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

1)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6120.html

면서,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제작된 복제인간들의 행적을 다른 작품의 행간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추적해 보고, 그 이미지들이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일반인의 치료 목적을 위한 복제인간의 제작과 양육이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1990년대 후반 영국(England, late 1990s)”이라는 특정한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적 공상 과학 소설로 알려져 있다. 『타임』지(*Time*)는 이 소설을 2005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했고, 그 잡지사가 설립된 해인 1923년 이후 발행된 100대 영어 소설에 포함시켰다.² 마크 로마넥(Mark Romanek) 감독이 각색하고 연출한 동명의 영화가 2010년에 개봉되었고,³ 2014년에는 유키오 니나가와(Yukio Ninagawa)의 연출을 통해 도쿄에서 연극으로 상연되었으며, 2016년에는 일본 TBS의 텔레비전 드라마(私を離さないで)⁴로 방영되어 황금시간대를 장식하기도 했다(김남주 2021: 67-68). 이 작품이 가진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시구로는 201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분법적 경계를 넘나들며 둘 사이의 차이를 지우고 그 위상과 위계에 대한 전복을 도모해 온 이시구로의 작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더욱더 분명해진 ‘탈중심’과 ‘탈권위,’ 그리고 그러한 전복과 파괴를 기반으로 그 세력을 키워가는 절대적 개인주의의 확산과 강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소위 ‘포스트모던 예술’의 극치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저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서술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끌어가면서도 그러한 기억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일인칭 화자의 서술을 통해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실제와 가상의 전도를 작품 곳곳에서 시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읽고 있는 작품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두 가지의 특성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이시구로의 작품들은 발표될 때마다 엄청난 관심의 중심이 되어 다각적인 비평을 받아왔다. 특히 본 연구의 소재가 되는 『나를 보내지 마』는 “다양한 모험을 통해 상실, 불확실성, 그리고 ‘간병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발달을 도모해 가는 주인공 캐시(Cathy)의 성장소설”(Levy 2011: 2)이나 “심리 발달을 위한 우화”(Britzman 2006: 307)로 읽혀지고 있다. 존 프리먼(John Freeman)은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Freeman 2008: 197).

그런가 하면, 복제인간의 문제가 곧 인간의 문제임을 전제로 하여, 이 작품이 “‘복제’라는 모티브를 통해 현대인의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양종근 2020: 193)는 주장이 제기되었

2) <https://entertainment.time.com/2005/10/16/all-time-100-novels/slide/never-let-me-go-2005-by-kazuo-ishiguro/>

3) <https://www.imdb.com/title/tt1334260/>

4) <http://www.tbs.co.jp/never-let-me-go/story/>

으며, 작품 속의 주요 모티브인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억의 스토리텔링”(조성란 2020: 131)이라는 내러티브의 특성이 연구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권력과 타인에 의해 관리·통제”(박경서 2018: 45)되고 있는 복제인간들의 삶을 ‘생명권력’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문학적 인권 담론”(박경서 2018: 47)으로서의 작품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티파니 차오(Tiffany Tsao)는 이 소설을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과 존 밀튼(John Milton)의 『실낙원』(Paradise Lost), 그리고 생명공학의 문제와 연계하면서 신학적 요소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독교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과 자신들의 창조자인 인간의 생명 연장이라는 복제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을 때라도 삶이 의미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Tsao 2012: 230)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작품 속에서 작가인 이시구로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이 없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삶과 예술과 기술의 필요를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1990년대 후반이라는 오래된 과거를 가상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실제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인간 복제와 관련된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은 가해자인 인간이 아니라 피해자인 복제인간을 서술자로 전면에 내세워 “여전히 살아남은 복제인간들의 정체성, 용서, 그리고 기억의 확인이라는 주제”(Teo 2014: 153)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의구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분노와 비애감, 때로는 수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1996년 7월 5일에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Roslin Institute)의 이언 윌머트(Ian Wilmut) 교수와 노팅엄 대학(the University of Nottingham)의 케이스 캠벨(Keith Campbell) 교수의 연구팀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Dolly)가 태어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시구로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생명체의 복제에 대한 소식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손으로 이룬 과학적 개화에 대한 우화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함의를 품은 채 전개되는 작품의 내용을 부버와 ‘대화철학’에 기대어 다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새로운 타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

II. 부버의 대화적 미학과 그리스도의 이미지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865)는 이 세계의 참된 삶은 “은혜”(Buber 1996: 62)로 이루어지는 참된 만남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오직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야' 가능하게 되는 '나-너'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참된 만남을 통해 "영원한 너"(eternal You)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된다고 설파한다(Buber 1996: 57).

모든 관계의 연장선은 영원한 '너' 안에서 서로 만난다.

모든 낱말의 '너'는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는 틈바구니다. 낱말의 '너'를 통하여 저 근원에는 영원한 '너'에게 말을 건다.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이 '너'의 중개에 의하여 모든 낱말의 존재자에 대한 관계는 실현되기도 하고 또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 태어난 대로의 '너'는 모든 낱말의 관계에 있어서 실현되지만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는 완성되지는 않는다. 태어난 대로의 '너'는 오로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될 수 없는 저 '너'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만 완성되는 것이다.(Buber 1996: 123)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너'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너'를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부버에게 예술은 예술가의 일방적인 사고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술의 대상이 되는 "한 형태"의 요구와 그에 대한 예술가의 "온 존재를 기울인" 반응으로부터 솟아나게 된 결과이다(Buber 1996: 60). 그리고 모든 예술이 "대화적 본성"(Buber 2002: 30)을 갖고 있다는 부버의 주장을 근거로 관객이나 독자나 비평가들 역시 그와 유사한 대화적 태도로 그 예술작품 앞에 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의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작품의 해석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즉 작가의 생애나 기법을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나 형식주의 또는 신비평, 그리고 특정 시대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 모두 그 텍스트에 대하여 '나-그것'의 태도로 접근한 방식이었다면, 부버의 대화적 미학에 기반한 해석은 텍스트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발견되는 "모든 '너'"를 통해서 "영원한 '너'"(Buber 1996: 57)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나-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과 문예사조와 철학이 성경의 진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소위 '포스트모던,' 혹은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 과학 발달의 결정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양한 성찰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이시구로의 소설『나를 보내지 마』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너'로서의 텍스트 해석을 위한 적절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욕망과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하여,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성장한 후, 서너 차례에 걸친 장기 적출의 결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복제인간들의 삶은, 마치 구약성경 「레위기」(Leviticus)의 번제 양이나 소처럼, '욕심에 의해서 잉태된

죄와 그 죄가 장성한 결과’(약 1:15)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로부터 그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함께 복제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가 친구들을 자신들의 원본 인간인 “근원자”(possible)⁵를 위한 희생자로 보내고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자신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을 피력하는 복제 인간 화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대화적 독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의 모습을 읽게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렘 5:21) 무감각한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욕망 속에 매몰되어버린 타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회개와 결단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의 존재는 소위 포스트모던 세계를 능가하는 삼위일체 중 한 위로서 그의 “탁월성”(Baucham 2007: 67)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사 9:6)으로 찬양 속에 예언된 분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골 1:15) 분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요 1:1)이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엡 1:22)가 되신 분이며, “거룩하고 의로운 분”(행 3:14)일 뿐 아니라 “죽은 자의 재판장”(행 10:42)이요,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요 5:27)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선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능가하는 ‘탁월하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족적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되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역으로 재확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관계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통해, 혈연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 최초의 강림과 현현의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 내의 한 여관에 있는 말구유였다.

또한 머리 돌 곳조차 없는 인자의 모습으로(마 8:20) 고향 사람들의 배척(마 13:57)과 제자의 배신(눅 22:60)을 겪으며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기간을 사셨던 서른셋 청년 예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 속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예견된 죽음 앞에서 그 죽음

5) Kazuo Ishiguro, *Never Let Me Go* (London: Vintage, 2005), p. 140. 이후 인용문은 이 텍스트를 이용하며, 괄호 안에 NLMG라고 표기하고 페이지 수만 기록함.

이 피해 가기를 원하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다”(눅 22:42)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그의 전 생애는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마치 「레위기」의 속죄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리고 상한 그의 육신으로부터 그의 영혼이 떠나갈 때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외치며 인간적인 절규를 내뿜었지만, 그 절규는 곧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요 19:30)는 고백으로 마무리 된다. 하나님은 그를 처형하는 자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요 19:19)이라는 명패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요 19:20)하게 하심으로써,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행 4:11)을 만드시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날(Christmas)”을 정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고전 11:24-25)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전 11:26)게 하셨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은 부버의 말대로 “온 존재를 기울여”(Buber 1996: 127) 당신이 ‘너’로 여겨주신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너’, 곧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보이시고 이루신 이러한 완전한 ‘나-너’의 관계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생명의 성령의 법”(롬 8:2)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과 동물과 사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예술작품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내러티브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만남과 대화에서 일어나는 ‘나-너’관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매개체”(Kepnes 1992: 81)로 여겼던 부버의 대화적 미학이라는 프리즘은 저자의 의도나 시대적 상황 또는 작품 속의 배경 등 작품과 관련된 그 어느 부분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함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III. 복제인간 서사 속의 그리스도의 이미지

1. 기만과 허위의 섬 뒤에서 드러나는 이미지

“모든 ‘너’는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는 틈바구니”(Buber 1996: 123)이며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의 ‘너’에게로 나아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너’에게 가져가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신을 발견하는 것”(Buber 1996: 127)이라는 부버의 철학적 명제를 염두에 두고,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은 「레위기」의 희생 제사에 사용하는 소나 양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으신 그리스도의 ‘자발성’이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세계관을 주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속에 있지 않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믿고 있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무한대로 끌어 올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제작된 복제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요 1:29)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욕심과 죄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희생양이기도 한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자신을 서른한 살의 간병인이라고 소개하는 캐시(Kathy H.)라는 이름의 복제인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간병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하여 독자나 가상의 청자에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2년 동안의 간병인 생활을 끝으로 자신도 오래 미루어 두었던 장기기증의 절차를 밟게 되는 캐시는 자신의 인생의 세 단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과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두 친구인 루스(Ruth)와 토미(Tommy)에 대한 기억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를 원한다.

내 이름은 캐시 H. 서른한 살이고 11년 이상 간병사 일을 해 왔다. 11년이라면 꽤 긴 세월처럼 들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내게 올해 말까지 8개월을 더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 경력은 거의 12년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나는 간병사로서 그렇게 오랜 경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NLMG 3)

이 작품 속에는 자신들을 위해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쳐야 하는 복제인간들을 잊어버리고 부인하

고자 하는 인간 대중의 망각 서사와 그러한 자신들의 존재의 소름 끼치는 본질을 애써 기억하여 전하고자 하는 복제인간들의 집단적 기억의 서사가 공존하고 있다(Teo 2014: 78). 비록 이 작품은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NLMG 8)라거나 “그 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NLMG 3)라고 말하는 일인칭 화자의 다소 불안정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주관적 서사를 통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복제인간 화자인 캐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억압에 대항하는 무기이자 자유를 향한 계단”으로서의 “자전적 스토리텔링”(Levy 2011: 16)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시나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NLMG 260)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아닌 “근원자”(NLMG 140), 즉 자신들의 원본인 인간들의 육체적 영생을 위한 대속물 혹은 희생자로 살아가야 하는 작품 속 복제인간들은 두 단계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헤일섬”(Hailsham)(NLMG 4)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코티지”(the Cottages)(NLMG 18)라는 이름의 다소 자율적인 교육기관에서 성장하게 된다. 헤일섬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 복제인간들은 “교사들”(guardians)(NLMG 18)이라고 불리는 어른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코티지에서는 통명스러운 노인 관리인인 케퍼스(Keffers)의 무심한 관리 속에 소위 “선임”(veteran)(NLMG 118)이라고 불리는, 다른 지역의 복제인간 교육기관에서 초등 시절을 보낸 선배들과 동거하면서 일종의 생활교육을 받게 되며, 그 사이에 절차와 순서에 따라 장기기증을 시작한다. 그중 일부는 장기기증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간병사”(carer)(NLMG 3)의 일을 떠맡기도 하는데, 그들은 동료들의 장기기증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완료”(complete)(NLMG 101)라는 단어로 완곡하게 표현되는 그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준다.

제1부에서는 헤일섬이라는 복제인간을 위한 초등교육 기관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서술자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탄생이나 부모나 가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의 학교에서 생활하는 어린 복제인간들의 학창 생활이 서술자인 캐시와 그녀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루스, 그리고 그 둘과 항상 동행하는 토미라는 남학생과의 우정과 애증의 기억을 중심으로 묘사된다.

거의 매주 진행되는 “건강검진”(NLMG 13)이나 자신이 제작한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출품하여 예술성과 자존감을 검증하는 “교환회”(NLMG 16), 그리고 “바깥세상에서 온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판매회”(NLMG 41) 등을 통해서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헤일섬의 학생들은 사실상 교사들로부터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인 “장기기증”(NLMG 29) 프로그램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그저 어떤 “목적”(NLMG 81)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만 들으며 지내게 된다. 그들의 교사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부터 그들

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부과된 장기기증의 운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창의적인 재능과 건강한 육체를 기를 것을 강조한다. 그들의 교사들 중 한 명인 루시 선생님(Miss Lucy)은 그러한 간접적인 접근에 동의하지 않고 학교 측의 교육 방침과 대립을 하던 중 사임하게 된다.

작품의 말미에 헤일섬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던 마담과의 대화 결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헤일섬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강조했던 이유는 작품 내의 영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대부분의 복제인간 교육 기관들이 “통탄할 만한 상황”(NLMG 261)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던 사육장의 수준이었던 반면, 헤일섬에서는 소위 창의적인 예술품을 창조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복제인간을 양육하고 있음을 홍보함으로써 “당시의 시류를 타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NLMG 261-2). 이러한 홍보활동과 헤일섬의 전성기는 실제 인간보다 “좀 더 강화된 특질을 가진 아이”(NLMG 264)를 얻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범위 이상의 실험을 했던 제임스 모닝데일(James Morningdale)의 연구로 인하여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실제 인간인 자신들보다 더 우수한 복제인간이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을 예상하며 “겁에 질린”(NLMG 264)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헤일섬의 관리 책임자이자 정기적으로 복제인간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들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수집해 가던 마담 역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 “몸서리쳐지는 것을 애써 억누른 채,” 학생들 중 하나가 우발적으로 자기 몸에 닿을까 봐 “겁에 질려서”(NLMG 35) 공포에 가득 찬 표정을 보여줌으로써, 복제인간 학생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부지중에 들리게 된다.

그 후에도 마담은 어느 날 캐시가 판매회를 통해서 구입한 주디 브리지워터(Judy Bridgewater)의 앨범인 Songs After Dark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Never Let Me Go”라는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 상황에 대하여 캐시는 불임의 선고로 받았던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고, 그녀는 혹시라도 그 아이를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려워서 가슴에 껴안고 노래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마담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NLMG 271)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마담의 대답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는 한 복제인간 아이를 보면서 빠르게 다가오는 신세계를 본 소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과거의 세계를 가슴에 안고, “결코 자신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NLMG 272)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루시 선생님은 청소년기를 맞게 된 복제인간 학생들이 자신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지”(NLMG 81)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언젠가 현실이 될 장기기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신이 돌봐야 하는 복제인간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함

으로써 불필요한 환상을 갖는 것을 피하게 하고자 했던 루시 선생님의 이러한 시도는 가식 없고 진실한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에밀리 선생님은(Miss Emily) “그녀가 하려던 건 너무 ‘이론적’이었어”(NLMG 267)라고 일갈하며, 비록 자신들이 학생들을 “바보”(NLMG 268)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한다.

“그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린 너희를 ‘바보’로 만들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 세월 동안 너희를 보호했고 너희에게 유년을 주었어. 루시의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입장을 고수했다면, 헤일섬에서 너희 행복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거야. 이제 너희를 좀 보렴! 나는 너희 둘이 무척 자랑스럽다. 너희는 우리가 준 것에 기초해서 스스로 삶을 세웠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다. 너희는 수업에 몰두하지 못했을 거고, 그림과 글쓰기에도 몰입할 수 없었겠지. 각자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그랬다면 너희는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했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설득할 수 있었겠니? 그래서 그녀는 떠나야 했단다.”(NLMG 268)

인생의 초기 단계를 지나는 어린 복제인간들이 거주하며 훈육받는 ‘헤일섬’은 일종의 ‘기만의 섬’인 셈이다. 실제로 이 학교의 이름은 ‘환호하면 맞아한다’는 뜻의 hail과 ‘거짓말’을 의미하는 ‘sham’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인들의 세계로부터 격리된 시설에 갇혀서 생활하는 이 학생들은 학교와 세상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숲에 대한 온갖 흉악한 소문을 들으며 외부 세계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숲을 둘러싼 온갖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돌았다. 우리가 헤일섬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어떤 소년이 친구들과 크게 싸우고 헤일섬 교내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이를 후 그 숲에서 손발이 잘린 채 나무에 묶인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NLMG 50)

이 숲에 관련된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이 학생들이 장기기증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서술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헤일섬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시구로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세상의 현실로부터 격리시킨 채, 그 아이를 거품 속에 가두고자 하는 노력”(Grigsby 2005: 199)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즉 자신의 딸을 키우는 동안 “적절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위한 속임수의 요소”(Wong and Crummette 2006: 218)가 사용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이시구로는 모든 해일섬 학생들이 거품 같은 순수한 환경 속에서 외부와 현실 세계로부터 조심스럽게 보호받고,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일찍 죽어야 한다는 진실을 직면할 때까지는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다섯 살 나이에 부친의 직업을 따라 모국인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야 했던 이시구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영이며, 더 나아가서 같은 운명으로 자신을 따라 살고 있던 딸의 양육 과정에서 사유하게 된 이상적인 어린 시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해일섬에서의 추억은 작가인 이시구로가 착한 아버지로서 의도했던 ‘선의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작품 속의 성인 인간이자 교육자들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쳐놓은 ‘기만과 허위의 그물’과 그에 맞서는 또 다른 교육자의 ‘무력한 정직성’이라는 무딘 칼날의 대결 구도 하에서 끊임없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탐색을 이어가는 복제인간 학생들의 힘겨운 삶의 여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 밝혀지는 몇 가지 사실 속에서 독자는 희미하게나마 기독교나 그리스도 이미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캐시의 서술 속에 등장하는 해일섬의 첫 번째 회상 장면에서 그들의 나이는 “열두 살을 지나 열세 살이 되어가던 때”(NLMG 6)였고, 이 장면 속의 장소는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벗어나 친한 친구들끼리 있고 싶을 때 찾아가는 체육관(sports pavilion)”(NLMG 6)이었다.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부모를 따라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신을 찾으러 온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만의 세계관을 피력하신 나이가 열두 살이었고, 그 장소는 공교육기관인 회당이였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또한 캐시가 간병인으로서 봉사한 햇수와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해일섬에는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말씀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창 2:15) 범죄 이전의 에덴동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런가 하면,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목적, 즉 “우리의 개인적인 성취나 마음의 평화 혹은 개인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리 인생의 목적”(Warren 2002: 17)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Lawler-Row and Elliott 2009: 51)을 미치지 만, 해일섬의 복제인간들에게 부여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위한 목적은 그 목적을 부여한 자나 그것을 부여받은 자에게 좌절과 분노를 제공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차오는 과학적 진보를 통하여 자신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된 인간이 “그들의 창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Tsao 2012: 220) 불멸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심으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탁월한 희생을 돋보이게 한다.

2. 허무와 환멸 뒤의 이미지

캐시는 루스와 토미와 함께, 헤일섬에서의 다사다난했던 애증의 경험들에 대한 기억을 안고서, 코티지로 알려진 성인 복제인간들의 임시 주거 시설로 이사한다. 그들은 그 전에 이미 그곳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던 선임 학생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한다. 헤일섬 출신이 아닌 그 선임들은 그곳 출신 학생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데, 크리스시(Chrissie)와 로드니(Rodney)라는 한 커플은 특히 헤일섬에 관심이 있다. 시나 그림 같은 예술 활동이나 교환회나 판매회 같은 인적·물적 교류활동으로 학생들의 영육간 균형 잡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헤일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소위 ‘사육장’ 출신들에게 헤일섬 졸업자들은 “특권층”(NLMG 4)으로 여겨지며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 되어왔다.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캐시에게 헤일섬에 대한 쉽 없는 질문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것처럼 헤일섬을 추억”(NLMG 5)하기도 한다.

크리스시와 로드니도 그들처럼 헤일섬을 동경하는 커플인데, 그들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캐시와 토미 그리고 루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노퍽(Norfolk)라는 도시에서 루스의 “근원자”(NLMG 140), 즉 루스를 닮은 그녀의 원본 인간 같은 사람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설득하는 것이다. 성인기에 이른 복제인간들이 근원자에 대하여 사유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근원자 이론의 이면에 있는 기본 개념은 단순한 것으로 별다른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 각자가 일반인에게서 복제된 개체인 만큼 바깥세상에는 우리의 근원자가 살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밖, 즉 시내나 쇼핑센터, 휴게소 같은 곳에 나가면 줄곧 신경을 곤두세워 자기나 친구들의 근원임직한 사람들, 곧 ‘근원자’를 찾아보곤 했다.(NLMG 139)

복제인간의 원본을 의미하는 ‘근원자’는 “미래의 살아있는 비전”(Currie 2009: 99)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작품 속 학생들에게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앞으로의 삶을 예측해 줄 수 있는”(NLMG 140)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캐시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근원자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을 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NLMG 140)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캐시는 또한 루스의

근원자를 본 적이 있다는 그 두 사람의 말에도 회의감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이야기가 본능적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들이 말하는 대상이 루스가 말하던 “장래 희망과 지나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기 때문”(NLMG 142)이었다. 결국 캐시의 예측대로 “칸막이를 최소한으로 줄인 아름답고 현대적인 개방형 사무실”(NLMG 144)에서 근무하고 있을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루스의 여행은 좌절되고, 루스는 복제인간 학생들이 단지 “쓰레기”만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절규하며 극심한 비판론에 빠지게 된다(NLMG 166).

캐시의 눈에 “뭔가를 꾸미고 있는”(NLMG 142) 것처럼 보였던 그 두 사람의 ‘근원자 프로젝트를 위한 노퍼크 여행 계획’의 이면에는 사실 캐시와 두 친구에게 미친 두 번째 큰 충격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커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헤일섬 운영자들이 그 진위를 가려내서” “몇 년간 함께 지낸 다음 기증을 시작할 수 있게”(NLMG 153)된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크리스는 “항상 누군가 엿듣고 있었던”(NLMG 152) 코티지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헤일섬 출신인 세 사람을 설득해서 노퍼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고백한다.

영어로 ‘possible’로 표기되는 ‘근원자’의 정체성은 이시구로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실하게 된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이시구로는 1995년 『가디언』(Guardian) 지의 마야 자기(Maya Jaggi)에게 자신은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아쉬움이 없지만, 존경했던 할아버지와 기억으로 인하여 늘 자신이 일본에서 살았더라면 겪었을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말한 바가 있다(Jaggi 1995: 116). 이와 같은 작가 이시구로의 회한과 잃어버린 정체성과 소지품의 회복을 회구하는 작품 속 복제인간들의 열망이 헤일섬 시절, 당시 학생들 사이에 “전국의 분실물들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NLMG 65)으로 통용되며 “영국의 분실물 센터”(NLMG 65)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된 노퍼크에 집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다 실패하였지만, 캐시와 토미는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된다. 그중 하나는 캐시의 잃어버린 테이프의 사본이며(NLMG 171), 다른 하나는 그동안 포기했던 토미의 그림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예술성의 회복이다. 일단 캐시의 이야기 속에 모두 세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마담과의 대화에서 등장한 주디 브리지워터의 *Songs of Afer Dark*라는 제목의 테이프고, 거기에는 이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캐시가 가장 좋아하는 “나를 버리지 마”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캐시는 마담과의 만남이 있는 지 몇 달 만에 그것을 잃어버린다. 2주 후에 친구 루스가 캐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Twenty Classic Dance Tunes”(NLMG 75)를 선물로 준다. 그 테이프는 사실 그녀가 잃어버린 테이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캐시는 그것을 “하나의 오브제”로 보관하고 있으며, 루스가 죽은 후에

“가장 귀중한 물건 중 하나”로 여기며 지낸다(NLMG 75). 그리고 세 번째 테이프는 노퍼크에서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발견하게 된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제목을 가진 테이프이다.

그러다가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줄지어 놓인 카세트테이프 케이스를 훑어보는데 손가락 아래에서 갑자기 오래전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모습을 나타냈다. 주디, 그녀의 담배, 웨이터를 향해 애교 부리는 듯한 눈길, 그리고 배경의 흐릿한 종려나무에 이르기까지 내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테이프였다.(NLMG 171-72)

사실 이 테이프는 함께 노퍼크를 찾아온 친구 토미가 캐시에게 선물로 구해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이었는데, 함께 가게를 구경하던 도중 캐시가 먼저 발견하여 토미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이제 너를 위해 이걸 사 줄 수는 있어”(NLMG 173)라고 말하며 값을 지불한다. 이 세 개의 테이프들은 마치 진보의 폭풍 앞에서 무력하게 놀란 눈으로 서 있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눈에 비친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Benjamin 1969: 257)를 닮은 캐시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무게 중심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 테이프는 이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될 만큼 이시구로가 주인공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 캐시의 최애장품이었고, 두 번째 것은 자신이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먼저 간 친구가 준 우정의 표시였으며, 마지막 것은 자신이 좋아하던 토미와 함께 힘을 합쳐서 찾아낸 ‘잃어버린 기억’이기 때문이다.

노퍼크 여행 중에 ‘근원자’의 실체를 깨달은 루스도, “강한 성욕”(NLMG 181) 때문에 포르노 잡지를 뒤지며 자신의 “근원자임직한 얼굴을 발견한다면 적어도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NLMG 181)했던 캐시도 코티지로 돌아온 이후에는 더 이상 ‘근원자’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토미는, 마담이 장기기증 연장을 신청한 커플들이 정말로 사랑에 빠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작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서, 캐시에게 상상 속의 동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헤일섬 시절, 미술 시간에 “세 살짜리가 그렸음직한 코끼리”(NLMG 19)를 그렸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토미는 계속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리며 따돌림을 당하다가, “그렇게 창조적으로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모든 게 아주 잘될 거라고”(NLMG 23) 말해 준 루시 선생님의 충고를 들은 후,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인 적이 있었다. 그랬던 토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노퍼크 여행 이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욕망, 즉 장기기증 연기를 통한 생명 연장의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꼭 마담한테 보여주기 위해 이 동물들을 그리는 건 아니야. 그저 좋아서 그리는 것뿐이야. 캐시. 이걸 줄곧 비밀로 해야할지 어떻게 생각 중이야.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알려진다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한나는 지금도 수채화를 그리고 있고, 많은 선임들도 뭔가를 하고 있잖아. 내 말은, 그렇다고 모든 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겠다는 건 아냐. 하지만 이 일을 더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NLMG 188)

이 장면에서 발달되어가는 토미의 그림은 해일섬 시절처럼 마담의 눈에 들거나 친구들의 칭찬을 듣기 위한 ‘목적 중심’의 예술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캐시까지도 그 그림에 “끌려들어가게”(NLMG 188) 하는 ‘나-너’ 관계 속의 예술이다. 즉 그 그림은 부버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술가의 혼의 소산으로 작품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예술가]의 혼에 다가와서 그의 작용하는 힘을 요구하는 나타남”(Buber 1996: 60)으로서, 예술가 자신의 반응을 통하여 완성되는 “예술과 형태 사이의 ‘나-너’ 관계(Kepnes 24)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그의 태도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그 동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에 근거한 것이며, 그 결과 그는 캐시와 함께 찾아가던 마담으로부터 장기 이식 연기에 대한 소문이 근거 없는 신화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비록 그 후에도 그림에 대한 애착을 캐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녀가 들어오면 “그리던 것을 멈추고 치웠”(NLMG 276)지만, 예술에 대한 이러한 토미의 태도는 “실용적인 동기뿐 아니라, 예술 창작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적인 즐거움이나 혁신의 필요까지도 넘어서”(Tsao 2012: 228) 작품 자체와의 “온 존재를 기울인”(Buber 1996: 127) 대화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예술작품의 모습이다.

토미가 자신이 그간 사귀어 오던 루시가 아닌 캐시와의 사랑을 통해서 장기기증이 연기되기를 기대하며 그림을 연습하는 동안 루스와 캐시의 우정에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된다. 루스는 캐시가 토미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토미는 결코 캐시의 감정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캐시에게 끼어들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NLMG 201). 얼마 지나지 않아 캐시는 간병사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떠난다(NLMG 202).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교사들의 보호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코티지에서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성장의 과정으로, 학생들은 이 시기에 “풀숲과 오래된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한가로운 공터”(NLMG 192)로 남아 아이들의 독서와 산책과 담화의 장소로 사용되는 “그 사랑스러운 낡은 교회”(NLMG 192)의 주변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욕망을 전개한다. 소위 ‘근원자’라 불리는 자신의 원본 인간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환멸을 느낀 루시는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복제 인간”(clones)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자신의 상실감을 표현한다.

이처럼 복제인간들은 자신의 미래를 확인해 볼 수도 예측해 볼 수도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성인기를 준비하게 된다. 대개 길어야 삼십 대 초반의 나이에 ‘완료’되어야만 하는 그들의 삶은 얼마간의 간병인 생활을 거친 후에 기증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복제인간 학생들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창조자의 뜻’에 따라 삶을 지속해 간다.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삶의 현장은 공생애 직전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육체적인 욕구(마 4:3), 하나님에 대한 시험(마 4:6), 그리고 세상의 영광(마 4:8-9)에 관한 유혹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신 성경 속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육 간의 환경을 연상하게 한다. 영원하고 진실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근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반면, 그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변덕스러운 이기주의자인 인간 근원자를 추적하는 작품 속 복제인간들은 결국 자신들이 무력하고 무익한 존재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뿐이다.

3. 폐허와 슬픔 뒤의 이미지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간병사로서의 삶을 나름대로의 성실한 방법으로 극복해 가는 캐시에게 서술의 초점이 맞춰진다(NLMG 208). 우연히 간병사 일을 하고 있는 로라(Laura)라는 이름의 헤일섬 시절 친구를 만나게 된 캐시는 그녀로부터 루스의 첫 번째 기증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과 헤일섬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NLMG 210).

헤일섬이 폐교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큰 가위를 가져와 줄을 꼬아 쥐고 있던 그 남자의 주먹 바로 위를 싹둑 잘라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면 그 풍선들 하나 하나는 더 이상 같은 무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게 된다. 나에게 헤일섬 소식을 전하면서 로저는 우리 같은 졸업생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떤 점에서는 그 말이 옳은지도 몰랐다. 하지만 헤일섬이 언제나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북쪽 운동장에서 하급생 무리를 이끄는 제럴딘 선생님과 같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맥이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NLMG 213)

헤일섬의 폐교에 대한 소식은 “집과 추억과 관계를 잃는 것”(조성란 2020: 140)일 수도 있고, “자유를 찾아 날아”(이복기 2019: 163)가는 것일 수도 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회한이자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한 안온한 교육기관으로, 등장인물인 복제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허브로서의 역할을 했던 헤일섬의 물리적인 실체는 마치

장기기증이라는 임무를 마치고 나면 산산히 흩어지게 될 자신들의 육체처럼 공중분해 되고 오직 각자의 애도와 기억 속에 무형의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단절의 의미는 결국 지금까지 관계의 대상이었던 주인공 화자 캐시가 이제는 관계의 주체가 되어 이후의 삶 속에서 좀 더 성숙하고 독립적인 관계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의 화자인 캐시는 그동안 겪었던 친구들과의 애증의 역사 그리고 열두 해 이상의 간병인 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모든 경험을 모아서 이 소설 속 이야기의 내포 청자인 “그들의 뒤이은 세대 복제인간”(이복기 2019: 163)에게 전수해 주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캐시는 로라의 충고에 따라 루스의 간병사가 된다. 서로 좋아하던 톱을 사이에 두고 애증의 신경전을 벌이던 이전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 아직 서먹한 관계를 풀지 못한 채 루스를 간병하던 캐시는 토미가 장기기증을 위해 머무르고 있는 킹스필드(Kingsfield) 회복센터 근처에 떠밀려온 고기잡이배를 방문하고 싶다는 루시의 바람에 따라 그 배를 보러 가는 길에 토미와 재회하게 된다. 습지에 파묻혀 있는 그 배는 “이제 하늘을 배경으로 거의 흰색으로”(NLMG 224) 보이는 탈색되고 균열이 나 있는 낡은 폐선에 불과하다. 그러한 배의 모습을 본 루스는 “정말 아름답다”(NLMG 224)고 말하고, 그 습지를 보던 토미와 루스는 헤일섬을 떠올린다(NLMG 225).

“그거 참 재미있네. 어느 날 아침 헤일섬의 14호실에 가 있는 꿈을 꾸었거든. 그곳 전체가 폐쇄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 14호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바깥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는 거야. 마치 커다란 호수처럼 말이야. 창가 바로 아래에는 빈 음료수 상자 같은 쓰레기가 물에 둥둥 떠 있었어. 하지만 겁이 난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 그곳은 멋지고 고요했어. 지금 이곳처럼 말이야. 꿈속에서 나는 그곳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위험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 루스가 말했다.(NLMG 225)

본래 여행이나 탈출의 수단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왔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배는 파손된 채로 습지에 매몰되어 탈출 불가의 마비 상태에 있는 복제인간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 실상 그 배를 타고 외부 세계로 떠나는 꿈을 꾸어야 할 것 같은 복제인간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토미처럼 이미 폐쇄된 “헤일섬이 이와 비슷하다고 해도 그렇게 고약한 건 아니”(NLMG 225)라고 생각하거나 루스와 그녀의 친구처럼 “정말 아름답다”(NLMG 224)고 생각한다. 이것은 외부와 단절된 특정한 시설에서의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교육받고 자라온 복제인간들의 의식 속에 내재된 학습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사실상 이 배에서의 경험은 이후 이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며, 특히 토미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창조성”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상징”(Robbinson 294)으로 사용된다.

5년간의 서투른 간병인 생활 끝에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장기기증 통보를 받은 톰과는 달리 루스는 같은 기간의 간병인 생활과 장기기증자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결국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 안그래?”(NLMG 227)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 목적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습지에서 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루스는 토미와 캐시를 갈라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NLMG 232), 자신이 헤일섬의 마담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밝히면서 톰과 캐시에게 그녀를 찾아가 기증 연기를 요청해보라고 격려한다(NLMG 233). 이후 몇 주 동안 캐시와 루스는 그간의 앙금을 씻고 헤일섬과 코티지에 대해 평화롭게 회상하게 되고, 두 번째 장기기증 후에 숨을 거두게 되는 루스는 캐시에게 토미의 간병사가 되라고 요청한다(NLMG 235).

결국 토미가 세 번째 기부를 한 후에 캐시는 그의 간병사가 되고(NLMG 237), 그들은 그의 회복 센터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NLMG 238). 더 나아가 연인으로 발전한 그들은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는데(NLMG 238-9), 확인된 두 사람의 애정을 근거로 장기기증 연기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루스가 제공한 주소로 마담의 집을 방문한다(NLMG 247). 어린 시절에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포기했던 톰은 그의 창의성과 장기기증 연기 프로그램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절박한 심정과는 반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마담은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두 사람을 “가엾은 생물들”(NLMG 254)라고 부르는 그녀의 관심사는 줄곧 다른 곳에 있다. 그 후에 옆방에서 헤일섬의 교장이었던 에밀리가 나타나(NLMG 255), 장기기증 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NLMG 258). 그녀는 헤일섬이 당시의 다른 복제인간들을 더 인도적으로 키우는데 헌신하는 진보적 운동의 일부였다고 설명한다. 마담은 복제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깥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곤 했다(NLMG 260). 한때 이 운동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여론의 변화는 결국 헤일섬을 폐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수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유전자 조작과 연관이 있는 ‘모닝데일 사건’ 이후에 실제 인간보다 더 우수한 복제인간이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들은 복제인간을 양육하는 시설들을 폐쇄했기 때문이었다.

자신들과 같은, 또는 자신들에게서 나온 생명체인 복제인간들을 장기공급용 부품으로 여기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왔던 당시의 유전공학적 시류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혼을 가진 복제인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혁신적인 복제인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에밀리의 숨겨진 의도는 사실 인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론화함으로써 더 많은 후원금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복제인간들은 숨겨져 있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비인간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죽음이 자신들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단번에 좌절당한 채 회복센터로 돌아가던 도중에 토미는 캐시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 숲으로 걸어 들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NLMG 273). 헤일섬에서 학교 측이 복제인간 학생들에게 정직하기를 원하다가 물러났던 루시 선생님이 옳았다는 판단에 도달한 토미는 격노하여 “분노에 떨며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대고” 있다(NLMG 274). 토미는 이후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결국 네 번째 기증을 마치고 죽음을 맞게 된다. 토미가 죽기 전 캐시는 “토미, 우리가 알아낸 이 모든 걸 루스가 모르고 죽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NLMG 284)라고 질문하면서 장기기증 후 죽음을 당한 친구에게로 대화의 초점을 맞춘다. 토미의 기억에는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 친구를 자신의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캐시에게 부탁하고 자신의 몸을 열어 장기기증에 들어갔던 루스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했”(NLMG 284)다고 추억한다.

이렇게 루스와 토미가 자신을 떠난 후 캐시는 “나는 루스를 잃었고 이어 토미를 잃었지만, 그들에 대한 나의 기억만큼을 잃지 않았다”(NLMG 286)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며 기념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한 그녀의 애도는 노퍼크에 있는 들판으로 차를 몰고 가서 자신에게 임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죽어간 토미의 얼굴이 지평선에 떠오르는 것을 차마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르는 눈물(NLMG 288)로 표현된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영국의 분실물 센터’라고 불리는 노퍼크를 다시 찾은 캐시는 멀리서 떠오르는 토미 얼굴의 환상 앞에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에 매몰되기 보다는 “차로 돌아가 가야 할 곳을 향해 출발”(NLMG 288)하게 된다. 여기서 캐시가 보여준 행동의 중요한 의미는 노퍼크에서 잃어버렸던 기억과 사람들을 되찾겠다는 환상을 뒤로 하고 단호히 떠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에게 좋은 것만을 남겨주고 떠난 죽은 친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투영하겠다는 그녀의 결연하고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기증자가 되어 죽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완료’하기 전 성인 간병인으로서 캐시의 삶을 보여주는 3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 고난과 죽음의 기간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복제인간들은 완전한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 자신들을 양육했던 교육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운명과 정체성이 ‘신’의 역할을 하는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고 종료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겐세마네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 22:42)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지워진 그 운명의 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그 사실을 깨달은 직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기는 하지만(“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 27:46), 작품 속의 복제인간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그에 맞서서 저항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마치 “다 이루었다”(요 19:30)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의 삶을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캐시 역시 먼저 간 친구들에 대한 애도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자신도 같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시구로 자신은 이처럼 저항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복제인간들의 삶을, 태어나자마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의 양상을 표현하는 메타포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IV. 나가는 말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인간 복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 소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과학이 없다”⁶⁾는 해리슨(John M. Harrison)의 주장처럼 그 안에는 실제 과학적인 내용이나 배경의 설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서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나 사회 및 정치와 관련된 실제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상적인 요소들의 함의를 추적하여 그러한 요소들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반추하는 부버식의 대화적 독서가 오히려 작품의 해석이나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1990년대 후반의 세상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창조하며, 그 피조물의 단축된 수명으로 자신들을 불멸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신이 된 인간들’의 세상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교회는 놀이터나 묘지로 변해버렸고,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배는 오래된 습지에 탈색되어 버려진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종교나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이 극대화된 기술문명의 발달 속에 매몰되어 버린 배경 속에서, 인간의 장수나 불멸의 욕망을 위해 탄생된 복제인간들은 부당한 환경, 즉 자신들을 그저 신체 장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취급하는 환경 속에서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애처로운 존재로 묘사된다.

작품 속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 의지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보여주는, 무심하고 잔인하며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그것’의 세계, 즉 ‘허위와 기만’으로 시작되어 ‘허무와 환멸’을 거쳐 ‘폐허와 슬픔’에 이르게 되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와 전혀 다

1)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05/feb/26/bookerprize2005.bookerprize>

를 바가 없다.

반면에, 작품 속의 피조물인 복제인간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 악의적인 분노나 좌절 없이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비록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폐허가 된 배의 전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하면, 자신들의 운명과 처지에 대하여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철저한 ‘나-너’의 세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 작품은 복제인간 중 한 명을 내레이터로 설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독자들을 복제인간과 동일시하도록 유도하여 복제인간들의 운명에 대하여 ‘측은지심’을 갖게 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종의 ‘생체권력’이나 ‘생명공학의 비윤리적 가능성’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제인간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장기를 수확하는 작품 속 인간 사회가 바로 기술문명의 첨예한 발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하여 윤리적 반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 오기도 했다. 이것은 천재적 작가의 치밀한 설계를 통해 제작된 작품에 대한 당연한 비평적 반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작품 속의 현실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남은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소설 속의 사건들 역시 아직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정확하거나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나 언제건 일어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감정이입형 비평들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과학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윤리적 견제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은유나 우화적 비유를 통해서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비주류 세력에 대한 주류 세력의 배려를 촉구하고 강조하는 측면으로 비평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유대인 철학자인 부버의 ‘대화주의적’ 철학과 미학에 기대어,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숙독한다면, 작가의 의도나 전반적인 작품의 흐름, 또는 세속적인 비평과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바, 그것은 바로 외형적으로나마 복제인간들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온 존재를 기율여야만 말할 수 있는 ‘나-너’라는 근원어를 바탕으로 ‘너’로서의 텍스트와의 성실한 만남을 통하여 독자들은 자신들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인간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복제인간의 모습 속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 또한 ‘나-그것’의 관계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에서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고 사용되고 있지만, 인간 사회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완료'하는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애도하고 기억하며 기념해야 할 대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제인간의 삶의 궤적 속에서 독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 118:22)라는 말씀 속에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후 부활과 영광의 이미지를 발견함으로써, ‘나’와 ‘너’ 사이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부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제인간 사이의 위와 같은 다양한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작품 속의 복제인간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보다는 마치 「레위기」의 희생양처럼, ‘나’의 존재를 위하여 희생된 또 하나의 ‘나,’ 즉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도 빛도 없는 타자들’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품 속에서 ‘근원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복제인간들의 이미지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며,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해 준 우리 주위의 많은 ‘너’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내 이웃으로 환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동력으로 해석됨으로써,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환대의 근원이 ‘나’가 아닌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남주 역 (2021). **나의 20세기 저녁과 작은 전환점들**, Ishiguro, K. (2017). *My Twentieth Century Evening and Other Small Breakthroughs*. 서울: 민음사.
- [Kim, N. J. (2021). *My Twentieth Century Evening and Other Small Breakthroughs*. Seoul: Minumsa. Trans. Ishiguro, K. (2017). *My Twentieth Century Evening and Other Small Breakthroughs*. New York: Random House]
- 박경원 (2018). 생명정치와 국가권력: 이창래의 『만조의 바다위에서』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Vol. 71, 27-49.
- [Park, K. W. (2018). Bio-Politics and State Power in Chang-rae Lee's *On Such a Full Sea* and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1, 27-49.]
- 성서원 편집부 (2012). **관주 메모성경**. 개역개정. 서울: 성서원.
- [Seonseowon Editing Dept. (2012). *The Memo Bible, New Revision*. Seoul: Seongseowon.]
- 양종근 (2020). 복제인간과 자아정체성: 『나를 보내지 마』와 『오레오레』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Vol. 91, 191-222.
- [Yang, J. K. (2020). Human Clone and Self-Identity. *Journal of the Humanities*, 91, 191-222.]
- 이복기 (2019).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신이나 알겠지’: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이야기. **영어영문학연구**, Vol. 45. 1, 149-65.
- [Lee, B. K. (2019). ‘God Knows How These Things Work’: Stories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 1, 149-165.]
- 조성란 (2020).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나는 상실과 기억과 애도로서의 스토리텔링. **비교문화연구**, Vol. 58, 129-54.
- [Cho, S. R. (2020). Storytelling of Loss, Mourning, and Memory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Studies in Comparative Culture* 58, 129-54.]
- Bates, K. G. (2005). Interview with Kazuo Ishiguro.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Brian, W. S. & Cynthia, F. W. (Eds.).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203.
- Baucham, V. J. (2007). Truth and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in Piper, J. & Justin, T. (Eds.). (2007).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51-68.
- Benjamin, W. (1968). *Illuminations: Essays and Reflections*. Trans. Harry Zohn. New York:

- Schocken Books.
- Britzman, D. P. (2006). On Being A Slow Reader: Psychoanalytic Reading Problems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Changing English: Studies in Culture and Education* 13.3 307-318.
- Buber, M. (1996). *I and Thou*.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A Touchstone Book.
- Buber, M. (2002). *Between Man and Man*. London: Routledge.
- Currie, M. (2009). Controlling Time: *Never Let Me Go*. *Kazuo Ishiguro: Contemporary Critical Perspectives*. Sean, M. & Sebastian, G. (Eds.). London: Continuum, 91-103.
- Freeman, J. (2005). *Never Let Me Go*: A Profile of Kazuo Ishiguro.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Shaffer, B. W. & Cynthia, F. W. (Eds.). Mississippi UP, 2008, p. 194-98.
- Harrison, M. J. (2005). "Clone Alone." *The Guardian* 26 Feb.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05/feb/26/bookerprize2005>, 2022. 07. 18.)
- Jaggi, M. (1995). Kazuo Ishiguro with Maya Jaggi.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Ed. Shaffer, B. W. & Cynthia, F. W.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10-119.
- Kepnes, S. (1992). *The Text as Thou: Martin Buber's Dialogical Hermeneutics and Narrative Theolog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Lawler-R., Kathleen, A. & Jeff, E. (2009), The Role of Religious Activity and Spirituality i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43-51.
- Levy, T. (2011). Human Rights Storytelling and Trauma Narrative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Journal of Human Rights*, 1-16.
- Robinson, B. (2007). Cruelty Is Bad: Banality and Proximity in *Never Let Me Go*. *Novel*. 40. 3, 289-302.
- Shaffer, B. W. & Cynthia, F. W. (2008). (Eds.).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 Teo, Y. (2014). *Kazuo Ishiguro and Memory*. Palgrave Macmillan.
- Tsao, T. (2012). The Tyranny of Purpose: Religion and Biotechnology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Literature & Theology*, 26(2), 214-232.
- Warren, R.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What on Earth am I Here For?* Grand Rapids: Zondervan.
- Wong, C. F. & Grace, C. (2006). A Conversation about Life and Art with Kazuo Ishiguro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Eds.). Shaffer, B. W. & Cynthia, F. W.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4-226.

타임. 2010. 1.8일자. “All-Time 100 Novels.”

<https://entertainment.time.com/2005/10/16/all-time-100-novels/slide/never-let-me-go-2005-by-kazuo-ishiguro/>. (검색일 2022.09.27)

[“All-Time 100 Novels.” Time(2010.1.8.). Retrieved from <https://entertainment.time.com/2005/10/16/all-time-100-novels/slide/never-let-me-go-2005-by-kazuo-ishiguro/>. (2022.09.27.)]

IMDB. “나를 보내지 마”

<https://www.imdb.com/title/tt1334260/> (검색일 2022.09.25.)

[*Never Let Me Go*. IMDB. <https://www.imdb.com/title/tt1334260/> (2022.09.25.)]

TBS(일본). “나를 보내지 마”

<http://www.tbs.co.jp/never-let-me-go/story/> (검색일 2022.10.3)

[私を離さないで. TBS(Japan). <http://www.tbs.co.jp/never-let-me-go/story/> (2022.10.3.)]

한겨레. 2022. 6. 8일자. “자기 몸 세포로 3D프린팅한 귀 이식 성공”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6120.html (검색일 2022.10.3.)

[“Success in Transplantation of 3D Printed Ear from the Body Cell”, *Hangyoreh*.(2022.6.8.)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6120.html(2022.10.3.)]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

The Image of Christ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김철수 (조선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마르틴 부버의 대화철학에 비추어 이시구로 가즈오의 『나를 보내지 마』를 다시 읽고, 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버에 따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삶은 ‘은혜’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만남이며, 그 만남은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부버에게 예술은 단순히 예술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술가와 대상 사이의 ‘온 존재를 기울인’ 만남이다. 이와 같은 그의 철학에 비추어 문학작품을 해석하려면 새롭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실증주의나 형식주의 또는 사회역사적 비평과 같은 ‘나—그것’의 태도로 텍스트를 접하는 대신, 부버를 따라 ‘나—너’의 태도로 텍스트에 귀를 기울이고, 독서 과정을 통해 ‘영원한 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요구된다. 성경의 진실에 반하여 인간 중심의 과학과 기술, 문학적 경향 및 철학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다양한 성찰을 열어주는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너’로서의 텍스트 해석의 적절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다가 신체의 장기를 기증한 후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복제인간 친구들의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복제인간 화자의 내러티브와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치명적인 고난을 견디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읽어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타자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 마르틴 부버, 『너로서의 텍스트』, 그리스도의 이미지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Life and Ministry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전윤조 (Youn-Joe. Jeo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lives and ministries of foreign ministers who are currently working as domestic cross-cultural missionaries in Korean Churches. The church's missionary vision, is to prepare for the era of 5 million migrants which led to bringing this need to the attention of foreign ministers and for training more foreign ministers. Until now, huge interest and lots of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strategic part of migrant ministr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erest of foreign ministers who are currently carrying out migrant missionary work and are the main actors of the said ministry. In doing so, a qualitative study is used to examine the lif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accomplish this ministry.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ncludes: "What do foreign ministers think of life in the Korean churches?" Secondly, "What do foreign ministers think of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es?"

The researcher used an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to get a perspective on the lives of foreign ministers. In particular, 20 foreign ministers who have experience in ministering and living i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the Korean church, were selected as the study participants. The main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used participatory observation, field data collec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about 90 to 120 minutes each in three sessions and the research analysis procedure was based on the 12 steps of the cultural and technical journal research. The total company data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2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재구성한 것임.

** HOPE선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 younjoe@daum.net

is 1,064 pages, and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cess uses Nvivo 12 to secure reliability of the entire research process. 118 codes, 32 sub-components and 7 components were derived based on the most important statements of the participants. The seven components are: 'Korea, a new beginning', 'experience of ministry in the Korean church', 'positive aspects of ministry 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urch', 'on migrant missions and overseas missions of the Korean church', 'Reminiscing Life' and 'To the Korean Church'. The seven components are focused on life from the time they came to Korea up to the present. This study shows the lives and ministries of foreign ministers in the Korean church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results revealed in their lives.

The policy proposals were presented based on critical contextualization according to the most important statements requested by foreign minister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church, migrant Mission, foreign minister, Christian education,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I. 서론

자끄 아탈리(Jacques Attali)는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세계는 갈수록 상업적 노마디즘(Nomadism)의 가속화로 향후 50년 내에 10억 이상의 인류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Attali, 2005: 427). 이는 현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유로 세계 인구의 1/6이 이동하며 살고 있으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뜻한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의 명맥을 이어온 한국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계선자 외, 2012: 116). 2022년 2월 말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현재 단기 체류 외국인은 397,141명이며,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여 등록된 전체 체류 외국인은 1,962,594명이다. 2022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한국의 총인구는 51,625,561명으로, 체류 외국인은 총 인구의 약 3.8%이며, 이는 곧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현상을 현실로 인식하여 체류 외국인을 선교적 대상으로 보고 국내 타 문화권 선교로 눈을 돌려 다문화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선교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의 선교의 한 축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는 특수한 영역으로서 이주민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 즉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처리하는 상황적 리더십을 가진 이주민 전문 사역자 육성의 필요성(구성모, 2015; 윤대진, 2016)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선교에서 외국인 사역자의 실제적 역할이 증가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이주의 시대에 국가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이 사역 속에서 경험하는 이중문화(bicultural)적 삶의 의미와 적응 과정으로서 전체적인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이주민 사역의 전면에 서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신앙관을 발견하여 우리의 신앙을 분석하고 점검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 농촌 청년들이 조선족, 중국, 동남아시아, 구소련 연방 등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통한 이민자가 국내로 유입되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모든 이주민은 외국인 노동자로 불렸고, 정부는 불법체류 관련 이슈에 몰두했다. 반면

교회의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는 선교’를 강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주민을 통해 ‘오는 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까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주민들은 블루, 화이트 근로자를 포함하여, 유학생, 국제 결혼자 그리고 난민 등의 신분으로 다변화했고, 이들에게 모두 다문화라는 사회학적 수식어가 붙여졌다. 개신교계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춘 “묻지 마”식 이주민 사역을 행하였다(문창선, 2016).

석창원(2016)은 정권에 따라 외국인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정책이 수립되면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 현장의 형태도 바뀌게 되었고, 현재는 복음 전도와 인권보호 또는 복지활동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 이주민 선교의 형태는 1)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센터 2) 순수 교회 부속기관 사역 3) 순수 복음을 주장하는 기관이나 다문화교회 4) 혼합 형태의 사역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김영동(2000)은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는 이주민 사역으로서 무리가 없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극단적인 분리 현상의 갈등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GMS다민족사역연합체는 합동 측 교단 내 이주민 사역 교회와 개인 및 단체 등 70여 처의 현황을 『2020년 국내이주민사역현황』으로 보고 하였다. 한 교단에 국한되어 있는 보고일 수 있으나 대형 교단의 보고인 만큼 이주민 사역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66개의 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며, 보안상 혹은 다양한 사유로 현황에 넣지 못한 28개의 미취합 교회를 포함하여 총 94처의 이주민 사역 교회와 개인 및 단체가 있다. 한국 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이주민 사역 교회는 약 44처이고, 개인 및 단체와 독립교회로 모이는 곳이 약 22처로 조사되었다. 사역자들의 처한 문제와 애로사항이 다르지만, 특히 한국 교회 내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나 한국인 이주민 사역자들이 갖는 문제는 다양한 반면, 재정적인 면에서는 독립교회나 이주민 센터, 혹은 기관에 비해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역의 여러 면에서 한국 교회와 또 다른 공동체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

이주민 사역 초기에는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국내로 돌아와서 이주민 공동체의 리더십을 담당하였으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형 교회들은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교회의 사역자로 임용하여, 자신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온누리 M센터 노규석 목사는 크리스천투데이(2018.9.26.)에서 이주민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좀 더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리더십과 신앙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즉, 이주민을 더 이상 선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선교의 파트너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서 책무를 지는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이주

민 사역에서 외국인 사역자는 선교사 역할, 조정가 역할, 행정가 역할, 교육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기독교의 교단별 외국인 사역자의 임용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정노화(2009)는 외국인들의 예배가 500여 곳을 넘어서고, 외국인 사역자들이 리드하고 있는 곳도 150여 곳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주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자의 인원과 사역 보고가 집계되어 있는 『GMS 다민족사역연합체』(2020)에 따르면 이주민 사역은 대부분 한국인 사역자가 책임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역자 외에 부책임자로 외국인을 동역자를 두고 있다. 총 66여 기관(교회 포함, 미 취합 교회 28개 제외)에 사역 중인 외국인 사역자는 전체 사역자의 약 1/3에 달하고 있다. 전윤조(2021)는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몇몇 국가별 외국인 사역자들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연락망을 통하여 사역자 통계를 대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포함) 250명, 러시아 약 100명, 몽골 약 50명, 베트남 35명, 인도네시아 약 25명, 캄보디아 10명, 방글라데시는 약 3명 등 총 8개 국가의, 약 473명의 사역자가 사역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타 교단과 집계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사역자를 고려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민’을 국내 체류의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지칭하여 사용하고,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관련되어 통용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이주민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이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를 가리키며, ‘외국인 사역자’라는 명칭은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 교회 내에 사역하고 있는 이주민을 부를 때 사용된다. 물론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위치에서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를 따라서 사용되며,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용어 사용을 기초로 하여 ‘다문화 사역자’가 아닌 ‘외국인 사역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III. 연구 방법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Ethnographic Study)은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 방법(Qualitative Approach)으로 문화기술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산물은 세계 여러 낯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및 배경의 총체적 측면을 문서로 보고하거나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Jeffrey, 2010: 2). 특히 문화기술지는 문화를 기술하는 것으로, 문화와 문화 상황의 기술은 연구자가 특정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는 강한 욕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스프레들리(Spradley, 1980)에 의하면 문화기술지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 이상이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크레스웰(Creswell, 2018)은 문화기

술지의 목적을 문화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의 기술로 보았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은 문화공유집단을 연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그들 각자가 비록 다른 문화권 출신이나 그들이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공통된 문화적 배경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한국 교회 내 사역자의 삶과 문화에 대한 현장의 살아있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연구 방법의 한 방법론인 문화기술지의 연구 절차에 따라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문화적 묘사를 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공유된 패턴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문화기술지 연구의 분석 단위는 보통 20명에서 시작하며, 근거이론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도의 수준이다(Creswell, 2018: 117).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한국 교회 내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 2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특수한 문화적 환경인 한국 교회라는 사회로 유입되어 장기간 삶을 이어온 특정 집단인 외국인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치와 행동 그리고 신념, 언어의 공유, 상호작용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선별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이주민 거주지역 자료와 실제 이주민 선교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총 6개 국가의, 한국 교회 내에서 5년 이상의 사역을 경험한 자료, 한국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선교지에서 한국인 사역자와 사역 경험이 풍부한 사역자라면, 국내에서 사역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지역은 수도권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조건에 맞는 외국인 사역자를 10명으로 선별하였고,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경북과 경남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10명의 외국인 사역자들을 선별하였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수도권의 대형교회에 집중되어 분포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는 한 교회에 2명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Table 1>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자료이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	gender	region	residence period in Korea	education	title	period of service
A	여	부산	9년	박사수료	전도사	5년
B	남	경남	14년	박사수료	목사	11년
C	남	부산	6년	M.Div 졸업	목사	6년
D	남	부산	16년	M.Div 졸업	목사	16년
E	남	경남	12년	박사수료	전도사	7년
F	남	대구	10년	박사과정	전도사	10년

G	남	경북	5년	M.Div 과정	전도사	5년
H	남	부산	10년	M.Div 졸업	목사	10년
I	남	광주	17년	M.A 졸업	목사	11년
J	남	서울 경기	11년	박사과정	목사	11년
K	여	서울 경기	4년	Th.M 과정	전도사	3년
L	남	서울 경기	13년	M.Div 졸업	전도사	7년
M	남	서울 경기	8년	M.Div 과정	전도사	7년
N	남	서울 경기	10년	Th.M 과정	강도사	9년
O	남	서울 경기	10년	박사수료	목사	10년
P	남	서울 경기	19년	박사과정	목사	17년
Q	남	서울 경기	16년	박사수료	목사	16년
R	여	서울 경기	15년	M.Div 졸업	전도사	14년
S	여	서울 경기	24년	M.Div 졸업	목사	9년
T	여	서울 경기	8년	Th.M 졸업	전도사	8년

2. 자료 수집과 방법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혹은 자료 생산(data production)은 자료를 얻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 이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다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삼각 기법(triangulation)이라고 한다. 이 기법은 연구자가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듣고,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며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논리적인 방식이 된다(Glesne, 2017: 76). 사람들의 말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료의 삼각 기법 유형(예를 들어 면담 후에 행동을 관찰하기)은 유용하다.

연구 방법으로 참여관찰과 현장 자료 수집 그리고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조사 과정 전에 연구 참여자와 라포르(rapport)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층 면담에서 진솔하고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하는 자세와 민감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기로 녹음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후라 하더라도 인터뷰 당일, 정식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각 나라의 모국어에 능통한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를 영상통화 라인을 통해 배석하게 하였다. 면담 시간은 1회당 90~120분이며, 회당 간격을 한주 이상으로 하여 한 참여자당 총 3회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전체 자료는 질적자료 분석 과정 프로그램인 NVivo 12를 활용하였다. NVivo를 활용할 경우 유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면담을 완벽하게 녹취 및 전사를 하여야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녹취한 전 자료를 근거로 각 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방대한 자료를 코딩함으로써 코딩 항목 간의 빈도를 비교 분석하여 어떤 항목이 연구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지 알 수 있다. 넷째, 연구자의 참여 정도를 NVivo 내의 주제 영역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섯째, 질적연구 방법론을 취한 연구들의 경우 연구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명확한 연구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에 명쾌히 답을 할 수 있어 연구 수행 전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현철, 2015: 359).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화기술지는 최선을 다해 세계에 관한 진리를 어렵פות하나마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만큼, 과학적 연구의 인식론적 가치는 문화기술지 연구의 가치이기도 하다(Stewart, 1998: 18). 물론 질적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연구자의 주관적 관찰과 해석 중심의 연구 방법임으로 기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여주어 질적연구에 맞는 타당성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 세계를 탐구한 연구의 평가이므로 기존의 표준을 수정하고 변경하여 사용한 Stewart(1998)의 기준인 진실성(veracity), 객관성(objectivity), 통찰력(perspicacity)이라는 용어로 논문의 타당도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보편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Stewart, 1998: 18-64).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사항은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결과의 보다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먼저, 연구자는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¹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연구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필요하다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연구 내용들(인터뷰 중 삭제할 원하는 내용)은 수정, 삭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 분석 절차는 스프레들리(1979)의 문화기술지 연구의 12단계를 기초로 하였다. 전체 전사 자료는 총 1,064장이며,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118개의 코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32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7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전체적인 주제에 따른 분석적 틀로 정리하여 코딩 및 분석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시킨 코딩 및 분석 결과 자료는 아래 <Table 2>로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도출된 7개의 요소는 ‘한국, 새로운 시작’, ‘한국 교회 내 사

역 경험’,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한국 교회의 특징’,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 ‘삶을 회고하며’ 그리고 ‘수신: 한국 교회에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Table 2>에서 코딩 수와 백분율로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Nvivo Key Area Coding Count and Frequency Results

category	main area	number of coding	frequency (%)
1. 한국, 새로운 시작	한국에 오게 된 동기	47	1.7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54	1.9
	학업에 대하여	93	3.3
	한국 교회 사역 시작	43	1.5
2.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	전천후 사역	95	3.4
	스텝과의 관계	114	4.1
	사역의 자율성과 지원 부족	87	3.1
	스트레스	90	3.2
	외로움과 상처	117	4.2
	재정적 상황	114	4.1
	한국 사역자와의 관계	94	3.3
	딜레마	102	3.6
	문화충격	138	4.9
	차별감	55	2.0
3.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가족 이야기	63	2.2
	사역의 의미와 기쁨	181	6.4
	지지와 위로	79	2.8
	한국 교회의 유익한 점	66	2.3
4. 한국 교회의 특징	서열 문화	76	2.7
	행정조직 문화	122	4.3
	실적과 형식 중시	83	3.0
	여성 사역자	46	1.6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	18	0.6
5.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	227	8.1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60	2.1
	코로나19 이후 사역	68	2.4
6. 삶을 회고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206	7.3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147	5.2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승인번호: KU IRB 2020-0041

7. 수산: 한국 교회에게	감사	24	0.9
	이해, 기다림 그리고 동역자로 존중해 주길	30	1.1
	외국인 사역자 배양의 사명 감당	48	1.7
	다민족 사회를 향한 선교적 준비	25	1.0
합계		2812	100

1. 한국, 새로운 시작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통로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속하여 학업과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신학생,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자 등의 다양한 입국 경로를 배경으로 갖고 있다.

“바로 오자마자 이거 브로커에 그때 돈을 엄청 많이 주니까 오자마자 일하는 거죠. 일하니까 음... 돈 값아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IMF가 터지니까 일자리가 없어졌고, 그래 가지고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일하고 또 저녁때 또 계속 알바하면서 어, 드라마 통해서 계속 한국어 배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국어 배워야 되는데 성경책 주시고, OO어. 나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OO에 있을 때.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음.. 성경책. 그때 그 이거 인터넷도 모르지 또 어려,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도 없었어요. ‘OO어-한국어’ 사전도 없었고. 그랬을 때, 이렇게 ‘OO어-북한어’ 사전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단어만 조금 배우고 그런 다음에 어... 드라마 보고, 그런 다음에 성경책, 몇 장 몇 절 보고 이렇게 언어 배우는 거예요.” (참여자 S)

그들은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 생활 초기부터 학업을 하면서 한국 교회 봉사 혹은 사역자로 임용되었다. 특히 이주민들의 삶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그 영적인 부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까지 이어져 사역자가 된 경우도 있다.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아!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왔는지도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는데. 근데 일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근로자예요. 근로자들은 한국에 와서 평일 날 힘껏 일하고 돈 벌고, 주말에 술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행사 같은 거 열어서 술 먹고, 심지어 범죄도 저질렀는데. 아~ 그때 답을 점점...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북쪽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기독교, 복음을 접할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구원받기 위해 보내왔다 생각했고. 어... 그래서 나는 사역자에서 가정 태어나게 되고, 자라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점점 부름 받고 신학도 했어요.”
(참여자 L)

이주민들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주민 사역이 정해진 입국 초기부터 한국 교회 사역자로 임용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과 지침이 제공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화충격을 겪었다고 한다.

“저는 지하철 타는 것도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티켓 사는 것도 몰랐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말도 못 하고, 손짓으로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티켓을 사서 넣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나오려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래로 기어 나와서 달렸죠. 하하! 문화충격이죠. (참여자 H)

“사역자 됐을 때는 좀 많이 적응 안 된 게 많아요. 음... 하하! 제가 교회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하하! (약간 눈물을 보이며 미소로) 서럽기도 하고 되게 너무 웃기기도 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낯설고, 어린 아이 같이 했었는데, 지금 다 적응했다고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적응하게 된 거라 생각해요.” (참여자 K)

2.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

먼저,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으로 무엇이든 다 해 내야 하는 전천후 사역은 목양의 고충을 보여 준다. 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을 위해 무엇이든 다 도와주어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보다 당연한 일로 치부될 때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외국인 사역자는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뭘든지 다 하는’ 사람이 된다.

“잠도 못자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도 모르니까 대신에 안 가본 데 없어요. 법원도 많이 갔고, 뭐 출입국 사무소, 뭐 병원, 뭐 어떤 공장. 뭐 안가본데도 없을 정도로 성도들한테 이거 도와주고 다녔거든요. 근데 몇 년 정도 그렇게 하다 돌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해 줬는데...” (참여자 T)

그들은 한국 교회의 사역 진행 흐름에 맞추어 이주민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언급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 목회자의 사역적 역할과 이주민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사역을 경험한다.

“그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너무... 사실은 참석하라고 안 해도 제가 알아서 하면 원래 너~무 은혜로운 예배예요. 한국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참석) 하라고 안 해도 또 제가 참석해요. 하지만 이거 하라고 하면, 아~ 이것도 부담이 돼요. 만약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뭐 보고 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 너무 아! 다이내믹 한 교회라서 평일도 사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사람들은 평일도 못하고, 그 주말에,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지만 1부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예배도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도... 그 목상도 잠깐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거 다 못해요. 이거 또 한계가 있고, 그 조절이 쉽지 않아요.” (참여자 I)

참여자들은 스텝들이 사역 계획서나 설교 내용을 감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서 사역자의 권위를 넘어선다고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사역자들은 불분명한 사역적 역할과 제한에서 오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통 그 부서 담당 목회자 중심으로 어떻게 목양하는지, 뭐 필요 하는지, 내가 협조하는 거, 힘써야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설교 왜 이래... 설교는 그분들이 터치하는 영역 아니잖아요, 그거. 집사 자체, 그 위치에서의 기능, 그 기능 아니잖아요. 무엇을 설교하는지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어느 정도 내가 OO인이고, OO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 어떤 내용 쉽게 설명하는지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설교가 길어, 내용이 뭐 (이렇고)... 이야기 하면 무례하잖아요.” (참여자 J)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일과 성취 그리고 성장 중심의 목회 사역에 대해 언급했다. 주일 예배 성도 숫자는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와 평가로 사역자의 책임과 의무의 잣대라고 한다. 물론 스텝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사역자들은 이 과정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성과에 치중하면서도 외국인 사역에 준비가 부족한 스텝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처음에 OO 교회에서는 그냥 숫자를 검사했어요. 숫자, 몇 명 왔는지. 그때는 외국인 담당 집사님, 외국인 예배부 담당 봉사 팀 집사님인데, 그분도 진짜 숫자를 검사했어요. 많이 오면 괜찮은데, 적을 때는 아~ 진짜 힘들어요. 매주 그분 뭐... 예배실에서, 제가 안쪽에서 밖에 보면서 설교 인도하는데, 뒤에서 항상 짹짹(기계 같은 것을 짹짹) 사람 몇 명 왔는지. 와서 하나, 둘, 셋, 짹짹짹짹! 사람 많이 왔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 많이 없을 때는 아~ 진짜 불안해요. 그리고 뭐 설교 중인데, ‘짹짹!’(기계 짹 짹 소리) 하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때 진짜 그분 좀 이상했어요.” (참여자 D)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의 사역 규정을 따라 사역하는데, 일방적인 규정은 사역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한국 교회 사역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외국인 사역자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 각 나라의 민족성을 살리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역할의 한계와 사역의 자율성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세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외국인 목사이니까. 그러면은 네. 좀 실망했다기보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자녀라면, 제가 뭐 임신하고, 태어나고, 양육하고, (웃음) 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계획대로 그 명단도 (교회에)주고, 그 친구들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요.” (참여자 I)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경험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낳는다. 한국어 호칭의 형태적 특성과 동시에 교회 내 사용되는 직분의 호칭을 고려하여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 수직적인 대인관계와 교회 내 서열에 따른 환경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한국인과 관계 맺는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의견을 전달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소통에 한계를 직면한다.

“언어 제한도 있고, 내가 예의 있게 그냥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한국 문화 속에서 어울리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씀 드리고 우회적인, 그... 한국 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직접 “니가 이렇게 해!” 하지 않잖아요? 예의로...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그 조금 마음 아픈 상황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언어 제한도 있고, 그래서 오해도 생겼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국어 더 못했어요. 그래서 소통하고 싶은데 위로하고 싶은데, 언어하고 마음이 달라서... 그냥 스스로도 힘들고 답답하고(웃음) 그런 경우. 그... 만약에 무슨 오해 생기면 풀려고 했는데 말을 정리하고 또 전달해야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고, 상대방 더 오해할 수 있어요.” (참여자 J)

참여자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 R은 냉정한 교회의 처우나 버림받는 경험으로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자 F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자살충동까지 경험했다.

“나중에 애들한테 풀었죠. 엄청 많이 때렸어요. 화가 나고 애들 죽이고 싶은 정도로. 그 OO신대원 다닐 때, 되게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상담도 받았고. 학교 상담 무료잖아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좋은 모습 보이지만 뒤에는 가면(을 쓰고), 애들... 진짜 살인하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걸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참여자 R)

“목사님이 나한테 등록금 못해주니까, 나몰라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 좀 알아보니 다른 교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를 연결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 된다고 후원해주겠다는 교회 목사님이라 싸워가지고... 아! 저는 갈길 없어가지고 그때 자살 할 뻔 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한국 사람도 원망했어요.”(참여자 F)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학업과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구조에 갈등을 느낀다. 참여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회의 사례비 때문에 항상 사역 외에 일거리를 찾는 것은 기본 생활을 위한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돈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는 한국 교회의 정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웃음) (교회의) 대우가 그렇게 여윌롭지 않아요. 여윌롭지 않아서 어쩔 때는 외국인 교역자도 알바 해야 되고, 자기 생활비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 알게 되면 별로 안 좋고 자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하던지, 나가서 설교하던지, 아니면 뭐 그냥 실제적인 어떤 알바를 하던지. 이렇게 안하면 안 되는 교역자들 좀 있어요. 특히 신학생. 신학대 다니면서 교회 사역할 때는 거의 다 파트타임이니까 생활비, 학비 이런 것들 만만치 않아요. (중략) 이미 성인이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기도...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신학대 다닐 때는 한 번도 교회 도움 그런 거 없었어요. 저한테 뭐 학비? 장학금? 제가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꺼내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알아서 해야 되니까 뭐 알바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전단지 붙이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실은...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참여자 P)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 조직의 높은 벽을 느끼며 늘 경계와 긴장 속에 있으나, 한국인 사역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장기간 한국 교회의 이주민 사역에서 이주민들의 반복되는 이동, 즉 새로운 만남과 떠남 경험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생활과 사역의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또한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본 모습에서 깊은 괴리감과 회의를 경험한다. 게다가 한국 문화와 그 영향권 안에서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지하고, 혹시 자신이 경험한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면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제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영향을 거의 100%로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문화를,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접했으니까 그냥 제 세계관이 외국 아니라 오직 한국적인 거죠. 제가 한국말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만 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뭐냐 하면 혹시 나는 개척하면 한국 교회처럼 할까봐, 이게 항상 두려워요. 나는 이렇게는 안 하겠다, 해놓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게 두려워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나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즉 지나친 인사는 진심 없는 과대 행동이며 아부와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인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또한 ‘예의 바른 것’으로 여긴다고 이해한다.

“한국에서 저한테 우리 여기서(한국에서) 오래사신 OO사람들한테도 잘 이런 거(인사)를 못한다는 소릴 들었었어요. 여기 오래 살다보면 OO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사회생활 못 한다, 예의 없다, 그런 것들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목사님 대신에 거기 우리 교회 성도가 계셨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인사했을까, 안 했을 것 같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빠 보이시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또 복도에 있는데... 내가 인사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좀 사랑 못 받는 그런 쪽으로 좀 (선택했어요)(웃음)” (참여자 T)

다양한 이주민들을 한국 스타일로 묶는 예배의 틀은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큰 예라고 한다.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각 나라의 예배가 독특한 민족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상황화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민감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예배 스타일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지금 목회하면서 교역자들, 한국 스텝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 조금 문제 있구요. 사실 문화적으로도 있어요. 사실 OO인은 한국 스타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처럼 해야지.’(하는데) 문화 차이가, 목회 차이가... “한국은 한국 스타일로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왜 OO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요?”(라는데)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참여자 B)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자신과 다른 특정 집단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느낌과 편견 그리고 평가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 교회에 나타난 이주민들이 너무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다르게 한

국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이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빨리빨리 변화되길 기대한다.

“못 기다려요. 담배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장로님 중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는데, 그죠? 있어 ~ 한국에서 있지. 그리고 집사님들도... 자기가 생각해 봐. 자기 남편들 생각하면 남편이 교회 다니지 2세대, 3세대, 모태. 모태신앙이지만 담배 피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 전혀 교회도 모르고 윗대 부모님, 아버지가 신앙생활 해 보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술(마시는 거 이해 못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담배 피워도 교회 오는 거. 토요일은 모여서 밤새 술 마시지만, 다음날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거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겼죠.” (참여자 S)

참여자들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신학교와 한국 교회에서도 유사하게 경험한다고 언급한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 사회든, 신학교든, 한국 교회든 대부분의 한국인은 유교적 배경의 예(禮)를 중시하는 것을 강조하며 외국인에게 예(禮)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외국인에 대하여 예(禮)를 갖추지 않는다는 모순점을 지적한다.

“나중에 들어온 부목사는, 사무실에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 외국인(인 저에게) 목사 아니지만, 나 이도 제일 많은 사람인데 대할 때 예의 안 지키는 거. 아~ 이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 90도로 인사하고. 나한테 이렇게 120도(고개를 뒤로 젖히며). 어떤 사람은 90도, 어떤 사람은 120도. 이거 대(大) 무시잖아요? OO에 있으면 나는 그런 친구는 쳐다보지 않을 사람(인데). 존경도 받지 못할 사람, 무식한 사람이 왜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진짜, 아~ 나중에 아! 그 사람 그런 수준, 그런 가정교육 받았기 때문에 무시하는구나. 개인적인 문제야 (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J)

3.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외국인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긍정적인 면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신앙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지지를 들었다.

“저 한국 왔을 때도 엄마는 완전 반대했거든요. 다녀와서 뭐 하나 기독교, 신학과 공부는 지금 OO에 와서는 아무 일자리 못 찾는 거죠. 왜냐하면 OO국가니까. 여기는 기독교 인정하지 않고 엄마는 완전 많이 반대했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니가 한국 가면 나는 너 안 본다. 나는 죽어버릴거야. 가지마라.” 나는 엄마 말도 안 들었구요. 지금은 사실 아버지도 가끔씩 교회 가구요. 엄마는 예수님

안 믿지만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참여자 F)

특히 한국 문화와 언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자들에 비해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 지역의 역사 등을 배우고 익히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다.

“지금 재밌어요. 한국 문화 영향, 임팩트 좀 커요. 아이들이 생각이, 머리 생각이 한국어 그리고 한국 생활 예. 원래 매일 매일 학교 가잖아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그 생각이(배운 것이)... 우리 생활 같이 하면서 “야! 왜 한국 사람이 이 집에 있을까? 하하하! 우리 OO 사람인데. 하하(이야기해요)” (참여자 I)

이런 가운데 신학과 다양한 학업, 목양에 필요한 준비됨, 독립교회까지 꿈꾸는 자신의 변화, 성장 그리고 도전이 사역의 의미와 기쁨을 준다. 특히 고국교회의 미래가 될 이주민의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장은 더없는 기쁨이 된다.

“제일 기쁠 때는 그 어떤 사람 믿고 진짜 신앙생활 잘 하고 생활 변화해서 그 사람 나와서 간증,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받고 이런, 이런 생활 변화 있었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그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뻐요. 그 뭐 우리 애기 태어나서 키우는 것 같애. (웃음) 그거 진짜 신학 공부할 때는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변화를 보고 힘이 생겨서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사역 안 했으면 신학 공부 그만뒀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힘들었는데, 사역 쪽에 이런 열매 있는 거 보고 (웃음)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 기쁨...” (참여자 D)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 사역함으로써 누리는 배움과 도전 또한 풍성한 삶을 준다고 보았다. 한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지지와 위로, 사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또한 사역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헌금 생활, 체계적인 교회조직과 교회교육,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섬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성도의 높은 소양은 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로 손꼽았다.

“한국 교회 좋은 거 신학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교회 조직적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사회 참여에 대한 물론 지나치는 것도 있지만 좌파 우파 때문에 교회 내부 갈라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의식 중요해요. 내가 국민으로서, 그 대한민국 한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 투표하는 거. 이거 상황 다르지만, 그 의식 있어요. 미국보다 조금 미성숙하지만, 한국식 민주주의, 민주사회. 조금 개인적인 관련 조금 지나친 그거 약점 있지만 그래도 OO보

다 조금 성숙된 그 국민 의식 있어요. 사회 참여. 물론 한국 교회 또 그거 또 뭐 그 사회에 대해 별로 관심 없는. 아! 세상 것(하고) 관심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 장로교는 사회책임 있어요.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거. 사회복지, 교회가 만드는 병원, 교회가 만드는 학교, 교회가 만드는 유치원, 여러 가지 그... 복지센터 통하여 사회를 봉사하는 거, (사회에) 영향 주는 거 이거 좋은 점. 이거 커요. 조금 성숙된 교회, 성숙된 교회 사회에 대한 섬기는 것도 조금 넓어요. 그냥 단순 복음 전도 아니고 더 넓게, 그냥 섬김 할 수 있는 거, 그거 좋은 점(이에요).” (참여자 J)

4. 한국 교회의 특징

참여자들은 한국의 유교문화의 배경을 교회 내에서도 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위계(hierarchy)와 질서를 중요시하고, 또 그 속에 직분(職分)과 신분(身分)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직분에 따른 호칭은 서열을 보여주며, 여기에 나이, 직분, 남녀 등을 고려하여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면 관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참여자들은 교회조직에서 목회자들 간의 서열과 담임목사 중심의 교회 운영,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갖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을 직접 목도하며 이러한 특징을 지적한다.

“어떤 때는 장로님이 들어오면 한국 목사님은 “오~”하면서 바로 일어나서 쫓아가요. “에! 장로님 오셨어요?” 하고. 정말,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레벨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건 저도 알아요. 이거 한국 스타일인거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생활이죠. 한국에서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이죠... 그런 문화가 처음엔 이상했어요. 너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물어봐야 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H)

참여자들이 경험한 또 다른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는 행정조직 문화로, 그들이 경험한 교회 행정은 사무실 출근과 미팅, 서류 업무 등 주로 회사에서 있을 법한 사무실 문화였다. 사역자의 책임과 의무감에 따라 진솔하게 작성해야 하지만 길게는 1년 사역 계획서 작성부터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보고 형식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

“음...(웃음) 뭐 어, 보고서.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은) 모임이 뭐가 있는지, 몇 명 그리고 심방, 예전에 심방은 좀 더 (자세히). 심방을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다 보고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시스템이 몇 번 바뀌었어요. 보고서 양식이. 그다음엔 뭐 숫자만 (썼고). OO는 (웃음) (성

도)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심방, 계속 같은 사람을, 그것도 매주 해야 되잖아요. 저
도 이거 매주하는 보고는 아닌 거라서. 뭐 한 달씩이라든가, 또 두 달씩, 세 달씩. 하지만 이거 매주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심방, 만약에 심방 안 하면, 뭐 이번 주에 그 친구도 바쁘면 그러면 만약에
심방 'X'(표시)하면, 또 제가 일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하! 그거 너~무 부담 (돼요). 만약
에 저도 O 하면, 이거 제가 거짓말했잖아요. 이거 절대 (안되죠). 그러면 제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해
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이거는 좀... 하하!" (참여자 I)

참여자들은 교회 행정의 유기체적인 다목적성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보고서가 최종 결정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고 무작정 기다리는 경험을 통해 원
활하지 못한 소통에서 오는 좌절감을 호소한다.

“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팀 내에서는 굉장히 단합이 되서 그것을 결
정하고 올라갔는데, 이것이 담임목사님께 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중간에서 다 커트 당하는 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장로님 선에서 아니면 담당 목사님 선에서 이게 다 잘리는 부
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은 들었죠.” (참여자 Q)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실적과 형식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이주민 근로자
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인 수가 들쭉날쭉하
다. 한국 교회가 지속적인 성도 수 증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숫자에 따라 교회 지원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역자들도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투자
한 만큼 성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선교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사역에서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 문화, 사
역 보고서와 숫자. 그것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고. (중략)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보통 예산은, 숫자 계산이 예산이잖아요.
근데 나라마다는 문제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는 쉽게 여기 오면 바로 교
회에 갈 수 있잖아요. 교회에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성도)숫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
는 여기 와서는 그냥 zero(비신자)에서 교회 가는 거는, 교회에 별로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하잖아요. 이거 돈 쓰는 거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는(비신자 전도) 열매 없지. 열매
안보이지. 열매 안 보이는 데는 사람이 봉사, 이런 거 안 하고 싶죠. 근데 이쪽은(사람이 쉽게 들어
와요. 많아요. 왜냐하면 본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지역만 바꾸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몰
라요. 예수님 뭘지 몰라. 그냥 가는 거지. 신앙이 안 좋죠. 그래서 상황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종교가 뭔지, 종교가 몇 %인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믿어도 돌아가서는 길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자기가 지금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왔다 갔다 상관없잖아요. 그냥 교회 교환만 하잖아요. 학생 교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조금 슬프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한국 교회의 연중 절기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통해 흥미 중심으로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에 편승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주민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참여해야 하므로 이중적인 사역으로 인해 혼선이 동반되고 사역에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게 프로그램을 따라야 해요. 프로그램 중심이죠. 프로그램 따라가려고 하면 제 리더가 너 뭐하냐고 그러죠. 왜냐하면 국제부 사역에 프로그램도 있고, OO교회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때때로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국제부 사역도 해야 되지만, OO교회 프로그램 따라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왜 국제부 사역 안 따르냐고 그러고 (웃음) 그게 좀 복잡했고, 혼란스럽게 했고, 스트레스 받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스트레스 받게 했는데,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역이 마치 공장 같았거든요. 정말 공장 같아요. 어떻게 할까, 노동자가 일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저의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여긴 저는 사역을 하지만, 사역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같아요. 네.” (참여자 H)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성 중심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남성과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과 똑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성별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나뉘고(신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교회 사역의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나 남성 사역자가 여성 사역자보다 우선적이라는 점은 당연시되거나 자연스럽다고 한다.

“한국에서 여자 전도사님, 설교 안 하는 게 (여성)전도사님이라면, 이 정도면... 다~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어야, 그거 전도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회만, 목회도 심방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만 하는 거면 굳이 신학교 다닐 필요가 있는지... 네,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전도사도 그... 좀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A)

5.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남들이 하는 것은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균점·평등(均霽·平等: Equilibrium)사상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라면 당연히 적어도 몇몇 나라의 이주민 사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형교회가 하면 우리도 이주민 사역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작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그 OO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도 저는 들었던 생각이 외국인 사역 있잖아요. 큰 교회한테, 대형교회한테는 특히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장식품’이라고 할까. 예를 들면 머리 묶을 때는 이거 뭐지 이거... 고무줄 하나면 있으면 되지만 우리 더 예쁘게 보이려면 핀도 하나 꽂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도.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더... 고무줄 보다 더 비싸게 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때는 신기해서... 그래도 그분들 사역자들한테 뭐 사역비도 주고, 뭐 학비도 주고... 그렇지만 저는 늘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대형교회라면 외국인 사역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고거는 진짜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 가지를 딱 부딪쳐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장식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있어요.” (참여자 T)

특히 이주민 사역에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인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적으로 한국 교회는 각국의 외국인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이주민 사역의 리더십을 100% 이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의 주역으로서도 한국인 목회자 못지않은 인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외국인들도 실력 있는 사람은 세우면 되고. 그리고 더 공감하고, 자기 외국인 입장 아니까 외국인 무슨 필요든지, 외국인 사역자 무슨 환경 어떻게 할지, 더 공감하고 네.. 자기가 인격적으로도. 또 여기(한국 교회) 와서는 너무 나쁜 말하면, 근로자야. 사역자 아니고 근로자야. 그래도 뭐, 일단 그 뭐지? 사역 마찬가지. 힘드는 거 뭐 물건 옮기든지 다 외국인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선교하고 뭘 리더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공평하지 않다고(생각하고), 서로가 (잘 세우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을 외국인 사역에서, 국제 사역에서 그들을(외국인을 리더로) 세우면 좋겠다(생각해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이주민 사역자라면 이주민 공동체의 특성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 맞추어 사역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사역자는 외국인 사역자이며, 그들은 한국시스템이

아닌 이주민의 삶의 방식으로 사역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 또한 자민족중심주의나 교회주의를 벗어나 이주민의 문화와 그들과 함께 가족 구성원이 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화적 요소의 총합을 감안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 문화의 전통적인 교회주의에 빠진 운영방식으로는 다양한 나라 출신인 이주민들을 담을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고쳐야할게, 외국인 사역하면, 진짜 외국인이 책임 갖고, 그냥 좀 알아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필요하면, (다른 한국 리더에게) 부탁하여 세워놓고, 조금, 좀 잘 외국인 문화를 잘 이해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구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전통이나, 문화나, 언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조건 이렇게 시스템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외국인을 한국 시스템을 적용하면, 한국 시스템이 좋지만 근데 다, 다는 안 맞잖아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참여자 G)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의 해외 단기선교가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한 번의 쇼(show)로 끝나는 일방통행 및 고비용을 요구하는 한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 선교사들의 부족한 상황화와 팀 워크의 부재를 선교의 부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매년 교회에서 OO 단기선교도 가고, 저는 가서 또 OO어 가르치고 그러면서 저도 부탁한 거예요. OO에 간 얘기 좀 우리한테는 들려주면 어때냐. 일단 아직 온 팀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가나)... 근데 그분들은 여행 목적으로, 저한테 어디 어디 가면 좋냐.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잘 알죠. OO에서도 교회에서 팀이 오면 받아주고, 통역하고 하는데, 아, 여행 목적으로 대부분 가니까 약간 쇼(show)하고, 여행 목적으로 가는 거.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참여자 R)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의 선교사역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와 유사한 붕어빵을 만드는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한다. 현지인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비판적 상황화 없이 한국 교회의 원칙과 기준에 맞춘 선교를 진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교회는 일단. 물론 교회는 담임목사님 따라서 그 교회 큰 그림이 있지만 외국인 사역은 덜 간섭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우리끼리 우리(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거, 현장감 없는, 다문화, 어... 이국의 사람, 타문화에 대한 이해 없는 열심은 줄이고. 이해하시죠? 너무 우리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이거(목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문화권 넘어가지 못한 사람 이거(타문화 사역) 너무 하기 힘들

잡아요? 어... 내가 열심히, 내 생각으로 그 들어 온 외국인 학생, OO 학생뿐만 아니라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만들고, 우리 붕어빵으로 만드는 거 그거 선교적인 전략 아니잖아요. 그 지금 선교학 이미 오래된 이론 하지만 실천적으로 아직 그런 많아요, 실수들이.” (참여자 J)

또한 한국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적 영향권을 확장, 강화시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한국 교회의 선교를 언급한다. 선교사가 떠난 뒤에도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럴 때 현지를 잘 아는 현지 지도자들이 깊고 넓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보다는 현지인이 영향 커야지,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떠나면 이 사람(현지인)이 선교사님 안 찾고 현지 사역자를 찾지요. 현지인이 선교사님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현지 사역자 안 키우고 그냥 이용만 하고, 그 나중에 떠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네. 그거하면 선교를 또 다시 해야 돼요. 선교의 목적은 현지에서 (현지인을) 키우고, 현지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자기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떠나고. 떠나고, 네. 그렇게 해야지...(중략) 그래서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사역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주민이 속한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 즉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대응적 사역을 실행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춤했던 시간이 있었으나, 한국 교회는 사역적 방법을 조정하거나 행사 취소 등의 대응보다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빠른 기간 안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전체 교육자 때도 같이 나눴던 애긴데요. 음..,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묵회를 했지만, 올해나 앞으로는 온라인 묵회, 그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쩌면 상황이 이게 탁탁 치니까 그것을 어... 대응하기 위해 사역을 했었다면. 사역을 다 조정을 하고 행사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거기에 맞게 사역을 진행을 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다, 라는 게... 더 이상 핑계가 안 되고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을 갖추어 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묵회, 온라인 사역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장점은 또 있더라구요. 그중에 잘은 안 되지만 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OO에 있는 친구들도 가끔씩은 예배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구요.” (참여자 Q)

참여자들은 현지 성도들은 인적교류와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위기 대처와 도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이루어졌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을 반성하며, 사역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요청된다고 보았다.

“내 자신도, 교회도, 성도도, 뭐 다른데 신경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처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생각은, ‘아, 이거 진짜 교회다. 지금까지 너무 정신없이 다른데 신경 쓰고, 이제 드디어 조용해라, 조용해라(웃으며). 가만히 있어라.’ 본질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큰 행사 그거 못 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진짜 예배 갈망한 사람 예배드리고 등등등등. 목회자도 활동이 축소되고, 책도 많이 읽고, 배우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기독교 강요, 강해 설교, 먼저 스스로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 주석, 성경 프로그램으로 자기도 배우고, 소화하고 설교하잖아요. 스스로 공부도 하고. 네... 좋은 기회예요.” (참여자 J)

6. 삶을 회고하며

외국인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자 한다. 그리고 배움과 성장 그리고 성숙되어가는 자기 삶에 대해 강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자신의 전체 삶을 회고하며 그 가치에 대해 언급한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물론 이 과정 속에 공부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섬기는 거, 한국 성도들, 교수들, 사람들 그냥 만나는 거. 지적인 면에서. (중략) 한국에 유학 와서, 큰 스승님들 밑에 배우고 얻고, 돌아가서 가르치는 거 그 분명히 격차 있잖아요. 인식적인, 지적인 성장, 그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보는, 판단하는, 생각하는 그 성숙.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 그 부딪히는 거. 그 심지어 다른 사람(과 관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그냥 우리 조금 어... 사람됨. 사람을 사람됨으로 그냥 다듬는 과정. 그 인지하고도 실패도 했었어요. (실패)해 본적인 있고, 그냥 계속 지금 조금 성숙했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지식적으로, 인품이 조금 성숙... 그 업데이트, 그거 저에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참여자 J)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역 초기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원망과 분노 그리고 교만함 등의 감정에 휩싸였던 감정을 나누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신을 위축되게 했고, 이로 인해 이주민 성도들 또한 한국 교회와 충분한 교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해 이주민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국한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후회했다.

“조금 더 한국 교회 그 환경을 보여줬더라면. 좋은 면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위축되니까 사람들도 위축되게 하고, 다른데 못 들어가게 하고. 음.. 그것도 많이 후회하고. 음... 나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교인들과 교제하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 만약에 청년부면 청년부,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거나 이런 것도 내가 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후회해. 왜냐하면 나도 그... 한국 교회 좋은 점과... 그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그 여러 명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나도 보지 못했고, 저도 교인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 후회하고. 많아요.” (참여자 R)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했다. 우선적으로 소명, 즉 부르심이다. 부르심만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낳을 수 있으며, 사역의 곱이 곱이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역을 준비하는 제2, 제3의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한다.

“사역하니까 부르심... 항상 중요해요. 부르심 없으면 이 길을 가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가니까 때론 갈 수 있고, 때론 포기해요. 근데 만약에 부르심 있으면 가죠. 끝까지 가죠... (중략) 부르심 있으면 사역할 때,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람 많이 보내주고, 열매도 많이 얻고. 근데 때론 힘들고 옆에 사역하는 동안에 한 명도 안 믿고. 어... 그 경험을 어떻게든 부르심 의지하고 가죠. 부르심 없으면 이 길을 못 가겠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L)

둘째, 코람데오(Coram Deo)의 성숙한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사역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단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되,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로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성숙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사역자의 삶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성숙한 삶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우리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마음 변함없이, wholly(온전히) 집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밖에서도 (웃으며) 문 나갈 때 이거 같은 사람. 네. 그런 거는 도전이에요. 네. 말씀만 잘하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잘해야 돼요. 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예, 저도 요즘은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목사 호칭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 그 존중과 존경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요... 이 명찰 때문에 (웃음) 그 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평신도,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처럼 서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 안 해도. 사실은 평신도도 거룩한 사람으로 같이 나가야 되죠.” (참여자 I)

셋째, 한국 교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신학교 시절부터 한국인과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교제와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므로 한국 사역자들의 생각이나 행동, 생활 등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산다면 한국말을 배우고, 그 사람의 뭐랄까 심정이나 문화나 같은 거... 그냥 여행자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 년 있든 몇 년 있든 나는 정말 여행자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과 문화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배움이거든요. 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행자로... 그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년, 몇 년 살아도 그냥 여행자로 생활하거든요. 와서 그냥 지내다가 가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 또는 뭐 그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참여자 E)

넷째,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역자에게 이주민 사역만이 사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이주민 사역에 사역을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 교회의 전 영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 즉 사역자의 역량의 확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먼저 한국어 배워야 한다고 그거 말하고 싶어요. 또 무조건 한국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면 진짜 음 손실이에요. 만약에 OO어 예배부만 사역하면, 그거 만약에 이 보람이 100%라면 OO어 예배부에서 사역하는 보람이 한 30%, 40% 되고. 아마 어떨 때는 한 10%, 20%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그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냥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알아야 나중에 자기가 목회할 때 그런 실수 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어 배워야 하고. 한국인 교제 그 모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참여자 A)

7. 수산: 한국 교회에게

참여자들은 한국 성도들이 치열한 생활 속에서도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러한 섬김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일해 온 교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

도로 교회의 지원과 지지가 지금까지의 한국 생활과 사역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한국 교회와 사역하는 게 좀 고맙습니다. 영향이 많이… 엄청 크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부르심도 받고 같이 일 허락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대상으로는 저하고 한국 교회 같이 일 하니까 그 영향은 엄청 커요. 아! 예를 들면 지금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비교하면 성장도 되기도 하고. 배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물론 그… 경험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믿음 안에 성장되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확신하게 그리고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에 오늘 OO에 돌아가면, 언제든 그날은(고국으로 돌아가는 날)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첫 번째는 OO 나라 위해서,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희생, 사랑, 또 물질까지 주는 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그동안에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또 물론 사람이 사역하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로 그 오해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죄송도 하고… 어, 감사합니다.” (참여자 L)

또한 한국 교회라는 낯선 환경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잘 정착하고, 사역자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기를 부탁한다. 한국인의 조바심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인처럼 사역하기를 요구하거나 사역의 결과만을 기대하기보다 이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은 진정한 도움을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외국 사역자를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또 현지(외국인)사역자가 한국 교회를, 문화를 또 이해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무조건 출발할 때는 다 마음에 하고 싶어요. 섬김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또 위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누르는)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존중하고 겸손하며, 같이 사역하면 열매 나오는 거죠.” (참여자 C)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주민 입국이 한국 교회에 주는 이주민 선교의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았다. 외국인 입국과 거주가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교회가 사역적 기회로 삼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이웃으로 다가온 이주민들을 여전히 멀리 있는 선교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한국 교회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다국적 민족의 이동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뭐 선교적으로 봤을 때 어, 한국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어요, 선교적으

로. 제가 OO선교에 대한 뭐 이렇게 강의나 또 그걸 할 때면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역대 이래로 보면, OO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배워가고 했던 경우는 없어요. 그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쪽 보면.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많은 OO인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배워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게 준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것은 저는 그냥 단지 한국의 문화만을 이렇게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주라, 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OO인. 사실 OO뿐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문 앞 선교, 내 집 앞 선교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선교하도록 그들을 우리 집, 문 앞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정말 소홀히 생각할 수 없죠. 교회가 특히, 또 성도들이라면 그것을 소홀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임은 또한 한국 교회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사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수용적이기 보다는 배타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참여자 Q)

끝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은 교회가 성도를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한국 교회의 교회주의에 그늘진 모습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외국인 사역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가 아닌 더 넓은 관점에서 지원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한 교회의 사역이 끝나면 그곳에서 멈춰버리는 사역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다문화 국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마음이 외국인들 위한... 너무 사랑해 주고... 하지만 이것도 그... 좀 더 개발할 수 있게 이거 투자 필요해요.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뭐 돈보다 이거 진짜 마음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쉽지 않아요. (웃음) 쉽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열린. 그러니까 더 개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키워주고. 한국은 점점 다문화 나라 될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만 아니고 또 계속. 또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교회 시스템만 말고, 나라... 그... 다문화 나라로서, 다문화 교회로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족이라던가, 다문화 이웃.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라는 게 뭔지. 예. (중략) Difference yet one unity. 이거 쉽지 않아요.” (참여자 I)

V. 한국 교회를 향한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함의

1.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보여준 것으로, 그들의 삶과 사역에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히버트(Hiebert, 1995)의 비판적 상황화에 따라 한국 교회가 외국인 사역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비판적 상황화에 따른 신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은 기독교인의 신념과 실천에 대한 최종적이고 한정적 권위로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하여야만 한다. 둘째, 믿는 자의 제사직은 모든 신앙이 있는 자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함을 가정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교회의 계속적인 검토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외국인 사역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동일한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두가 전체로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Hiebert, 1995: 242). 따라서 히버트(1995)의 비판적 상황화에 근거하되 외국인 사역자들이 요청했던 의미 있는 진술을 따라 <Table 3>과 같이 교단 차원의 정책과 교회 차원의 정책, 그리고 외국인 사역자 개인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Table 3. Policy proposals for Korean Churches

division	detailed classification	contents
denomina- tion level policy	1. 멤버케어(Member Care) 팀 구축	교단 별 교회 사역, 단체 사역에 동원된 외국인 사역자들의 토탈케어 관리 체계가 필요
	2. 외국인 사역자 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바른 처우 시행	사역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임용 규정(학업, 거주, 사례)에 대한 구체적 명시, 기초생활 소득 보장이 필요
	3. 한국 교회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한국, 한국인, 한국 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문화 충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각 나라별 번역본 마련과 교육이 필요
	4. 외국인 사역자를 위한 전문 상담기 관 운영	타문화권 사역자인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자원과 상담이 필요함, 각 나라 언어에 특화된 상담사 연결이 필요
	5.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대비한 다문화 기독교교육과정 개발	단일민족을 대상으로 했던 교회의 교육과정인 다문화 신앙 공동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다문화기독교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6.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 강화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주민과 함께하는 신앙공동체의 체질적 개선을 위한 문화적 역량,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7. 교단 신학교 내 다문화 역량 개선을 위한 수업 개설	다문화 사회를 직면한 교회 사역자의 필요와 양성을 위해 신학교 내 다문화 역량 관련 수업 개설이 필요
	8. 외국인 유학생과 사역자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	후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
	9. 외국인 사역자 중심 자문단 설치	외국인 인재육성, 관리, 정보 공유 등 한국 교회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관점 제공이 필요함, 교회 사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필요
	10. 이주민 사역과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연구 활동과 실행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관심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현황 조사 구축과 사역자에 대한 연구 활동이 필요

church level policy	1.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회 차원의 체질 개선과 선교사역의 방향 설정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 신앙공동체로의 체질 변화, 방향 설정 필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
	2. 외국인 사역자의 동등한 파트너십 요청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동등한 파트너십이 필요
	3. 교회 사역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인턴십 운영	외국인 사역자들의 원활한 사역의 시행을 위해 교회행정 조직과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담당 목회자의 책임 하에 멤버케어 측면에서 인턴십 운영이 필요
	4. 한국 목회자들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민감성 훈련	이주민과 외국인 사역자들과의 문화적 충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 목회자의 문화적 역량과 민감성 교육이 필요
	5. 다문화 신앙공동체에 맞는 주일학교 교육과정 적용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이주민 예배부와 협업을 통한 교제, 참여, 한대 교육이 필요
	6. 교회 내 민족들에 대한 상호 교차 문화이해교육	교회의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이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차 문화이해교육 실시
	7. 이주민 사역을 지역사회로 확장	이주민 사역을 교회 내 사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공공단체와 연계성을 가진 이주민 선교사역으로의 확장이 필요
	8. 한국인 이주민 사역자와 외국인 사역자 양성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대한 전략적인 사역으로써 이주민 사역자와 외국인 사역자의 양성이 지속되어야 함
	9. 여성 사역자의 리더십 활성화 방안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 여성 사역자에게 사역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등한 사역적 기회 제공이 필요
	10. 한국 교회의 문화적 인식의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개선	부정적인 한국 문화가 교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말씀에 따른 바른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논의와 개선이 필요함
individual level policy	1. 사역자로 부르심에 대한 내적, 외적 확신	다양한 외부 환경의 문제가 거듭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에 대한 내적, 외적 확신이 필요
	2.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	이주민 사역에만 함몰되지 않으며, 전체 한국 교회 사역 속에서 교회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교회 사역 참여 및 사역적 역량 강화가 필요
	3. 한국 문화와 한국어 습득	문화충격을 최소화, 적극적인 한국 교회를 이해, 문화적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어 역량 강화가 필요
	4. 이중문화의 가교 역할 강화	이주민과 한국인의 문화적 간격을 좁히고 이해와 화합에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5. 기독교교육의 측면에서 이주민 2세대의 다중정체성 교육과 부모교육 개발	이주민 부모와 함께 이주한 이주민 2세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체성 교육 개발과 실행, 그리고 부모교육이 필요함
	6. 민족 공동체를 넘어 선교동원 및 선교교육을 위한 역량개발	사역자의 원문화와 이중문화를 호환시킴으로써 현지 선교와 이주민 선교를 위한 동원 및 선교교육을 위한 역량개발이 필요
	7. 사회적 지지그룹 개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을 오픈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 즉 사회적 지지그룹 개발이 필요
	8. 장기적인 사역을 위한 연장교육 필요	현재 사역과 장기적인 사역 계획에 맞는 역량 개발을 위한 연장교육이 필요
	9. 이주민 목회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독립교회 개척에 대한 역량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의 자립성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리더십 발휘를 위한 역량 개발이 필요
	10. 한국 교회와 지속적인 선교사 사역의 협력 관계 유지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준비되고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고국(현지) 사역에서도 한국 교회와의 소통, 연합을 통해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필요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로 첫째, 한국 교회와 이주민 사역 공동체라는 이중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의 의미와 그 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사역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한국 교회가 잊기 쉬운 사역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중의 하나로 여기는 모든 신앙인의 책무”이다(김도일, 2020: 55).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이중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외국인 사역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사역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홍(2009)은 한국 교회가 말하는 이주민 선교의 장애 요인으로 첫째, 선교전략의 부재, 즉 사역 방법을 모른다는 것과 일꾼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순홍, 2009: 157). 반면 외국인 사역자들이 지적하는 이주민 선교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첫째,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균점사상(均霑思想)으로 이주민 사역이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한다”는 일종의 과시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이주민 사역의 주체가 여전히 한국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언어와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거리는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주민의 문화적 공복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임희모, 2015: 275),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이주민의 삶을 총체적 실존 전체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주민을 주체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 교회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자부심에 깊이 뿌리 내린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이주민 사역과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투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버트는 우리는 우리 자녀와 새로운 회심자에게 기독교 의식이 지닌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어 그 의식들이 빈껍데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Hiebert, 2018: 262).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전통과 신념 그리고 관습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단면을 분석, 점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회 교육은 교회가 있는 곳에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며, 교회가 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강용원, 2003: 7-8).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존재는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괄목할 만한 열매를 맺었으며, 외국인 사역자들 또한 사역자로서 신학교육을 통해 교회 교육의 큰 제도 안에서 탄탄한 기반을 이루었다. 반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장 제일주의, 성과주의에 중점을 두면서, 규모가 큰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를 성공한 교회로 보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중 절기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프로그램 중심 목회를

지속해 왔다(강용원, 2003: 16-17).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서열 문화는 신앙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일상의 삶 자체이자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정원범(2008)은 교회 직분이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정신에서가 아닌 힘의 서열로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원범, 2008: 93-94). 한국 교회에서 나이에 따른 서열과 직분은 권력으로 작용하여 더 강한 계급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통해 진정성 있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찾는 데 기여하고 있다. 레티러셀(Letty Russell, 1952)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는 것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한다(Ruessell, 1952: 9).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교육은 사람들이 양육되는 방법이었고, 항상 교회의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초대로, 변화하는 21세기,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한국인과 전혀 다른 나라와 민족 출신의 사역자들이 삶을 형성하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비기독교인인 이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이주민 공동체를 성장시켰고, 그 속에서 그들 스스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주민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을 형성하시고, 또 사람들을 참된 성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다(Ruessell, 1952: 18).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하나님의 선물인 기독교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 속에 펼쳐진 정체성과 신앙 형성,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지를 통해 기독교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학과 선교학의 간학문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조성국은 카이퍼(Kuyper)나 바빙크(Bavinck) 모두 선교사역에서 교육의 의의를 복음 선포와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근대에 사회와 학문이 세속화 되면서 과도한 분화와 분리가 심화되었던 점을 반성하고, 신학의 분과들이 유기체적이라는 맥락에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가 방향의 관점이라면 기독교교육학은 방법과 기능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Ruessell, 1952: 18). 그러므로 선교와 기독교교육은 서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독교교육은 선교교육이며, 기독교교육에 참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교와 기독교교육의 간학문적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3. 연구의 제한점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는 한국 교회의 시스템과 제도적인 관습 속에서 자신의 문화가 어떻게 충돌하며, 이중문화적인 존재가 경험하는 총체적인 삶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특성상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범위의 한계점이 있다. 외국인 리더십의 관점에 집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교회 내 이주민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 이주민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즉, 외국인 사역자에 편향되어 있는 연구의 특성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 이외에 다양한 이주민 사역자의 관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용원 (2003). **21세기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적 대응**. 부산: 고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 연구소.
- [Kang, Y. W. (2003). *21st Century Korean Church's "Educational Pastoral" Response*. Busan: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sin University.]
- 계선자·이연숙·차성란·장명선·이명호·강기정·김연화·강복정·김향은 (2012).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신정.
- [Gye, S. J., Gye, Lee, Y. S., Cha, S. R., Jang, M. S., Lee, M. H., Kang, K. J., Kim, Y. H., Kang, B. J. & Kim, H. E. (2012).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Seoul: Shin Jeong Publishing.]
- 구성모 (2015).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 실태와 미래 방향. 구성모 외 공저. **다문화 선교**(pp. 305-337).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u, S. M. (2015). Immigrant missionary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hurch. In Gu, S. M. (Eds.). *Multicultural Mission* (pp. 305-337).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 김도일 (2020).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4, 51-79.
- [Kim, D. Y. (2020).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 김동화·이종도·이현모·정홍호 역 (2018). **선교와 문화 인류학**. Hiebert, P. G. (1986).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 [Kim, D. H., Lee, J. D., Lee, H. M. & Jung, H. H. (2018).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Seoul: Joy Mission Publishing. Trans. Hiebert, P. G. (1986).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Michigan Baker Academic.]
- 김영동 (2000).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 [Kim, Y. D. (2000). *Mission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Migrant Workers*. Seoul: Handeul Publishing House.]
- 김향은 (2009). 결혼이민자 가정의 상호통합과 교회수용. 박찬식, 정노화(편). **다문화사회와 이주자 선교** (pp.48-78).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 [Kim, H. E. (2009). Mutual Integration of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Church Acceptance. In Park, C. S., Jeong, N. H. (Eds.). *Multi-cultural society & migrant mission*(pp. 48-78). Seoul: Christianity Industrial Society Research Institute.]
- 문창선 (2016).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 51-74.
- [Moon, C. S. (2016). The flow and progress of missionary work for immigrants in Korea. *Mission Insight*, 7, 51-74.]

- 석창원 (2016). 교회(목회)로서의 이주민 사역. **한국선교 KMQ, 통권 60호**, 16(2), 29-41.
- [Seok, C. W. (2016). Migrant ministry as a church (ministerial). *KWMA KMQ*, No. 60, 16(2), 29-41.]
- 안혜준 역 (2017). **질적 연구자 되기**, Glesne, C. (2014).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Ahn, H. J. (2017).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Seoul: Acadamy Press. Trans. Glesne, C. (2014).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 윤대진 (2016). 이주민 선교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 양성방안. **한국선교 KMQ, 통권 60호**, 16(2), 63-73.
- [Yoon, D. J. (2016). Measures to train local leaders for migrant missionary work. *KWMA KMQ*, No. 60, 16(2), 63-73.]
- 이명선·김증임·이운선 역 (2010). **문화기술적 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자 선택**. Jeffrey, C. J. (1990). *Selecting Ethnographic Informants*. 서울: 군자출판사.
- [Lee, M. S., Kim, J. I. & Lee, Y. S. (2010). *Selecting Ethnographic Informants*. Seoul: Koonja Publishing. Trans. Jeffrey, C. J. (1990). *Selecting ethnographic informants*. Newbury Park, Calif: SAGE.]
- 이순홍 (2009). **지교회의 자국 내 외국인 선교전략**. 파주: 한국학술정보
- [Lee, S. H. (2009). *The local church's missionary strategy for foreigners in their home country*. Paju: KSI.]
- 이현철 (2015).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 **성경과 신학**, 75, 349-377.
- [Lee, H. C. (2015). Ethnography on Life and Culture of Assistant Pastor in Korean Church. *Bible and Thology*, 75, 349-377.]
- 이효숙 역 (2005).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Attali, J. (2005). (L') *homme nomade*.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Lee, H. S. (2005). (L') *homme nomade*. Seoul: Woongjinjisighouse. Trans. Attali, J. (2005). (L') *homme nomade*. Paris: Fayard.]
- 임희모 (2015).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다중다문화선교 리더십. **신학논단**, 18, 267-299.
- [Lim, H. M. (2015). Multi-multicultural Mission Leadership in the Korean Multicultural Context. *Theological forum*, 18, 267-299.]
- 전윤조 (2021). 한국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앙과 학문**, 26(4), 279-308.

- [Jeon, Y. J. (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Faith & Scholarship*, 26(4), 279-308.]
- 정노화 (2009).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선교. 박찬식, 정노화 (편저). **다문화사회와 이주자 선교**(pp. 113-147).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 [Jeong, N. H. (2009). Multiculturalism and Achievement in Korea. In Park, C. S., Jeong, N. H. (Eds.). *Multi-cultural society & migrant mission*(pp. 279-308). Seoul: Christianity Industrial Society Research Institute.]
- 정원범 (2008). 한국문화와 한국교회의 관계유형의 변천사. 임성빈 (편저).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63-97.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Jeong, W. B. (2008). History of Changes in Relationship Types between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Church. In Im, S. B. (Eds.). *Christian culture and Korean culture* (pp. 63-97).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8).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 [Cho, H. S., Jeong, S. W., Kim, J. S. & Kwon, J. S. (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 Poth, C. N. (201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GMS 다민족사역연합체 (2020). **국내이주민사역현황**. 인천: GMS 다민족사역연합체.
- [GMS Multi-ethnic ministry association (2020). *Status of domestic migrant ministry*. Incheon: GMS Multi-ethnic ministry association.]
- Ruessell, L. M. (1952).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Spradley, J. P. (1979).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Stewart, A. (1998). *The Ethnographer's Metho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3.23). “2022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Tc1NDQlMkZhcnRjbFZpZXcuZG8lM0Y%3D> (검색일 2022.3.29.)
- [“February 2022 Immigration Policy Monthly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Tc1NDQlMkZhcnRjbFZpZXcuZG8lM0Y%3D>

24lMkYyMjclMkY1NTc1NDQlMkZhcnRjbFZpZXcuZG8lM0Y%3D(2022.3.29.)]

크리스천투데이 2018.9.26.일자. “회심→제자양육→리더십 이양까지 생각하는 이주민 선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6390> (검색일 2022.3.3.)

[“Immigrant missionary thinking from conversion → disciple raising → leadership transfer”
Retrieved from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 (2022.3.3.)]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Life and Ministry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전 윤 조 (HOPE선교회)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타문화권 선교인 이주민 선교 사역의 전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관한 것이다. 이주민 5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외국인 리더십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훈련에 대한 관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주민 사역의 전략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현재 이주민 선교사역의 실질적인 사역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재조명 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질적연구를 사용하여 그들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사역은 무엇인가?”이다.

연구자는 외국인 사역자의 삶에 대하여 조망하기 위해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특히 한국 교회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삶과 사역을 경험한 외국인 사역자 2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주요한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현장 자료 수집,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총 3회로 1회당 약 90분에서 120분간 진행되었다. 전체 전사 자료는 총 1,064장이며, 질적 자료 분석 과정은 Nvivo 12를 활용하여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118개의 코드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3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7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7개의 구성요소는 ‘한국, 새로운 시작’, ‘한국 교회 내 사역 경험’, ‘사역 경험의 긍정적인 면’, ‘한국 교회의 특성’,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하여’, ‘삶을 회고하며’, ‘수신: 한국 교회에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삶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보여준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사회, 한국 교회, 이주민 선교, 외국인 사역자, 기독교교육, 다문화 신앙공동체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한 기독교 청년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of Perceptions of Sexual Behavior among Unmarried Young Christians

조성봉 (Sung-Bong Cho)**

이수민 (Soo-Min Lee)***

강병덕 (Byung-Deok Kang)(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perceptions of sexual behaviors of unmarried young Christians, exploring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 group differences and testing possible between-group differences on attitude toward marriage, marriage & child-bearing intentions, and child-rearing expectations.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567 unmarried Christia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congruent, ambiguous, and inconsistent—based on six questions in three sub-categories, which were Christian perspectives on sex, disagreement on premarital/extramarital sex, and conservative attitude on physical touch. The congruent group reported highest scores on the three-sub categories; inconsistent group showed relatively high scores on Christian perspectives on sex while showing very low scores on conservative attitude on physical touch. Ambiguous group reported relatively high scores on conservative attitude on physical touch, showing relatively low scores on Christian perspectives on sex.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piritual maturity, fundamental evangelicalism, and worship service attendance were found to be predictors of group differences. Lastly, young Christians in the congruent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attitude toward marriage, marriage & child-bearing intentions, and child-rearing expectations compared to ambiguous and inconsistent group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we make a few suggestions related to Christian sex education and discussions.

Key words: unmarried young Christians, sexual behavior, perception, religiosity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5일 최종수정, 12월 6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scho@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smism1102@gmail.com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bkang@handong.edu

I. 서론

최근의 연구들은 국내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이 상당히 개방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영(2021)의 경우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53%)보다 혼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4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성에 대한 이같은 개방적인 의식은 실제 행동에서도 확인되는데, 학원복음화협의회(2017)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들에게 성경험 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2012년도에는 기독교 청년들의 25%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그 비율이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관계 경험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독교 청년은 39%, 비기독교 청년은 41%로 나타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성경험 여부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연구들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성행동에 대해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활발해진 현시대의 경향(이규은, 2022)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손승희 외, 2018; 송수호, 2016).

또한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 윤리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이가연, 주수산나, 김종우(2019)는 20대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대개 부모나 교회로부터 받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나 기준을 알고 이해하면서도 실제 연애/성경험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에 대해 제시하면서,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이 혼전순결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선을 넘거나” 성행위를 하였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혼전순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분위기와 보수적인 입장의 기독교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개인 내적, 대인관계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학원복음화협의회, 2017)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밝힌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혼전 성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유들(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52%), 결혼을 약속했다면 가능(10%),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31%))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현상은 자신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년들 중 상당수가 성에 대해서는 성경적 기준과 상관없이 현 세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행동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가 기독교 청년들의 실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여전히 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 청년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한 차이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등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현세대 청년들의 개방적인 성의식/행동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의 회피나 거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현재의 낮아진 혼인율 및 출산율의 원인을 성의식/행동의 변화에서만 찾을 수는 없지만, 문헌들은 개방적 성의식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행동 사이의 분명한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석(2006)은 일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의식/행동이 개방적일수록 결혼 의향은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2020)의 경우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에 대해서는 낮은 전통적/보수적 태도를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오원옥(2009)은 종교가 있는 대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에 비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나 의향을 지님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조성봉, 이수민, 장선아, 강병덕(2021)의 경우 기독교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수록 혼전 동거에 부정적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개방적인 성의식과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행동 또한 그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나 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기독교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아가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행동 수준이 그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나 결혼/출산 의향 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기독교 청년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나 특정 성의식/행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제시하는 데 그침으로 인해 현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나 제공 가능한 개입에 대해 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현시점에서 기독교 청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전통적/성경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분류하고, 나아가 그렇게 분류된 각 그룹의 청년들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성에 대한 전통적/성경적 기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그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미혼 청년들의 (1) 스킨십에 대한 입장(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에 대한 본인의 허용 정도), (2)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판단(혼전 성관계 및 혼외 성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3)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성관계는 하나님의 선물, 육체적, 정서적, 영적 결합)을 함께 고려하여 기독교 청년들의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집단

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종교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집단별로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혼 기독교 청년들은 성행동에 대한 인식, 즉 스킨십에 대한 입장,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판단,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각 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2.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른 집단의 분류에 종교활동 및 신앙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및 출산 의향, 자녀에 대한 기대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그동안 국내 연구들을 통해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입장(이하 성인식/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개인의 성인식/태도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변수는 성별과 연령으로 확인된다(서은주, 차남현, 2021). 성별에 따른 성태도는 연구들에 따라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박선화, 2019; 양영미, 조미옥, 백경화, 2021; 우근희, 2011; 유연희, 2015; 정은숙, 2015), 그와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순구, 2021;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2020; 조선희, 한은주, 2020). 또한 연령에 따라 성의식과 성태도가 다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성의식과 성태도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이었다(김상임, 2000; 김영혜, 어용숙, 이화자, 최소영, 2003; 한내창, 2010). 한편 성행동과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박선화, 2019; 유연희, 2015). 대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김상희, 윤우철, 2012; 김순구, 2021; 서은주, 차남현, 2021;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 2013).

한편,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 또한 성의식 및 성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성의식과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신근화, 강명희, 2013), 대학생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일회적인 성관계에 대한 허용과 성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는 태도는 낮아지고 성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이주연, 하상희, 정혜정, 2005). 그 외에 성태도는 성매체 접촉 유무, 흡연과 음주, 이성을 사귀는 횟수, 성경험 여부나 성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고(김상희, 윤우철, 2012; 노인숙, 김화선, 2020), 성적 자율성(강정미, 김미옥, 2021), 성인지 감수성(김수을, 김소명, 2022), 성에 대한 의사소통(조승희, 2020)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전공, 학년, 경제적 수준 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년이 더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더 높을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김미숙, 2010; 김순구, 2021; 김수진, 문승태, 강희순, 2011; 김윤희, 조규영, 2014). 이외에 개인의 경험 및 심리적인 요인 또한 성행동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성친구가 있을수록, 이성교제 횟수가 많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성에 대해 전통적인 이중기준을 사용할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문승태, 강희순, 2011; 김순구, 2021; 김영기, 2011; 김윤희, 조규영, 2014). 개인이 가지는 이념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의 차이와 같은 개인의 이념에 의해서 개인의 성행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Harris,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이념으로서 경제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가족 내에서의 경험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와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성행동 경험 이 더 낮았고, 가족으로부터 성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경우에는 성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김미옥, 2013), 가족 요인과 성행동 간 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부모님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이은미, 김가영, 2017).

개인의 성행동은 성의식/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성에 대한 태도는 실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기, 2011). 연구들은 성태도가 왜곡되지 않을수록, 윤리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성행동에 대한 경험이 적고(김미숙, 2010), 반면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행동이 더 많음을 제시하고 있다(김윤희, 조규영, 2014). 한편, 기독교인의 경우 성인식과 실제 그들의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난다(임희숙, 2014). 성인식과 성행동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구분되는 개념으로, 맥락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성관계에 대한 태도와 실제 성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의식적인 측면으로서 성행동에 대한 태도와 함께 행동적인 측면으로서 실제 성행동을 각각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성의식/태도는 결혼/출산에 대한 의향 및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에 대해서도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과 높은 결혼의향을 보고한 반면(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2020),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을 할 의향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김정석, 2006). 종교 또한 결혼/출산과 관련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대가 높아 결혼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원옥, 2009).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생활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의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조, 2003). 하지만 기독교 청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실제 성행동에 따라 그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또한 결혼과 출산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은 성을 인간의 전체적 자아의 한 기능으로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남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 본다(홍병호, 2006). 또한 성은 본인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사회와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성행위를 통한 부부간 연합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확대된다(남정우, 2003; 임희숙, 2014).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 자체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쾌락과 유희만을 위한 성행위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서 이 거룩한 영역이 성적 방종이나 무책임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되며(홍병호, 2006), 또한 성행위가 결혼 외의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결혼 계약을 위반한 상징으로 설명한다(남정우, 2003). 이 같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성 담론은 기독교인들의 성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최현중, 2015),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성태도가 더 보수적이고(김상희, 윤우철, 2012;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2020),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성적행동이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덕, 2011),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경우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전요섭, 함희영, 2007; 하주영, 김건희, 2009).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한내창, 2010), 교회를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상임, 2000). 반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유무가 성태도와 관련이 없거나(김영혜, 어용숙, 이화자, 최소영, 2004), 오히려 기독교인 대학생이 다른 종교인 대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는 등(주영희, 정은숙, 심묵숙, 2013)과 같이 기독교와 성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이 갖는 성에 대한 입장 및 그 추이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그러한 입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기독교 신앙의 유무나 예배 참석 빈도/출석 기간 등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성에 대한 생각, 태도, 가치관 등을 담아내는 표현으로 성적 가치관, 성의식, 성태도, 성인식 등이 맥락에 따라 상호배타적으로 혹은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되고 있다. 각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성의식이란 성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생각, 견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식으로(강정미, 김미옥, 2021; 노인숙, 김화선, 2020; 김상희, 윤우철, 2012; 오원옥, 2009), 성행동에 대한 기준, 혼전 성관계, 혼전동거, 혼전 성관계로 인한 임신 중절,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신근화, 강명희, 2013; 정희정, 2001). 성태도의 경우 성의식과 비슷하게 성에 대한 이념, 지각, 성향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성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행위에 대한 신념, 선호의 방식, 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키스와 포옹, 자위행위, 혼전 성교, 동성애, 항문 성교 등에 대한 성적 가치관과 임신, 출산, 결혼,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고연숙, 2001; 김순구, 2021; 김현영, 2021; 송수호, 2016; 신근화, 강명희, 2013; 안치훈, 2017; 호선민, 2009). 한편, 손강숙과 정소미(2016)는 성인식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인식이 성지식, 성의식, 성태도에 대한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개념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성 관련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목적인 스킨십/성적 행동과 성관계, 혼전 성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성행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 기독교적 입장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실제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성행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행동에 대한 인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기독교인 중 결혼 상태가 미혼이고 나이가 19세 이상 35세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응답자의 기독교인 여부는 교회 출석이나 예배 참석이 아닌 설문 참여자가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선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상도 소재 P시에 위치한 기독교 대학과 지역 교회들(3 교단, 6 교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참여 대상을 모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 중 미혼 기독교인이며 나이가 35세 이하인 547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Variable	Value	n	%	Mean (SD)
Sex	Female	306	55.9	-
	Male	241	44.1	
Age (years)	23 or Under	187	34.2	-
	24 - 26	159	29.1	
	27 - 29	111	20.3	
	30 - 32	66	12.1	
	33 or Over	24	4.4	
Academic Achievement	High School Graduates or Below	70	12.8	-
	Students in College / University	265	48.4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161	29.4	
	Students in Grad. Schools or Above	51	9.3	
Attitude to Economic Issues	5-point scale (5 = Conservative)	-	-	3.02 (.871)
Attitude to Social Issues	5-point scale (5 = Conservative)	-	-	2.98 (1.078)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참조),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이 56%로 조금 더 많았고, 나이를 기준으로 23세 이하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준에서는 현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가 4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대학생 중심으로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더 다양하고, 학력 수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에 평균이 각 3.02점(경제 이슈), 2.98점(사회 이슈)으로 전반적으로는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2. 측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구글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방법을 사용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3주 동안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주요 문항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나이, 학력, 거주 지역 등); (2) 사회학적 특성(사회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이념적 성향 등); (3) 종교 활동 및 신앙(교회 출석 기간, 예배 빈도, 청년부 활동, 영적 성숙,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4) 결혼 인식(결혼 필수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의향); (5) 출산 및 자녀 인식(출산 의향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6) 성행동에 대한 인식(스킨십에 대한 입장, 스킨십 허용 정

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입장,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수용).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은 아래와 같다.

(1) 성행동에 대한 인식

성행동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영역(행동, 도덕적 판단, 기독교 관점)의 여섯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행동 영역에서는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 허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스킨십에 대한 입장은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 엄격한 금지 - 철저한 기준 준수 - 신중한 허용 - 과감한 완화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스킨십 허용 정도는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스킨십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스킨십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손잡기/팔짱끼기 - 포옹/입맞춤 - 키스 - 성적 애무 - 성관계까지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도덕적 판단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부부만의 특권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해 측정하였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입장은 전혀 잘못되지 않음에서 항상 잘못되었음까지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관계가 부부만의 특권인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수용은 성관계의 특성을 두 가지 항목(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육체적/정서적/영적 결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여섯 가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수용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잠재프로파일을 활용한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을 위해 이상의 여섯 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하였다.

(2) 종교 활동 및 신앙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종교 활동 및 신앙을 독립 변수로, 집단 유형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 활동 및 신앙은 다섯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교회 출석 시작 시기(모태 신앙에서 20-30대 출석: 5점 기준), 예배 빈도(현재 출석하지 않음에서 매주 한 번 이상: 4점 기준), 그리고 청년부 활동(전혀 참여하지 않음에서 모든 활동에 참여: 4점 기준)은 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영적 성숙은 Ellison이 개발한 영적 성숙 척도(Spiritual Maturity Index)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영적 성숙은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성숙되었다는 것으로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 의해 성장하기보다는 자신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신앙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tevenson, 1999).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대해 6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독교 신앙 성숙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영적 성숙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0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은 Gibson과 Francis가 1996년에 개발한 기

독교 근본주의 신앙 척도(Christian Fundamentalist Belief Scale)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신교 전통과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에 대한 것으로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예수의 탄생/재림, 예수님의 기적 등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Hood, Jr., 1999). 이 척도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동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7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

결혼 인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하나는 결혼의 필요에 대한 태도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본인의 결혼 의향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및 자녀 인식도 두 가지 변수로 측정되었다. 하나는 본인의 출산 의향에 대한 것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으로 세 항목(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임, 자녀는 부부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함, 자녀는 외동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좋음)을 합산하여 5점으로 변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요 변수(참여자의 사회학적 특성, 종교 활동 및 신앙, 결혼/출산/자녀 인식, 성행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현황 파악이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기술통계(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둘째,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이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보다는 통계적 정보를 기반으로 집단을 유형화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종교활동과 신앙이 성행동 인식 유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특성 및 종교활동과 신앙 변수를 분석에 함께 포함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행동 인식 유형 집단을 기준으로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에 대한 집단 비교를 하였고 이를 위해서 Wald의 연관성 검정(Wald's Associ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Wald 검정은 전체 모형과 일대일 집단 비교 별로 카이제곱값(Chi-squared value)과 유의확률(p-value)을 제공해 줌으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SPSS 2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잠재프로파일 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Wald 검정을 위해서는 Mplus 8.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분석 모형 A)을 실시하고 이어서 종교 활동 및 신앙 변수를 중심으로 한 공변인의 영향(분석 모형 B)과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의 집단 차이(분석 모형 C)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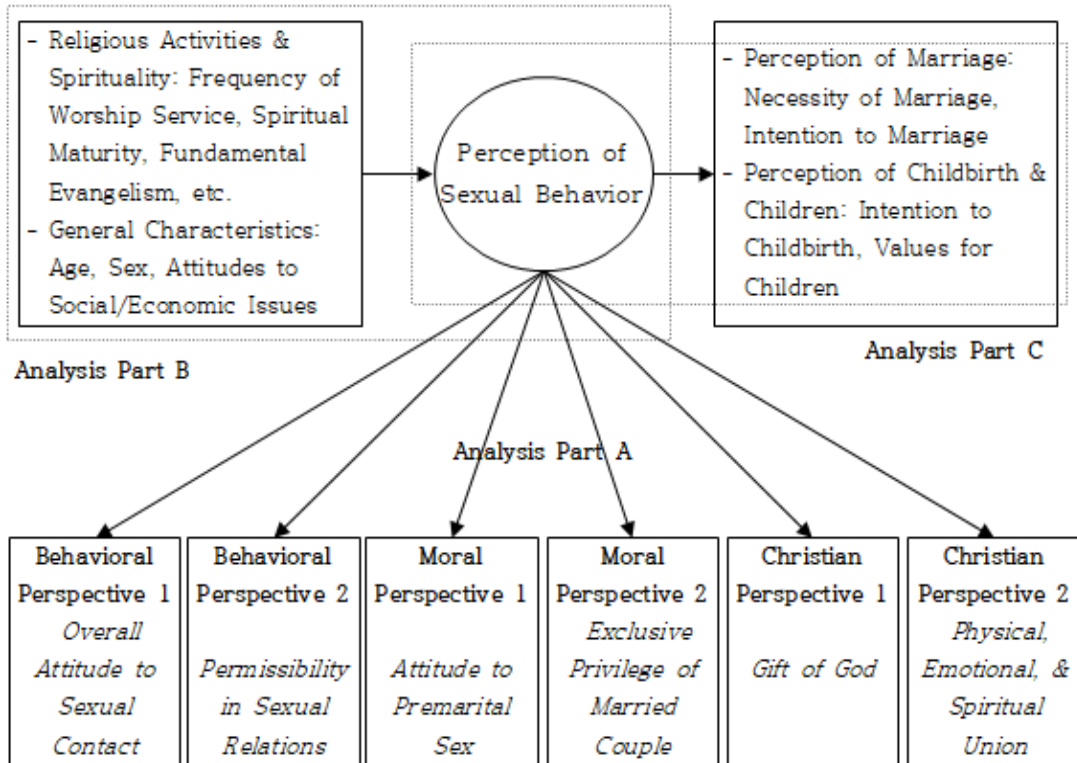


Figure 1. Latent Profile Analysis Model on the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

IV. 연구결과

1. 주요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본 연구의 가장 중심 개념인 성행동에 대한 인식은 여섯 변수로 구성하였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 허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절저한 기준 준수’가 283명(52%)으로 가장 많았고, ‘엄격한 금지’가 11명(2%)으로 가장 적었다. 스킨십 허용 정도에서는 키스가 219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과감한 완화 태도를 가진 참여자 모두가 성관

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30명, 91%) 허용하였고, 신중한 허용 태도를 가진 참여자 중에도 절반 가까이는 성관계(63명, 29%)와 성적 애무(34명, 16%)를 허용하였다.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평균이 각 3.60점과 3.26점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혼전 성관계가 5점 척도 기준이고, 혼외 성관계는 4점 척도 기준이어서 두 변수 모두 5점 척도로 기준을 통일하게 되면 혼전 성관계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 정도가 혼외 성관계보다 높다는 것이다.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 관점으로 성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평균 3.52점)과 성관계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결합(평균 3.55점)이라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의 평균 모두 4점 기준 3.5점 이상의 수준이어서 기독교 관점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lated to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

Category	Variable	Value	n	%	Mean (SD)
Behavioral Perspective	Overall Attitude to Sexual Contact	Wide Openness	33	6.0	-
		Careful Openness	220	40.2	
		Strict Standards	283	51.7	
		Strict Prohibition	11	2.0	
	Permissibility in Sexual Relations	Sex	96	17.6	-
		Sexual Caress	56	10.2	
		Kiss	219	40.0	
		Hugs or Light Kiss	128	23.4	
		Holding Hands or Arms	37	6.8	
		None	11	2.0	
Moral Perspective	Attitude to Premarital Sex	5-point scale (5 = Premarital sex is wrong)	-	-	3.60 (1.283)
	Agreement to The Privilege of Married Couple	4-point scale (4 = Sex is the exclusive privilege of married couples)	-	-	3.26 (.992)
Christian Perspective	Sex as the Gift of God	4-point scale (4 = Sex is the gift of God)	-	-	3.52 (.688)
	Sex as the Physical, Emotional, & Spiritual Union	4-point scale (4 = Sex is the physical, emotional, & spiritual union)	-	-	3.55 (.723)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활동 및 신앙 영역에서는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421명, 77%)이 모태 신앙이었고, 설문 참여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매주 일 회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청년부(또는 대학부) 활동에서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응답은 30%(166명)이었지만,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한다면 67%(370명)로 열 명 중 일곱 명은 청년부 활동에 참석하였다. 영적 성숙은 6점 척도에서 평균 4.24점으로 보통 수준(3.5점)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 척도에서는 5점 척도 기준 평균이 4.74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결혼과 출산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변수 모두에서 5점 척도 기준 평균이 4점을 상회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4.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혼이 필수라는 문항의 평균은 4.0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related to Major Variables in this Stud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Religious Activities/Spirituality, & Perception of Marriage/Childbirth

Category	Variable	Value	n	%	Mean (SD)
Religious Activities & Spirituality	The First Church Attendance	After High School	23	4.2	-
		Middle/High School	28	5.1	
		Elementary School	33	6.1	
		Before Elementary School	39	7.2	
		From Birth	421	77.4	
	Frequency of Worship Services	Currently None	10	1.8	-
		Several Times a Year	16	2.9	
		Every Two Weeks	21	3.8	
		Every Week or More	500	91.4	
	Participation in Young Adult Group Activities	None	68	12.4	-
		Somewhat	109	19.9	
		Most of the Times	204	37.3	
		All the Times	166	30.3	
	Spiritual Maturity	6-point scale (6 = Highly matured)	-	-	4.24 (.659)
	Christian Fundamentalism	5-point scale (5 = Highly evangelical)	-	-	4.74 (.523)

Perception of Marriage & Childbirth	Intention to Marriage	5-point scale (5 = Highly intended)	-	-	4.47 (.808)
	Necessity of Marriage	5-point scale (5 = Highly necessary)	-	-	4.01 (.764)
	Intention to Childbirth	5-point scale (5 = Highly intended)	-	-	4.30 (1.009)
	Value for Children	5-point scale (5 = Highly valued)	-	-	4.62 (.701)

2.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 영역(행동, 도덕적 판단, 기독교 관점)에서 여섯 가지 질문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잠재프로파일 수는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AIC와 BIC), 통계 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LMR-LRT와 BLRT),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 지수(entropy), 집단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정보기반 적합치 지수에서는 AIC와 BIC 모두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지수 모두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이후로 감소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통계 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에서는 LMR-LRT 기준으로는 2개 모형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BLRT 기준으로는 2-4개 모형 모두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 지수인 Entropy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0.9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lark, 2010).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에서부터 4개 모형까지는 증가하다가 5개 모형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 기준에서도 2개 모형에서 3개 모형 차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고, 3개에서 4개 모형 차이에서는 적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집단 비율에서는 모든 프로파일에 연구참여자 전체 수의 최소 5% 이상이 속해야 한다는 Jung과 Wickrama(2008)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잠재프로파일 4개 모형과 5개 모형에서는 한 집단이 2%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준 충족은 2-3개 모형이었다. 이상의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적모형으로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잠재프로파일 세 개 모형의 AIC는 7039.633, BIC는 7151.549였고, entropy는 0.962였다. 세 프로파일의 비율은 첫 번째가 58%, 두 번째가 24%, 그리고 세 번째가 18%로 나타났다.

Table 4.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Criteria		No. of the Latent Profiles			
		2	3	4	5
AIC		7394.000	7039.633	6981.392	6840.811
BIC		7475.785	7151.549	7123.439	7012.989
SABIC		7415.471	7069.014	7018.683	6886.013
LMR-LRT		0.000	0.1142	0.1672	0.2129
BLRT		0.000	0.0000	0.0000	0.2196
Entropy		0.917	0.962	0.966	0.960
Classification rate (%)	1	27.7	17.9	17.3	18.2
	2	72.2	24.2	56.0	28.0
	3		57.9	24.5	6.0
	4			2.1	2.0
	5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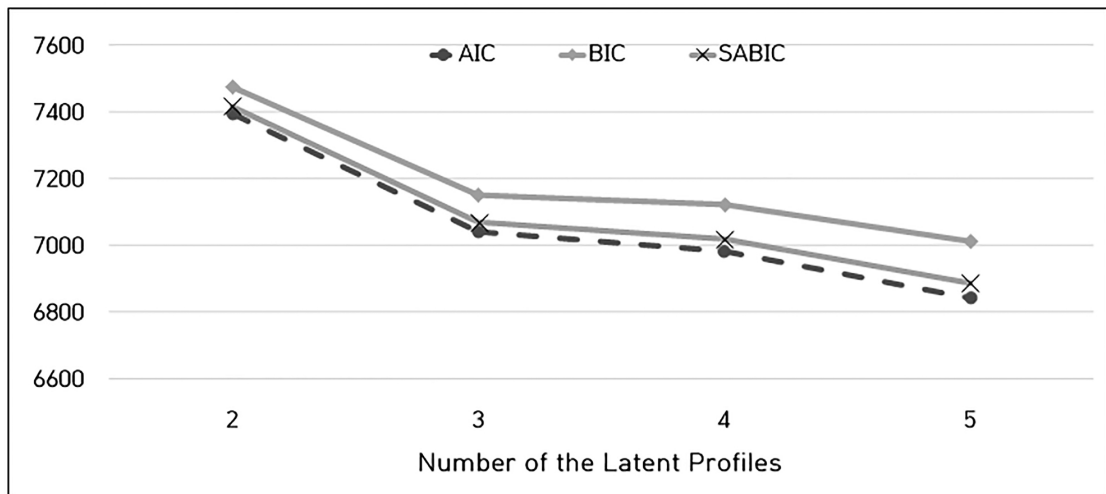


Figure 2. Changes in AIC, BIC, SABIC as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Incr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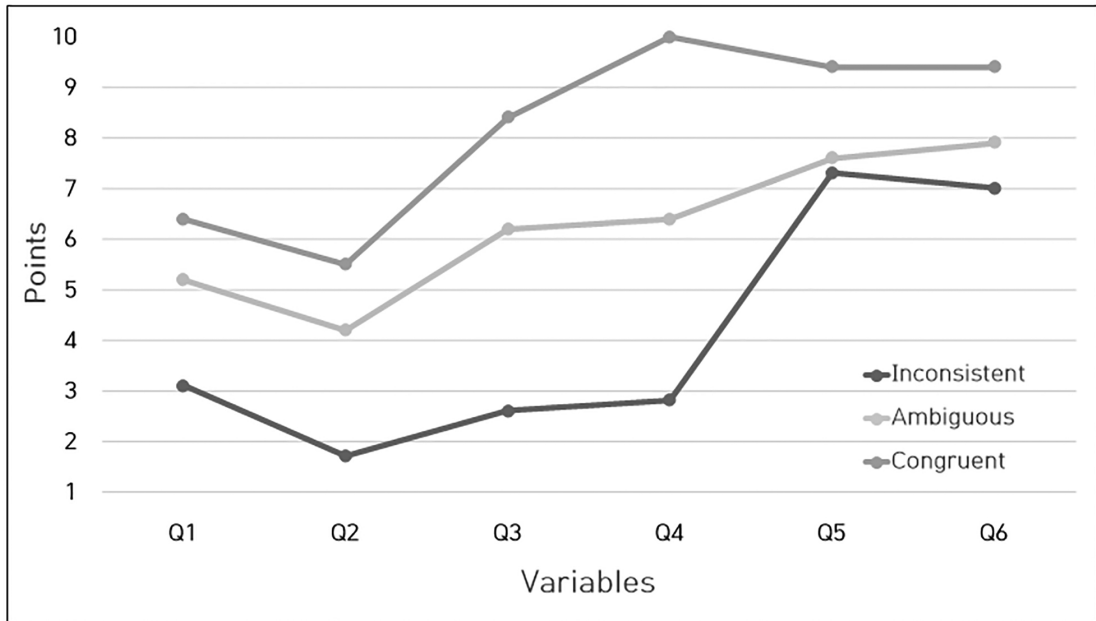


Figure 3. Latent Profiles of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

Q1 = Behavioral perspective 1: Overall attitude to sexual contact (Original scale: 1 = wide open; 4 = stric prohibition)
 Q2 = Behavioral perspective 2: Permissibility in sexual relations (Original scale: 0 = no relation; 5 = sex)
 Q3 = Moral perspective 1: attitude to premarital sex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5 = morally wrong)
 Q4 = Moral perspective 2: the exclusive privilege of married couple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4 = morally wrong)
 Q5 = Christian perspective 1: the gift of God for people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4 = morally wrong)
 Q6 = Christian perspective 2: the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union (Original scale: 1 = morally right; 4 = morally wrong)

미혼 청년 기독교인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여섯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는데 변수에 따라 척도 기준(최고값이 4점 또는 5점)이 상이하어 모든 변수의 점수를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Figure 3]에 제시하였고, 각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라 첫 번째를 ‘일치형’, 두 번째를 ‘모호형’, 세 번째를 ‘불일치형’으로 명명하였다.

일치형은 기독교 관점의 높은 수용과 도덕적 판단에서 혼외 성관계를 옳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높으며, 성행동이 보수적인 유형이다. 성행동에 관한 기독교 관점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행동의 허용범위에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형에는 58%의 청년이 속하였다. 모호형은 세 가지 프로파일 중에서는 가장 중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독교 관점 수용 정도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확실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 판단과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중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는 24%의 청년이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일치형은 세 프로파일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독교 관점 수용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고, 모호형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치형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 관점 수용이 높은 것과는 달리 성행동의 개방성과 허용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는 18%의 청년이 속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종교활동과 신앙이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Table 5. The Effect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Religious Activities/Spirituality on the Latent Profile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ategory	Variable	Congruent Type ¹ vs. Inconsistent Type ²		Congruent Type ¹ vs. Ambiguous Type ²		Ambiguous Type ¹ vs. Inconsistent Type ²	
		Coef.	OR	Coef.	OR	Coef.	OR
General Characteristics	Sex	-.869**	.420	-.323	.724	-.545	.580
	Age	-.171	.8843	.040	1.041	-.211	.810
	Attitude to Social Issues	-.275	.759	-.070	.932	-.205	.815
	Attitude to Economic Issues	.030	1.030	-.101	.904	.130	1.139
Religious Activities & Spirituality	The First Church Attendance	.069	1.072	.033	1.034	.036	1.037
	Frequency of Worship Service	-1.021**	.360	-.564	.569	-.457	.633
	Young Adult Group Activities	-.320	.726	-.220	.803	-.100	.905
	Spiritual Maturity	-2.130***	.119	-1.412***	.244	-.718*	.488
	Christian Fundamentalism	-1.400***	.247	-1.154**	.315	-.246	.782

1 = Reference group; 2 = Comparison group; * $p < .05$; ** $p < .01$; *** $p < .001$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예측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나이, 사회적 이슈 태도, 경제적 이슈 태도)과 종교활동 및 신앙(교회 출석 시작 시기, 예배 빈도, 청년부 활동, 영적 성숙,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을 공변인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에서는 여자가 일치형에 속할 확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치형과 불일치형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이,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태도와 같은 다른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교활동과 신앙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적 성숙 변수가 모든 집단 비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영적 성숙이 높을수록 일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모호형과 불일치형의 비교에서도 영적 성숙이 높을수록 모호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변수는 일치형과 불일치형 집단 간 비교와 일치형과 모호형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수용이 높을수록 일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교활동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교회 출석 시작 시기와 청년부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예배 빈도 변수는 불일치형보다는 일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4. 잠재집단을 기준으로 결혼 인식과 출산 및 자녀 인식에 대한 집단 비교 분석

Table 6. Group Comparison related to Perception of Marriage/Childbirth:
Wald Association Analysis test result of distal outcomes

Variable	Congruent Type (CT) Mean	Ambiguous Type (AT) Mean	Inconsistent Type (IT) Mean	Overall X2	Group Difference
Attitudes to Necessity of Marriage	4.180	3.801	3.724	39.507***	CT > AT = IT
Intention to Marriage	4.676	4.258	4.099	45.492***	CT > AT = IT
Values for Children	4.787	4.411	4.370	38.487***	CT > AT = IT
Intention to Childbirth	4.533	4.018	3.904	39.905***	CT > AT = IT

* $p < .05$; ** $p < .01$; *** $p < .001$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결과 변수의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결과 변수로 네 가지(결혼 필수에 대한 태도, 본인의 결혼의향,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본인의 출산 의향)를 구분하였다. 네 가지 변수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모든 비교에서 동일하게 일치형의 평균이 모호형과 불일치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모호형과 불일치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치형에 속한 미혼 청년들이 다른 유형의 청년들보다 결혼에 대해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의 결혼 의향이 높았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더 긍정적이었고, 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미혼 청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즉 스킨십에 대한 입장,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입장,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수준에 따라 이들 청년들의 집단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탐색하고, 각 집단에 미치는 신앙적 요인들의 수준에 따라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각 집단별로 결혼/출산 의향 및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성행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의 경우 ‘철저한 기준 준수’ 혹은 ‘엄격한 금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약 54%)을 넘었지만 신중한 허용(46%)이나 과감한 완화(6%)라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 스킨십에 대해 엄격한 입장과 허용적 입장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스킨십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기독교인 미혼 청년들의 36%가 교제 중인 상대와 성관계가 가능하고 결혼을 할 상대와는 57%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이상원, 정재영, 송인규, 2014). 또한 스킨십 허용정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 20%에 약간 못 미치는 참가자들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여 크리스천 청년 대여섯 명 중 한 명은 혼전 성관계에 허용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상원 등(2014)의 연구에서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과반이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내용과도 분명한 차이를 갖는데, 이같은 차이들은 각 연구참여자들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본 연구의 경우 실제로 교회에 나온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던 반면, 이상원 등(2014)의 연구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본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선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실제 신앙생활 수준/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차이는 각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신앙생활이나 교회 출석 유무/수준에 따라 성에 대한 입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조(2003)는 기독교 청년들의 80%가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는 옳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해당 연구의 경우 참여자들의 90%가량이 교회를 다닌 지 최소 4년 이상 되었고 매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스킨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스킨십 허용정도에 대한 응답들을 함께 살펴보면 ‘신중한 허용’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들 중에서 29%는 성관계를, 16%는 성적 애무까지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스킨십에 대해 신중하다’라는 전제가 붙는다 해도 결국 허용이라는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로는 성관계 혹은 성관계에 가까운 행동들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과감한 완화’(6%) 태도를 가지는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응답자들(91%)이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혼전 스킨십에 대해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철저한 기준 준수’(46%)라고 응답한 참여자들 중에도 성관계나 성적 애무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9%였고, 키스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44%에 이르러 ‘철저한 기준’에 대한 기준이나 범주 또한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경우, 혼전 성관계가 대개 혹은 항상 잘못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가깝게 나타난 반면, 전혀 잘못되지 않았거나 대개 허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로 나타났으며, 판단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나머지 20% 정도로 확인되었다. 반면 혼외 성관계에 대한 허용 정도의 경우, 성관계가 오직 부부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문항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나 기독교 청년들의 다수는 성관계를 부부관계 내에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들은 본 연구참여자들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입장과 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혼외 성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혼전 성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비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이슈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 기독교 청년들이 혼외 성관계에 비해 혼전 성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혹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자신이 미혼인 입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차이는 현재 자신들의 행동, 혹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경우, 성관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문항과 성관

계가 육체적 결합만이 아닌 정서적, 영적 결합을 포함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미혼 청년들 대부분은 성관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단지 쾌락을 위한 도구나 행위가 아닌, 목적과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다른 응답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동의를 보다 실질적인 상황들에서 적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미혼 기독교 청년들은 대부분이 성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은 인정(91%)하지만 이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율은 그보다 작고(72%), 혼전 성관계가 옳지 않다고 보고하는 비율(60%)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혼 기독교 청년들의 상당수가 분명하고 일관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다른 맥락과 관계들 속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앞서 제시된 성행동에 대한 인식들(세 가지 영역, 여섯 개의 질문)에 따른 집단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탐색한 결과, 미혼 기독교 청년들은 서로 구분되는 세 집단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 즉 세 가지 영역, 여섯 문항에 대한 응답 패턴에 따라 각 집단을 일치형, 모호형, 불일치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같은 명명에 있어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는 정도가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즉 일치형 집단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의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불일치형 집단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점수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분류된 세 집단의 응답 패턴과 전반적인 형태를 고려할 때, 첫 번째 집단인 일치형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은 '스킨십에 대한 입장',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세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고 전반적인 형태 또한 다른 두 집단과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의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점수의 경우 다른 집단들, 특히 불일치형으로 확인된 집단의 점수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불일치형 집단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의 점수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일치형 집단의 경우와 달리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 성관계에 대한 신앙적 관점과 현실적 적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치형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이 10점 기준 9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는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두 집단의 경우, 절대적인 점수는 일치형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긴 하지만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 두 행동에 대한 응답자들의 점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일치형 집단에서만 확인되는 이와 같은 두 행동 간 점수의 차이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같은 현상은 일치형 집단에 속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기독교 청년들보다 전반적으로 성관계 자체나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혼전 성관계에 대해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만큼 엄격하게 성경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청년들의 60%가량이 이 일치형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교회 차원의 구체적인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유형과 예측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 활동 및 신앙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도 영적 성숙과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수용 정도가 미혼 기독교 청년들이 어떤 집단에 속할지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적 성숙의 경우, 영적 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불일치형 집단이나 모호형 집단에 속할 확률, 그리고 모호형 집단보다 불일치형 집단에 속한 확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즉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더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불일치형 집단보다 모호형 집단과 일치형 집단에, 그리고 모호형 집단보다도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경우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불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경의 근본적인 주장들 즉 천지창조, 예수의 탄생 및 재림, 기적 사건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불일치형 집단보다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종교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우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일치형 집단보다 불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 신앙의 분명함이나 성숙도 수준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 변인으로서의 유일하게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내창(2010)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예배에 자주 참석할수록 혼전 성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함께 포함된 청년부 활동 참여 및 교회 출석 시작 시기는 이같은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이 청년부 모임에 나가는 빈도나 신앙생활 지속 기간 자체는 그들이 성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할지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임(2000)의 경우 교회에 다닌 기간이 짧을수록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같은 결과의 차이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다름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예배 참석 빈도의 경우, 성행동 인식 수준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신앙성숙이나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동의 정도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예측요인으로 포함된 일반 특성들 중에서는 성별만이 유일하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불일치형 집단보다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성행동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상임, 2000; 최현중, 2015; 한내창, 2010).

마지막으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결혼 의향이 어떠한지, 자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출산의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응답의 수준이 분류된 잠재집단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갖는지를 탐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집단 간 비교에서 일치형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다른 두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의 응답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치형 집단에 속한 기독교 청년들은 모호형이나 불일치형 집단에 속한 청년들에 비해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한 정도가 높아, 결혼의 필요에 대한 인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일치형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이 결혼 의향 및 출산 의향에 있어서도 다른 두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 대해서도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성행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에 보다 더 높은 의미를 두고 본인의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으며,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장차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주요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결혼/출산 의향 등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여러 상황적 요인들(경제적 상황, 안정적 직업 여부, 부모 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지 성태도에 대한 인식으로만 결정되는 개념은 아님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다.

2. 학문적/실천적 함의 및 한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학문적,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 제시되었던 선행연구 결과와의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행동에 대한 태도/인식 수준에서 상당

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방적임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 관련된 태도/경험을 탐색함에 있어 단지 종교에서 기독교 여부를 묻는 것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찾지 못할 수 있음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여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나 청년들을 양육하는 선생들의 경우, 스킨십이나 성관계와 같은 성적 행동에 대한 신중함, 엄격함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이성 교제나 성, 결혼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때 막연하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또한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보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상호 간의 열린 대화 및 경험/고민의 탐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천 청년 대부분이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동-도덕-신앙적 관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룹에서도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미혼인 청년들이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성경의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함, 혹은 혼전 성관계를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는 미디어 등의 영향의 수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혼 청년들에게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여러 요인들보다 개인의 신앙적 성숙 정도가 미혼 청년들이 행동-도덕-신앙적 관점들의 수준이 가장 높고 또 서로 유사한/일치하는 그룹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크리스천 청년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신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성적 행동의 인식과 실천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혹은 예방적 요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성과 관련된 행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특정 인식/행위의 옳고 그름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성에 관한 교육이나 논의가 직접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크리스천 청년들은 교회/기독교 기관 밖에서 성에 관한 지식

을 습득하고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설문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교회 출석 여부나 신앙 수준의 범주가 넓은 불특정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부터 진행한 다른 연구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교단과 교회들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경상도에 위치한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국한되기에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 전체에 대한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이 성행동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나 추이를 보고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성행동 관련 영역들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응답 패턴에 따라 기독교 미혼 청년들이 서로 다른 집단(일치형, 모호형, 비일치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주요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신앙적 요소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에 동의하는 정도, 그리고 예배 출석 빈도가 비일치형 집단에 비해 일치형 집단에 속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또한 일치형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 즉 성관계에 대해 분명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높은 도덕적 입장을 취하고, 스킨십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과 비교할 때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출산 의향, 자녀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정미·김미옥 (2021). 여자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567-574.
- [Kang, J. M. & Kim, M. O. (2021).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Students of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7), 567-574.]
- 고연숙 (2001).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K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기열·오정림 (2014).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5(1), 1-13.
- [Kim, G. Y. & Oh, J. L. (2014). A Study of on the Sexual Knowledge, Sexual Consciousness and Values of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5(1), 1-13.]
- 김미숙 (2010). 일개 전문대학생들의 성 행동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252-258.
- [Kim, M. S. (2010).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Behavior of a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5), 252-258.]
- 김미옥 (2013).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8), 3876-3886.
- [Kim, M. O. (2013).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8), 3876-3886.]
- 김상임 (2000). 기독교인 성.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신학**, (41), 172-201.
- [Kim, S. I. (2000). Christian Gender Equality Awareness Survey Report. *Journal of Korean Feminist Theology*, (41), 172-201.]
- 김상희·윤우철 (2012). 남자대학생의 성의식과 성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2), 248-257.
- [Kim, S. H. & Yoon, W. C. (2012). Sexual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s of 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48-257.]
- 김수율·김소명 (2022).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구 오일 및 응용과학 학회지)**, 39(2), 359-367.
- [Kim, S. O. & Kim, S. M. (2022). The Effect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General College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 39(2), 359-367.]
- 김수진·문승태·강희순 (2011).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4), 434-443.
- [Kim, S. J., Moon, S. T. & Kang, H. S. (2011).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4), 434-443.]
- 김순구 (2021). 대학생의 성인지각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8), 268-278.
- [Kim, S. G. (2021).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8), 268-278.]
- 김영기 (2011). 성 이중기준, 성 주체성, 성 의미가 대학생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7, 8-37.
- [Kim, Y. G. (2011).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27, 8-37.]
- 김영혜·어용숙·이화자·최소영 (2003). 대학생의 성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6(2), 115-126.
- [Kim, Y. H., Eo, Y. S., Lee, H. Z. & Choi, S. Y. (2003). A Study of Sexual Attitude of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6(2), 115-126.]
- 김영희·문승태·강희순 (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66-175.
- [Kim, Y. H., Moon, S. T. & Kang, H. S. (2013).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3), 166-175.]
- 김윤희·조규영 (2014).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 주체성이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6(6), 1332-1341.
- [Kim, Y. H. & Cho, G. Y. (2014). Effects of Sexual Autonomy, Sexual Assertiveness, Sexual Subjectivity on Sexual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6), 1332-1341.]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Kim, C. S. (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 57-70.]
- 김현영 (2021).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5), 482-491.

- [Kim, H. Y. (2021).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Gender Stereotype and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5), 482-491.]
- 김혜진·김희정·서민숙 (2020). 남녀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3), 153-162.
- [Kim, H. J., Kim, H. J. & Seo, M. S. (2020). Comparison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3), 153-162.]
- 남정우 역 (2003). **성 윤리학**. Stanley J. Grenz. (1990).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서울: 살림.
- [Nam, J. W. (2003).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Paju: Salimbooks. Trans. Stanley J. Grenz. (1990).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노인숙·김화선 (2020). 여대생의 성의식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2141-2150.
- [No, I. S. & Kim, H. S. (2020).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Attitude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2141-2150.]
- 박선화 (2019). 대학생의 성태도, 성평등의식과 성행동(성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2(1), 1-5.
- [Park, S. H. (2019). Sexual Attitude, Gender Egalitarianism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ine science*, 12(1), 1-5.]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ark, J. S., Im, J. Y., Kim, E. J., Byun, S. J., Lee, S. Y., Jang, I. S., Cho, S. H., Choi, S. Y., Lee, H. J. & Song, J. E. (2021). *2021 Family and Birth Survey-(Former)A survey on the national birth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서은주·차남현 (202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국내 연구 분석: 1985-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1), 162-169.
- [Seo, E. J. & Cha, N. H. (2021). Analysis of Domestic Studi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1985-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1), 162-169.]
- 손강숙·정소미 (2016). 대학생의 성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4), 1-24.
- [Son, K. S. & Jeong, S. M.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xuality in College

-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8(4), 1-24.]
- 손병덕 (2011). 기독교청소년의 교회활동과 성행동. **신앙과 학문**, 16(2), 91-110.
- [Sohn, B. D. (2011). Church Activiti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hristian Youths. *Faith & Scholarship*, 16(2), 91-110.]
- 손승희·김민주·이소림·최지경·하수정·조명주 (2018). 남녀 대학생의 성별 간 혼전 성교 및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성적 자율성 정도 비교. **경북간호과학지**, 22(2), 1-10.
- [Son, S. H., Kim, M. J., Lee, S. R., Choi, J. K., Ha, S. J. & Cho, M. J. (2018). A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remarital sex, cohabitation, and level of sexual autonomy. *Gyeongbuk Nursing Science Journal*, 22(2), 1-10.]
- 송수호 (2016).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 1995년, 2001년, 2016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Song, S. H. (2016). *College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 A Comparative Study with 1995 and 2001*. Masters Dissertation.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신근화·강명희 (201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의식의 매개효과. **인문과학연구**, 37, 489-518.
- [Shin, G. H. & Kang, M. H. (2013).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Sexual Attitude and the mediator effect of Sexual Consciousness. *STUDIES IN HUMANITIES*, 37, 489-518.]
- 안치훈 (2017). **대학생의 성 의사소통과 성태도가 SNS 성희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 [An, C. H. (2017). *The Effect of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SNS Sexual Harassment*. Masters Dissertation. Seonmoon University, Asan, Korea.]
- 양영미·조미옥·백경화 (2021). 간호대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1(6), 55-63.
- [Yang, Y. M., Cho, M. O. & Back, K. H. (2021). The Effects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6), 55-63.]
- 오원옥 (2009). 대학생의 결혼의식, 원가족 건강성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32-240.
- [Oh, W. O. (2009). Marriage Outlook,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Sexual Awar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15(2), 232-240.]

- 우근희 (201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Woo, G. H. (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Kongju, Korea.]
- 유연희 (2015). **대학생의 사랑유형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Yoo, Y. H. (2015). *A Study on the Love Styles and Sexual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이가연·주수산나·김종우 (2019).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개신교 미혼 청년의 연애와 성. **가족과 문화**, 31(1), 56-84.
- [Lee, K. Y., Joo, S. S. N. & Kim, J. W. (2019). Dating and Sex among Korean Protestant Unmarried Youth with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Family and Culture*, 31(1), 56-84.]
- 이규은 (2022).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 및 성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6), 179-199.
- [Lee, K. E. (2022). Study on the Needs o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Sex and Sex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6), 179-199.]
- 이명조 (2003).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정도와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Lee, M. J.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fs of young people in Christian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view on marriage and marital life value*.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S. S., Park, J. S., Lee, S. Y., Oh, M. A., Choi, H. J. & Song, M. Y. (2015). *A survey on the national birth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20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상원·정재영·송인규 (2014). **교회의 성, 잠금 해제?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과 성 경험 보고서**. 서울: IVP.
- [Lee, S. W., Jeong, J. Y. & Song, I. K. (2014). *Sexuality in church, Unlock? Report on th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experience of young people in Christianity*. Seoul: IVP.]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S. Y., Kim, E. J., Park, J. S., Byun, S. J., Oh, M. A., Lee, S. L. & Lee, J. H. (2018). *A survey on the national birth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201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은미·김가영 (2017). 대학생의 성태도, 부모의 성태도, 우울이 성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5(3), 155-161.
- [Lee, E. M. & Kim, K. Y. (2017).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Sexual Attitude of Parents, and Depression on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5(3), 155-161.]
- 이주연·하상희·정혜정 (2005). 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특성변인과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49-172.
- [Lee, J. Y., Ha, S. H. & Chung, H. J. (2005). The Relationship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3), 149-172.]
- 임희숙 (2014). 기독교가 성인들의 성 인식과 태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64, 191-227.
- [Im, H. S. (2014). A Study on Influence of the Christianit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the Adults. *THE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64, 191-227.]
- 전요섭·함희영 (2007).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 차이 분석 및 복음주의 상담학적 대안. **복음과 상담**, 8, 300-320.
- [Jeon, J. S. & Ham, H. Y. (2007). Relationship of Cognitive Bias to the Image of God among Christian Undergraduates. *The Gospel and Counseling*, 8, 300-320.]
- 정은숙 (2015).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7), 4679-4688.
- [Jeong, E. S. (2015). Sexual Consciousness, Gender Egalitarianism and Awareness Levels of Sexual Ha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79-4688.]
- 정재영 (2021). 코로나 19, 청년, 기독교(1): 변화하는 청년들의 안과 밖. **2021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회탐구센터.
- [Jung, J. Y. (2021). COVID-19, Youth, Christianity (1): Inside and outside of changing youth. *2021 Christian Youth's Faith and Church Awareness Survey Seminar Resource Book*. The Research Center for the Korean Churches.]
- 정희정 (2001). **미혼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Jung, H. J. (2001). *Research on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ur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조선희·한은주. (2020). 대학생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385-391.

- [Cho, S. H. & Han, E. J. (2020). Gender Difference Betwee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1), 385-391.]
- 조성봉·이수민·장선아·강병덕(2021). 국내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종교활동 참여와 기독교 신앙심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6(2), 33-62.
- [Cho, S. B., Lee, S. M., Jang, S. A. & Kang, B. D. (2021). Christian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s: Focusing on Church Activity Participation and Christian Religiosity in South Korea. *Faith & Scholarship*, 26(2), 33-62.]
- 조승희 (2020). 대학생의 성 이중기준, 성 의사소통, 성태도, 성행동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11(2), 465-480.
- [Cho, S. H. (2020).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Double Standard, Sex Communication,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2), 465-480.]
- 주영희·정은숙·심문숙 (2013).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관련성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267-278.
- [Ju, Y. H., Jeong, E. S. & Shim, M. S. (2013).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9), 267-278.]
- 최현중 (2015). 종교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가족. **종교연구**, 75(2), 47-68.
- [Choi, H. J. (2015). Religion, Sexuality, and the Family. *Studies in Religion(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75(2), 47-68.]
- 하주영·김건희 (2009). 일 지역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여성건강**, 10(1), 17-32.
- [Ha, J. Y. & Kim, K. H. (2009).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10(1), 17-3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청년 트렌드 리포트_우리 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IVP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7). *Youth Trend report_what do young people of our time live for*. Seoul: IVP.]
- 한내창 (2010). 종교와 성태도 간 관계. **한국사회학**, 44(5), 114-138.
- [Han, N. C. (2010).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exual Attitudes.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44(5), 114-138.]
- 홍병호 (2006). 기독교 성 윤리. **기독교철학**, 2(1), 151-212.
- [Hong, B. H. (2006). Christian Sexual Ethics. *Christian Philosophy(N/A)*, 2(1), 151-212.]
- 호선민 (2009).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

학원.

- [Ho, S. M.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Harris, E. A. (2018). *Ideological Correlates of Sexual Behavior: Linking political ideology, religiosity, and gender ideology with orgasm and desire*. Doctoral Thesis.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Hood Jr., R. W. (1999). *Christian Fundamentalist Belief Scale*. In P. C. Hill & R. W. Hood Jr. (Eds.). *Measures of Religiosity* (pp. 418-419). Religious Education Press.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302-317.
- Stevenson, D. H. (1999). Spiritual Maturity Index. In P. C. Hill & R. W. Hood Jr. (Eds.). *Measures of Religiosity* (pp. 201-204). Religious Education Press.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한 기독교 청년의 성행동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of Perceptions of Sexual Behavior among Unmarried Young Christians

조성봉 (한동대학교)

이수민 (한동대학교)

강병덕 (한동대학교/교신저자)

초록논문

본 연구는 국내 미혼 기독교 청년들이 성행동 관련 영역들에 대한 인식, 즉 스킨십에 대한 태도, 혼전/혼외 성관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그와 같은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P지역 기독교 대학과 지역교회들(세 교단, 여섯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청년들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성행동 관련 영역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분류된 집단들을 각각 일치형, 모호형, 불일치형으로 명명하였다.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적 성숙도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앙 동의 정도, 그리고 예배참석빈도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치형 집단에 속한 청년들은 다른 집단의 청년들에 비해 결혼/출산의향 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미혼 기독교 청년, 성행동, 인식, 신앙

소진(Burn-out)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과 회복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A Narrative Inquiry on the Ministry Difficulty and the Recovery Process in
Infant Preachers with the Experience of Burn-out in the COVID-19 Situation**

방은영 (Eun Young- B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narrative inquiry to examine what the ministry difficulty is and what about the recovery process in infant preachers with the experience of burn-out in the COVID-19 situation.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process of in-depth interview across totally 10 times from June 2020 to December 2021 targeting infant preachers at J church where is located in S ward of Seoul Metropol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hristian-mission difficulties in infant preachers with the experience of burn-out in the COVID-19 situation included 'skepticism and guilty conscience about own image as a ministry worker trapped by inertia,' 'confusion and withering felt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new worship paradigm,' 'expectation and fear of the restoration in community and worship'. Second, the recovery process in infant preachers with the experience of burn-out in the COVID-19 situation appeared to include 'God who loves me the way I am from helplessness, a sense of defeat, and guilty feeling,' 'the reflection on burn-out and the resurgent sense of duty,' 'the passion of original intention!, the grace of recovery from God, not by my power.'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rranging the minister mentoring system and diverse support systems and for an institutional support aiming to revitalize the community of ministry workers so that the church ministers can stably carry out Christian mission in the post-COVID 19 era and can fulfill the ministry with the hope of God's enabling and empowering rather than burn-out. This study has a

* 2022년 10월 14일 접수, 12월 4일 최종수정, 12월 7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lovebey@hanmail.net

significance in that the approach of narrative inquiry led to having explored the meaning of the presence in God who thoroughly supervises the life of the founder in an individual's burn-out experience and ministry recovery process.

Key words: Burn-out, Infant preachers, Ministry difficulty, Recovery process, Narrative inquiry

I. 서론

소진(消盡)이란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으로도 명명되며 사전적 의미로는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앴’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2). 한편, ‘소진’은 ‘직무 탈진감’으로도 불리는데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군의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말하기도 한다(Maslach & Schaufeli, 1993). 학문적으로는 소진을 처음 명명한 Freudenberger(1974)의 경우, 소진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기대했던 성과나 보상이 없이 인간적인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WHO(2019)에서는 소진이란 ‘직업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건강과 보건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체가 있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Maslach & Jackson(1986)은 소진이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사람이 직장에서 겪는 만성적인 부정적 감정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반응의 결과이며 특히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결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진으로 인한 정서적 탈진은 인간이 극한의 피로감으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에 빠져 일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의 상실을 불러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소진으로 인한 개인적 성취감 결여는 일에 대한 노력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세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고 비효율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소진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랐을 경우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로부터 멀어지고, 냉소주의나 경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지영, 지진호, 2007).

소진의 대표적 증상에 대해 이인석, 박문수, 정무관(2007)은 직무수행에 의한 긴장 및 불안감, 우울, 신체적 피로, 불면증, 두통을 동반하는 만성 스트레스 등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Maslach & Jackson(1986)이 개발한 소진 척도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에서는 소진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탈진(emotional exhaustion)’, ‘개인적 성취감 결여(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비인격화(depersionalization)’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소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거나,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신체 증상, 행동 특성, 대인관계,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자신의 정신과 신체 건강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윤은주, 2018).

소진은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심한 스트레스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업무 중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김정오, 문희, 박옥임, 2018; Lazarus, 1999; Rothmann et al., 2003; Schaufeli & Enzmann, 1998). 대표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으며 목회자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경우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아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상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진을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선(2012)은 목회자가 교회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치라는 것을 감안할 때, 목회자의 소진은 성도의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교회공동체 내의 담임 목회자를 포함해 강도사 및 전도사 등 부교역자들의 소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소진은 자칫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관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진공 상태,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했다는 거절감 등으로 나타나 사역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모두의 인식이 필요하다(Frank, Paul, Hawkins, 1986). 특히 부교역자들의 경우 교회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행정, 심방, 상담, 교육 업무 등을 맡으며 더욱더 소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실제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진의 증상은 교회공동체가 원하는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을 돌보는 것에 소홀해지기 쉽고, 사역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경우에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기 쉽다. 이런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등 비인격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들인 공에 비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성취감의 감소는 목회자로서 처음 가졌던 소명의식과 비전, 그리고 열정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증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송미옥과 심은정(2018)은 목회자가 정신적 소진상태가 되면 직무수행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는 부정적인 신체 증상과 행동 특성, 대인관계, 태도로 나타나며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당장 눈앞에 당면한 과중한 업무와 과제들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는 사역자로서의 직업 정체성, 조직 몰입, 열정 등의 소명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한 목회적 돌봄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우울감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소진의 경험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게 된다면 그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2020년 1월에 발생하여 전 세계를 팬데믹(pandemic)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COVID-19는 대부분의 교회사역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가 세계적 유행(Pandemic)의 상황으로 격상됨에 따라, 2020년 3월 21일부터 교회, 헬스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회는 교회공동체로서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

고 모든 예배를 동영상 플랫폼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와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온라인 예배 및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소수의 모임 형태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대상인 영아부 전도사가 섬기는 영아부 예배 또한 부모와 영아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소통과 연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 가운데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온라인 녹화 방식의 예배 영상이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 송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COVID-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는 많은 교회사역자들에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전혀 새로운 사역의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영아부 전도사는 COVID-19 상황이 시작되기 바로 전 2019년부터 안타깝게도 매우 건디기 힘든 정신적, 신체적, 영적 소진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었다. 이로 인해 영아부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자 교회에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였지만 후임자 물색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원치 않게 영아부 전도사 사역을 1년만 더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 사역을 어렵게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아부 전도사는 자신의 소진으로부터의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맡겨진 소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연구자와의 면담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후 소진상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역의 어려움과 치료자 하나님의 소진에 대한 돌보심과 회복에 관심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본 연구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진상태의 영아부 전도사가 겪는 사역의 삶과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치료자 하나님의 손길과 회복의 과정이 어떠한가를 살피고자 내러티브 탐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내러티브 탐구는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시간의 연속성에 따른 관계적 탐구이며(지은경, 2021) 한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탐구과정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살아내기(living), 이야기하기(telling),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다시 살아내기(reliving)가 제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감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항상 경건한 모습의 사역자이자 앞장서서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회복, 그리고 교회 차원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서 연구대상자인 영아부 전도사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 개인의 소진 경험 및 사역과 회복과정에서 세우신 자의 삶을 철저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의미를 탐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진(Burn-out)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 사역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소진(Burn-out)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 회복의 과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 S구에 위치한 J교회에서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년간 영아부 담당 전도사로 재직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

Age	Faith history	Marital status	Major	Highest level of education	Church's main ministry history
51	34 years	Married (2 Childs)	Theology	Master of Divi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ldren's Depar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 4 years ·Church office administration 2 years ·Elementary Depar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 2 years ·Children's Depar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 8 years ·Infants Depar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 7 years

본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 시점인 2020년 6월 현재 1971년생 만 50세로, 결혼하여 성인이 된 두 자매의 어머니이자 영아부 전도사로 사역 중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34년의 신앙 경력을 지녔다. 경기도 소재 C 신학대학 재학 중부터 유치부 교사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사역 경험 만 총 23년이며 출산 및 육아 과정을 제외하고는 신학석사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해 교회학교 교사와 전도사 사역에 전념하여 왔다. 연구 시작 시점인 2020년 6월 초 지난 6년 넘게 서울시 K구 J교회에서 영아부 전임전도사로 사역해왔으며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영아부 사역에 전문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역자로 신뢰로운 평가를 받아왔다.

2. 연구방법

1) 연구의 출발점

본 연구의 출발점은 2020년 1월 COVID-19가 발생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급기야 교회 예배까지 대면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평소 영아부 부모와 교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제하게 된 영아부 전도사와 안부를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지난 6년 이상 영아부 사역을 맡아오면서 영아부 전도사가 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소진’의 상태에 처해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는 후임자 부재로 다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영아부 전도사가 진행 중인 소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연구대상자를 회복시키시고 COVID-19 상황에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고 영아부 전도사는 흔쾌히 연구에 동의하여 2020년 6월 27일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2)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교회학교 11년 교사경력을 지녔으며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유아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특히 영유아부 교사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자의 전공 및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은 본 연구대상자인 영아부 전도사가 겪고 있는 ‘소진’과 사역 어려움에 공감하고 전문가로서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10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할 수 있었다.

3) 연구자와의 심층 면담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의 심층 면담은 2020년 6월 27일 첫 심층 면담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11일까지 총 10회(비대면 온라인 면담 6회/대면 면담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비대면 온라인 면담은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대면 면담 시에는 교회 앞 K 카페를 면담 장소로 이용하였다. 심층 면담의 시간은 각각 40분~60분 정도 소요되었다. 주요 심층 면담 내용은 연구대상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과 ‘회복과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 면담의 주요 일정과 주요 면담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2 같다.

Table 2 Main schedule and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

Round	Date	Main interview contents	interview method	inter-view hour
1	2020/06/27	Sharing the ministry of the infant ministry in the COVID-19 situation/ Sharing greetings and comfort for the exhausted situation	Online Zoom	40 min
2	2020/08/08	Sharing the difficulties of the infant ministry in the COVID-19 situation/ Sharing greetings for the exhaustion situation	Online Zoom	60 min
3	2020/11/15	Sharing the meaning of a worshipping community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sharing greetings for the situation of sharing/ exhaustion in the ministry of infants	Online Zoom	45 min
4	2021/01/23	The difficulties and rewards of ministry for infants in the COVID-19 situation/ Ministry plan for 2021/ Sharing greetings on the burn-out recovery process	Online Zoom	50 min
5	2021/02/21	Sharing greetings about the burn-out experience/ burn-out recovery process in another sense in the COVID-19 situation	Online Zoom	45 min
6	2021/04/04	Sharing the difficulties and rewards of ministry for infants in the COVID-19 situation / Sharing greetings on the burn-out recovery process	K Cafe	40 min
7	2021/06/05	Sharing the meaning of the worship community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sharing God's grace for restoration/ exhaustion recovery process	K Cafe	60 min
8	2021/08/22	Sharing the difficulties and rewards of ministry for infants in the COVID-19 situation/ Sharing greetings on the burn-out recovery process	Online Zoom	45 min
9	2021/10/03	Sharing the difficulties and meaning of the infant ministry in the COVID-19 situation/ Sharing greetings on the recovery process from exhaustion	K Cafe	55 min
10	2021/12/11	Sharing greetings about the meaning and ministry/ burnout recovery process of a worshipping community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sharing God's grace with the healer	K Cafe	60 min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11일까지 연구대상자와의 10차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A4 용지 69장 분량의 자료들을 반복하여 읽거나 보면서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단 및 문장분석(김현주, 조형숙, 2006)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된 주제들로 묶는 범주화(coding category) 과정을 거쳐 주제영역을 나누고 분류하였으며 이후 각 주제마다 적합한 사례들을 요약하고 추출한 후 여러 번 반복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결과 평가작업(member checking)의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확인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러티브 탐구 경험에 있는 교수 1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석 및 해석의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분석의 틀로 삼아 연구참여자의 개별 경험이 회복과 성장에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홍영숙, 2015).

III.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은 ‘타성에 젖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와 죄의식’,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의 수용과정에서 느끼는 혼란과 위축’, ‘공동체와 예배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회복과정은 ‘무력감과 패배감, 죄의식으로부터의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진을 되돌아보기와 되살아나는 사역에의 사명감’, ‘초심의 열정!, 내 힘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

1) ‘타성에 젖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와 죄의식’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아부 전도사는 지난 6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현재까지도 자신이 보이고 있는 타성에 젖은 사역자로서의 회의와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말해주었다.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었음을 체감한 순간부터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니~” 라는 깊은 회의감이었어요. 지난 6년간의 영아부 전도사 사역 과정을 되돌아보니 타성에 젖은 사역자로서의 내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구요...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영아부 전도사 직을 맡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오히려 전도사로 해야 할 일에 소극적이 되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해요. (2020년 6월 27일 심층면담 내용 중)

어느 순간 내 문제로 인해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등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너무 창피해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겨야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로부터 오히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를 짓누르는 죄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2020년 11월 15일, 심층면담 내용 중)

영아부 전도사는 자신이 여전히 소진의 상태이고 그로 인한 무기력감과 사역에서의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실망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면서도 면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소진과 죄의식’에 머물지 말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내가 소진되었음을 인식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소진상태라고 주문을 외우듯 살고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가고 있고 영아부 공동체는 온라인으로라도 꾸준히 모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소진과 죄의식에만 머물기보다 빨리 소진이 회복되고 싶다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2021년 4월 4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 수용과정에서 느끼는 혼란과 위축’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체계’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2). COVID-19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느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점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리적 공간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 온라인 예배환경으로의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은 공동체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의 대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아부 예배를 위해 영아부 전도사는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한 후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 영아부 예배를 송출해 나가는 과

정에서 적잖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매체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적잖이 위축감을 느끼고 있음도 말해주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녹화하고 송출하는 과정 모두는 컴퓨터나 미디어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게는 엄청 힘든 일이고 혼란의 연속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만약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없다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들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예배의 준비와 영아부 공동체와의 소통의 모든 과정은 저를 점점 더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요. (2020년 8월 8일, 심층면담 내용 중)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최소한의 소그룹 모임이나 전화 심방 등, 영아부 부모나 교사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대면 예배 상황에서도보다 갑절의 노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가끔 보게 되는 영아부 학부모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싶지만 일정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모 때문에 어느새 변해버린 사역현장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혼란스럽기까지 해서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2021년 2월 21일, 심층면담 내용 중)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등 온라인 매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내더라도 더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 보지만 단순히 포기해버리는 나를 발견하곤 하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의 패러다임이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될 것을 알면서도 빨리 코로나가 멈추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21년 6월 5일, 심층면담 내용 중)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하는 예배 패러다임의 변화는 영아부 전도사 개인뿐 아니라 영아, 그리고 부모와 교사들에게까지 결코 쉽지 않은 적응의 과정이며 동시에 많은 혼란과 위축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인 영아부 전도사는 이러한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의 변화를 절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끌어야 함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예배공동체로서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막연한 두려움’

영아부 전도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상황이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깊이 체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새 자신뿐 아니라 영아부 교사들과 부모들 모두, 초기 비대면 예배 상황의 혼란과 어색함을 넘어 이제는 너무도 당연히 온라인상의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익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예배 공동체로서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주는 동시에 제대로 된 예배공동체로의 회복이 가능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존재함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학부모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힘을 빼는 말들은 “지난 2주간은 동안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는 아예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구요”, “꼭 우리 교회 영아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다른 큰 교회 예배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져서 그 교회 유튜브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아부 예배는 아이랑 함께 드려야 하는 거라서 아이가 어느정도 부모랑 떨어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앞으로도 쭉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과연 영아부 예배가 온전한 예배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요즘입니다. (2021년 4월 4일, 심층면담 내용 중)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몇몇 성숙한 믿음의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점점 전화 심방조차 불편해하는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예배공동체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 8월 22일, 심층면담 내용 중)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가 온전히 드러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림이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드림의 기쁨을 점차 잊어가는 자신과 교사들, 그리고 영아부 부모들에 대해 그저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는 요즘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사역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2021년 10월 3일, 심층면담 내용 중)

2.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회복 과정

1) ‘무력감과 패배감, 죄의식으로부터의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학교 사역자로서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지만, 영

아부 전도사는 점차 나태해지고 신체적으로도 심하게 소진된 상태에서 무력감과 패배감, 그리고 죄의식까지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소진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COVID-19 상황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영아부 전도사는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에서 지속적으로 무력감과 패배감이 가득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죄의식으로부터 점차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소진되었다는 것이 이 정도 일 줄은 몰랐어요,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내 전부 다 털리고 패배자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 패배감은 날 더욱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아부 전도사직을 내려놓아야겠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때 내려놓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잘할 자신도 없었고 가식자요 거짓 선지자처럼 살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과연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2020년 8월 8일, 심층면담 내용 중)

지금까지는 전도사라는 역할부담과 완벽주의자와 같은 성향으로 지나친 몰입 때문에 나의 소진과 내 개인 문제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은 변함없이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오투기처럼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2021년 1월 23일, 심층면담 내용 중)

막연한 죄의식에 빠져 무기력했던 내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요즘이에요. 무엇보다 몸이 회복되면서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점차 소망도 생기고 소진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자기 चे면을 거는 요즘입니다. 나의 소진상태를 아시고 연약한 내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요. (2022년 8월 8일, 심층면담 내용 중)

앞서 제시한 바처럼 영아부 전도사는 심각한 소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진의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보살피며 회복을 돕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소진을 되돌아보기와 되살아나는 사역에의 사명감'

영아부 전도사는 '소진'의 상태를 경험함이 자기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고도 완벽한 사역의 수행을 기대하는 동료 사역자들 탓임을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영아부 전도사가 자신에 대한 동료 사역자들의 당연한 기대에 부응하느라 소진에도 불구하고 일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사역자들 간에 동료들의 소진을 위로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내의 체계가 존재해야 함을 말해 주었다. 한편 영아부 전도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소진의 원인과 앞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그리고 더 나아가 소진을 넘어 사역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다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쉴 시간도 없이 달려온 나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것에 순응해야만 했어요. 그것의 성실한 수행에 대한 많은 기대를 보였던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동료 사역자들이 조금은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소진상태에 대해 위로받아본 기억도 잘 생각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항상 사역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집착하고 있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식.. 혹시라도 나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를 동료 사역자들의 모습이 떠올라요..나를 포함해 또 다른 소진된 사역자들을 돌보는 사역자 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20년 11월 15일, 심층면담 내용 중)

내가 왜 소진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의 지나친 완벽주의 추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고 쉼에 대해서는 죄의식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나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믿겨져요. (2021년 6월 5일, 심층면담 내용 중)

희한해요. 난 분명히 소진되었었고 힘들었으며 지금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아부 공동체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소진을 넘어 사역자로 세워져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분명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는 확신이 들어요. 만일에 내가 사직서를 낸 그때 교회 사역을 떠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되묻게 되는 요즘입니다 (2021년 12월 11일, 심층면담 내용 중)

3) '초심의 열정, 내 힘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영아부 전도사는 소진으로부터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처음 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심의 열정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영아부 사역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교사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고 교사들, 그리고 영아부 부모들 몇몇과 함께 기도하고 영아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할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내가 분명 힘든 건 맞았지만 초심의 열정을 떠올려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2021년 1월 23일, 심층면담 내용 중)

내가 소진되었음을 느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성실하고 성령충만한 전도사 모습만 보여주느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저의 힘들음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회복을 기도해주는 영아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초심을 떠올려보면서 내 힘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져 감을 느껴요. (2021년 6월 5일 심층면담 내용 중)

저는 이제 12월 말을 끝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영아부 전도사 사역을 마무리하려 해요. 물론 2년 전 심한 소진증상으로 사역 그 자체를 멈추고 막연히 쉬려고만 했던 때와는 다른 이유입니다. COVID-19를 겪어내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초심의 열정을 지닌 사역자가 되어 새로운 사역지로 부름받아 떠나기로 하였고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소진의 상태였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철저히 강권하심으로 회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2021년 12월 11일 심층면담 내용 중)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은 무엇이고 회복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은 '타성에 젖은 사역자

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와 죄의식’,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의 수용과정에서 느끼는 혼란과 위축’, ‘공동체와 예배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었다. 영아부 전도사는 자신의 소진되었음을 인식한 이후로 쉼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영아부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으려 하였다. 하지만 교회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쉼과 회복의 과정 없이 다시 영아부 전도사직을 맡아야만 하였고 설상가상 발생한 COVID-19로 인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온라인 예배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에 영아부 전도사는 소진의 증상인 패배감과 죄의식, 그리고 영육이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인, 특히 사역자들의 경우, 쉼과 회복을 위한 주변의 지원보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소진의 증상을 넘어 죄의식과 사역 정체성의 혼돈까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김경선, 2012; 이용우, 2005; Oswald, 1991)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영아부 전도사는 COVID-19로 인해 직면한 새로운 온라인 예배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까지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더이상 경건한 모습의 전도사이자 항상 앞서서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회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진과 같은 의미의 탈진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체력 고갈, 일이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의 감소, 일이나 조직체 등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 태도, 이상의 상실, 출구 없는 절망감과 무력감, 생활 감각의 불균형 등의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탈진은 끊임없는 돌봄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Oswald(1991)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교회 유아부 전도사가 경험하는 소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쉼, 돌봄과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아부 전도사가 새로운 온라인 예배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혼란과 위축을 경험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의 수용과정에서 혼란과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위축을 경험하였음을 밝힌 차진호(2021)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여기에 더해 연구결과, 영아부 전도사는 공동체와 예배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내 보였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 한국교회가 이루어 왔던 교회공동체의 건강한 모습과 참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으므로 예전의 교회 모습으로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들(박요셉, 2020; 백광훈, 2021; 이승구, 2020)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회복과정은 ‘무력감과 패배감, 죄의식으로부터의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진을 되돌아보기와 되살아나는 사역에의 사명감’, ‘초심의 열정!, 내 힘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나타났다. 영

아부 전도사는 자신의 소진 원인에 대해 완벽주의적인 자신의 일 처리 방식으로 인한 크고 작은 직무 스트레스가 곧 자신의 소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목회자의 탈진 자가 진단법을 통해 사역자들의 지나친 책임의식과 완벽주의자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몰입이 사역자의 소진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제시한 유재성(200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영아부 전도사는 무력감과 패배감, 그리고 죄의식에 휩싸인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더 나아가 영아부 전도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함이 아니라 무기력감과 죄의식에 눌려있던 자신을 철저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소진을 넘어 초심의 열정까지 되살아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사역자라 하더라도 맡겨진 사역 책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와 온전한 영성을 갖춘 사역자로서 세워지기까지 내면의 고통과 소진이 나타날 수 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더욱더 영육 간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함을 강요하기보다는 소진된 사역자를 위한 풍성한 쉼과 위로, 그리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교회사역자들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소진상태를 사역자 스스로 냉정하게 살피고 일정 기간 쉼과 회복을 위한 ‘내려놓음’과 함께 깊은 통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한 사역자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회복의 주권자가 곧 하나님임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 열왕기상 18-19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지자 엘리야의 상태가 비록 ‘소진’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위로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심을 다한 결투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그 직후 엘리야는 소진의 대표증상인 무기력증, 허전함, 실망, 낙담의 증상, 그리고 탈진하여 죽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영성수련이나 금식기도를 통한 영적 부흥을 강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루만지심 뿐 아니라 음식과 물을 주심으로 인해 진정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유재성, 2004). 이와 관련해 김경선(2012)은 그것은 곧 엘리야에게 영적 영감이나 도전,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분석할 만한 적절한 때가 아님을 아시고 오히려 충분히 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하심으로써 우선 심신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셨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시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소진’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균형을 맞

추지 못함으로 인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학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사역 어려움과 회복의 과정을 탐구한 질적 연구였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무엇보다 소진되었음에 대한 인식이 한 개인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 커다란 위기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소진으로부터의 무기력함과 패배 의식, 그리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인격적 성숙을 이루고 초심을 되찾은 사역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진이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가 소진을 경험하는 사역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회복을 지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 한 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경력과 경험특성에 따른 소진의 형태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다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는 심층 면담 과정에서 ‘소진상태’에 머물지 않고 치료자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에의 방향 설정 및 초심으로의 열정의 회복 계기를 가질 수 있었음을 고백해 주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아부 전도사의 회복과 변화가 현재의 COVID-19 상황과 이후 사역지를 옮기는 상황에서까지 전도사로서의 사역 수행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살피는 질적연구도 요구된다.

셋째, 교회학교 교사 및 전임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진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2021). **표준국어대사전**.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1). *Standard Korean Dictionary*.]

김경선 (2012). **부교역자의 탈진 이해와 극복 방안**.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Kim, K. S. (2012).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exhaustion of associate ministers*. Masters Dissertation.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김정오·문희·박옥임 (2018).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보건 사회연구**, 38(1), 302-334.

[Kim, J. O., Moon H. P. & Park, O. I. (2018). Moderation effects of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care helper. *Health Social Welfare Rev*, 38, 302-334.]

김현주·조형숙 (2006). 사립유치원 교사문화의 특질: 교사 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43-67.

[Kim, H. J. & Cho, H. S. (2006).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eachers' Professional Culture to Foster Positive Collabor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1), 43-67.]

박요셉 (2020).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의 미래. **교회와 법**, 7(1), 227-229.

[Park J. S. (2020). Post-Coron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Church and Law*, 7(1), 227-229.]

백광훈 (2021).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코로나 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 95-125.

[Baik, K. H. (2021). The Task of the Korean Church after Corona19: Focusing on the Perception Survey of <Research on Corona 19 and the Korean Church>. *Mission and Theology*, 5, 95-125.]

송미옥·심은정 (2018). 목회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소명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2), 163-190.

[Song, M. O. & Sim, E. J.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Calling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to Burnout Among Pastor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9(2), 163-190.]

유재성 (2004). 목회자의 탈진 자가 진단법. **목회와 신학**, 8, 102-108.

[Yoo, J. S. (2004). A pastor's exhaustion self-diagnosis method. *Ministry and Theology*, 8, 102-108]

- 윤은주 (2018). 상담자 소진(burnout)에 대한 체험분석. **상담학연구**, 14(4), 1855-1871.
- [Yoon, E. J. (2018). An Experiential Analysis of Burnout in Counselor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4), 1855-1871.]
- 이승구 (2020). 코로나 19 이후 상황에서의 성경적 교회의 모습과 성경적 목회. **장로교회와 신학**, 16, 107-126.
- [Lee, S. G. (2020). The appearance of the biblical church and biblical ministry in the Post-COVID-19 situation. *Korean Journal of Theology*, 16, 107-126.]
- 이용우 (2005). **목회자의 탈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Lee, Y. W. (2005). *A Study on Exhaustion of Pastors*.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이인석·박문수·정무관 (2007). 직무소진의 영향에 관한 연구-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한경영학논집**, 20(6), 2879-2900.]
- [Lee I. S., Park M. S. & Jung M. G.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Job Burnout-Based on the Professions Working in Financial Companie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6), 2879-2900.]
- 이지영·지진호 (2007). 직무요구-소진과정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관광업체 종사원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4(4), 276-294.
- [Lee, J. Y. & Ji, J. H. (2007).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Demand and Burn-out: Focused on Tourism Employe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4(4), 276-194.]
- 지은경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1), 103-124.
- [Ji, E. K. (2021). Narrative Inquiry on the Teaching Lives of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s during Covid-19.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9(1), 103-124.
- 차진호 (2021). **코로나 19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Cha, J. H. (2021). *A Study on the Impact of COVID-19 on Korean Churches and the Pastoral Paradigm in the Post-Corona Era*. Masters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Hong, Y. S. (2015). Knowing on narrative inquiry. *The Korean Society for Narrative Education*, 3(1), 5-2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59-165.
- Frank, B., Paul, D. M. & Hawkins, D. (1986). *How to Beat Burnout*. Moody Press.
- Lazarus, R. S. (1999). *Stress and emotion: A new synthesis*. NY: Springer Publishing.
- Maslach, C. & Schaufeli, W. B. (1993). *Historical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burnout*. In Schaufeli, W. B., Maslach, C. & Marck T. (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Taylor.
- Maslach, C. & Jackson, S. E. (1986).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 Oswald, R. M. (1991). *Clergy Self - Care: Finding a Balance for Effective Ministr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The Alban Institute.
- Rothmann, S., Kruger, MM. & Jackson, LTB. (2003). Burnout and job stress in a local govern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sense of coherence. *Journal of Inderstrial Psychology*, 29(4), 52-60.
- Schaufeli, W. B. (2003). Past performance and futher perspectives of burn-out research, *Journal of Idustrial Psychology*, 29(4), 1-15.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ICD-11.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class-ifications/icd/en>.

소진(Burn-out)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과 회복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A Narrative Inquiry on the Ministry Difficulty and the Recovery Process in
Infant Preachers with the Experience of Burn-out in the COVID-19 Situation**

방은영 (충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소진(Burn-out)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 사역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회복과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내러티브 탐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S구에 위치한 J 교회의 영아부 전도를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심층면담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사역 어려움은 ‘타성에 젖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와 죄의식’,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의 수용과정에서 느끼는 혼란과 위축’, ‘공동체와 예배의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었다. 둘째, 소진을 경험한 영아부 전도사의 COVID-19 상황에서의 회복과정은 무력감과 패배감, 죄의식으로부터의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진을 되돌아보기와 되살아나는 사역에의 사명감’, ‘초심의 열정!, 내 힘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사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소진보다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힘주심에 대한 소망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 멘토링 제도 및 다양한 지원체계의 마련, 그리고 사역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접근을 통해 한 개인의 소진 경험 및 사역과 회복과정에서 세우신 자의 삶을 철저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의미를 탐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소진(burn-out), 영아부 전도사, 사역 어려움, 회복과정, 내러티브 탐구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Christians: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Support**

홍 구 화 (Gu Hwa H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religious orientation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the mediating role of religious support among 121 Christians residing in S city and B city.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al variables and other major independent variable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positively predicted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support was significant. Among religious support, the mediating effect of God Support was significant, but the mediating effect of Church Community Support was not significant.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lso positively predicted life satisfaction, but this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negatively predicted depression, but this effect was not significant.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positively predicted depression. Religious support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support and depression as well as between extrinsic religious support and depressio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extrinsic orientation, religious support, satisfaction with life, depression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6일 최종수정, 12월 7일 게재확정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Hapdong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0, gyi4@hotmail.com

I. 서론

종교와 영성은 신체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결과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Hood, Hill, & Spilka, 2009; Koenig, 2012; Stavrova et al., 2013; Wolf et al., 2014). 종교와 영성이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인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Pargament et al., 2013), 하나님과의 안전한 애착관계(Homan & Boyatzis, 2010), 자아 정체감의 발달(King et al., 2013) 등은 종교와 영성이 신체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우울, 약물남용, 섭식장애, 스트레스 관련 장애 등 다양한 정신 장애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Bentley et al., 2014; Bonelli & Koenig 2013; Latzer et al., 2007; Ronneberg et al. 2014; Salas-Wright et al. 2012). 종교성향과 종교적 지지도 종교성을 구성한다.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박미하, 2014; 조혜윤·손은정, 2008; Steffen & Masters, 2005). 그러나 종교성향과 종교적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종교적 지지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교성향은 종교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로 Allport와 Ross는 종교성향을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으로 나누었다(Allport & Ross, 1967).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삶에 진지하게 통합하며 내적으로 동기화된 종교성향이다.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고 다른 모든 필요들을 종교적인 신념과 방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Allport & Ross, 1967: p. 434). 이에 비해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향이다.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는 “안전과 위안, 사교성과 오락 활동, 지위와 자기 정당화”에 유용할 수 있다(Allport & Ross, 1967: p. 434). 종교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적 종교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적 종교성향은 적기도 하였다(강에스터, 2008).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으나 외재적 종교성향의 긍정적인 영향을 드러낸 연구들도 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덜 우울한 반면에 외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더 우울하였다(Haney & Rollock, 2020; Pössel et al., 2011; Smith et al, 2003).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덜 우울하였으나 외재적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었다(Rizvi et al., 2014).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불안이 적었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불안이 증가하기도 하였다(김경자· 홍혜영, 2012; 김행복·설경옥, 2015; Haney & Rollock, 2020). 내재적 종교성향, 영적 성

속, 자기 초월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강박성이 낮았고 자존감, 정체감 통합, 도덕적 자기 승인, 삶의 의미 지각은 높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수치심, 완벽주의, 섭식장애 증상들과 관련이 없었다(Sanders et al., 2015). 내재적 종교성향과 탐색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적었다(Audette, et al., 2018).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섭식장애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적었고 외재적 종교 성향이 많을수록 섭식장애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다(Weinberger-Litma et al., 2016; Weinberger-Litma et al., 2018).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정서적 무책임감, 의존성, 무기력, 완벽한 해결 부분에서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더 높았다(김재석, 2008).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자기 개념이 좋았고 용서 수준도 높았다(김수용 등, 2014).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정서, 종교적 영적 삶의 만족, 사회적 삶의 만족이 높았으나 외재적 종교성향이 많은 사람은 종교적 영적 삶의 만족만 높았다(Steffen et al., 2015).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부정응적인 완벽주의가 감소해서 삶의 만족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가 낮았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부정응적인 완벽주의가 증가하여서 삶의 만족이 낮고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졌다. 부정응적인 완벽주의를 통제하면 외재적 종교성향도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을 증가시켰다(Steffen, 2014). 내재적 종교성향은 조절효과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또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를 할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는데 내재적 종교성향은 이를 완화시켰다(Krumrei et al., 2013). 신체 건강이 나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데 내재적 종교성향은 이것을 완화시켜 주었다(Pirutinsky et al., 2011).

외재적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들의 예로는 외재적 개인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상들이 적었다(Buzdar et al., 2015). 자살사고는 우울, 외재적 종교성향, 무망감, 영적 각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외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자살사고가 감소하였고 영적 각성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였다(Laster, 2012). 우울감이 많을수록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외재적 개인적 종교성향이 완화시켜 주기도 하였다(Parenteau, 2018). 종교성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내재적 종교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Ghorpade, 2006; Milevsky & Levitt, 2004; Rizvi et al., 2014). 인종 간에 종교성향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필리핀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아시안계 미국인들 보다 더 내재적인 종교성향을 보였고(Ghorpade et al., 2006), 다른 연구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유럽계 미국인들과 남미계 미국인들보다 더 내재적 종교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Milevsky & Levitt, 2004).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는 감사성향과 사건 중심성(서유진·이규미, 2016), 감사지각(김경자·홍혜영, 2012), 긍정적 환상(정민선·박미하, 2015), 수퍼우먼 이상과 신체 불만족(Weinberger-Litman et al., 2018), 부정응적인 완벽주의(Steffen, 2014), 삶의 목적(Sillick & Cathcart,

2014), 삶의 의미(You & Lim, 2019). 낙관성(조혜윤·손은정, 2008), 자존감(박미하, 2014), 동정적인 태도(Steffen & Masters, 2005) 등이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는 종교적 지지도 종교성향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 공동체로부터 얻는 종교적 지지는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rause et al., 2001). Fiala 등(2002)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종교 공동체의 동료 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지지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포함하였다. 종교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 등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삶의 만족이 증가하고 우울은 감소하였다(Fiala et al., 2002). 종교적 지지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Fiala et al., 2002; Yi & Bjorck, 2014, Hong, 2019) 종교적 지지 척도를 수정한 다중 신앙 종교적 지지 척도(the multi-faith religious support scale)를 통해서 이슬람교(Bjorck & Maslim, 2011; Torrecillas et al., 2020), 유대교(Lazar & Bjorck, 2008; Lazar & Bjorck, 2016), 힌두교(Torrecillas et al., 2020) 신자들에게서도 확인되었다. 종교적 지지 척도의 세 가지 하위척도인 신으로부터의 지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지지, 동료 신자들로부터의 지지 구조는 문화와 성별에 따라 지지되지 않기도 하였다.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여성 신자들의 경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지지와 동료 신자들로부터의 지지가 구분이 안 되어 종교 공동체로부터의 지지로 합쳐져서 종교적 지지 척도가 신으로부터의 지지와 종교 공동체로부터의 지지의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다(Yi & Bjorck, 2014; Lazar & Bjorck, 2016).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으로부터의 지지와 교회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교회로부터의 문제해결 중심 지지의 세 구조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홍구화, 2019).

종교적 지지는 종교성 척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교회 지도자들과 동료 신자들로부터 종교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였고 내재적 종교성향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종교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Zaraycka et al., 2022). 종교적 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조절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대량 총기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지각하는 자원의 상실은 종교적 영적 싸움, 우울, 정신 외상, 불안 증상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종교적 지지는 불안을 제외하고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시켜 주었다(Roman et al., 2019). 부모가 약물을 많이 사용하면 자녀가 종교적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높지 않을 때 또래의 약물 사용의 영향을 받아 약물 사용을 많이 하게 되었다(Penviani et al., 2019).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성인기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종교 공동체로부터 받는 종교적 지지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시켜 주었다. 종교적 정체성, 개인적인 종교 생활, 예배 참석은 이러한 조절효과가 없었다

(Homan & Hollenberger, 2021).

종교적 지지의 매개 역할을 드러낸 연구들도 있다. 5년간에 걸친 종단 연구에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예배 외의 다른 종교적 활동에도 참여하며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등의 종교적 행동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종교적 사회적 지지를 유지하게 하여 심한 음주와 우울 증상들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기능을 향상시켰다(Holt et al., 2018).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종교적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게 하고 이는 곧 자존감, 삶에 대한 지배력 지각, 삶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ose et al., 2021). 미묘한 인종적 차별을 지각할수록 교회 공동체에서 동료 신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이는 곧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로 이어졌다(Kim, 2017).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은 심리적 건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내재적 종교성향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만족과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만족과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또, 종교적 지지가 종교성향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교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연구 대상

S시와 B시에 있는 두 교회의 담임목회자와 교역자의 협조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약 2주에 걸쳐 구글 설문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응답들은 전체 집단으로 분석된다는 안내가 포함되었다. 총 12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남성은 27명(22.3%)이고 여성은 94명(77.7%)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78세에 걸쳐 있었고 평균연령은 51.31세($SD=12.03$)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39명(32.2%), 대학 재학 또는 중퇴가 9명(7.4%), 대학 졸업이 59명(48.8%), 대학원 석사 재학, 수료 또는 졸업이 13명(10.7%), 대학원 박사 재학, 수료 또는 졸업이 1명(0.8%)였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5명(20.7%), 200

만원~300만원 미만인 17명(14.0%), 300만원~400만원 미만인 26명(21.5%), 400만원~500만원 미만인 14명(11.5%), 500만원 이상이 39명(32.2%)이었다. 신앙연수는 1년~5년 미만인 2명(1.7%), 5년~10년 미만인 3명(2.5%), 10년~20년 미만인 24명(19.8%), 20년 이상이 92명(76%)으로 절대다수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였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더 가끔이 11명(9.1%), 한 달에 두세 번이 6명(5.0%), 일주일에 한 번이 48명(39.7%), 일주일에 두세 번이 38명(31.4%), 일주일에 네다섯 번이 18명(14.9%)이었다.

2. 측정도구

(1) 종교성향 척도

앨포트와 로스(Allport & Ross, 1967)가 개발하고 신혜진(1991)이 번안한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척도(The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교방식으로 회전시키고 2개의 요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요인부하가 어느 한 요인에 적재되지 않은 요인들은 지형기(2000)와 방미숙(1994)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내재적 종교성향 6개 문항, 외재적 종교성향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alpha = .83$, 외재적 종교성향이 $\alpha = .69$ 였다.

(2) 종교적 지지 척도

Fiala 등(2002)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종교적 지지 척도를 다른 종교에도 적용할 수 있게 변형한 다중 신앙 종교적 지지 척도(Bjorck & Maslim, 2011)를 사용하였다. Yi와 Bjorck(2014)이 번안한 것을 교회에 적합한 용어로 바꾸었다. 다중 신앙 종교적 지지 척도는 5점 척도로(1은 매우 안 그렇다, 5는 매우 그렇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7개의 문항들로 응답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 동료 신자들로부터 받는 지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지지를 측정하였다. 세 문항은 부정문이어서 역채점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어를 포함하여 언어에 따라 부정문에는 요인부하가 불분명해서(Yi & Bjorck, 2014; Lazar & Bjorck, 2016; 홍구화, 2019) 부정문 세 문항을 빼고 18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Yi와 Bjorck(2014)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동료 신자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지지 포함)로 된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하였다. Yi와 Bjorck(2014)이 보고한 두 개의 하위척도(하나님으로부터의 지지,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지지)의 신뢰도는 각각 $\alpha = .94$ 와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지지 $\alpha = .92$, 하나님으로

부터의 지지 $\alpha = .89$,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지지 $\alpha = .92$ 이었다.

(3) 심리적 건강

심리적 기능은 삶의 만족과 우울 정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은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변안한 삶의 만족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매우 안 그렇다’부터 7점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Diener 등(1995)이 보고한 신뢰도는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alpha = .86$ 이었다.

우울 정도는 미국 국립 정신보건원이 개발한 것을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역과정과 예비평가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the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K-CES-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우울 정서, 긍정적 정서, 신체적 증상 및 둔마된 행동, 대인관계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1점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부터 4점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보고한 신뢰도는 일반인군 $\alpha = .91$, 임상환자군 .93, 주요 우울증군은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 = .94$ 이었다.

3. 자료 분석

먼저, SPSS 29를 이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종교적 지지가 종교성향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Hayes(Hayes, 2018)의 분석방법에 따라 SPSS Process v3.4를 이용하여 4변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인구통계 변인들과 주요 독립변인들을 통제하였다. 총 5,000번의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재표집한 결과로 간접효과(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종교적 지지의 매개역할이 확인되면 종교적 지지의 하위척도들인 하나님 지지와 교회 지지의 매개역할도 분석하였다. 붓스트래핑 절차는 Baron과 Kenny(1986)의 방식과 Sobel 검사(Sobel, 1982)와 같은 분석을 하고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붓스트래핑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제시한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Table 1은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외재적 종교성향($r = .42, p < .01$), 종교적 지지($r = .43, p < .01$), 하나님 지지($r = .63, p < .01$), 교회 지지($r = .26, p < .01$), 삶의 만족($r = .3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r = -.12, p > .05$). 외재적 종교성향은 내재적 종교성향($r = .42, p < .01$), 종교적 지지($r = .30, p < .01$), 하나님 지지($r = .23, p < .01$), 교회 지지($r = .27, p < .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만족($r = .15, p > .05$)과 우울($r = .12, p > .05$)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적 지지는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30, p < .01$),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r = -.12, p > .05$). 하나님 지지는 교회 지지($r = .42, p < .01$)와 삶의 만족($r = .36,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r = -.16,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교회 지지는 삶의 만족($r = .22,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r = -.16,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삶의 만족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52, p < .01$)

Table 1. Mean scores of major variables and correlations

변인	M(SD)	범위	1. 내재적 종교성향	2. 외재적 종교성향	3. 종교적 지지	4. 하나님 지지	5. 교회 지지	6. 삶의 만족	7. 우울
1	4.01(.67)	2-5	1						
2	3.50(.73)	1-5	.42**	1					
3	3.98(.49)	2-5	.43**	.30**	1				
4	4.38(.50)	3-5	.63**	.23**	.68**	1			
5	3.78(.59)	2-5	.26**	.27*	.95**	.42**	1		
6	4.39(1.25)	1-7	.35**	.15	.30**	.36*	.22*	1	
7	1.49(.51)	1-4	-.12	.12	-.12	-.16	-.16	-.52**	1

* $p < .05$, ** $p < .01$, *** $p < .001$

2.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러한 상관관계를 기초로 Hayes(2018)의 분석방법에 따라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종교적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를 조사하였다. 종교적 지지가 갖는 간접효과(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Hayes(2018)의 بوت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 = .34, t(112) = 4.42, p < .001$ (경로 a), 종교적 지지는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50, t(111) = 2.06, p < .05$ (경로 b).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B = .41, t(112) = 2.07, p < .05$ (경로 c) 종교적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24, t(111) = 1.14, p > .05$ (경로 c'). 종교적 지지가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계수는 .17이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0059에서 .3794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외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적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 = .14, t(112) = 2.26, p < .05$ (경로 a), 종교적 지지는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50, t(111) = 2.06, p < .05$ (경로 b). 외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B = .10, t(112) = .62, p > .05$ (경로 c) 종교적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B = .03, t(111) = .19, p > .05$ (경로 c'). 종교적 지지가 외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계수는 .07이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0031에서 .1730으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므로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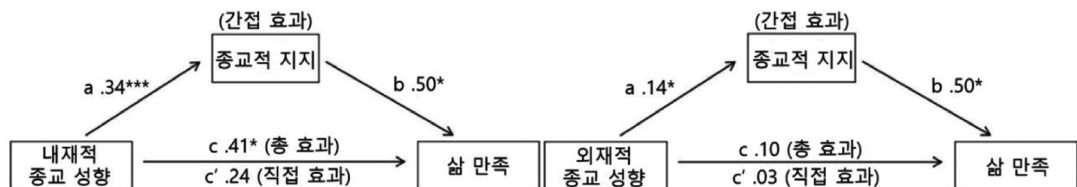


Figure 1. Religious support as a mediator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셋째,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 사이를 종교적 지지가 유의하게 매개하여서 종교적 지지의 하위 척도들인 하나님 지지와 교회지지의 매개역할을 각각 분석하였다.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적 종교성향은 하나님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 = .48, t(112) = 7.09, p < .001$ (경로 a), 하나님 지지는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56, t(111) = 2.04, p < .05$ (경로 b).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B = .41, t(112) = 2.07, p < .05$ (경로 c) 하나님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14, t(111) = .61, p > .05$ (경로 c'). 하나님 지지가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계수는 .27이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0051에서 .5500으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적 종교성향은 교회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 = .27, t(112) = 2.68, p < .01$ (경로 a), 교회 지지는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 = .31, t(111) = 1.68, p > .05$ (경로 b).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B = .41, t(112) = 2.07, p < .05$ (경로 c) 하나님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33, t(111) = 1.61, p > .05$ (경로 c'). 하나님 지지가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계수는 .08이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0147에서 .2482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므로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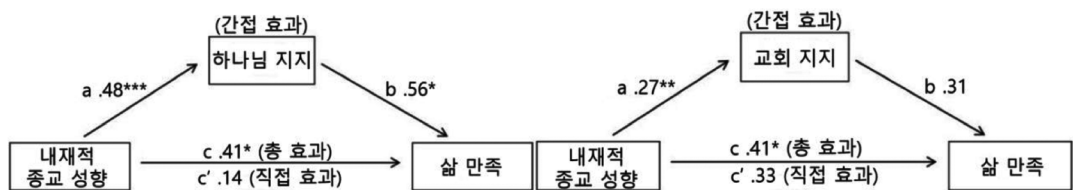


Figure 2. God support and church support as a mediator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다섯째, 내재적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 = .34, t(112) = 4.42, p < .001$ (경로 a), 종교적 지지는 우울의 감소를 예측하였으나 이 효과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B = -.14, t(111) = -1.32, p > .05$ (경로 b). 내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을 예측하는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B = -.13, t(112) = -1.44, p > .05$ (경로 c)

종교적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B = -.08, t(111) = -.82, p > .05$ (경로 c'). 하나님 지지가 내재적 종교성향과 우울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계수는 $-.05$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1277$ 에서 $.0278$ 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므로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하나님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B = -.14, t(110) = -1.07, p > .05$)와 교회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B = -.06, t(110) = -.68, p > .05$)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째, 외재적 종교성향과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 = .14, t(112) = 2.26, p < .05$ (경로 a), 종교적 지지는 우울의 감소를 예측하였으나 이 효과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B = -.14, t(111) = -1.32, p > .05$ (경로 b). 외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을 예측하는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 = -.13, t(112) = 1.77, p > .05$ (경로 c) 종교적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 = .14, t(111) = 2.02, p < .05$ (경로 c'). 종교적 지지가 내재적 종교성향과 우울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계수는 $-.02$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0607$ 에서 $.0108$ 로 나타나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므로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ure 3. Religious support as a mediator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depression

IV. 논의

본 연구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종교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외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삶에 더 만족하였는데 이것은 종교적 지지,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지각을 통해서였다.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덜 우울하였으나 이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

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더 우울하였다. 종교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은 우울을 감소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 연구 결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영향은 종교적 지지를 통해서였다. 종교적 지지의 영향을 통제하자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종교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였고 이것이 곧 삶의 만족을 증가시켰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확인되었고 종교적 지지가 그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한다는 것과(Steffen et al., 2015; Tix & Frazier, 2005) 종교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한다는 것은(Yi & Bjorck, 2014; 홍구화, 2019)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외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종교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고 이것이 곧 삶의 만족을 증가시켰으나 이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 모두 통계상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과 달리 외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외재적 종교성향도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영향을 통제하면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직접효과가 있었던 연구결과(Steffen, 2014)와는 다른 결과이다.

셋째,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 때문이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더 많이 지각하게 되고 이것은 곧 삶의 만족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영향을 통제하면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삶에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Fiala et al., 2002; Yi & Bjorck, 2014; 홍구화, 2019).

넷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에 비해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와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 두 효과를 합친 내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였으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이 곧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지지($B = .27, p < .01$)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지($B = .48, p < .001$)를 더 많이 지각했다.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함을 암시해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달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이 삶의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였던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Yi & Bjorck, 2014). 홍구화(2019)의 국내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은 삶의 만족을 증대시켰으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문제해결 중심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 중심의 지지가 각각의 하위척도로 요인부하되지 않아서 Yi & Bjorck(2014)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지지를 하나의 하위척도로 분석하였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표집집단의 특성인지 지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덜 우울하였으나 이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덜 우울하리라는 가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와 이 둘을 합친 총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종교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였으나 종교적 지지를 지각한다고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총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우울이 감소한 기존의 연구결과들(Haney & Rollock, 2020; Pössel et al., 2011; Sanders et al., 2015)과는 다른 결과이다. 종교적 지지 가운데 동료 신자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지 못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킨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Bjorck & Maslim, 2011; Fiala et al., 2002) 다른 결과이다. 국내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은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홍구화, 2019)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지가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였다(Yi & Bjorck, 2014). 이는 이민 생활 또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종교적 지지 모두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에 충분한 자원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들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목회 돌봄과 상담이 필요함을 암시해 준다.

여섯째, 외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만 유의하여서 외재적 종교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우울하였다($B = .14, p < .05$). 외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외재적 종교성향이 종교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재적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더 우울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Haney & Rollock, 2020; Pössel et al., 2011; Smith et al., 2003). 신앙생활을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할수록 더 우울하다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은 영적 심리적

자원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종교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종교적 지지를 통해 외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이나 종교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 모두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이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표집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들을 일반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앙 연수가 20년 이상인 연구 참여자들이 절대다수(76%)였다. 인구통계 변인들을 분석에서 통제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표집대상을 통해 연구결과들을 검증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과 종교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지각을 통해 삶의 만족을 더 느낀다는 연구결과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상담기법들을(홍구화, 2011: 344-345) 목회 돌봄과 상담에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종교성향과 종교적 지지가 모두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기독교 상담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결과는 신앙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하나님이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느껴도 어려운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신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영적 자원 외에도 심리상담을 포함한 다른 심리적 사회적 자원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앙생활을 신앙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하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 낮고 더 우울하기 쉬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이 기대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신앙 성장을 촉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배, 성경공부, 기도, 교제 등 다양한 영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이나 사회적 자원들을 통해 우울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에스터 (2008). 종교성 및 종교 정향이 문제책임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3), 1389-1408. [https://doi.org/ 10.15703/kjc.9.3.200809.1389](https://doi.org/10.15703/kjc.9.3.200809.1389).
- [Kang, E. (2008). The effect of spirituality and religious orientation on the attributional responsibility for a proble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3), 1389-1408.]
- 김경자·홍혜영 (2012). 미혼여성의 종교성향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감사지각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4(2), 5-25.
- [Kim, K. J. & Hong, H. Y. (2012). The effect of religious orientation on anxiety in single women : The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4(2), 5-25.]
- 김수영·채규만·한주연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용서수준에 따른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2), 9-30.
- [Kim, S. Y., Chae, P. K. & Han, J. Y. (2014). The study of relations for religious orientation, forgiveness and self-concept on Christian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2), 9-30.]
- 김재석 (2008). 대학생의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수준의 차이, **상담학연구**, 9(1), 15-30. [https://doi.org/ 10.15703/kjc.9.1.200803.15](https://doi.org/10.15703/kjc.9.1.200803.15).
- [Kim, J. S. (2008).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irrational levels of according to their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1), 15-30.]
- 김행복·설경옥 (2015). 종교정향과 불안의 관계: 경험표집법을 통해 살펴본 부정정서와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83-403.
- [Kim, H. B. & Seol, K. O. (2015). Religious orientation and anxiety: Negative affect and self-regulation as mediat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2), 383-403.
-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9(1), 77-96. [https://doi.org/ 10.30806/fs.19.1.201403.77](https://doi.org/10.30806/fs.19.1.201403.77)
- [Park, M. H.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religious orientation of Christians on depression: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Faith and Scholarship*, 19(1), 77-96.]
- 방미숙 (1994). **문제에 대한 종교적 대처양식과 그 효율성: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성향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Bang, M. S. (1994). *Religious Coping Styles and their Effectiveness: In relation to the*

- Religious Orient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서유진·이규미 (2016). 내재적 종교성향과 역경후성장의 관계: 감사성향과 사건중심성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7(3), 441-456. <https://doi.org/10.15703/kjc.17.3.201606.441>.
- [Seo, Y. J. & Lee, G. 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and event centra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3), 441-456.]
- 신혜진 (1991) **내적-외적-종교성향과 편견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Sin, H. J.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정민선·박미하 (2015). 기독교대학생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3(1), 259-286. <https://doi.org/10.17841/jocag.2015.23.1.259>.
- [Jeong, M. S. & Park, M. H. (2015).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illusions in the relation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3(1), 259-286.]
- 조명환·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Jo, M. H. & Cha, G. H. (1998).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Seoul: Jibmoondang.]
- 조맹제·김계희 (1993). 주요 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9.
- [J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 381-399.]
- 조혜윤·손은정 (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73-793.
- [Cho, H. Y. & Son, E. J. (2008). Religious orientation and anxiety: The mediating roles of religious coping and optimis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773-793.]
- 지형기 (2000). **내재적 종교성향이 종교적 대처유형을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Ji, H. G. (2000). *The Effect of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on Mental Health by Mediating Religious Coping Styles*. Masters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홍구화 (201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333-350.
- [Hong, G. H. (2019). The impact of beliefs in God locus of control and images of God on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333-350.
- 홍구화 (2019). 종교적 지지가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4), 241-271. <https://doi.org/10.23909/KJCC.2019.11.30.4.241>
- [Hong, G. H. (2019). The effect of religious support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30(4), 241-271.]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Audette, L. M., Barryb, C. M., Carluccib, M. E. & Hardy. S. (2018). Associations among body dissatisfaction, gender, and three latent profiles of religiosity.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21(4), 380-394. <https://doi.org/10.1080/13674676.2018.1497587>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entley, J., Ahmad, Z. & Thoburn, J. (2014) Religiosity and posttraumatic stress in a sample of East African refugee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7(2), 185-195, [https://doi.org:10.1080/13674676.2013.784899](https://doi.org/10.1080/13674676.2013.784899)
- Bjorck, J. P. & Maslim, A. A. (2011). The Multi-faith religious support scale: Validation with a sample of Muslim women. *Journal of Muslim Mental Health*, 6(1), 62-80. <https://doi.org/10.3998/jmmh.10381607.0006.105>
- Bonelli, R. M. & Koenig, H. G. (2013). Mental disorders, religion and spirituality 1990 to 2010: A systematic evidence-based review.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2(2), 657-673. <https://doi.org/10.1007/s10943-013-9691-4>
- Buzdar, M. A., Ali, A. & Nadeem M. (2015).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54, 2155-2163. <https://doi.org/10.1007/810943-014-9941-0>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Fiala, W. E., Bjorck, P. B. & Gorsuch, R. (2002). The religious support scale: Construction, validation, and cross-valid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6), 761-786. <http://doi.org/10.1023/A:1020264718397>

- Ghorpade, J., Lackritz, J. R. & Singh, G. (2006).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mong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A Research Note.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76(1), 51-62.
- Haney, A. M. & Rollock, D. (2020). A Matter of Faith: The Role of Religion, Doubt, and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 Mental Health.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2(2), 247-253. <https://doi.org/10.1037/rel0000231>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Holt, C. L., Roth, D. L., Huang, J. & Clark, E. M. (2018). Role of religious social support in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sity and health-related outcomes in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62-73. <https://doi.org/10.1007/s10865-017-9877-4>
- Hood, R. W., Hill, P. C. & Spilka, B. (2009).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man, K. J. & Boyatzis, C. J. (2010). The protective role of attachment to God against eating disorder risk factors: concurrent and prospective evidence. *Eating Disorders*, 18(3), 239-258. <https://doi.org/10.1080/10640261003719534>
- Homan, K. J. & Hollenberger, J. C. (2021). Religious support moderates the long reach of adverse childhood events on physical health in middle to late adulthood.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0, 4186-4208. <https://doi.org/10.1007/s10943-021-01259-w>
- King, P. E., Ramos, J. S. & Clardy, C. E. (2013). Searching for the sacred: Religion, spirituality,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K. I. Pargament, J. J. Exline, & J. W. Jones (Eds.), *APA handbook of psychology, religion, and spirituality (Vol 1): Context, theory, and research* (pp. 513-5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ul Youngbin Kim (2017). Religious support mediates the racial microaggressions-mental health relation among Christian ethnic minority students.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9(2), 148 -157. <http://dx.doi.org/10.1037/rel0000076>
- Koenig, H. G. (2012). Religion, spirituality, and health: The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ISRN Psychiatry*, 278730. <https://doi.org/10.5402/2012/278730>
- Krause, N., Ellison, C. G., Shaw, B. A., Marcum, J. P. & Boardman, J. D. (2001). Church-based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cop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0, 637-656. <https://doi.org/10.1111/0021-8294.00082>
- Krumrei, E. J., Pirutinsky, S. & Rosmari, D. H. (2013). Jewish spirituality, depression, and health:

- An empirical test of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0, 327-336. <https://doi.org/10.1007/s12529-012-9248-z>
- Latzer, Y., Orna, T. & Gefen, S. (2007). Level of religiosity and disordered eating psychopathology among modern-orthodox Jewish adolescent girls in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19(4), 511-521.
- Lazar, A. & Bjorck, J. P. (2008). Religious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 religious Jewish population. *Mental Health, Religions & Culture*, 11(4), 403-421. <https://doi.org/10.1080/13674670701486142>
- Lazar, A. & Bjorck, J. P. (2016). Religious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gender differences among religious Jewish Israeli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9(4), 393-407. <https://doi.org/10.1080/13674676.2016.1207160>
- Lester, D. (2012).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n exploratory study. *Psychological Reports*, 110, 1, 247-250. <https://doi.org/10.2466/02.12.PR0.110.1>
- Milevsky, A. & Levitt, M. J. (2004).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sity in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Effect on psychological adjustment.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7, 307-321. <https://dx.doi.org/10.1080/13674670410001702380>
- Parenteau S. C. (2018). Depressive symptoms and tobacco use: Does religious orientation play a protective role? *Journal of Religion & Health*, 57, 1211-1223. <https://doi.org/10.1007/s10943-017-0399-8>
- Peviani, K. M., Brieant, Alexis., Holmes, C. J., King-Casas, B. & Kim-Spoon., J. Religious social support protects against social risks for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0(2), 361-371. <https://doi.org/10.1111/jora.12529>
- Pirutinsky, S., Rosmarin, D. H., Holt, C. L., Feldman, R. H., Caplan L. S., Midlarsky, E. & Pargament, K. I. (2011). Does social support mediate the moderating effect of intrinsic religios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Jew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4, 489-496. <https://doi.org/10.1007/s10865-011-9325-9>
- Pössel, P., Martin, N. C., Garber, J., Banister, A. W., Pickering, N. K. & Hautzinger, M. (2011). Bidirectional relations of religious orient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Vol. 3(1), 24-38. <http://doi.org/10.1037/a0019125>
- Pargament, K. I., Falb, M. D., Ano, G. G. & Wachholtz, A. B. (2013a). The religious dimension of

- coping: Advanc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R. F. Paloutzian & C. L. Park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2nd ed., pp. 560-579). New York, NY: Guilford Press.
- Rizvi, T., Hamid, N. & Shams Un Nisa, S. U. (2014).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ligious orientation among Kashmir university students.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5(11), 1383-1385.
http://www.iahrw.com/index.php/home/journal_detail/19#list
- Ronneberg, C. R., Miller, E. A., Dugan, E. & Porell, F. (2014). The protective effects of religiosity on depression: A 2-year prospective study. *The Gerontologist*. <https://doi.org/10.1093/geront/gnu073>
- Rose, T., Hope, M. O., Powell, T. W. & Chan., V. (2021). A very present help: The role of religious support for Black adolescent girls' mental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 1267-1281. <https://doi.org/10.1002/jcop.22595>
- Salas-Wright, C. P., Vaughn, M. G., Hodge, D. R. & Perron, B. E. (2012). Religiosity profiles of American youth in relation to substance use,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12), 1560-1575. <https://doi.org/10.1007/s10964-012-9761-z>
- Sanders, P. W., Allen, G. E. K., Fischer, L., Richards, P. S., Morgan, D. T. & Potts, R. W. (2015). Intrinsic religiousness and spirituality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and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Latter-Day Saint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54, 871-887. <https://doi.org/10.1007/810943015-0043-4>
- Sillick, W. J. & Cathcart, S.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happiness: the mediating role of purpose in life.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7(5), 494-507, <http://dx.doi.org/10.1080/13674676.2013.852165>
- Smith, T. B., McCullough, M. E. & Poll, J. (2003). Religiousness and depression: Evidence for a main effect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29, 614-636.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https://doi.org/10.2307/270723>
- Stavrova, O., Fetchenhauer, D. & Schloßer, T. (2013). Why are religious people happy? The effect of the social norm of religiosity across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42(1), 90-105.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2.07.002>
- Steffen, P. R. (2014). Perfectionism and life aspirations in intrinsically and extrinsically religious

- individual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53, 945-958. <https://doi.org/10.1007/s10943-013-9692-3>.
- Steffen, P. R. & Masters, K. S. (2005). Does compassion mediate the intrinsic religion-health relationship?.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0(3), 217-224.
- Steffen, P. R., Clayton S. & Swinyard, W. (2015). Religious orientation and life aspiration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54, 470-479. <https://doi.org/10.1007/810943-014-9825-3>
- Tix, A. & Frazier, P. (2005). Mediation and mo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ness and mental heal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95-306
- Torrecillas, J., Bjorck, J. P., Kamble, S. V. & Gorsuch, R. L. (2020). Religious support and emotional functioning in India across three major relig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0(1), 18-34. <https://doi.org/10.1080/10508619.2019.1614868>
- Weinberger-Litman, S. L., Rabin, L. A., Fogel, J., Mensinger, J. L. & Litman, L. (2016). Psychosocial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eating disorder risk factors in young Jewish women.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8(4), 265-276 <https://doi.org/10.1037/a0040293>
- Weinberger-Litman, S. L., Latzer, Y., Litman, L. & Ozick, R. (2018).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pathology among modern orthodox Israeli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adherence to the superwoman ideal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Religion & Health*, 57, 209-222. <https://doi.org/10.1007/s10943-017-0443-8>.
- Wolf, K. M., Zoucha, R., McFarland, M., Salman, K., Dagne, A. & Hashi, N. (2014). Somali immigrant perceptions of mental health and illness: An ethnonursing study.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7(4). <https://doi.org/10.1177/1043659614550487>
- You, S. & Lim, S. A. (2019). Religious Orient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7(1), 34-47. <https://doi.org/10.1177/0091647118795180>
- Yi, G. H. & Bjorck, J. P. (2014). Religious support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Korean American Protestant Christians.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6, 44-52. <https://doi.org/10.1037/a0034417>.
- Zarzycka, B., Tychmanowicz, A., Korulczyk, T. & Bjorck, J. P. (2022). Religious support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 Polish sample.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https://doi.org/10.1080/13674676.2021.2014798>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Christians: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Support**

홍 구 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S시와 B시에 거주하는 121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성향이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종교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조사하였다.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삶의 만족과 우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관계를 종교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삶의 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종교적 지지는 이 관계를 매개하였다. 종교적 지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재적 종교성향도 삶의 만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이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이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종교적 지지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들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내재적 종교성향, 외재적 종교성향, 종교적 지지, 삶 만족, 우울

삶의 목적과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 유방암 환자에서의 단면 연구*

**Association between purpose in lif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cross-sectional study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한형욱 (Hyeong-Wook Han)**

김두영 (Doo Young Kim)***

김다함 (Daham Kim)****

이일균 (Ilkyun Lee)*****

박시운 (Si-Woon Park)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purpose in lif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fter breast cancer surgery.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within 1 year after surgery. Psychological evaluation included anxiety, depression, self-efficacy and purpose in lif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assessed using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 Ninety-one subjects with breast cancer were included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according to the result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2일 최종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ternational St.Mary's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전공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595104@ish.ac.kr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ternational St.Mary's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조교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kdygeno@ish.ac.kr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ternational St.Mary's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전공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585107@ish.ac.kr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외과 (Department of Surgery, International St.Mary's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교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iklee@ish.ac.kr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International St.Mary's Hospital,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교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seanpark05@gmail.com

of purpose in life measure. The high purpose in life group (≥ 100 in purpose in life scale) showed higher self-efficacy score and lower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than the low purpose in life group (< 100). With regard to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high purpose in lif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global health status, emotional and cognitive functioning. Purpose in lif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lobal health status after adjusting for age, stage, type of surgery, chemotherapy and aerobic capacity. Purpose in life is associ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s well as other psychological functions such as anxiety, depression and self-efficacy in subjects with breast cancer.

Key Words: breast neoplasms, psychology, holistic health, quality of life, rehabilitation

I. 서론

의학의 영역에서 인간과 질병과 건강에 대한 전일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인적인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유물론적, 환원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당면 과제이다. 의료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는 데에 있으며,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완전한 안녕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의료는 전인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Greener, 2013; Robbins-Welty and Gagliardi, 202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료의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Koenig, 2004; Tavares et al., 2022). 그런데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측면을 다룰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아직 일반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태이며, 종교성을 다루는 것은 보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편 영성은 인간성의 한 측면으로서 개인이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Puchalski et al., 2009),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척도는 영적 안녕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Czekierda et al., 2017).

삶의 목적은 빅터 프랭클의 실존심리학에 기초한 개념으로(Crumbaugh, 1968) 심리 건강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Ryff, 1989). 노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삶의 목적은 장애발생률 및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nnett et al., 2012). 삶의 목적은 건강 행동과도 연관이 있으며(Kim et al., 2014), 노인에서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Yeung & Breheny, 2019).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삶의 목적은 감성 지능과 연관이 있고 삶의 만족도의 중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eques et al., 2016). 또한 암 치료 중 삶의 목적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며, 따라서 삶의 목적이 치료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Pinquart et al., 2009).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술, 항암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요법을 포함한 치료 과정은 유방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위협한다(Gotay & Muraoka, 1998).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말하며 신체적, 심리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Dow et al., 1996). 암 생존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 이러한 요인을 인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Neris et al., 2020).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목적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한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이 주관적인 행복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Kang et al.,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개입의 결과 측정 도구로 삶의 목적을 평가하

여 삶의 목적이 우울감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Mens et al., 2016). 또한 유방암 환자에서 삶의 목적을 평가하고 이를 집단 상담에 활용한 연구도 있었다(Radomski et al, 2022).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은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문헌들은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신체적 기능, 특히 유산소 능력이 유방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능을 조사하고자 하였고, 그중 영성과 관련된 척도로 사용되는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심리적 요인들 중 삶의 목적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삶의 목적이 높은 유방암 환자에서 삶의 목적이 낮은 환자들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로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대학병원 암 재활 클리닉에서 포괄적 평가를 받은 유방암 수술 후 1년 이내의 환자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

대상자 선별 기준은 병리학적으로 유방암으로 확진되어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최초 방문을 선별하였고, 제외 기준은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를 제외하였으며, 연령, 성별에 따른 제외 기준은 두지 않았고 모든 암 병기의 환자들을 다 포함하였다. 유방암 수술 후 1년 이내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고 신체적 활동도 이 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년 이후의 환자들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수술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147건의 클리닉 방문이 선별되었으며, 그중 수술 후 1년 후 방문 및 재방문을 제외하고 총 91명의 대상자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 도구

암 재활 클리닉에서의 포괄적인 평가에는 신체 기능, 심리적 기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포함되었다. 신체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6분 걷기 테스트를 시행하고 측정치를 나이와 신장을 고려한 예측치에 비교한 비율을 계산하여 유산소 능력을 평가하였다(Troosters et al., 1999). 그 외에 유방암의 유형, 단계, 수술 시기와 기타 치료 유형 등 유방암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1) 심리적 요인 평가

심리적 평가에는 불안, 우울증, 자기 효능감 및 삶의 목적이 포함되었다. 불안과 우울은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여 평가하였고(Oh et al., 1999), 이 도구의 타당도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자에서 뿐 아니라 일반 인구에 대해서도 잘 확립되어 있다(Bjelland et al., 2002).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Lee et al., 1994). 자기 효능감은 건강 행동 및 자기 관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gers et al., 2008). 삶의 목적에 대한 평가는 한국어판 삶의 목적 검사(Purpose in Life Test) 척도를 사용하였다(Kim et al., 2001). 이 척도는 Crumbaugh와 Maholick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Crumbaugh & Maholick, 1964),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고안된 척도이며(Bourdette & Dodder, 1976), 총 20개 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20에서 140까지이며, 높은 점수는 인생에서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을 나타낸다. 대상자들은 중앙값에 의해 높은 삶의 목적군과 낮은 삶의 목적군의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2)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는 유럽 암 연구 및 치료기구에서 개발한 삶의 질 설문지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 (EORTC QLQ-C30)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Yun et al., 2004). 이 설문지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점수는 전반적 건강 상태, 5가지 기능 척도(신체, 역할, 정서, 인지, 사회 기능) 및 9가지 증상 척도(피로, 오심 및 구토, 통증, 호흡 곤란, 불면증, 식욕 부진, 변비, 설사, 재정적 어려움) 등 11개 영역의 점수로 변환된다. 각 척도의 점수 범위는 0에서 100까지이며, 기능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 수준이 더 높음을 나타내고, 증상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수준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4. 통계분석 방법

통계분석에는 IBM SPSS 버전 22.0을 사용하였다. 삶의 목적 점수와 우울, 불안, 자기 효능감 등 다른 심리적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 및 삶의 목적 점수와 EORTC QLQ-C30의 각 도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이용하였다. 높은 삶의 목적군과 낮은 삶의 목적군 두 군 간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교란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삶의 목적 외에 유산소능력, 암 병기, 수술 유형, 화학 요법 및 나이 등의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누락된 값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통계 검정에서 0.05보다 작거나 같은 p 값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암 환자의 전반적 건강 상태의 평균 점수가 60.82 ± 20.98 였던 것을 고려하고(Kim et al., 2019), 삶의 목적 점수에 따른 두 군 간의 전반적 건강 상태 점수 차이가 20점 정도일 것으로 가정할 때, 알파 수준 0.05에서 본 연구의 통계학적 파워는 99.4%로 추산되어, 대상자 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의무기록에 대한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동의서는 면제되었다. (승인번호 IS20RIMIO043)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91명의 유방암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53.45 ± 9.58 세였다. 유방암의 병기는, 12명(13.2%)은 상피내암이었고, 1,2,3,4기의 대상자수는 각각 33명(36.3%), 31명(34.1%), 13명(14.3%), 2명(2.2%)이었다. 유방암 수술 후 경과 기간의 중간값은 41일이었다. 유방암 수술의 유형은, 41명(45.1 %)은 유방 보존 수술(breast conserving surgery)을 받았고, 34명(37.4 %)은 총 유방 절제술(total mastectomy)을, 16명(17.6 %)은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modified radical mastectomy)을 받았다. 유방암 수술 이외의 치료는, 27명(29.7%)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았고, 17명(18.7%)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3명(3.3%)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모두 받았으며, 19명(20.9%)은 표적 치료를 받았고, 82명(90.1 %)이 호르몬 요법을 받았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Variables	No. of subjects (%) / Mean \pm S.D.
Age	53.45 \pm 9.58
Gender (female)	91 (100)
Stage	
in situ	12 (13.2)
1	33 (36.3)
2	31 (34.1)
3	13 (14.3)
4	2 (2.2)
Time after surgery	68.29 \pm 64.48
Type of surgery	
Breast conserving surgery	41 (45.1)
Total mastectomy	34 (37.4)
Modified radical mastectomy	16 (17.6)
Chemotherapy	27 (29.7)
Radiotherapy	17 (18.7)
Target therapy	19 (20.9)
Hormone therapy	82 (90.1)

6분 걷기 검사로 평가한 대상자들의 유산소능력은 평균 보행 거리가 537.66 \pm 67.44m였고, 나이와 신장을 보정한 예측치 대비 비율은 85.25 \pm 11.37%였다.

2. 삶의 목적 척도와 다른 심리검사 결과와의 연관성

병원 불안-우울 척도의 불안 점수는 평균 6.49 \pm 3.86였으며, 18명(19.8%)과 13명(14.3%)에서 각각 경계선 및 이상 범주에 해당하였다. 우울 점수는 평균 6.04 \pm 3.93였으며, 19명(20.9%)과 11명(12.1%)에서 각각 경계선 및 이상 범주에 해당하였다. 자기 효능감 점수는 평균 28.95 \pm 4.51점이었다. 삶의 목적 검사 척도의 평균값은 98.57 \pm 19.21였고 중간 값은 99였다. 삶의 목적 척도 100점 미만은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고 해석한 과거의 연구와(Namgung, 1980) 본 연구의 중간 값을 고려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었다. 삶의 목적 척도 100점 이상인 45명(49.5%)은 높은 삶의 목적군으로, 100점 미만인 46명(50.5%)은 낮은 삶의 목적군으로 분류되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삶의 목적은 자기 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불안과 우울 점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Table 2). 삶의 목적 점수에 따른 두 군 간의 비교에서는, 높은 삶의 목적군에서 낮은 삶의 목적군에 비해 높은 자기 효능감 점수와 낮은 불안과 우울 점수를 나타냈다.

Table 2. Psychological measur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Variables	Mean \pm S.D.	Correlation coefficient ^a
Purpose in life	98.57 \pm 19.21	1
Self-efficacy	28.95 \pm 4.51	0.526**
Hospital Anxiety & Depression Scale		
Anxiety	6.49 \pm 3.86	-0.389**
Depression	6.04 \pm 3.93	-0.520**
EORTC QLQ-C30 ^b		
Global health status / QoL	61.26 \pm 21.16	0.484**
Physical functioning	73.55 \pm 15.36	0.105
Role functioning	72.71 \pm 23.64	0.161
Emotional functioning	75.27 \pm 22.83	0.477**
Cognitive functioning	79.85 \pm 20.45	0.217*
Social functioning	73.08 \pm 25.29	0.192
Fatigue	37.36 \pm 18.31	-0.183
Nausea and vomiting	11.72 \pm 18.41	-0.086
Pain	30.59 \pm 22.82	0.070
Dyspnea	18.32 \pm 42.01	0.063
Insomnia	36.63 \pm 31.28	-0.262*
Appetite loss	22.71 \pm 25.62	-0.220*
Constipation	23.81 \pm 28.94	-0.140
Diarrhea	7.33 \pm 16.24	-0.043
Financial difficulties	21.25 \pm 29.03	-0.267*

a Correlation between purpose in life and other measures.

b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

* $P < .05$, ** $P < .01$.

3. 삶의 목적 척도와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

건강 관련 삶의 질에서 전반적 건강 상태의 평균값은 61.26 ± 21.16 였다. EORTC QLQ-C30의 5가지 기능 척도와 9가지 증상 척도 각각의 평균값은 Table 2에 나열하였다.

삶의 목적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각 도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삶의 목적은 전반적 건강 상태($p < 0.01$) 및 정서 기능($p < 0.01$), 인지 기능($p < 0.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불면증($p < 0.05$), 식욕 감퇴($p < 0.05$) 및 재정적 어려움($p < 0.05$)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삶의 목적 점수에 따른 두 군 간의 비교에서는, 전반적 건강 상태는 높은 삶의 목적군과 낮은 삶의 목적군에서 각각 평균 70.93 ± 18.52 과 51.81 ± 19.64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다른 도메인들 중에는, 높은 삶의 목적군에서 낮은 삶의 목적군에 비해 정서 기능($p < 0.01$), 인지 기능($p < 0.05$)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불면증($p < 0.05$), 재정적 어려움($p < 0.01$)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between high and low purpose in life groups

EORTC QLQ-C30 ^a	High Purpose in Life Group	Low Purpose in Life Group
Global health status / QoL**	70.93±18.52	51.81±19.64
Physical functioning	76.15±12.99	71.01±17.28
Role functioning	75.56±25.28	69.93±22.12
Emotional functioning**	83.15±16.90	67.57±25.53
Cognitive functioning*	84.82±14.57	75.00±24.28
Social functioning	76.30±24.23	69.93±26.44
Fatigue	33.58±14.50	41.06±21.06
Nausea and vomiting	10.37±17.51	13.04±19.54
Pain	28.89±21.73	32.25±24.19
Dyspnea	20.00±56.59	16.67±20.79
Insomnia*	29.63±27.73	43.38±33.61
Appetite loss	22.22±23.57	23.19±27.99
Constipation	22.22±26.59	25.36±31.57
Diarrhea	5.93±12.89	8.70±19.16
Financial difficulties**	11.11±21.32	31.16±32.51

Values are Mean ± S.D.

a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

* $P < .05$, ** $P < .01$.

삶의 목적 이외에 다른 연구들(Binotto et al., 2020; Kim et al., 2019)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삶의 목적만이 전반적 건강 상태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6분 걷기 검사로 측정된 유산소능력, 항암화학요법 여부, 수술 유형, 암 병기 및 나이는 전반적 건강 상태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수술 유형은 정서 기능과 경계선 수준의 약간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p=0.06$)(Table 4).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Global health status		Emotional functioning		Cognitive functioning	
	β	p	β	p	β	p
(constant)	83.321	0.000	79.753	0.000	84.476	0.000
Purpose in life	18.044	0.000	13.744	0.004	8.601	0.032
Aerobic capacity (6MWT, %) ^a	-0.268	0.187	0.061	0.785	-0.100	0.593
Chemotherapy	1.011	0.837	-1.329	0.807	-6.444	0.161
Type of surgery						
Total or radical mastectomy vs. breast conserving surgery	-3.341	0.846	-9.111	0.066	-3.185	0.441
Stage						
Stage 1 vs. 0	-5.367	0.438	-5.791	0.447	4.155	0.517
Stage 2 vs. 0	-9.102	0.213	-1.448	0.857	6.320	0.351
Stage \geq 3 vs. 0	-10.764	0.188	-7.175	0.424	-10.088	0.184
Age	0.074	0.756	0.047	0.859	0.101	0.651

a 6 minute walk test, ratio to the predicted value

IV. 토론

본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EORTC QLQ-C30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 건강 상태의 평균값은 61.26 ± 21.16 였다. 대상자들의 삶의 목적 검사 척도의 평균값은 98.57 ± 19.21 였고, 100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었을 때 100점 이상은 45명(49.5%), 100점 미만은 46명(50.5%)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 점수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높은 자기 효능감 점수와 낮은 불안과 우울 점수를 보였다.

유방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와(Kim et al., 2019; Yfantis et al., 2020) 항암 화학요법 중에(Binotto et al., 2020) 저하된다. 대규모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EORTC QLQ-C30을 사용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에서 전반적 건강 상태의 평균값은 74.7이었다(Michelson et al., 2000). 다른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1년 이내에 조사한 전반적 건강 상태의 평균값은 62.58이었다(Leclerc et al., 2017).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값이며, 일반인구에 비해서는 저하된 값이다. 유방암 환자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몇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이전 연구에서는 신체 기능, 특히 유산소능력이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기능이 신체 기능보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 활동은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피로감이나 기능 수준 같은 신체적 요인을 통해(Meadows et al., 2017), 그리고 자기효능감 같은 심리적 요인을 통해(Phillips and McAuley, 2014)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조사한 한 리뷰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고, 영성이나 대처기술 등의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Culbertson et al., 2020). 다른 연구자들은 심리 교육적 지원과 인지 행동 치료가 유방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Mokhatri-Hesari and Montazeri, 2020).

이 외에도 심리적 요인은 암 환자 돌봄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심리적 요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대처 기술뿐 아니라 치료의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며(Borgi et al., 2020), 심지어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Garssen, 2004). 또한 암 치료 자체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술 유형, 특히 유방이 보존되었는지 여부는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건강은 질병 치료와 건강 상태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심리적 요인이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심리건강의 핵심 요소이자(Ryff, 1989) 영적안녕과도 연관이 있다(Koenig, 2004). 암 환자들의 전인적인 돌봄을 위해 영적 측면이 다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으며(Peteet and Balboni, 2013), 이를 고려할 때 삶의 목적을 측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삶의 목적을 측정하는 것은 단지 심리건강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를 한 인격으로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Kunik, 2016).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성서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육체를 가진 영이며, 성서적 구원관은 육체와 영혼의 전인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온전함과 평강의 상태를 의미한다(Park and Hwang, 2020). 전인적인 차원에서 건강은 곧 온전함을 의미하며, 치료는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alducci and Modditt, 2012). 성서의 여러 구절들은 온전함을 훼손하는 문제들이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시사한다(잠언 4:23; 예레미야 17:9). 실제로 심리신경면역학(psychoneuroimmunology) 분야의 연구들은 마음과 신체적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Koenig, 2012).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온전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건강의 개념도 질병의 유무보다는 존재하는 질병에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ircher, 2005; Huber et al., 2011).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마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인 과제다.

심리적 건강 상태를 구성하는 요인들로는 자기 수용(self-acceptance), 환경제어 능력(environmental mastery),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 성장(personal growth), 자율성(autonomy) 등이 제시되었다(Ryff and Keyes, 1995). 이 중 삶의 목적은 신체 건강 및 활력의 중요한 결정인자로 고려되어 건강 결과 연구에도 활용되기도 하였다(Boyle et al., 2009). 영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개발된 영적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에도 삶의 목적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Ellison, 2006), 삶의 목적과 영적안녕 상태가 신체적 건강 상태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Czekierda et al., 2017). 따라서 삶의 목적 검사는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심리건강과 영적안녕을 대변하는 척도로 적용 가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전인적인 돌봄이 특히 필요한 의료의 영역은 만성 난치성 질환이다. 그중 암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므로 보건의료의 주요 우선순위가 되는 질환이다. 세계 암 보고서 2020(World Cancer Report 2020)(Wild et al., 2020)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암 생존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수가 더 긴 반면 개발 도상국에서는 조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애 보정 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years)을 악화시키는 주요 암 유형 중 하나는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사망률 측면에서 양호한 예후를 보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은 유방암을 생존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질환이 되게 한다.

심리적 후유증은 유방암 생존자들 사이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유방암 생존자를 인터뷰 한 장기 간의 추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대상자의 최대 30%가 수술 후 불안 또는 기분 장애가 증가했다

고 보고했으며 심리 사회적 부적응은 대상자의 약 10%에서 수년간 계속되었다고 보고했다(Meyer and Aspegren, 1989; Omne-Ponten et al., 1994). 유방암 환자의 연령 요인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회복 초기 단계에서 심리적 영향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Cimprich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30% 이상이 불안-우울 척도에서 비정상 또는 경계선 점수를 보였다. 불안과 우울증 점수는 모두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반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자기 효능감 점수는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삶의 목적은 다른 모든 심리적 요인과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불안과 우울증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 그리고 자기 효능감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목적 측정은 정신 건강, 즉 불안과 우울증 및 행동 변화에 중요한 자기 효능감의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삶의 목적이 전인적인 암 돌봄의 임상 현장에서 통합적인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아직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신체 활동과 체지방이 암의 수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 유방암 환자의 재활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ahart et al., 2018; Olsson Moller et al., 2019). 재활의학적 중재는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개선하고, 피로를 극복하고, 체력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Park et al., 2019; Uhm et al., 2017). 신체 활동은 단순히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 및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및 심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학제 팀 접근법이 암 재활에 중요하다(Leclerc et al., 2017; Nottelmann et al., 2019). 본 연구는 삶의 목적을 포함한 심리적 평가가 임상에서 적용 가능하고 적절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며 유방암 생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 대학 병원에서 모집된 샘플로 구성되었으므로 선택 비뚤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상황에서 모집된 환자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삶의 목적 검사에는 측정 비뚤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이 도구가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규범적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방암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이므로 대상자의 질병 특성과 건강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추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삶의 목적은 유방암 환자의 불안, 우울 및 자기 효능감과 같은 다른 심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 삶의 목적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전반적 건강 상태와 정서적, 인지적 기능에서 더 나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삶의 목적을 지지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이 하나의 유

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방암 환자에게 전인적이고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삶의 목적을 평가하는 것은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형섭·정성권·고영·송진우 (2001). 한국어판 ‘삶의 목적(PIL) 검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사회정신의학**, 6(2), 155-165.
- [Kim, H.-S., Jung, S.-K., Ko, Y. & Song, J.-W. (2001). Reliability &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Purpose in Life(PIL) Test’ Scale. *J Korean Assoc Soc Psychiatry*, 6(2), 155-165.]
- 박시운·황대우 (2020). 전인 건강의 신학적 기초와 실제적 적용. **고신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보**, 28, 11-22.
- [Park, S. W. & Hwang, D. W. (2020). Theological found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olistic health. *Kosin Journal of Health Sciences*, 28, 11-22.]
- 오세만·민경준·박두병 (1999). 병원 불안-우울 척도에 관한 표준화 연구: 정상, 불안, 우울 집단간의 비교. **신경정신의학**, 38(2), 289-296.
- [Oh, S. M., Min, K. J. & Park, D. B. (1999).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for Koreans: A Comparison of Normal, Depressed and Anxious Group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8(2), 289-296.]
- Balducci, L. & Modditt, H. L. (2012). Cure and healing. in Cobb, M., Puchalski, C. M., Rumbold, B.(Eds.) (2012). *Oxford Textbook of Spirituality in Healthc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51-156.
- Bennett, D. A., Schneider, J. A., Buchman, A. S., Barnes, L. L., Boyle, P. A. & Wilson, R. S. (2012, Jul). Overview and findings from the rush Memory and Aging Project. *Curr Alzheimer Res*, 9(6), 646-663. <https://doi.org/10.2174/156720512801322663>
- Binotto, M., Reinert, T., Werutsky, G., Zaffaroni, F. & Schwartzmann, G. (2020).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fore and during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 *Ecancermedalscience*, 14, 1007. <https://doi.org/10.3332/ecancer.2020.1007>
- Bircher, J. (2005). Towards a dynamic definition of health and disease. *Med Health Care Philos*, 8(3), 335-341. <https://doi.org/10.1007/s11019-005-0538-y>
- Bjelland, I., Dahl, A. A., Haug, T. T. & Neckelmann, D. (2002, Feb). The validity of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n updated literature review. *J Psychosom Res*, 52(2), 69-77. [https://doi.org/10.1016/s0022-3999\(01\)00296-3](https://doi.org/10.1016/s0022-3999(01)00296-3)
- Borgi, M., Collacchi, B., Ortona, E. & Cirulli, F. (2020, Dec). Stress and coping in women with breast cancer: unravelling the mechanisms to improve resilience. *Neurosci Biobehav Rev*, 119, 406-421.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20.10.011>
- Bourdette, J. & Dodder, R. A. (1976). The purpose in life test: What does it measure? *Free Inquiry*

- in *Creative Sociology*, 4, 83-85.
- Boyle, P. A., Barnes, L. L., Buchman, A. S. & Bennett, D. A. (2009, Jun). Purpose in life is associated with mortality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Psychosom Med*, 71(5), 574-579. <https://doi.org/10.1097/PSY.0b013e3181a5a7c0>
- Boyle, P. A., Buchman, A. S. & Bennett, D. A. (2010, Dec). Purpose in life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incident disability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Am J Geriatr Psychiatry*, 18(12), 1093-1102. <https://doi.org/10.1097/JGP.0b013e3181d6c259>
- Cimprich, B., Ronis, D. L. & Martinez-Ramos, G. (2002). Age at diagnosis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s. *Cancer practice*, 10(2), 85-93.
- Crumbaugh, J. C. (1968, May). Cross-validation of Purpose-in-Life test based on Frankl's concepts. *J Individ Psychol*, 24(1), 74-81. <https://www.ncbi.nlm.nih.gov/pubmed/4385494>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Apr).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is. *J Clin Psychol*, 20, 200-207. [https://doi.org/10.1002/1097-4679\(196404\)20:2<200::aid-jclp2270200203>3.0.co;2-u](https://doi.org/10.1002/1097-4679(196404)20:2<200::aid-jclp2270200203>3.0.co;2-u)
- Culbertson, M. G., Bennett, K., Kelly, C. M., Sharp, L. & Cahir, C. (2020, Oct 2). The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s: a scoping review. *BMC Cancer*, 20(1), 948. <https://doi.org/10.1186/s12885-020-07389-w>
- Czekierda, K., Banik, A., Park, C. L. & Luszczynska, A. (2017, Dec). Meaning in life and physical health: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alth Psychol Rev*, 11(4), 387-418. <https://doi.org/10.1080/17437199.2017.1327325>
- Dow, K. H., Ferrell, B. R., Leigh, S., Ly, J. & Gulasekaram, P. (1996). An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long-term survivors of breast cancer.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39(3), 261-273.
- Ellison, L. (2006). A review of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NewsNotes*, 44(1).
- Garssen, B. (2004, Jul). Psychological factors and cancer development: evidence after 30 years of research. *Clin Psychol Rev*, 24(3), 315-338. <https://doi.org/10.1016/j.cpr.2004.01.002>
- Gotay, C. C. & Muraoka, M. Y. (1998). Quality of life in long-term survivors of adult-onset cancers. *JNCI: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90(9), 656-667.
- Greener, M. (2013). *The holistic health handbook*. London: Sheldon Press.
- Huber, M., Knottnerus, J. A., Green, L., van der Horst, H., Jadad, A. R., Kromhout, D., Leonard, B., Lorig, K., Loureiro, M. I., van der Meer, J. W., Schnabel, P., Smith, R., van Weel, C. & Smid, H. (2011, Jul 26). How should we define health? *BMJ*, 343, d4163. <https://doi.org/10.1136/bmj>

d4163

- Kang, D., Kim, I. R., Choi, E. K., Yoon, J. H., Lee, S. K., Lee, J. E., Nam, S. J., Han, W., Noh, D. Y. & Cho, J. (2017, Nov). Who are happy survivors? Physical, psychosocial, and spiritual factors associated with happiness of breast cancer survivors during the transition from cancer patient to survivor. *Psychooncology*, 26(11), 1922-1928. <https://doi.org/10.1002/pon.4408>
- Kim, D. Y., Kim, J. H. & Park, S. W. (2019, Jul). Aerobic capacity correlates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fter breast cancer surgery. *Eur J Cancer Care (Engl)*, 28(4), e13050. <https://doi.org/10.1111/ecc.13050>
- Kim, E. S., Strecher, V. J. & Ryff, C. D. (2014, Nov 18). Purpose in life and use of preventive health care services. *Proc Natl Acad Sci USA*, 111(46), 16331-16336. <https://doi.org/10.1073/pnas.1414826111>
- Koenig, H. G. (2004, Dec). Religion, spirituality, and medicin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South Med J*, 97(12), 1194-1200. <https://doi.org/10.1097/01.SMJ.0000146489.21837.CE>
- Koenig, H. G. (2012). Religion, spirituality, and health: the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ISRN Psychiatry*, 2012, 278730. <https://doi.org/10.5402/2012/278730>
- Kunik, M. E. (2016, Sep). Addressing Purpose and Meaning of Life in the Clinical Setting. *Am J Geriatr Psychiatry*, 24(9), 715-716. <https://doi.org/10.1016/j.jagp.2016.04.006>
- Lahart, I. M., Metsios, G. S., Nevill, A. M. & Carmichael, A. R. (2018, Jan 29). Physical activity for women with breast cancer after adjuvant therapy. *Cochrane Database Syst Rev*, 1, CD011292. <https://doi.org/10.1002/14651858.CD011292.pub2>
- Leclerc, A. F., Foidart-Dessalle, M., Tomasella, M., Coucke, P., Devos, M., Bruyere, O., Bury, T., Deflandre, D., Jerusalem, G., Lifrange, E., Kaux, J. F., Crielaard, J. M. & Maquet, D. (2017, Oct).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program after breast cancer: benefits on physical function, anthropometry and quality of life. *Eur J Phys Rehabil Med*, 53(5), 633-642. <https://doi.org/10.23736/S1973-9087.17.04551-8>
- Lee, Y. M., Schwarzer, R. & Jerusalem, M. (1994).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Retrieved Apr.2 from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 Meadows, R., Bonner, T., Dobhal, M., Borra, S., Killion, J. A. & Paxton, R. (2017, Feb). Pathway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in African-American breast cancer survivors. *Support Care Cancer*, 25(2), 489-495. <https://doi.org/10.1007/s00520-016-3427-4>
- Mens, M. G., Helgeson, V. S., Lembersky, B. C., Baum, A. & Scheier, M. F. (2016, Jun). Randomized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breast cancer: impact on life purpose. *Psychooncology*,

- 25(6), 618-625. <https://doi.org/10.1002/pon.3891>
- Meyer, L. & Aspegren, K. (1989). Long-term psychological sequelae of mastectomy and breast conserving treatment for breast cancer. *Acta Oncologica*, 28(1), 13-18.
- Michelson, H., Bolund, C., Nilsson, B. & Brandberg, Y. (2000).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d by the EORTC QLQ-C30--reference values from a large sample of Swedish population. *Acta Oncol*, 39(4), 477-484. <https://doi.org/10.1080/028418600750013384>
- Mokhatri-Hesari, P. & Montazeri, A. (2020, Oct 12).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patients: review of reviews from 2008 to 2018. *Health Qual Life Outcomes*, 18(1), 338. <https://doi.org/10.1186/s12955-020-01591-x>
- Namkung, D. (1980). *Study of the Purpose in Life Among Korean High School Seniors*.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 Neris, R. R., Nascimento, L. C., Leite, A., de Andrade Alvarenga, W., Polita, N. B. & Zago, M. M. F. (2020, Oct). The experience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xtended and permanent cancer survivors: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Psychooncology*, 29(10), 1474-1485. <https://doi.org/10.1002/pon.5472>
- Nottelmann, L., Jensen, L. H., Vejlgard, T. B. & Groenvold, M. (2019, Sep). A new model of early, integrated palliative care: palliative rehabilitation for newly diagnosed patients with non-resectable cancer. *Support Care Cancer*, 27(9), 3291-3300. <https://doi.org/10.1007/s00520-018-4629-8>
- Olsson M. U., Beck, I., Ryden, L. & Malmstrom, M. (2019, May 20).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habilitation interventions following breast cancer treatment - a systematic review of systematic reviews. *BMC Cancer*, 19(1), 472. <https://doi.org/10.1186/s12885-019-5648-7>
- Omne-Ponten, M., Holmberg, L. & Sjöden, P. (1994).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stages I and II: six-year follow-up of consecutive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12(9), 1778-1782.
- Park, S. W., Lee, I., Kim, J. I., Park, H., Lee, J. D., Uhm, K. E., Hwang, J. H., Lee, E. S., Jung, S. Y., Park, Y. H. & Lee, J. Y. (2019, May). Fac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of breast cancer patients participating in exercise intervention. *Support Care Cancer*, 27(5), 1747-1754. <https://doi.org/10.1007/s00520-018-4427-3>
- Peteet, J. R. & Balboni, M. J. (2013, Jul-Aug).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oncology. *CA Cancer J Clin*, 63(4), 280-289. <https://doi.org/10.3322/caac.21187>
- Phillips, S. M. & McAuley, E. (2014, Jan). Physical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health status. *Psychooncology*, 23(1), 27-34. <https://doi.org/10.1007/s00520-013-2118-7>

doi.org/10.1002/pon.3366

- Pinquart, M., Silbereisen, R. K. & Frohlich, C. (2009, Mar). Life goals and purpose in life in cancer patients. *Support Care Cancer*, 17(3), 253-259. <https://doi.org/10.1007/s00520-008-0450-0>
- Puchalski, C., Ferrell, B., Virani, R., Otis-Green, S., Baird, P., Bull, J., Chochinov, H., Handzo, G., Nelson-Becker, H., Prince-Paul, M., Pugliese, K. & Sulmasy, D. (2009, Oct). Improving the quality of spiritual care as a dimension of palliative care: the report of the Consensus Conference. *J Palliat Med*, 12(10), 885-904. <https://doi.org/10.1089/jpm.2009.0142>
- Radomski, M. V., Anheluk, M., Carroll, G. L., Grabe, K., Halsten, J. W., Kath, K., Kreiger, R. A., Lunos, M. E., Rabusch, S., Swenson, K. K. & Zola, J. (2022). Preliminary Efficacy of an Occupation-Oriented Purpose in Life Intervention After Breast Cancer.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89(2), 115-126. <https://doi.org/10.1177/00084174211073264>
- Robbins-Welty, G. A. & Gagliardi, J. P. (2022, Nov). Integrated Care for Complicated Patients: A Role for Combined Training and Practice. *Am J Geriatr Psychiatry*, S1064-7481(22)00559-0. doi:10.1016/j.jagp.2022.10.008.
- Rogers, L. Q., McAuley, E., Courneya, K. S. & Verhulst, S. J. (2008, Nov-Dec).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Am J Health Behav*, 32(6), 594-603. <https://doi.org/10.5555/ajhb.2008.32.6.59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 Soc Psychol*,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Oct).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 Pers Soc Psychol*, 69(4), 719-727. <https://doi.org/10.1037//0022-3514.69.4.719>
- Tavares, A.P., Martins, H., Pinto, S., Caldeira, S., Pontífice S. P. & Rodgers, B. Spiritual comfort, spiritual support, and spiritual care: a simultaneous concept analysis. *Nurs Forum*, 2022;1-8. <https://doi.org/10.1111/nuf.12845>
- Teques, A. P., Carrera, G. B., Ribeiro, J. P., Teques, P. & Ramon, G. L. (2016, Mar). The import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eaning in life in psycho-oncology. *Psychooncology*, 25(3), 324-331. <https://doi.org/10.1002/pon.3921>
- Troosters, T., Gosselink, R. & Decramer, M. (1999, Aug). Six minute walking distance in healthy elderly subjects. *Eur Respir J*, 14(2), 270-274. <https://doi.org/10.1034/j.1399-3003.1999.14b06.x>
- Uhm, K. E., Yoo, J. S., Chung, S. H., Lee, J. D., Lee, I., Kim, J. I., Lee, S. K., Nam, S. J., Park, Y. H., Lee, J. Y. & Hwang, J. H. (2017, Feb). Effects of exercise intervention in breast cancer patients: is

- mobile health (mHealth) with pedometer more effective than conventional program using brochure?. *Breast Cancer Res Treat*, 161(3), 443-452. <https://doi.org/10.1007/s10549-016-4065-8>
- Wild, C. P., Weiderpass, E. & Stewart, B. W. (2020). World Cancer Report: Cancer Research for Cancer Prevention.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https://doi.org/publications.iarc.fr/586>. Licence: CC BY-NC-ND 3.0 IGO.
- Yeung, P. & Breheny, M. (2019, Jul 23). Quality of life among older people with a disability: the role of purpose in life and capabilities. *Disabil Rehabil*, 1-11. <https://doi.org/10.1080/09638288.2019.1620875>
- Yfantis, A., Sarafis, P., Moisoglou, I., Tolia, M., Intas, G., Tiniakou, I., Zografos, K., Zografos, G., Constantinou, M., Nikolentzos, A. & Kontos, M. (2020, Sep 21). How breast cancer treatments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women with non-metastatic breast cancer one year after surgical treatment: a cross-sectional study in Greece. *BMC Surg*, 20(1), 210. <https://doi.org/10.1186/s12893-020-00871-z>
- Yun, Y. H., Park, Y. S., Lee, E. S., Bang, S. M., Heo, D. S., Park, S. Y., You, C. H. & West, K. (2004, May).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ORTC QLQ-C30. *Qual Life Res*, 13(4), 863-868. <https://doi.org/10.1023/B:QURE.0000021692.81214.70>

삶의 목적과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 유방암 환자에서의 단면 연구

Association between purpose in lif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cross-sectional study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한 형 욱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 두 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 다 함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 일 군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외과)

박 시 운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환자의 삶의 목적과 건강 관련 삶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유방암 수술 후 1 년 이내 환자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심리적 평가에는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 및 삶의 목적이 포함되었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유럽 암 연구 및 치료기구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에서 개발한 설문지 EORTC QLQ-C30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유방암 환자 91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삶의 목적 검사 결과에 따라 2군으로 분류되었다. 높은 삶의 목적군(삶의 목적 점수 100 이상)은 낮은 삶의 목적군(삶의 목적 점수 100 미만)보다 자기 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불안 및 우울 점수는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는 높은 삶의 목적군에서 전반적 건강 상태, 정서적 기능, 인지 기능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삶의 목적은 나이, 암 병기, 수술 유형, 항암 화학 요법 여부 및 유산소 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전반적 건강 상태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삶의 목적은 유방암 환자의 불안, 우울 및 자기 효능감 등 심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건강 관련 삶의 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방암, 심리, 전인건강, 삶의 질, 재활

찰스 피니의 부흥론과 법학*

The Revivalism of Charles Finney and Law

이동준 (Don John Lee)**

ABSTRACT

Charles G. Finney was thoroughly methodological in developing his theory of revival. He did not ask what the essence of revival was. He did not discuss the revival neither dogmatically nor theologically. Rather, Finney's theory of revival was thoroughly pragmatic, practical, and methodological. He only talks about how to bring about a revival. He never discusses whether or why a revival is really necessary. He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it is natural for us to need revival. So the real question for him was then, how to promote revival.

Finney's experience as a lawyer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is pragmatic and methodological revival theory. Finney entered law in 1818. He passionately read law books. And as a lawyer, he took charge of the lawsuits of many clients, and he was thoroughly made into a methodological person for winning. He was a pragmatic person who lived only by pursuing the method of winning the lawsuit.

Then, when he started a new life as a revivalist, the habit and attitude of pursuing a method as a lawyer were still incorporated in his revival theory, eventually leading to a methodological revival theory. His 'legal mind' was reborn in his revival theology.

Key Words: Charles Finney, the 2nd Great Awakening, revivalism, law, revival method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16일 최종수정, 12월 16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2018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연세대학교(Yonsei University)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강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djlee34@naver.com

I. 서론

18-19세기에 3회에 걸쳐 발생했던 미국의 대부흥운동(대각성운동)은 근대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흥미로운 몇 가지 주제 중의 하나다. 만약 우리가 부흥 운동 전반에 대한 고찰에서 탈피하여 그 범위를 약간 좁혀서, 주요 부흥사들의 부흥론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어떤 질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의문사’로 표현해 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제1차 대부흥운동의 지도자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였고,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역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 1792-1875)였으며, 제3차 대부흥운동의 리더는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 1837-1899)였다. 제1차 대부흥운동의 기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부흥론에서 부흥이 무엇(what)인지를 물으면서 부흥의 ‘본질’을 찾은 반면에,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역 찰스 피니는 부흥을 어떻게(how) 일으킬 것인가를 물으면서 부흥의 ‘방법’을 구했다. 한편 제3차 대부흥운동의 리더 드와이트 무디는 부흥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왜(why) 필요한가를 물으면서 부흥이 필요한 이유인 부흥의 ‘가치’를 발견하려 했다. 이렇듯 각 부흥의 주역들의 부흥론은 나름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렇듯 3회에 걸쳐 발생한 부흥 운동의 흐름을 하나의 잣대로 설명하기 위해 부흥의 주역들의 부흥론을 ‘의문사’라는 잣대로 표시하면,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부흥운동은 what(본질), > how(방법), > 그리고 why(가치)의 순서로 흐른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면 관계상 위에서 살핀 세 가지 부흥론 중에서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찰스 피니의 부흥론의 특징인 ‘방법’(how) 부흥론만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찰스 피니가 그의 부흥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부흥의 ‘본질’이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방법’(how)을 추구하게 된 데에는 그의 과거의 법조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이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제2차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그 후 피니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살핀 후에, 피니의 부흥론이 참으로 ‘방법’(how)의 부흥론이 맞는가를 그의 부흥론 교재를 낱낱이 살피면서 고찰하고, 그 후에 “과연 그의 법률가로서의 삶이 그의 ‘방법’(how) 부흥론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¹

제2차 대부흥운동의 주요 인물인 피니를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제1차와 제3차 대부흥운동의 주역들의 부흥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대부흥운동의 기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써 자신의 부흥론을 전개했었다. 즉, 참된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에 답하고 있는 것이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이다. 부흥 중에 발생했던 광신적 현상을 보면서 에드워즈의 부흥에 대해 반대하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에드워즈는 자신의 부흥을

변호할 필요가 생겼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부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공격해오던 옛빛파에 대항하여, 자신의 부흥을 변호하려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참부흥이란 무엇이고 거짓 부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그렇게 부흥의 ‘본질’을 논한 것이 에드워즈의 부흥론이었다. 에드워즈의 부흥론을 의문사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what-부흥론’이었다.

또한 제3차 대부흥운동의 주역 드와이트 무디가 부흥사 무디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첫째, 남북전쟁의 비극적 현실과 둘째, 산업화와 도시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배어 있던 대도시 시카고의 비참한 뒷골목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무디는 이 전쟁과 또 도시빈민의 고뇌에 찬 실존을 보고 겪으면서 인간의 실존, 즉 삶과 죽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왜(why) 복음이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무디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면서, “‘왜’ 우리 인간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비극이 우리 미국을 삼키는가?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가?”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소망을 주는 복음의 ‘가치’를 뼈저리게 체득하게 되었다. 그는 부흥의 ‘가치’란 이러한 비극적 실존 앞에서 소망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무디의 부흥론을 의문사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why-부흥론’이었다.

그러나 피니의 부흥론은 철저하게 위의 두 사람과는 달랐다. 피니는 ‘본질’이나 ‘가치’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부흥을 촉진할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해 답하는 부흥론을 전개했다. 피니의 부흥론을 의문사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how-부흥론’이었다.

1) “피니의 부흥론이 부흥의 ‘방법’(how)을 추구하게 된 데에는 그의 과거 법학적 훈련(legal training)이 영향을 끼쳤다”는 본 필자의 논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구도 선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행연구 자료들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 어떤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그동안 (미국) 근현대부흥론의 대체적인 역사는 부흥론을 ‘신학’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첫째,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은 칼뱅의 신학에 철저히 뿌리내린 청교도 부흥론이고, 둘째, 찰스 피니의 부흥론은 칼뱅 신학과는 다른 아르미니안 신학을 따르는 부흥론이며, 셋째, 디 엘 무디의 부흥론은 보수적 성격의 아르미니안 칼뱅주의 신학의 부흥론이고, 그리고 끝으로 빌리 그래함의 부흥론은 신복음주의 부흥신학에 기초한 부흥론이라고 보는 것도 그러한 분류 중의 하나이다(참고, 박용호, 2012: 22). 이러한 부흥론에 대한 역사 내지 구분은 ‘신학’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인데, 이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들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론은 ‘하나님 중심적’ 신학을 가진 부흥론이요, 나머지 부흥론은 모두 ‘인간 중심적’ 신학을 가진 부흥론이라는 분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부흥론 중에서도 피니의 부흥론은 가장 원조 격의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가진 부흥론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은 그러한 ‘신학’적인 분류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다만 피니의 부흥론의 현상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그의 ‘법률가’적 경험과 정신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

II. 제2차 대부흥운동과 찰스 피니의 교회사적 중요성

1. 제2차 대부흥운동 시기와 중심인물

제2차 대부흥운동은 약 1800년부터 1840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다(McLoughlin, 1955: 98). 제2차 대부흥운동은 지역적으로는 동부의 부흥과 서부의 부흥으로도 나눌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두 차례의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부흥운동 연구가이자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선교신학대학원(School of World Missions) 교수였던 제임스 에드윈 오르(James Edwin Orr)는 제1기를 18세기 말엽부터 1812년까지로 보고, 제2기는 1822년부터 1842년까지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2기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바로 찰스 피니라고 본다(Orr, 1965: 54).

2. 찰스 피니의 교회사적 중요성 — 주요 교회사 학자들의 평가

미국 일리노이주의 롬바드(Lombard in Illinois)에 있는 노던 신학교(Northern Seminary)에서 기독교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찰스 햄브릭-스토우(Charles E. Hambrick-Stowe)는 그의 책 『찰스 피니와 미국 부흥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찰스 피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찰스 피니는 미국의 많은 훌륭한 부흥설교자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라고 평가하였다(Hambrick-Stowe, 1996: 11). 이러한 평가는 결코 과장된 것이거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또 다른 미국교회사 분야의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마크 놀(Mark A. Noll)은 피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피니는 부흥 전통에서 차지하는 그의 역할, 그리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부흥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로 인해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이나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만한 인물이다”고 볼 수 있으며, “19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Noll, 1992: 176). 찰스 피니는 19세기의 미국 기독교와 일반 사회생활 분야, 특히 사회개혁 부분에서 매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한편 미국교회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의 하나가 예일 대학교의 시드니 알스트롬(Sidney E. Ahlstrom)이 쓴 『미국 사람들의 종교사』(*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일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찰스 피니는 현대 부흥주의의 아버지이다(the father of modern revivalism)라고 썼다(Ahlstrom, 1972: 459). 또한 알스트롬은, “피니는 어느 모로 보나, 모든 점에서 미국의 역사에서 엄청나게(immensely)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Ahlstrom,

1972: 459).

이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미국 청교도 및 조나단 에드워즈 르네상스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피니에 대해 평가하기를, “피니는 부흥의 열망과 철학을 뛰어나게 성숙화시킨 사람이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 미국에서는 그 누구도 피니만큼의 주목을 받은 종교적 지도자는 없었다”고 말했다(Miller, 1965: 9).

계속해서 휘튼 대학교(Wheaton College)의 역사학 교수였고, 또 제4대 총장으로서 일했던 레이몬드 어드만(Victor Raymond Edman)은 “피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성령의 불길을 선포하기 위해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였다”고 피니를 평가했다(Edman, 1951: 18).

또 브라운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였던 윌리엄 맥로린(William G. McLoughlin)은 피니를 ‘현대 부흥주의(Modern Revivalism)의 창시자’로서 평가하고 있다(McLoughlin, 1959: 14). 피니는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대중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가 남긴 종교와 부흥의 영역에서의 유산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서대학교(Moody Bible Institute)의 교회사 교수였던 모이어(Elgin Sylvester Moyer)는 그의 책 『기독교회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책에서, “피니가 약 30만 명에서 약 일백만 명에 달하는 불신자들을 회심시켰던 것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적고 있다(Moyer, 1951: 458).

이렇듯, 피니는 교회사 및 미국의 문화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커다란 인물임은 틀림없다.

III. 찰스 그랜디슨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 1792~1875)

1. 초기 생애와 법률가로의 입문

피니는 늦어도 1639년 이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앵글로·색슨 계통의 민족적 혈통을 지닌 사람의 후손이다. 피니의 할아버지 조시아(Joshia Finney)는 1756년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회중교회를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Drummond, 1985: 33). 그의 아버지 실베스터(Sylvester Finney)는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의 어머니 레베카 라이스(Rebecca Rice)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 찰스 피니는 코네티컷주 리치필드 카운티(Litchfield County)의 워렌(Warren)이라는 곳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다. 그리고 1792년 8월 29일에 이 곳 워렌에서 이 집안의 일곱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나 두 살 때부터는 이사를 해

서 뉴욕으로 옮겨갔는데, 불타버린 지역(burned over district)으로 알려진 뉴욕의 중심부에서 자랐다. 그 지역은 ‘부흥의 불길’(revival fires)이 자주 타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

피니가 16세 때인 1808년에 피니의 가족은 뉴욕주 제퍼슨 카운티(Jefferson County)의 헨더슨(Henderson)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니는 이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교사로서 일을 했다. 20세 때에는 원래의 고향인 코네티컷주의 워렌(Warren)으로 돌아와서 삼촌 집에서 일하는 한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가 가고자 계획했던 대학은 예일 대학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일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니가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일 출신의 교사(preceptor)에게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피니가 예일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그의 회고록(*Memoris of Rev. Charles G. Finney*)을 보면, 그의 교사는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피니 보고 예일대에 가지 말라고 조언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피니에게 말하기를, 예일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려면 총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2년이면 그러한 공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을 예일에서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피니에게 말했다는 것이다(Finney, 1876: 5). 피니는 어쨌든 예일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 교사가 주는 과제를 받아서 공부했다. 예일에 진학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학비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1818년에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뉴욕주 제퍼슨 카운티의 아담스(Adams)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학생으로서 들어가서 Benjamin Wright라는 변호사로부터 도제식으로 법률 공부와 실무를 익힌 다음, 2년 후, 즉 1820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피니는 그러한 법률업무에 종사하려는 계획을 갖고서 뉴욕 북부지역(upstate New York)으로 왔다(Dayton, 1976: 16).

피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며 살아가는 젊은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니의 외손자이자 전기 작가인 윌리엄 코크란(William Cochran)에 의하면, 피니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신체적으로도 크고, 그리고 지성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Cochran, 1908: 13). 피니는 교사와 변호사로서의 직업들을 갖고 있었다. 피니의 초기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과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약 3년 정도 활약하였다. 피니는 약 188cm의 키를 갖고 있었고, 약 83kg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다. 또한 피니는 그의 교사 첫 월급으로 첼로를 구입했다(Miller, 유양숙 역, 1981: 8).

2. 회심과 부흥사 사역

그렇게 법률가로서 그러저럭 잘 진행하고 있던 차에, 피니는 자신이 보고 있는 법률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보면서, 그러한 법률 서적들을 좀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동기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약 2~3년에 걸친 기간 동안 꾸준히 성경을 탐독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피니는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심한 영적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그는 1821년 10월 10일, 회심하기에 이른다. 처음으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그 직후에 피니는 자기에게 소송을 의뢰하러 온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사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건을 맡아서 당신을 위해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Deacon, I have a retainer from the Lord Jesus Christ to plead his cause and I cannot plead yours.)(Dayton, 배덕만 역, 2003: 47).

결국 피니는 스물아홉 살에 신학교육 과정을 비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조지 게일(George W. Gale) 목사 밑에서 개인적으로 신학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안수받았다. 즉, 장로교인이자 변호사였던 피니는 1821년에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후 신학을 연마하여 드디어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특히 그는 처음에는 그가 변호사로서 일했던 뉴욕 북부지역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후 뉴욕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1825년 모호크 밸리(Mohawk Valley)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였다. 피니는 부흥회에서 ‘새로운(회개의) 방법’(New Measures)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피니 부흥사는 인간적인 억지 수단을 사용한다”며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직면하게도 되었다(김영재, 2005: 642).

피니는 1830년대 초까지 뉴욕은 물론이고 보스턴과 더 나아가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1835년에 『부흥론』(*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을 썼는데 이 책은 그 후 125년이 지난 1960년에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 의해서 재출간되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책을 ‘미국 문화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힘’이라고 평가하며 이 책의 재출간을 결정했다. 1830년대의 초반까지 피니는 여러 지역, 예를 들면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1835년에 새로이 건립되어 학기를 시작한 오하이오의 오벌린 대학교(Oberlin College)는 피니를 신학 교수로서 초빙하였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학교의 설립자가 파산하게 되어 학교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피니의 저서가 많이 판매되어 그러한 재정적 힘으로 피니가 학교를 맡아서 일하게 되었다. 1851년에는 대학의 제2대 총장으로서 1866년까지 봉직하였다. 피니는 그의 생애의 나머지를 거의 이곳 오벌린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렀다. 피니는 1875년에 오벌린에서 사망하였다.

IV. 찰스 피니의 부흥론 - ‘방법론’(how)의 부흥론

피니의 부흥론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책 『부흥론』(*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 외에도 그의 『조직신학』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도 있으나, 역시 그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저술한 『부흥론』이 그의 부흥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도 충분하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22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든 목차를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피니의 진정한 부흥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피니의 참된 부흥관 내지는 부흥신학을 완전하고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피니의 저작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니의 부흥론을 밝혀내 감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피니의 글을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피니의 부흥론 교재가 얼마나 문자적으로, ‘방법,’ 그리고 ‘수단’이라는 단어와 어휘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피니의 저작물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how), ‘방법,’ ‘수단’들이라는 문자적 자료들을 추출해 냄으로써 그의 부흥론이 ‘어떻게’(how)라는 부흥의 방법론을 서술하는 일에 치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1장 -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What a revival of religion is)

피니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는 ‘사람’의 일이다(Finney, 1868: 9).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때에 이루시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이다. 피니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 부흥은 이적이 아니다(Finney, 1868: 12). 부흥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이적도 아니고 이적의 영역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부흥이란, 순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방법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철학적 결과이다(Finney, 1868: 12). 피니에게 부흥이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 소산임을 알 수 있다. 피니에게는 부흥이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팍의 결과물이다. 정해진 방법들을 잘 사용하면 그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부흥도 당연히 정해진 방법들을 잘 사용한 결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Finney, 1868: 13).

피니는 원인과 결과라는, 마치 자연과학에서의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듯이, 부흥이란 일정한 법칙을 잘 알고만 있으면, 동일한 결과를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 활동이다.

§ 2장 - 부흥이 예상되는 시기를 아는 방법 (When a revival is to be expected)

어떻게 부흥이 예상되는 시기를 알 수 있을까? 피니에 의하면 신자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부흥을 예상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한다. 즉, 곧 부흥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신자들이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은 참된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서 두 손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곧 보게 될 것이다(Finney, 1868: 27). 어떻게 부흥이 오는가?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온다. 신자들이 기도의 영을 소유할 때 온다. 특별히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목사의 마음이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리고 그 부흥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일할 때, 부흥은 온다.

§ 3장 -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How to promote a revival)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신자들의 마음 받을 기경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Finney, 1868: 3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 받을 기경할 수 있는가?(How it is to be performed)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원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생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 중의 한 면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되는 것이다(Finney, 1868: 36). 즉, 피니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종함으로써 부흥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인위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가?(How is the fallow ground to be broken up)라는 항목에서 피니는,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함으로써 그 대상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피니는 여기서 심지어 심리학적인 분석과 성찰을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심리적 상태를 잘 활용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피니이다.

§ 4장 -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Prevailing prayer)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꼭 필요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은 ‘기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신다(Finney,

1868: 48). 피니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기도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본다.

§ 5장 - 믿음의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The Prayer of Faith)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응답을 받는 방법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니가 보기에 믿음은 그저 예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즉, will not하기 때문에 can not인 것이다.

§ 6장 - 기도의 영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Spirit of prayer)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How shall we get this influence of the Spirit of God?)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 7장 - 성령의 충만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이 된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외식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냉랭하고 성의가 없게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끝내는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 8장 - 기도회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 (Meetings for prayer)

기도회를 인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도 모임을 가질 때, 인도자가 그 모임의 목표나 개최 이유를 대변하기에 적절한 짧은 성경 구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 구절을 선택해서 읽는 방식으로 그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Finney, 1868: 120).

기도회 시간 중에, 장시간의 침묵이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의 침묵이 흐르면, 사람들이 잠נם을 갖게 된다. 또 기도회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든다. 너무 장시간의 침묵은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기도 모임의 분위기를 차갑고 활기 없게 만든다.

§ 9장 -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데 사용될 '수단' (Means to be used with sinners)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와 정반대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불신자, 즉 어떤 죄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죄인이며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그 말하는 태도가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피니는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에 있어서 단지 언어적 기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달자의 전달 태도를 방법상의 주요한 요소로 본다. 즉, 겸손하고도 진지한 태도의 방법과 수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10장 -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얻는 방법 (To win souls requires wisdom)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 논하려는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한없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방법’(means)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려는 데 있다(Finney, 1868: 149). 피니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룬다. ①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The manner of dealing with careless sinners). ②죄를 각성한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The manner of dealing with awakened sinners). ③ 죄를 깨닫는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The manner of dealing with convicted sinners).

§ 11장 -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어 성공하는 방법 (A wise minister will be successful)

피니에게 있어서의 이 ‘지혜’(wisdom)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법,’ ‘수단’과도 같은 것이다. 이 지혜를 활용하고 써야 하듯이, ‘방법’과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어떻게’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지혜, 즉 ‘방법’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피니는 말한다. 목회자는 ‘어떻게’(how) 교회를 일깨우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Finney, 1868: 167).

§ 12장 - ‘어떻게’ 복음을 설교할 것인가? (How to Preach the Gospel)

피니에 의하면,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한다. 잘하려면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방법’을 잘 익혀 둘 필요가 있다. 부흥의 역사도 설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 13장 - '어떻게' 교회가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가? (How churches can help ministers)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계속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Finney, 1868: 213)이라는 소제목 하에, 피니는 목회자를 교회가 돕는 ‘방법’에 관해서 말한다. 피니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본다. 피니의 입장에서는, 부흥이란 목회자와 교회 전체의 협동적 사역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14장 - 부흥을 일으키는 몇 가지 ‘수단들’ (Measures to promote revivals)

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흥회를 계획할 때, 교인들의 형편을 잘 고려해야 한다. 즉,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기에 그때가 적기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Finney, 1868: 249). 가끔 부흥 집회가 일반 세상의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시기(business seasons)에 열려서, 교인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사업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부흥회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Finney, 1868: 251). 일반적으로, 부흥회는 한 사람의 동일한 목회자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가끔 부흥회 기간에 날마다 다른 목사가 돌아가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한 부흥회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부흥회를 진행할 때는, 교인 개개인의 자기 가정의 의무나, 개인기도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빈번하게 모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Finney, 1868: 251-252). 피니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시간적 환경이 허락할 때를 잘 고르라고 조언한다.

§ 15장 - 부흥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법 (Hindrances to revivals)

피니는 부흥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소해 보이고, 무시해도 좋아 보이는 미미한 사항들 때문에 부흥회가 방해받고, 그 결과 부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엄히 경고하고, 경계한다.

§ 16장 - 연합의 필요성과 효력 (Necessity and effect of union)

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과 참된 영성을 촉진시키는 ‘노력’(effort to promote religion)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Finney, 1868: 294). 피니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 17장 - 죄인들을 위로하는 거짓 위안들 (False comforts for sinners)

피니는 계속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교인들을 다루고 상담하고 권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상의 노하우(know-how)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니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목회자의 부흥 방법 숙달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18장 - 죄인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방법 (Directions to sinners)

피니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나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실제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죄인이 회개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란, 다름이 아니고, 회심 대상자에게 회심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그 회심자는 자신의 마음과 이성 속에서, 그러한 즐거움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회심의 주저를 떨쳐버리고, 확고하게 회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 19장 - 회심자들을 올바르게 교훈하는 ‘방법’ (Instructions to converts)

피니는 다음과 같이 제19장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제18장은 죄인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는 것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 강의의 연속으로서, 새로이 회심하게 된 사람들이 취급되어야 할 ‘방법’(manner)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또 그들에게 주어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이번 제19장에서도 역시 피니는 ‘방법’(manner)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피니에게는 부흥이 ‘방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그 방법을 잘 활용해서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장 -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전하는 주의사항 (Instruction of young converts)

피니는 여기서 ‘어떻게’(how) 새로운 회심자들이 교회에 의해서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말한다 (Finney, 1868: 402).

§ 21장 - 다시 타락의 자리로 되돌아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Backsliders in heart)

피니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련의 강의를 거의 끝마침에 있어서, 다시 타락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하면서 그는 동시에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how to)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한다(Finney, 1868: 412).

§ 22장 -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 (Growth in grace)

피니는 이 마지막 장인 제22장의 앞부분 제4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조건들’로서 13가지를 들고 있다. 그 핵심은 신자의 삶의 각 분야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피니의 책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부흥론은 부흥의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V. 찰스 피니와 법학

1. 법학도 피니 - 법률 교과서의 영향

피니는 법률훈련을 받은 법률가였다. 당연히 그는 법률 교과서로 훈련받았다. 당대의 표준적 법률 교과서는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1723-1780)이 저술한 책이었다(Weddle, 1985: 54-55). 블랙스톤은 영국의 법학자요, 판사요, 보수적 정당이었던 토리당에 속했던 정치가였다. 블랙스톤이 175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법 강의를 시작한 것이 영국법 교육의 시작이다. 블랙스톤이 남긴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는 영미법에 관해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교재이다. 이 주해는 특히 바다 건너 미국의 법률가들에게 환영받아서, 비록 주해서이지만 마치 법전처럼 여겨질 정도의 권위와 인기를 누린 책이다. 미국의 영국법 계수는 블랙스톤에 의하는 바가 컸고, 연방 헌법 및 각 주의 헌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iles, Dagley, & Yau, 2000: 46, 56-58).

피니가 살았고 활동했던 19세기의 미국에서 법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19세기 미국은 이제 막 새로이 건설된 신생국가로서, 서부로 그리고 또 서부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서부 개척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개척자들은 거칠다. 그러나 그러한 개척 시대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착 시대가 오게 된다. 정착자들은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욕망을 제어하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률을 만들어야 했다. ‘개척자’들에게는 법률이 거주장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정착자’들에게는 법률이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정착자들은 법률의 중요성을 잘 인식했고 법률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페리 밀러가 19세기의 미국을 지배했던 정신, 즉 법률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블랙스톤은 영국 법률 시스템에서 뉴턴이 물리학의 세계에서 행한 것만큼 그렇게 큰일을 했다(Weddle, 1985, 8). 블랙스톤이라는 이름은 미국 독립(1776년) 후의 약 1세기 동안 거의 모든 미국의 법률 교과서에 편재해(ubiquitous) 있었다(Weddle,

1985: 55).

자연스럽게 피니는 법률 공부할 때 블랙스톤의 교재를 사용하여 공부했다. 그래서 당연히 피니가 법률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당시의 법률 교과서를 집필했던 윌리엄 블랙스톤이었다. 실로 영국 사람 블랙스톤이 저술한 법학 교과서 『영국법 주해』는 1775년경에는 영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 출판부 수가 인쇄되고 판매되었다(Miller, 1965: 115).

피니가 받았던 법률가 양성 과정이란, 대체로 도제(apprentice)식의 교육으로서, 이것은 학구적으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단순히 기존의 판사나 변호사의 지도로 약 2년 내지는 3년간의 실습, 즉 어깨 너머로, 법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소송을 보면서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다(Weddle, 1985: 51). 피니 당시의 법률가가 되기 위한 도제 시스템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달리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단 하나의 표준, 즉 블랙스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Miller, 1965: 158).

법률가로서의 피니에 대한 책, 『복음으로서의 법』(*The Law as Gospel*)을 출판했던 데이비드 웨들은, 피니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칼뱅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각을 가졌었다기보다는, 법률가인 휴고 그로티우스나 ‘블랙스톤’의 렌즈를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집중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Weddle, 1985: 101)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웨들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피니가 저술한 글들과 블랙스톤의 글들 사이에는 그 사상과 용어가 유사한 점이 분명하고 또한 수없이 많다(Weddle, 1985: 46).

블랙스톤의 주요한 사상은 바로 이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로, 인간은 자신의 이성(reason)을 통해서 법률의 요구를 ‘이해’하는(understand) 것이 ‘가능하기’(can) 때문이다(Through reason, they ‘CAN’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law.). 또한 둘째로, 인간에게는 그 자신의 의지(will)를 통해서 법률의 요구를 ‘이행’하는(obey) 것이 ‘가능하기’(can) 때문이다(With their will, they ‘CAN’ obey it.)(Knight, 2014: 82).

이러한 “인간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can)”는 사상은 피니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언제나 법률가였다. 그가 부흥사로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법률가였다. 즉, “인간은 할 수 있다(can)”는 것이 그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할 수 있다(can)’는 사상에서 논리적으로 그다음 순서로 따라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how) 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피니는 철저하게 블랙스톤의 이러한 ‘할 수 있다(can)’는 총론적인 법철학적 사고에 이끌렸고, 여기서 그의 각론, 즉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how)이라는 것을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었다. ‘할 수 있다(can)’는 총론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how)’라는 각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피니에게 부흥은 인간이 방법만 잘 사용하면 일으킬 수 있는 것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요,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피니는 부흥의 그 구체적 발생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피니의 부흥론은 ‘기술’(technique)이요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피니가 판단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can not’(예정론에 의하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will not’(스스로 택하여 믿음을 갖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들이, 또 부흥사들이 그들 회중을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믿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즉 ‘will not’하는 사람들을 ‘will’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피니가 복음을 법률적으로 이해한 것은 외형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도 피니는 복음을 법률적으로 이해했다. 피니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따라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죄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런 피니에게 전통적인 칼뱅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신학은 별로 쓸모가 없었다. 피니의 법률 정신에서 보기에, 인간이 자신의 결단으로 지은 죄가 아닌 원죄(original sin)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것이다. 인간은 단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한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전혀 없는 것이어서, 인간은 오로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처럼 피니의 신학은 철저하게 법률적 신학이었다. 피니가 공부한 형법에서 범죄성립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끝으로 ‘책임’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피니는 그의 부흥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나, 신학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의 법학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법학과 함께 부흥사의 길을 갔다.

2. 변호사 피니 - ‘어떻게’(how) 승소할 것인가?

피니는 자신이 변호사란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의뢰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승소하는 것만이 그의 제일 관심사이다. 변호사는 육하원칙 중에서 오로지, ‘어떻게(how)’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묻고 또 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what)’인지를 묻지 않

는다. 또 ‘왜(why)’ 범법자가 기소당해야 하는가를 묻지도 않는다. 오로지 변호사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의뢰받은 이 소송에서 이겨서 의뢰인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궁리하는 것이 그 본분이요, 본업이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고객에게 끼친 기쁨에 대한 대가로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즉 소송 의뢰비, 착수금 내지는 성공보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생애 전반(全般)에 항상 그러한 법률가라는 직업적 정신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피니였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장이었고 법률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evidence)에 관한 전문가였던 존 헨리 위그모어(John Henry Wigmore)는 전문증거배제원칙에 대해 말하기를, 배심원 재판 다음으로 미국 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아직도 존중되는 원칙이자 전 세계 실용법 체계 절차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Strong, ed. 1999: 372)라고 했다. 전문(傳聞)증거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 들은 증거를 말한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전문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은 증인을 상대방이 대면하고 대질 신문할 기회를 박탈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증거를 배제해 버리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이 전문증거배제원칙은 미국에서 존중되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 법정에서 반대 견해의 변호사가 그들 각각의 관점 또는 고객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나 논쟁을 제시하는 과정)의 하나로써, 진실 전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슈의 진실만을 밝히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진실은 편협하거나 변호사의 편의에만 부합되어 선별된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당사자주의는 양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대결이었던 초기 재판 시스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니가 법률가로서 생활하던 시절에도 당연히 그러한 기법과 철학은 통용되고 있었다. 이는 정의에 도달하는 최고의 방법은 잘 정비된 법정 절차에 따라 양측 변호사가 싸우면서 가능하다는 이론에 근거한 시스템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증거발견원칙의 동등한 기회를 가지려고, 변호사들은 증거수집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피고 측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않도록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다(Goldstein, 김경호 역, 2008: 51). 그리고 그것은 존 헨리 위그모어가 ‘지금까지 발명된 진실 발견을 위한 최고의 법률 장치’(Gillers, 2004: 2)라고 부르는 대질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사자주의는 UCLA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인 마이클 아시모(Michael Asimow) 교수의 말처럼, 법정에서 양측 변호사의 설득 기술과 경험, 정보원이 최소한 어느 정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Asimow, 2006: 4). 따라서 아시모 교수는, 당사자주의 모델에서 변호사가 배심원들이 ‘진실’을 찾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에만’ 부합되게 행동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배심원단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덕망 있는 변호사보다는 ‘기술’(방법, how) 있는 변호사가 승소하는 것이 재판의 현실이다. 변호사의 역할은 정의를 찾거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전부이다(Asimow, 2006: 5). ‘기술,’ ‘방법,’ 그리고 ‘수단’이야말로 변호사가 직업상 숙달해야 할 영역들이다. 이렇듯,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 즉, ‘무엇’(what)의 파악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how)하여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그 직업적 속성이다.

피니는 변호사였다. 그는 의뢰인을 위해서 소송에서 이길 ‘방법’(how)만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피니는 자신의 고객을 위해 ‘어떻게’(how)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었다. 피니에게는 이것이 그의 부흥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나타났다.

3. 법률가 출신 부흥사

피니는 부흥사가 된 이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기독교 스타일의 부흥회 인도 방식을 택하지 않고, 법률가적 ‘방법’을 부흥회에 적용했다.

1) 어투

피니는 일반적인 죄인들을 언급할 때, ‘그들’이라고 삼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정에서 피고나 원고를 부를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 회중들을 쳐다보면서 ‘당신’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행위는 청중들을 당황하게 했다. 또 대중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죄인은 그 죄인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설교자는 설교단에서 조심스럽게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피니는 과감하게, 또는 도발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특정하여 불렀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추상적으로 조심스럽게 또는 애매하게 당사자를 지적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정확하게 피고나 원고 또는 그외에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을 특정하여 분명하게 호명하거나 지적한다.

2) 직선적 태도와 능숙한 언변

피니는 법률가 특유의 직선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부흥회를 인도했다(Duewel, 안보현 역, 1996: 109). 피니는 항상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말했다. 변호사인 그는 즉석에서 유리한 판정을 확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건을 변호하듯이 설교했다(Duewel, 안보현 역, 1996: 113). 실제로

남은 평생 그가 선포한 설교형식 속에는 그의 법률가다운 흔적이 배어 있으며,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거둔 성공은 상당 부분 변호사로서 터득한, 막힘없이 나오는 언변, 그리고 직접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토론 기술에 기인한 것이었다(Hardman, 1994: 148-149).

3) 원고 없는 설교

피니는 원고설교를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형사 법정에서는 눈과 눈을 마주치며 피고나 배심원이나 참고인, 피의자, 청중 혹은 검사의 눈을 쳐다보면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말한다. 물론 메모를 참고하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간간히 메모를 참고해서 말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사의 원고설교처럼 변론 내내 원고를 보면서 지루하게 읽어 내려가지는 않는다. 피니는 설교자가 원고를 보면서 진행하는 설교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로 기록된 것에 의존하는 설교는 설교자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순간순간 갖게 되는 진정한 감정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설교자의 신체 동작과 몸짓의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예전의 지루하고 경직된 원고설교형식에 익숙해져 있던 회중들에게는, 피니가 설교할 때 회중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법정에서의 방식’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Hardman, 1994: 149).

4) 쉬운 어휘와 설득하는 자세

피니는 말하기를, 설교자들은 청중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단에서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일상에서 쓰는 회화를 사용해야 하고, 변호사처럼 설득하려는 자세로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교에서 대중적인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개 목사들은 설교단에서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성경의 원어들을 사용하면서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변론은 피고나 원고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더더욱 일반 시민들이 모인 그룹인 배심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피니는 어휘나 용어를 일상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교가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지 않아야 함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었다. 변호사는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해야 한다. 설교도 마찬가지다. 피니는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을 설득하려는 자세로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니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가 되어야 원하는 결과 즉 회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5) 변호사의 수사학과 배우를 본받아라

피니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변호사와 배우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처럼 역동적으로, 또 잘 준비하여 설교할 것을 주문했다. 소설이나 극작가가 쓴 극본 혹은 대본의 ‘살아 있는 실체’로서 청중들에게 그 원 작가의 정신과 의미를 표현해주는 것이 연극배우들의 할 일이다. 부흥회 설교자들도 그와 똑같이, 성경의 원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의 ‘살아있는 실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피니는 주장했다. 그래서 부흥회 설교자들은 배우들 또는 수사적 기법으로 무장한 변호사를 모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피니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그의 설교 방식은 힘이 있었고, ‘변호사’의 논리를 검비하고 있었다(Dayton, 1976: 16).

6) 보상과 배상

신자들은 회개했다는 증거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실제적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피니는 강조했다. 그 결과로 피니의 부흥 집회 기간에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회심자들의 입으로 자백 되었고, 실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 실제로 변상 되는 데 쓰였다. 이러한 것들이 피니의 부흥론의 실체였다. 법률적 다툼에서 그저 마음만으로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피니에게 익숙했던 법정에서의 장면인 재산상의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법률적 실천이 교회당의 부흥회로 넘어온 것이다.

7) 설교 중에 질문하기

피니는 부흥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단 가까이 앉은 사람들에게 종종 질문을 하면서 설교했다.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체 회중들도 일단 질문이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분위기가 더 진지해질 수 있었다. 피니가 설교 중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가 마치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설교 방법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었다. 그동안 높은 설교단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만 했던 전통을, 피니는 새로운 방법을 써서 바꾸었다. 피니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가 증인을 비롯한 여러 소송 관계인들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하는 법정의 풍경을 부흥회로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이다.

8) Altar Call(제단 초청)

피니는 부흥회 예배 순서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영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하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을 altar call이라 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표출하게 하는 요청이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빌리 그래함의 부흥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altar call인데, 이 altar call을 대중화시킨 원조가 바로 피니였다. 법정에서는 맨 앞쪽에 판사가 자리 잡고 있다. 피고와 원고, 변호사, 검사, 그리고 배심원들이 모두 법정의 맨 앞에 앉아있는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까이에 위치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 이 순서에 담긴 철학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밝히듯, 여기 부흥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자신의 헌신하려는 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VI. 결론

피니로 하여금 부흥에서 ‘방법’(how)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영향을 끼친 요인이 오로지 변호사로서의 경험이라는 법률적 요인만은 아닐 것이다. 법과 더불어 신학적인 요인도 있다. 피니는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았다. 장로교는 칼뱅의 사상을 따른다. 그런데 피니는 신학적으로는 원래의 칼뱅주의에서 후퇴한 아르미니안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다. 칼뱅의 신학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주의에 의하면 부흥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즉 그분의 예정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흥이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에 반해서 아르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강조한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예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따라서 아르미니안적인 신학에서는 부흥이 인간의 의지를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즉, 부흥이란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피니가 아르미니안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방법-부흥론’의 산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면 관계상, 신학적인 요인 아르미니안주의가 피니의 ‘방법-부흥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법률적인 요인이 ‘방법-부흥론’에 끼친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피니의 이러한 방법-부흥론에 대해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피니의 이러한 방식은 전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비판이 따랐다. 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를 따르지 않고 칼뱅주의적 신학을 따르는 청교도 전통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피니

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았다. 또 피니가 취했던 새로운 방법(New Measures)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여자가 대중 앞에 증언(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할 심방 그룹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연장 집회’(몇 주일 동안 매일 밤 열리는 장기 집회)로 정규예배를 대체하는 것 등이 비판받았다.

피니의 이 ‘방법-부흥론’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자체의 소중함보다,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나 크기를 가장 큰 덕목이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어떤 한 개인의 소중한 회심 자체보다도 그러한 회심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효율성에만 강조점을 두고 평가하는 위험성을 가진 부흥론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피니는 법률가로 있다가 회심하게 되었다. 그때, 피니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자신이 ‘렇게도 좋아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Wessel, 양낙홍 역, 1984: 27). 피니는 정말로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직업이 좋았다. 이 말은 피니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익숙하고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피니는 그동안 법률가로서의 일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왔으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법률가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자신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고 고백했다(Wessel, 양낙홍 역, 1984: 27). 그 정도로 피니는 법학도로서,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의 자기 일에 익숙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피니는 싸우는 방법에 익숙한 싸움의 고수였다.

이러한 과거 법률가로서의 피니는 현재 신학에 넘어와서도 그 법률가적 실용성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잃어버린 법률가로서의 자리를 부흥사의 강단에서 찾으려 했다. 피니는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법률가로서의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법률가적 태도, 즉 legal mind는 버릴 수 없었고, 이것을 보이지 않게 더 강하게 무장했다. 피니는 자신에게 소송에 대한 의뢰가 쇠도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피니는 회심 후 한결같이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사실 피니는 그 소송의 다툼을 처리하는 장소를 바꾼 것뿐이었다. 세속법정에서 예배당으로 전투지를 바꾸었던 것이다.

피니는 변호사로서, 그의 직업은 이 새로 태어난 젊은 사회인 미국이 혼란과 소외에서 벗어나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한 역할에 대한 사명이, 첫째, 그의 목회를, 복음을 변호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둘째, 그의 부흥회를, 법정에서의 기술(courtroom techniques)을 적용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셋째 그의 신학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해설(exposition)하는 것으로 만들었다(Weddle, 1985: 102).

피니는 회심 이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변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피니가 배우고 익힌 법률적 사고와 방법론은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그의 설교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김대진, 2016: 150-155). 피니는 겉으로는 부흥사의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속으로는 법률가의 몸을 계속 갖고 있었다. 피니는 부흥사의 옷을 입은 변호사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경호 역 (2008). **언론과 진실-이상한 동거**.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im, K. H. (2008).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Seoul: Communication Books. Trans.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Evanston, USA: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김대진 (2016). **부흥, 찰스 피니에게 듣다**. 용인: 도서출판 목양.
- [Kim, D. J. (2016). *Revival, From Charles Finney*. Yongin: Mokyang Publishing]
- 김영재 (2005). **기독교 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 [Kim, Y. J. (2005). *A History of the Church*.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박용호 (2012). **미국교회 부흥신학**. 서울: CLC.
- [Park, Y. H. (2012). *Revival Theology in America*. Seoul: CLC]
- 배덕만 역 (2003). **다시 보는 복음주의의 유산**. Dayton, 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서울: 요단출판사.
- [Bae, D. M. (2003).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Seoul: Jordan Publishing. Trans. Dayton, 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Peabody, USA: Hendricson Publishers]
- 안보현 역 (1996). **부흥의 불길**. Duewel, W. L. (1995). *Revival Fire*. 서울: 생명의말씀사.
- [Ahn, B. H. (1996). *Revival Fire*.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Duewel, W. L. (1995) *Revival Fire*. Grand Rapids, USA: Zondervan Publishing]
- 양낙홍 역 (1984). **찰스 피니의 자서전**. Wessel, H. (편저) (1977).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G. Finney*. 서울: 생명의말씀사.
- [Yang, N. H. (1984).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Finney*.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Wessel, H. (Ed.). (1977).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Finney*.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 유양숙 역 (1981). **찰스 피니의 생애**. Miller, B. (1969). *Charles Finney*. 서울: 생명의말씀사.
- [You, Y. S. (1981). *The Life of Charles Finney*. Seoul: The Word of Life Press. Trans. Miller, B. (1969). *Charles Finney*. Bloomington, USA: Bethany House]
- Ahlstrom, S. E. (1972). *A Religious History of American People*.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Asimow, M. (2006). "Popular Culture and the American Adversarial Ideology." Paper prepared

-
- for symposium, "How Popular Culture Teaches Americans about the Civil Justice System." Loyola School of Law.
- Cochran, W. C. (1908). *Charles Grandison Finne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Dayton, D. W. (1976).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Drummond, L. A. (1985). *The Life and Ministry of Charles G. Finney*.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 Edman, V. R. (1951). *Finney Lives On*. Wheaton, Illinois: Scripture Press.
- Finney, C. G. (1868).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 Finney, C. G. (1876). *Memoirs of Rev. Charles G. Finney*. New York: A. S. Barnes & Company.
- Gillers, S. (2004). "On Knowing the Basic Rules of Advocacy." *New York Times*, February 8, 2004. "Week in Review."
- Hambrick-Stowe, C. E. (1996). *Charles G. Finney and the Spirit of American Evangelicalis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 Hardman, K. J. (1994). *Seasons of Refresh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Knight, H. H. (2014). *Anticipating Heaven Below*. Eugene, OR: An Imprint of Wipf and Stock Publishers.
- McLoughlin, Jr. W. G. (1955). *Billy Sunday Was His Real Na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es, A. S., Dagley, D. L. & Yau, C. H. (2000). Blackstone and His American Legacy. *Australia & New Zealand Journal of Law and Education*, 5(2), 46-59.
- Miller, P. (1965). *The Life of the Mind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Books One through Thre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Moyer, E. S. (1951).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Chicago: Moody Press.
- Noll, M. A. (1985). Common Sense Traditions and American Evangelical Thought. *American Quarterly*, 37(2), 216-238.
- Orr, J. E. (1965). *The Light of the Nations: Evangelical Renewal and Adva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Eugene, Oregon: Wipf & Stock Publishers.
- Strong, J. ed. (1999). *McCormick on Evidence*, (5th ed.), St. Paul, MN: West.
- Weddle, D. L. (1985). *The Law as Gospel*. 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Inc.

찰스 피니의 부흥론과 법학

The Revivalism of Charles Finney and Law

이 동 준 (연세대학교)

논문초록

찰스 피니는 그의 부흥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방법론적이었다. 그는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다. 그는 부흥에 대해 교의학이나 교리신학적으로 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니의 부흥론은 철저하게 실용적이지요, 실제적이지요, 그리고 방법론적이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는 부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는 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에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가 참 문제였다.

피니가 이러한 실용적이고 방법론적인 부흥론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의 법률가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피니는 1818년에 법률에 입문을 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법학 서적을 탐독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많은 의뢰인들의 소송을 맡아서 대리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승소를 위한 방법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 그는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승소의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부흥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러한 법률가 시절의 방법론 추구 습관과 태도가 여전히 그의 부흥론에도 녹아있게 되어, 결국 방법론적 부흥론을 갖게 되었다. 그의 '법률가 정신(legal mind)'은 그의 부흥신학 속에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주제어 : 찰스 피니, 제2차 대부흥운동, 부흥론, 법학, 부흥 방법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에서 인용 출처는 APA 방식으로 표시하며, 본문 내 직접 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하고, 한글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명,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여백 30으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⑥ 저자가 2인일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 Lee, 2008: 20)

⑦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⑧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이윤리, 2007b: 27)

⑨ 영문으로 된 원서의 한글 번역서일 경우 (원저자의 성, 번역자의 성명, 번역서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Volf, 김철학 역, 2010: 12), (Volf, 김철학·이희계 역, 2010: 12), (Volf, 김철학 외 역, 2010: 12)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은 영문으로 하고 내용은 한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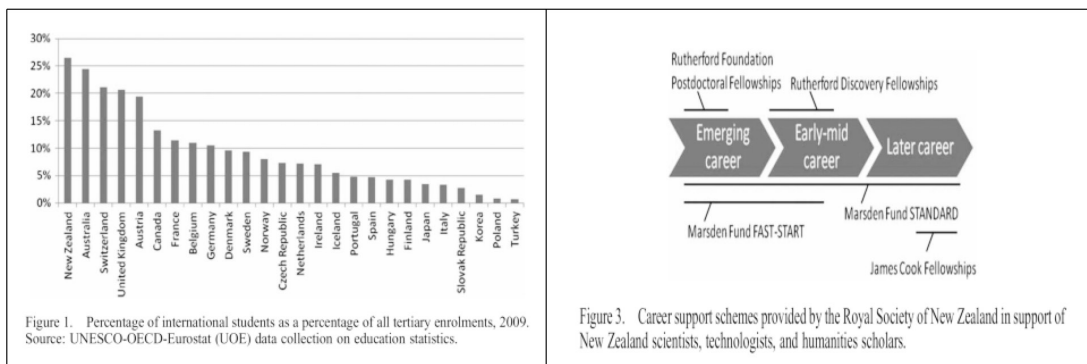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논문:

Todd, S. & Haydon, G.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③ 번역서:

Meargham, P., Weimer, D. & Vining A.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Kim, J. S. & Kwon J. S.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

- 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

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경민 (전남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신응철 (송실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4호 (통권 93호), 2022년 12월호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